

'94 2/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94 2/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4년 7월 20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

서울시 종로구 외룡동 산 3-25

(02)734-4323, 735-8766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

目 次

I. 北韓 核問題 / 3

1. 安保理 議長聲明 採擇 및 IAEA 追加查察 / 3
2. 北韓 核燃料棒 交替 관련 國際制裁 局面 / 47
3. 北韓, IAEA 탈퇴 宣言 및 카터·金日成 會談 / 109

II. 南北 頂上會談 / 151

1. 頂上會談 豫備接觸 / 151
2. 實務節次 代表接觸 / 195

III. 北韓 金日成 死亡 / 209

IV. 社說·칼럼 / 229

1. 北韓 核問題 / 229
2. 南北 頂上會談 / 271
3. 脫北 伐木工 등 / 303

V. 南北 關聯動向 / 331

附 錄 / 433

I. 北韓 核問題

1. 安保理 議長聲明 採擇 及 IAEA 追加查察

安保理 對北 「의장성명」 채택

한달內 再사찰 수락 촉구

거부하면 결의案등 추가 조치

美·中근접의 南北非核化대화 계속도

【이영민 기자】李瑞圭·朴泰俊 後北平 회담 이후 安保理(UNSC)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한 것은 北韓의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南北韓 非核化 對北 安保理 결의案의 채택은 北韓의 핵사찰을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案을 채택했다. 양이브 한달內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세계일보 1994. 4. 2

- 〈安保理 채택 의장성명서 골자〉
- ▲ 핵 확산 방지 안전조치 중요
 - ▲ IAEA-北, 美-北 합의 환영
 - ▲ 핵 전용 여부 판정 못한 것 우려
 - ▲ IAEA 사찰 완료 허용 촉구
 - ▲ 사찰 완료 후 안보리 추가 보고
 - ▲ 南北韓 비핵화 이행 위한 대화
 - ▲ 안보리 계류·불이행면 再審

안보리는 北韓 핵무기 개발을 24일 안보리 회담 이후 사찰이후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결의案을 채택했다. 美·英·法·러시아·프랑스 등 4개 상임이사국과 단국적 사찰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中國의 주장이 반영된 문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1일 美·中·中國 이 모두 결의案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장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는데

성명서는 美·中·中國 3국의 협조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결의案은 15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93년 4월 8일자 안보리 결의案은 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24일 안보리 회담 이후 사찰이후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결의案을 채택했다. 美·英·法·러시아·프랑스 등 4개 상임이사국과 단국적 사찰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中國의 주장이 반영된 문건을 발의했다.

△NPT 탈퇴 후 유보결정 이후 7개 신고서 제출에 대해 IAEA의 사찰을 수락할 수 있는 94년 2월 25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94년 2월 15일 IAEA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핵 안전협정의무를 이행하고 NPT의 핵 확산 조항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IAEA 사찰을 수락할 수 있는 94년 2월 25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94년 2월 15일 IAEA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핵 안전협정의무를 이행하고 NPT의 핵 확산 조항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IAEA 사찰을 수락할 수 있는 94년 2월 25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94년 2월 15일 IAEA와 합의한 바에 따라 핵 안전협정의무를 이행하고 NPT의 핵 확산 조항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IAEA 사찰을 수락할 수 있는 94년 2월 25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北核관련 안보리議長성명 (중문)

안보리 94년 2월 25일 결의案은 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24일 안보리 회담 이후 사찰이후 후속 조치를 포함한 결의案을 채택했다. 美·英·法·러시아·프랑스 등 4개 상임이사국과 단국적 사찰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中國의 주장이 반영된 문건을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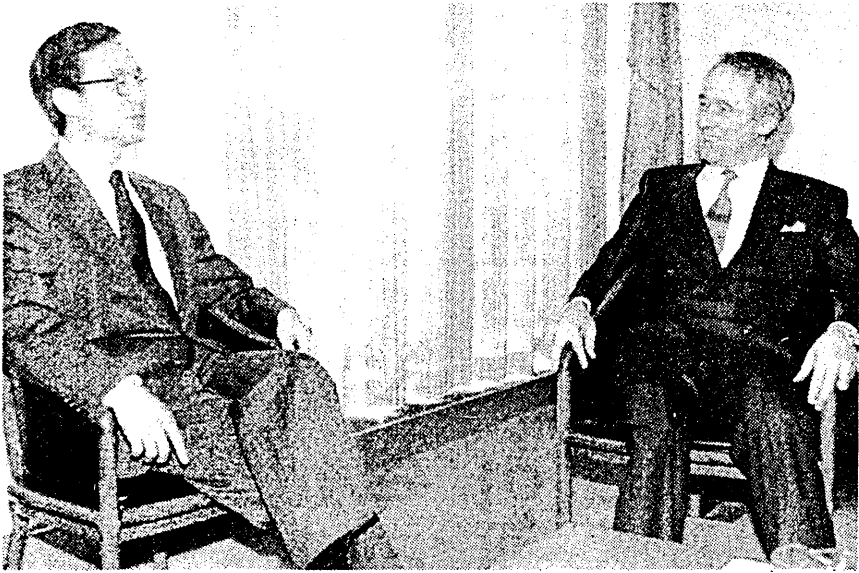
北核 국제共助 "고리연결"

安保理 「재사찰」 촉구성명 의미

유엔안보리 5국 영장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며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5국은 북한의 핵 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5국은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며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공에 북한선물채임금부여 北수용거부면 制裁로갈 명분

북한이 중국에 북한선물채임금부여를 요구하며,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북한에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선물을 주면 북한이 중국에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의장과 北核논의
韓界洲외무장관이 31일 장 비르나리 메리메유엔안보리의장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안보리 성명 美國의 시각

안보리 5국 영장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며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 5국은 북한의 핵 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면적 접근이 안된다면 핵 실험을 중단하라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북한과함 만장일치 사실상 결의안 효과 다중협상 재개촉구 「對話」기조에 부합

북한과함 만장일치 사실상 결의안 효과, 다중협상 재개촉구 「對話」기조에 부합.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면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안보리 議長성명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시키면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北核 국제압력 본격돌입



만족스런 中國대표
陳健 유엔주재 中國부대사가 지난달
31일 安保理 회의장에서 다른 회원
국 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유엔본부 AP聯)

文案내용과 우리政府 입장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西方측 中國동참위해 「형식」내용 양보

韓美 영향력 줄어 제재 등 어려움 예고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안보리(안리)가 4월 1일
상임 5국(영, 미, 소, 중, 러)
의 합의에 따라 안보리
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승인하고

「議長선명」 이후 韓·美 北核대응전략

韓美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AEA)의 재차 실시한 사실상의 이념적 접근은, 1991년 12월의 판방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韓美양국이 이 기간동안에 북핵대응전략을 재검토하고, 양국간에는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美 양국은 북한을 겨냥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정 등 국제적인 제재수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북핵대응전략을 韓美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한 달을 내로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합의는 양국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있다.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北자극 自制... 대화해결 "탐색"

대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실상의 금전 압박기중의 대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사실상의 금전 압박기중의 대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한배탄 中國활동... 돌파구 모색

에서 韓美양국정부의 핵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유엔안보리회의를 주재하는 동안에도 양국간에는 핵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이런 합동전략회의의 초점은 역시 북한이 앞의 IAEA의 사찰과 南北 특사교섭의 원천이고 고수 하되 이에 양국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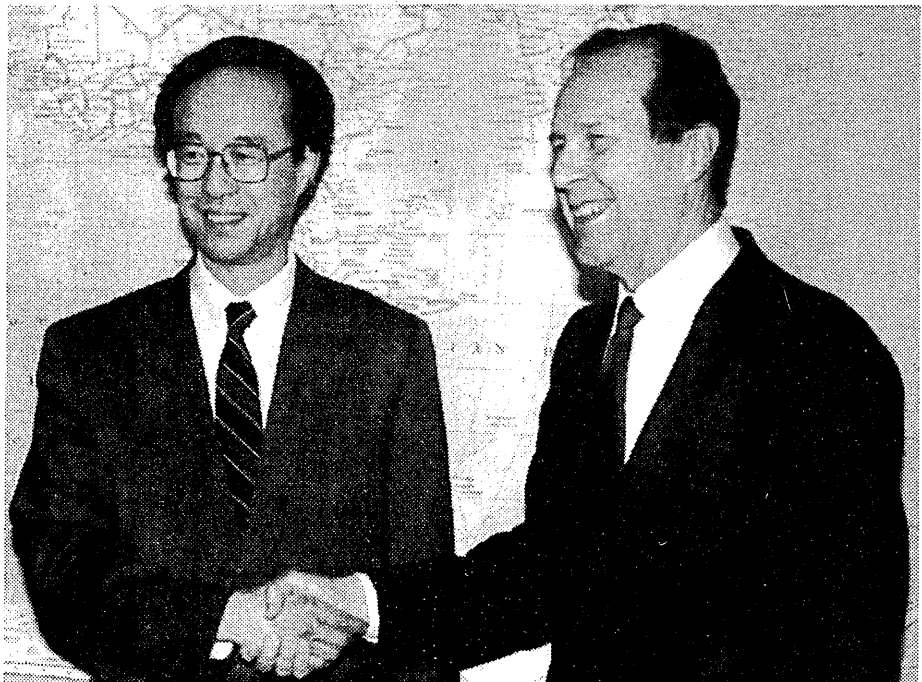
다만 北韓美3단계 회담의 합의는 전제조건인 IAEA의 사찰과 南北 특사교섭의 원천이고 고수 하되 이에 양국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관심을 끌고 있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을 지-포커스 스태프인들은 다룬 한 미합중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측 역시 북핵대응전략을 韓美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4년 4월 20일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차원의 일치를 결심했다. 파트너십을 위한 이 미 선전까지 완료된 만큼 이 간의 협력에 추소를 수 있을 것이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韓昇洲외무장관이 1일 워싱턴에서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과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聯合社>

라 고 강조했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핵」韓·美·日공조강조

金·호소카와 전화통화 “中國·러시아협조도 필요요”

【서울 31일路透통신】일본의 호소카와 총리(細川護国)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Clinton)은 3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韓美이간不容”

클린턴, 金대통령과 통화

“兩國협조바탕 핵해결”

【서울 31일路透통신】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3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일본 총리 호소카와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

【서울 31일路透통신】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3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일본 총리 호소카와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대통령·호소카와총리 통화요지

- 31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일본 총리 호소카와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호소카와 총리는 “북핵 문제는 국제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표단 31명이 10일 오후 10시 33분까지 33분간의 정례회담이 끝났고...

“사찰 수용되면 대화해결” 클린턴

韓·美정상 통화 주요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중국과 양국들 몇가지 지적을 주... 클린턴 대통령은...

中國도 北핵포기로 반대 모든조치 긴급 對韓협의

수업되고 생각할 것이다. 중 보영주가 위협사과도 강행... 클린턴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



金大中 대통령

미국도 대화를 통한 해 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클린턴 대통령은...

美, 北核저지 전쟁각오

패리國防 군사적 준비태세 명령

▽동아일보 1994. 4. 1

先制 공격이 안일일것

패트리어트大隊 추가과전도 검토

【워싱턴=海峽기자단】 워싱턴 패리 美국방장관은 30일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 만일의 군사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몇개월간 전쟁준비에 보다 더 유념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紙의 기자 및 편집인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한반도 전쟁발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포스트가 31일자에서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으나 우연의 여연 제재로 미국의 핵무기 증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북한이 이에 대응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패리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몇달내 핵탄두를 개발해 인접국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포스트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패리 장관은 미국의 군사대태세를 현재 취하고 있기때문에 적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추기지 않은 낮은 단계의 조치들과 적어도 몇개의 핵미사일을 이란에서 유엔의 경제제재 이후에 취할 보다 중대한 조치들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그는 항공기 부품과 정비원들이 지금 한국 일본 및 다른 지역들에 있는 군사기지의 파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의 배치 규모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의 이어 두 번째 패트리어트 대대가 미국의 대령이 지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美韓 양국이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외교적 노선을 분쇄하고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美지상군력을 확보하며 美한이 남침하면 하루만에 막대한 공포력으로 북한 지상군력을 신속히 추돌화 한다는 3단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에 추가査察촉구 "채찍"

패리美國防 「強硬 발언」 이어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강경 발언이 또 한 번의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패리 장관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군사령관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해져가는 美國內 여론 반영

“무기판매 겨냥 긴장 조성” 분석도

미국의 강경화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내의 군사적 분위기는 일어날 것인 듯하다. 패리 장관은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군사령관 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핵전쟁 군사판매를 상향분담할 의도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對北 새제의 계획 없다”

韓외무 위싱턴서 기자회견

【워싱턴=鄭碩福기자회견】韓外務省의 김성환 차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가 북한 핵무기의 불확실성이 후속합의서 양해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된다면, 미국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對話통한 해결 가능성 열림

다. 다. 미국의 입장이다. 한미 합의를 거쳐 발표된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제목의 합의서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의장관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중공의 입장변경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팀이 관련再開시기未定

訪美韓외무의견 「패트리어트구매」아는바없다

【워싱턴=鄭碩福기자회견】韓外務省의 김성환 차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의장관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1994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北 "전쟁재발" 위협

金永南, 지난달 23일 갈리폴리장에 書翰

【뉴욕 4일 = 연 = 金永南북한 외교부장】 지난달 북부트로스부트로스갈리폴리에서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3월 23일자의 서한에서 金의

교부장이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주장대로 북한에 불리한 결의를 채택할 경우 50년의 불행했던 역사가 한반도에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金 부장은 또 이 서한에서 북한이 평화적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결정을 끌기까지 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이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안보리가 사찰을 상대로 핵재사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제재 피하기 和戰양면전술

安保理「議長성명」北외교부 반이의합류

유엔안보리의 「의정서명」의 대안부한외교부의 동산반이외교부의 이 주장을 이루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내치고 있다.

재가동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과거 「협」의 영구적 휴전의 안보리 의장 성명의 동적인 사실의 부담이 된 듯 중

전의 원색적인 전쟁불사의지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썼다. 특히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안보리 시중 일관하다며 진지한 협상의 의지도 남겨놓고 있

다. 이같은 이중적 자세는 결정적인 국제제재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최대안고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수습이론을 분신한다. 북측의 이같은 양면전술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을 얻어내는 등 핵카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순인지, 실제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정부보안전문가의 분석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좀더 강도 높은 추가 제재조치가 취해지기의 앞서 현재 긴장방향을 일본도 눈여겨보고 있다. 북측이 조급화 「U」편을 위한 명분을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안

보리와 IAEA의 공정성이 미국측의 간의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對美」 직접협상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북한은 「韓·美」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면의 강대국만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방분간」 버티기를 계속할 것이므로 전망된다. 「미」과 「방」의 양면의 이중성명을 발단으로 유엔의 대한 압력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우리에게 절대로 볼 수 없다. 「具本永기」

추가사찰 거부등 당분간 「버티기」 계속할 듯

對美관계 개선등 핵카드 효력 극대화 전략

북한은 「의정서명」을 거부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사찰에 실패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정서명」을 회색 핵확산금지조약 전상화하겠다는 「면서」 핵재처리 시설

「特使 교환」 조율 최대 관심

韓외무 이번 주 3角협의 예정

유엔안보회의의장(영국) 발 표 이후「시간적 유연성」을 반영한 핵무기금지조약(CTBT) 체결을 맞고 있다. 정부 는 이달 말까지의 시간적 유연성이 대화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새로운 대 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 다.

「北核 대화해결 모색 마지막 기회」

정부 「핵투명 보장」 따라 신중 검토

외교부, 코지렌과의 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5일과 17일에는 미 국무부, 코지렌과의 회담을 앞두고 「핵투명 보장」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부처내의 각종 대화회의나

차관부와 워싱턴에 페리 부 장관이 차례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관협에서라도 이같은 견 해가 공과대를 확산해 나가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을 북한의 수용할 경 우 북한의 핵투명 보장(CTBT)에 다가가 담보할 수 있으며 그 점의 보장을 위한 유 엔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 한 문제가 중점 협의될 것 같다. 또 15일과 17일 갈 루치차관부와 페리 부 장관 과의 회담 시에 「핵투명 보장」의 진척을 일단 유보할 경우 북한의 유엔의 요구 를 완전히 수용할 것인가 ▲北美 3단계회담이 진행 되면서 남북 대화를 갈음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대 응책 마련에 대한 한반도 와 이와 관련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韓美간 의 협력이 실효 있게 진행 될 예정이다. 【鄭炳鎭기자】

「北추가사찰 주권침해」 합의

韓외무-IAEA 총장도 보낸서 회동

【도쿄=田廣一 특파원】韓 外務省은 12일 일본 외무 省을 방문중인 한스 블릭스 국재원장(IAEA)과 北韓의 사수총장(北韓)을 만나 北韓의 핵사찰을 조속히 완 료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

다. 韓外務省은 이날 오후 러 시아 방문에 앞서 들렀던 일본 나리타(成田)공항에서 北韓의 한 호텔에 머물러 있는 사수총장과 가진 비공개 회 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지난달 IAEA가 실시했 던 핵사찰의 결과와 북한 의 핵사찰수용가(容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수 총장도 한국과 IAEA 가 양자회담을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조기에 양분시키 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나

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IAEA 에 대한 비난을 거둬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회담 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러한 진척 조건의 실현을 수 있다면 「핵투명 보장」 이라는 진척 조건의 실현을 수 있다. 「핵투명 보장」 이라는 진척 조건의 실현을 수 있다. 「핵투명 보장」 이라는 진척 조건의 실현을 수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핵투명 보장」을 둘러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北·美 週內 접촉재개

美 고위관리 전망 先특사교환 철회로

北·IAEA 사찰협상도

【워싱턴=李鍾連특파원】 핵무기정부가 北·美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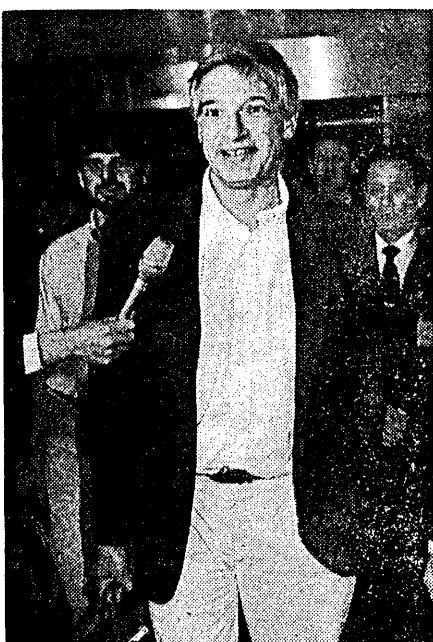
「北核」 다시 대화테이블로

분위기 무르익는 北·美접촉

핵사찰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북·미 양국은 핵무기정부가 北·美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유엔제재는 서로에 부담 팀훈련도 신속대응 예상

북·미 양국은 유엔제재에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북·미 양국은 핵무기정부가 北·美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북·미 양국 고위관리들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북·미 양국은 핵무기정부가 北·美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하노이 회담을 특사교환을 철회로로 합의한 뒤, 이번 주부터 北·美 고위관리들이 이 회담을 위한 협상을 위한 국가차별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미간의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北核해결·남북대화 별개 추진

정부방침 再사찰만 되면 北·美 회담 가능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상호사찰을 제정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연계시키지 않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北·美 회담을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상호사찰이 북한 핵문제 재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을 국 제적 차원으로 추진할 경우 이상 북한의 남북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를 이 IAEA의 재사찰을 받고 北·美 3단계 회담이 진

전될 때까지 남북상호사찰 등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남북대화도 먼저 제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료는 이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따라서 북한의 일방적인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으며, IAEA의 재사찰을 실시했다."

이 당료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北·美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IAEA 재사찰에 의한 핵무기 확산 방지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상호 방한 중인 로버트 갈라치 미국 국무장관과 남북대화 관련부와 솔트웰의무부회담대표사와의 한미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실시가 유보돼 있던 타임스 피린트 출판 문제도 북한의 IAEA 재사찰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중단을 결정하기로 하고 18일 北·美 전략회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鄭炳鎮기자】

北 IAEA 추가사찰 수용하면

美·北 3단계 회담 개최

韓·美 고위전략회의, 南北 대화는 연계하기로

韓·美 양국은 18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면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韓·美 양국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행을 위

로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韓·美 양국은 그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추후 확정

키로 했다.

양국은 북한의 무연안보 리의장선명이 실시한 5월 초까지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를 통한 北·美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때 IAEA의 재사찰을 한다면 최종 합의를 결정키로 했다. <柳贊然기자>

추가사찰을 받아들인다면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열며 △南北 상호사찰 △IAEA의 특별사찰 △對北 경수로 지원 △北·美 관계 개선 등 제안을 제시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타임스 피린트 출판 중단 문제도 논의, 북한이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는 경우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북·미 회담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 때에 대해서는 19일 양국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金日成 “放射室 폐기 용의”

워싱턴타임스 書面회견 美서 輕水爐 지원 전제

▽조선일보 1994. 4. 17

金日成, 核사찰 거부

NHK회견 “군사시설은 공개 안하는것”

【東京11日社説기자】북한 주석 金日成이 북한 핵 시설과 관련, 「군사시설은 어느 나라도 공개안하는 것」이라고 말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NHK가 16일 오후 평양발로 보도했다. NHK는 이날 金日成의 82회 생일을 맞아 평양 취재가 허락된 NHK 기자와 만난 金의 유언을 그대로 공개, 이같이 보도했

“美 못가봤는데 앞으로 가게 될것”
訪美의사 표명

“美 못가봤는데 앞으로 가게 될것”이라고 밤미사를 밝혔다.

「核개발 의혹」 불식 시사 南北 대화 발판 돼 있다

【워싱턴11日南鮮淳】北韓의 核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로의 심하고 있는 방금 주석은 서방 발판 단과 사회화심설비가 필요하 함께 平壤에 취재진들을 발을 경우 국제사회가 핵 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여보내 美워싱턴타임스紙

와 가진 서면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 신들이 19일자에 보도했다. 金 주석은 「北韓이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의향도 없다」고 다시 한번

해무장을 본격 추진한다면 韓半島의 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게 될 것」이라며 「이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들은 金 주석이 패 트린이트 미사일의 韓國內 배치에 대해 「美國이 순수한 방어용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韓半島의 긴장을 높이는 전쟁 무기가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권력 승계와 관련해 金 주석은 「金正日」 「김정일」 비서가 黨政軍 모두를 이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직접 권좌에 오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덧붙였다. 계속 전권을 행사할 것임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이 신들은 또 金 주석이 南北 대화의 전말에 대해 「韓半島 비핵화 선언을 상호 협력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南측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여론 무마 「미소 작전」

국제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알려진 미소 작전은 1994년 4월 19일 미국 CNN 방송이 방영한 김대중의 「미소」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시청자들에게 好戰的印象 씻기 겨냥 北韓·美 관계 개선에 「입력효과」 노린다

金日成 잇달아 西方언론 회견의 속뜻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대중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이날 방송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훈련 11일再開 합의

韓-美국방 北사찰·남북대화맨 중단

연합저력 지속증강

“북한도발 특별징후 없다” 결론

北核설득·대비책 병행 韓외무·페리

韓美 양국은 20일 잠정 중단됐던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전진 의지를 표명했다. 11일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키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북한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사찰을 수용하고, 한반도 비핵화공정성이행을 위한 남북대화가 실현될 경우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다.

트루먼의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李炳世(李炳世) 방위장관과 방위부 차관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국방장관과 방위부 차관인 데이비드 오우(Deborah O'Neil) 방위부 차관 등이 이날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핵무기 및 우라늄의 이전, 핵실험장 및 연료주기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의 추가 사찰을 허용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할 방침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그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다만 현

“사찰거부 계속맨 유엔제재 불가피”

金대통령, 美페리·갈루치 접견

金泳三(金泳三) 대통령은 20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받지 않거나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키로 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炳世(李炳世) 방위장관과 방위부 차관인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국방장관과 방위부 차관인 데이비드 오우(Deborah O'Neil) 방위부 차관 등이 이날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핵무기 및 우라늄의 이전, 핵실험장 및 연료주기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의 추가 사찰을 허용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할 방침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그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별한 징후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廣龍源기자〉

訪韓중인 윌리엄 페리 미국 방위장관은 20일 옹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핵무기 및 우라늄의 이전, 핵실험장 및 연료주기 시설 등 핵 관련 시설의 추가 사찰을 허용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핵무기 및 핵시설을 폐기할 방침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그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다만 현

두 장관은 또 현재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서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쯤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對北 설득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의 대비한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朴斗植기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페리 장관은 “안보리對北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이 자금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해 충분한 방위태세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제까지도 韓美합작체제와 관여해서 풀린다면, 대북정책과 만나기도 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할지라도, 양자간 필요하면 전환할 상의하겠다는 말을 했다.”

〈金昌泰기자〉

寧邊원자로 연료봉 교체 北韓, IAEA입회 요청

▽한국일보 1994. 4. 22

추가査察여부 언급없어

北韓在北査察관이 서한전달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에 입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향적 태도변화 : 核새국면

북한이 20일 寧邊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북한 핵 사찰문제에 대해 새로운 국면의 전이를 보였다.

北, 추가사찰 용의표명 안팎

실(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서한에 대해 북한은 "현재로서는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화학실 「접근不可」도 완화 기술적문제 합의·성실이행 주목

방사화학실 접근 불가도 완화
기술적문제 합의·성실이행 주목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육고체 立會요청 안팎

북한 언론보육고체 立會요청 안팎
북한 언론보육고체 立會요청 안팎
북한 언론보육고체 立會요청 안팎

北의 새핵카드 「속뜻」 관심

北의 새핵카드 「속뜻」 관심
北의 새핵카드 「속뜻」 관심
北의 새핵카드 「속뜻」 관심

“초점하려 협상주도” 관측우세

美와 모종합의說...제한적 추가사찰 가능성도

美와 모종합의說...제한적 추가사찰 가능성도
美와 모종합의說...제한적 추가사찰 가능성도
美와 모종합의說...제한적 추가사찰 가능성도

「核연료보급고체 立會」제의 안팎

「核연료보급고체 立會」제의 안팎
「核연료보급고체 立會」제의 안팎
「核연료보급고체 立會」제의 안팎

北核 물꼬뜨기 對話모색

美와 協商들파구 새카드 활용 放射화학실 샘플채취엔 합구 「추가査察」 초점흐리기 속셈 분석도

美와 協商들파구 새카드 활용 放射화학실 샘플채취엔 합구 「추가査察」 초점흐리기 속셈 분석도
美와 協商들파구 새카드 활용 放射화학실 샘플채취엔 합구 「추가査察」 초점흐리기 속셈 분석도
美와 協商들파구 새카드 활용 放射화학실 샘플채취엔 합구 「추가査察」 초점흐리기 속셈 분석도



자난달 유엔 安保理가 북한에 추가 핵사찰 수용을 촉구한 이래 북한핵 당사자들간에 대화가 중단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됐다. 1주일전부터 위기가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한국이 남북한을 사교한 유엔을 철퇴한 것이 계기였다.

"査察로 이어질까" 관심

중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미국이 내주측 부하에 실부담을 제거, 3단계고압압전판 개편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이 상황이전도 北韓

IAEA 요구항목 受容이 관건 美실무접촉 제의할 내주 "분수령"

해문제와 관련된 네 당사자들의 입장이 계속 교차하면서 양측이 「정쟁의 해결」을 위한 제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수사를 무어인가를 판단하러 IAEA가 합의해 이 중의 의미를 분석할 용의가 있다.

면 일보다는 핵무기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나라도 NPT를 무시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과의 갈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 등 이해관계에 대해 이같은 것이 기본전제다.

IAEA NPT 체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는 북한핵무기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NPT 체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판단 아래 한국에 핵무기 보유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 관련국(기구)입장

구분	목표	수단	북한핵 현황
북한	핵무기 개발 금지, 핵사찰 거부	핵카드	핵무기 개발 실적 없음
미국	핵무기 포기, 핵사찰 협력	北·美 고압·우·남·북 대화	핵탄두 1~2개 보유 추정, 4~5안 내 1개 제조 가능성, 핵무기 보유 여부 불확실
한국	핵무기 포기, 핵사찰 협력	北·美 고압·우·남·북 대화	핵탄두 1~2개 보유 추정, 핵무기 보유 여부 불확실
IAEA	NPT 유지	국제사찰 협력	핵무기 보유 여부 불확실

해문제와 관련된 네 당사자들의 입장이 계속 교차하면서 양측이 「정쟁의 해결」을 위한 제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수사를 무어인가를 판단하러 IAEA가 합의해 이 중의 의미를 분석할 용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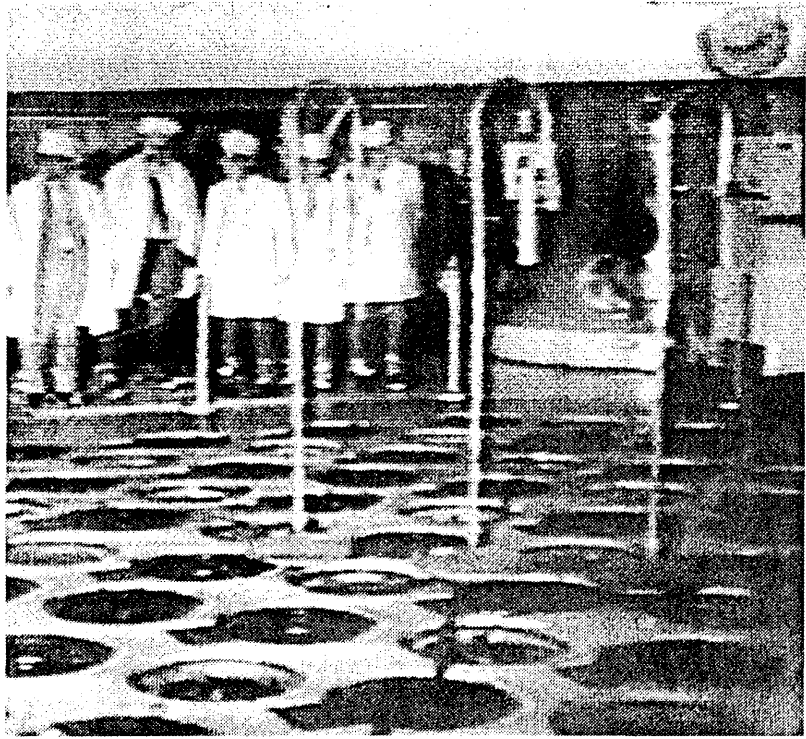
면 일보다는 핵무기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나라도 NPT를 무시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편입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과의 갈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 등 이해관계에 대해 이같은 것이 기본전제다.

이 일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례없는 특별사찰을 요구해 북한의 이에 반발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다. IAEA는 북한이 탈퇴를 유도한 특수지위 여부도 정적 사안이라기 어렵다고 중시하지 않기로 기밀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수사의 마땅 사찰에 강박하기 어렵다. 양측이 양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양측이 양해 없이 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康英鎭기자>

核연료봉 교체... 北韓版「판도라 상자」

IAEA 사찰단 立會 무엇을 뜻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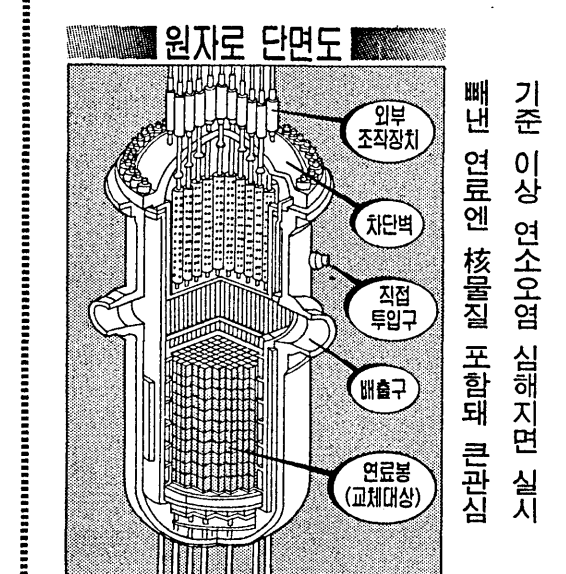
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단이 寧邊에 있는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조사하고 있다. <TV 촬영>

모래언덕이 카미 클리퍼야 한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핵연료 교체란 쉽게 말해 원자로 내의 장전된 핵연료가 연소를 설계 기준 이상 초과했거나, 심하게 파손돼 기기의 오염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의 새로운 핵연료로 갈아주는 일이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처럼 핵무기 원료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의 경우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PU-239 및 PU-241)의 핵무기 요구순도를 만족하는 시기인 저연소 상태에서 핵연료 교체를 수행하고 있다.

핵연료 교체는 교체 방식에 따라 운전중 교체와 운전 정지시 교체, 교체 규모에 따라 전로심 교체와 부분로심 교체로 분류한다. 천연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가스냉각로·중수냉각로)는 연쇄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잉여반응도가 작기 때문에 연료 교체 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운전중 교체방식을 택하고 있고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경수로·고속중수로)는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운전이 가능하므로 운전정지시 교체 방식을 선호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들의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핵물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감시용 카메라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로 옮겨져 저장되며 또한 정기적인 IAEA의 사찰을 받으므로 불법 유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우려곡절 겪겠지만 잘 풀릴 것
핵베일 90% 파악 가능
肉眼입회기의 미없어
공지 탈출용 일련 실패엔 의문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다. 핵연료봉 교체 작업은 원자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核사찰단 入北 차질

IAEA대변인 "조사목록·비자 아직 못받아"

"사찰거부맨 내달 경제제재" 페리

【한경매체】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 3호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28일 IAEA 대변인 키드 IAEA 사찰단 선발대가 북한 입국을 위해 24일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영언론의 보도를 확인한 키드는 "그동안 IAEA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드 대변인은 사찰단에 아직 사찰목록과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키드는 "그동안 IAEA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드 대변인은 사찰단에 아직 사찰목록과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는 28일까지는 사찰단에게 출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키드는 "그동안 IAEA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드 대변인은 사찰단에 아직 사찰목록과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24일路透電】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경제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키드는 "그동안 IAEA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드 대변인은 사찰단에 아직 사찰목록과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IAEA선발대 내일 평壤으로

30일 평壤로 도착 예정인 사찰단비

【워싱턴 23일路透電】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지시(24일) 평壤으로 먼저 5MW 원자로의 연료 출납시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壤으로 2개팀이 30일 평壤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워싱턴 23일路透電】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지시(24일) 평壤으로 먼저 5MW 원자로의 연료 출납시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壤으로 2개팀이 30일 평壤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北 추가사찰 수용맨 美 내달 3단계회담

전환점 초저 제의

【워싱턴 24일路透電】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24일路透電】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24일路透電】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워싱턴 24일路透電】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샘플 채취 北韓 허용 거부

“放射실험실 사찰은 수용”

외교부대변인 담보연속성 보장위한 활동만 가능

【서울=内外】北韓은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寧邊 원자력의 핵연료봉 교체 일회파 시료 채취를 허용할 수 있느냐 방사화실험실의 추가 사찰을 허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특히 정세 변화에 맞게 미국과 IAEA 서기국의 차후 태도를 보고 방사화실험실 등에 대한 추가 사찰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는 “北南 특사 교환을 위한 활동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北 IAEA에 答信
【베를린=劉載勳 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는 北韓으로부터 26일 IAEA가 요구한 寧邊 5메가와트 원자력의 연료봉 교체 일회파 사찰활동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나 사찰 허용 범위가 미흡해 회신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라고 27일 발표했다.

北韓의외교부 대변인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중 사찰단이 북한국으로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5면〉

이번 IAEA의 일회 활동에는 △연료봉 교체 활동 등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 계수기에 의한 모든 연료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봉인과 감시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 검사 등 ‘담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활동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데이비드 키드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날 핵연료봉 교체 입회 회의에 참석해야 할 조건들에 대한 북한의 회신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회담 내용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

▽한겨레신문 1994. 4. 28

북 “추가사찰 허용 용의” 통보

미·IAEA에 연료봉 시료채취는 불허 되풀이

북한은 27일 영변 방사화실험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 문제에 대해 “최근 우리는 북-남 특사 교환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맞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차후 태도를 보고 이를 특례로 허용해줄 용의가 있다”며 이런 입장을 이미 미국과 원자력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영변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북한 관영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나 원자력기구가 요구하는 핵연료봉 교체 시료채취는 “허용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또한 이번 원자력기구의 핵연료봉 교체 입회 활동에는 △연료봉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 계수기에 의한 모든 연료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봉인과 감시 △원자력기구의 봉인 및 감시기재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 검사 등 ‘담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활동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데이비드 키드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날 핵연료봉 교체 입회 회의에 참석해야 할 조건들에 대한 북한의 회신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회담 내용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자

력기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의 회답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현실적으로 이번주중 사찰단이 북한국으로 떠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 북과 곧 실무회담 희망

【워싱턴=정연주 특파원】로버트 갈루치 미국 핵전담 대사는 26일 미 국무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번주 뉴욕에서 북한과 실무회담을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3단계 고위회담도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과 뉴욕의 외교소식통들은 28일께 뉴욕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다시 열려 추가 핵사찰과 핵연료 교체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사찰, 그리고 3단계 고위회담 개최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북-미 오늘 뉴욕서 실무접촉

추가 핵사찰·3단계 고위회담 일정등 논의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과 미국은 28일 오후(한국시간 29일 오전)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3단계 고위회담 개최일정과 이에 필요한 추가 핵사찰 실시,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회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월25일 뉴욕 실무접촉 이후 두달 만에 열리게 된 이날 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가 동의하는 사찰을 수용할 경우 3단계 고위회담 개최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3단계 회담에서 추가사찰 문제를 논의하지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접촉에는 미국측에서 케네스 퀴노네스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북한측에서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한성열 참사관이 참석한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부대표 김종수 대사는 이날 본사와 가진 전화에서 "3단계 회담을 열어가서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대사는 이어 "미국이 우리 북조선과 자기들 사이에 위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합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제한적 사찰 수용의사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이 핵원자로 연료 교체 때의 연료 샘플 채취는 추후에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핵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아무런 사찰을 하지 않은 채 연료교체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연료교체 때 부분적인 사찰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추가 핵사찰을 통한 제한

지난 2월25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 실무접촉이 28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종료된 뒤 양측은 2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워싱턴에서 열린 전화회담을 통해 추가 핵사찰 실시,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측에서는 케네스 퀴노네스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북한측에서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한성열 참사관이 참석했다. 한성열 부대표는 이날 본사와 가진 전화에서 "3단계 회담을 열어가서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대사는 이어 "미국이 우리 북조선과 자기들 사이에 위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합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北·美 실무접촉 될 논의했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과 미국은 28일 오후(한국시간 29일 오전)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3단계 고위회담 개최일정과 이에 필요한 추가 핵사찰 실시,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25일 뉴욕 실무접촉 이후 두달 만에 열리게 된 이날 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가 동의하는 사찰을 수용할 경우 3단계 고위회담 개최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3단계 회담에서 추가사찰 문제를 논의하지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샘물채취대신 밀물·바다면역체 허용” “세부적 사항이 IAEA들과 논의해야” 美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과 미국은 28일 오후(한국시간 29일 오전)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3단계 고위회담 개최일정과 이에 필요한 추가 핵사찰 실시,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측에서는 케네스 퀴노네스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북한측에서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한성열 참사관이 참석했다. 한성열 부대표는 이날 본사와 가진 전화에서 "3단계 회담을 열어가서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수 대사는 이어 "미국이 우리 북조선과 자기들 사이에 위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합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단 入北취소

IAEA北「연료봉」立會「제안」 거부 따라

【빈=金熙熙】연료봉교체 입회사찰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29일 저녁 北韓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찰단의 5월 첫출초 入北이 취소됐다. IAEA는 지난 27일 연료봉교체현장에서 실시한 사찰방법안들을 변경, IAEA가 추진할 연료봉을 선정해 별도봉인만 해놓고 빠른 시간안에 다 시 사찰단을 파견해 측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측에 수정제의를 바 있다. (4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라 오는 4일 시작될 예정인 5MW원자로 연료봉교체작업의 사찰단 입회안이 동시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향후 북한핵 문제의 중요한 변수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IAEA의 한스 마이어 대변인은 29일 밤 「오늘저녁」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위한 사찰조건들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불만족스럽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번 주말 사찰단을 출발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북한측 대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IAEA는 29일 밤 「오늘저녁」의 분석을 토대로 대회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연료봉」교체「강행」

駐中公使 밝혀 IAEA立會여부 상관없이

【北京=韓】駐中北韓 대사관의 배영재 공사는 29일 오후 10시 30분경의 연료봉교체 강행에 대해 「연료봉교체 강행은 IAEA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IAEA의 입회 여부 에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공사는 「발전계획을 계속 하려면 연료봉교체를 강행해야 한다」면서 「연료봉교체 문제는 IAEA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교체 작업은 IAEA의 입회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배영재는 29일 북한 외무부의 최근 미국측의 정전협정제안

평壤협정안이면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대령 「현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서명한 후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협정안의 우선해결을 위해 정전이념 협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추가사찰' 수용 통보

미국에 답신 교체된 연료봉 보관-감시 허용

"3단계 회담 뒤 샘플채취 가능"

미 국무부 긴급대책회의

【워싱턴=정연주 특파원】북한은 지난 4월28일 뉴욕 실무접촉에서 갈루치 미 핵전담 대사 이름으로 전달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답신을 5일 팩스로 미국쪽에 통보했으며, 이를 받은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북한은 이 답신에서 △지난 3월에 마치지 못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과 △2개월마다 실시하는 감시기재에 대한 추가사찰 수용을 밝히고 △핵연료봉 교체 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참관을 허용하고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보관과 감시를 허용하는 등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답신은 연료봉 교체 시점에서의 샘플 채취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나 △교체된 연료봉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연료봉의 샘플 채취 문제가 3단계 회담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어 현재 원자력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일부 연료봉의 채취, 보관과 이에 대한 측정은 핵안전조치의 계속성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3단계 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현안들이 일괄 타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3단계 회담 조건으로 제기된 방사화학실험실의 사찰을 수용한 이상 3단계 고위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때 거부한 방사화학실험

에 대한 사찰과 관련하여 글로브 박스에서의 시료 채취와 감마 지도작성(감마 맵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이미 원자력기구와 합의된 상태라고 워싱턴과 뉴욕의 외교소식통들이 5일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3월에 마치지 못한 사찰을 수용하고, 감시기재에 대한 추가사찰을 수용함에 따라 현재 북한과 원자력기구 사이의 현안으로 핵연료봉 교체에 따른 사찰문제만 남게 됐다.

북-미 3단계 회담 성사될까

'계속성 보장' 북 제의 미 수용 여부가 열쇠

'북 핵개발 현수준 동결' 정책따라 합의 가능성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함께 북한과 미국 사이의 여러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3단계 회담의 개최 여부가 이제 핵연료봉 교체 때의 사찰범위문제로 압축되게 되었다.

그동안 핵사찰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3월 핵사찰 때 미완료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 △2개월마다 실시하는 핵시설 감시기재의 교환에 필요한 추가사찰 △핵연료봉 교체 때 요구되는 사찰 등 세가지 사찰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북한이 핵연료봉을 교체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았다면 첫번째와 두번째 사찰만이 현안이 되었을 터인데, 핵연료봉 교체문제 원자력기구가 미국의 입장을 뿌리치며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

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북한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3단계 회담 개최의 관건이 되었다.

미국은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된 사찰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핵연료봉을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연료실에 두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핵연료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보관장소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두는 한 핵물질의 전용 시비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연료의 안전문제와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핵연료를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북한은 연료봉 측정 시기는 3단계 회담 이후로 하되, 샘플 연료봉 선택권은 국제원자력기구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현재 핵물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전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른바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사찰은 허용할 수 있으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추적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과거 핵활동에 대한 추적을 허용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핵카드의 효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북한의 답신에 대해 대두되면서 핵사찰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은 5일 미국에 전달한 답신을 통해 3단계 고위회담 개최에 필요한 3월 미완료 핵사찰에 대한 사찰과 감시기재에 대한 사찰 허용이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되었으므로, 3단계 고위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야 한

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제 3단계 고위회담, 개최는 미국이 과연 핵연료봉 교체 때 북한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범위만으로 일단 만족하여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로 압축되게 되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핵연료봉 교체 때의 사찰문제와 관련된 합의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온 데다, 국제연료봉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사찰 문제에 있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입회하여 교체활동을 관측하고,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보관과 감시를 허용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허용하는 이러한 사찰활동에 더하여 8단계에 이르는 연료봉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임의로 연료봉을 선택하여 이를 보관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므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연료봉에 대한 측정을 지금 하느냐 아니면 3단계 회담에서 일괄타결된 뒤에 하느냐 하는 검증시기의 문제와, △북한이 원자력기구의 샘플 연료봉 선택·보관·측정 권에 어떤 답을 내릴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부 소식통들은 핵연료봉 교체 때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사찰활동을 허락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첫번째 우선순위가 그들의 핵개발활동을 지금의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데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활동을 핵안전조치 아래 두는 것이며, 북한 핵활동의 과거추적은 그 다음 문제로서 어차피 3단계 회담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현실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유연성에 비해 이라크 사태 이후 실추된 위신을 되찾으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침은 예상보다 강경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위기이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北 연료봉 검사조건 거부

— AEA대변인 "조사단 평양과견 현재론 곤란"

【베를린 워싱턴 7일】 IAEA는 6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앞서 金永南 북한외교부장에 대해 "남북한외교부장에 대해 보낸 영문 원자로 연료봉 검사조건 수락 촉구서한에 대한 답신을 전달받았으나 그 내용이 여전히 사찰단을 파견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EA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서 AEA 대변인은 "마이어 대변인은 이날 저녁 金의교부장 명의의 텔렉스가 접수됐음을 확인하면서 이 답신만으로는 사찰단을 평양으로 파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측 답신은 IAEA의 요구조건에 장난이탈 블릭스 사무총

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IAEA가 요구한 일 부 폐연료봉의 선택·분리 보관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현재 특수한 지위하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을 통해 입수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 서한에서 연료봉봉고체 작업기 간중이라도 미분한 3단계 회담이 개최돼 핵문제 가 임박타결된다면 IAEA가 요구하는 일부 연료봉의 선택·분리를 비롯 모든 정기 및 비정기 사찰활동이 가능할 것이

라고 강조함으로써 '先美북한 3단계회담 개최' 後 연료봉봉고체 작업기 임박타결을 분명히 했다. 연료봉봉고체 시작안해 미국무부 발표

【워싱턴 7일】 金英鎭 외무부장은 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답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셸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이번 답신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미국은 현재 이를 검토중이며 답신에 대한 회신을 곧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셸리 대변인은 북한 원자로의 연료봉봉고체시 AEA입회는 미국이 북한과의 3단계회담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연료봉고체 불투명

지난 4일 作業예정 美에 「立會허용」 팩스

【워싱턴 7일】 南韓은 영연의 5MW원자로 연료봉봉고체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입회사찰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4일부터 고체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작업의 개시여부가 불투명해 서방국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北韓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험장 시설을 영연 5MW원자로의 연료봉고체를 강행할 경우 美國과의 협

의를 거쳐 유엔안보리가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모든 남북대화가 북한핵문제에

미국의 「그동안 북한이 연료봉봉고체작업을 이 미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직 미루고있는지에 대한 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일러졌다.

이러므로 북한은 곧바로 유엔안보리에서 제 4차 재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연료봉 독자교체 때

한국, 安保理제재 추진

정부는 北韓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험장 시설을 영연 5MW원자로의 연료봉고체를 강행할 경우 美國과의 협

의를 거쳐 유엔안보리가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모든 남북대화가 북한핵문제에

미국의 「그동안 북한이 연료봉봉고체작업을 이 미 시작했는지 아니면 아직 미루고있는지에 대한 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일러졌다.

이러므로 북한은 곧바로 유엔안보리에서 제 4차 재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일 李洪九 신임 부총리 겸 통일외교통상관이 처음 주재하는 통일외교장관 회

담을 접견한다.

◇北-IAEA간 협상 쟁점 비교

	추가사찰	연료봉 교체
대상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내 클로르바스 등	영변 제2원자로(전기출력기준 5MW급)
의미	북한 핵물질 전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93년 이전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추산할 수 있게됨 ▲北이 단독으로 연료봉 교체 4~5개 핵폭탄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경과	▲3월 실시된 7개 시설에 대한 IAEA사찰時, 北거부 安保理 5월초까지 사찰 요구	▲4월 중순까지 이유 등으로 원자로가 가동되지 않음 ▲IAEA입회 요구
IAEA장	5월10일 이전에 사찰단 파견 희망	北의 과거 핵개발 규명하기 위해 교체된 연료봉에서 샘플채취 요구
북한입장	▲초기 강경 거부 ▲「특례적」이라며 수락 (94.4.27 외교부성명)	초기 IAEA 입회 요청후 샘플채취는 강력 거부
미국입장	추가사찰 실시후 3단계 美-北 고위회담 개최	연료봉 교체에 IAEA입회및 감시는 모든 美-北회담의 기본조건
한국입장	IAEA 의견 존중	IAEA의견 존중

북한 핵문제에 또다시 시간 압박이 있다. 유엔 安保理가 議長 沈秉煥 시으로 북한에게 요구한 핵사찰 수락 시한은 5월초다. 지금까지의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협상들을 종합할 때, 이번 주말 전후가 사실상의 시한이라고 할 수 있다. 北 IAEA 협상의 쟁점은 추가사찰 문제와 연료봉 교체에의 IAEA 입회 여부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중 추가사찰 문제는 대부분 의견이 절충된 상태라고 한다. 추가사찰 문제는 지난 3월 실시된 IAEA의 對北사찰에서 북한측의 완강한 거부로 사찰을 실시할 수 없었던 寧邊 방사화학실험실 「클로르바스」 등이 대상이다. 4월 30일 채택된 안보리 성

時限몰린 北核 연료봉교체 임회범위 쟁점

北-IAEA 줄다리기가... 美 일방교체맨 "강경" 금주말 사실상 시한... 결렬뎌 유엔 제재돌입

문제를 양보했다고 한다. 다만 쟁점인 연료봉 교체에 IAEA가 어느 범위까지 참가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추가사찰이 한창 진행중인 4

명이 요구했던 사찰도 바로 이것이다. 4월하순까지만 해도 북한은 추가사찰 문제에 조급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료봉 교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북한은 「특례적」이라는 단서 속에 협상을 쓰듯 이

월19일 「다양한」 연료봉 교체에 임회해달라고 IAEA에 요구해왔다. 당시로서는 북한의 의의를 알 길이 없었지만, 절차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제2원자로이자, 유일한 핵발전생산지인 영변 5MW 원자로에 종대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253년전에 교체했어야 할 연료봉이 그때부터다. 북한은 지금까지 IAEA에 교체 작업을 참관하고, 교체된 연료봉들의 봉인장치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IAEA 측은 과거에 진행했던 북한의 핵개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연료봉들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원자로에서 생산된 사용후 핵연료(재처리)를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음(의정확한)을 추산키 위해서다. 북한은 「시료채취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AEA는 3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직접 金永南 북한 외교부장에게 최후 통첩성서함을 보내 「지금 안돼도, 장래에라도 시료채취를 허용할 것임을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보장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북한의 대남 협조 기미가 풍긴다.

미국은 지난 28일 북한과의 뉴프린스톤과 2일 보낸 서한들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둔 상태다. 추가사찰을 받으면 3단계 美-北고위회담을 열고,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 달도 비핵선언이 없을 위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료봉교체 문제는 3단계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모든 美-北회담은 북한 핵문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가능케 해주는 기본 전제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료봉 교체가 IAEA의 동의없이 이뤄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북한이 연료봉 교체문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를 절충, 우선 시한에 단천 추가사찰 실시를 위한 IAEA 사찰단의 주말을 전후해 入北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렬될 경우, 북한 핵문제는다시 유엔 안보리 회부돼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朴斗植기자>

"제재냐" "사찰이냐" 고빋길 北核



美北韓간의 핵사찰을 둘러싼 물밑대화가 좀체로 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6월 21일 지난 4월 28일 뉴욕에서 있었던 미북한간 신변안전협약에서부터 지금까지 北核담판 대사 명의로 보냈던 서 EAS도 이날 북한측으로부터 사찰범위에 대한 담판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찰범위 협의의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이 미국과 IAEA에 보면 담판의 내 미측은 핵사찰의 방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IAEA의 고유권한의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협정으로 IAEA의 조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담판을 통해 IAEA가 핵시설을 의할 때 다른 사항이라든 입장인 것이다.

지난 3월 실시하지 못한 방사화합실험에 대한 추가사찰허용내용은 지난 3월 북한외교부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李慶衡 특파원

따라서 북한도 영토 불교체하기를 당초의 5일 전후에서 일단 연기한 채 미측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核개발 판단 자료 試料채취양보못해 IAEA

美와 직거래... 實益행기려 거부

일단 IAEA 北 재절충 촉구

북한측은 추가사찰범위와 관련된 지난 3월 사찰범위 협의내용을 확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시료채취범위와 핵시설의 위치를 IAEA와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핵개발을 판단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북한측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이 IAEA에 협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핵개발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이 IAEA에 협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핵개발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개발을 5월 15일 정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크리스틴 셸리 대변인은 그러나 사찰범위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이 IAEA에 협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핵개발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측이 IAEA에 협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핵개발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永南 對IAEA전문 내용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규제되어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약탈퇴를 결정했으며 평등·공정한 기초위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한 미국의 약속을 믿고 조약탈퇴 효력을 임시정지시킨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 특수지위에서 우리는 담보협정상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찰활동만 허용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귀하가 요망한 일부 폐연료봉의 선택·분리 보관 문제는 우리가 귀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명백히 통제한 바와 같이 우리의 현특수지위 하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무인하면서까지 평화적 핵활동을 동결시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아무 이유도 없다.

노심고체작업기간에도 朝美회담이 개최돼 핵문제 일괄타결의 테두리내에서 우리의 특수한 지위가 해소된다면 귀측이 요구하는 일부 노심연료의 선택보관을 비롯한 모든 정기 및 비정기 사찰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확언한다.

〈워싱턴〉

이것이 북한과 IAEA간의 사찰협상의 타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 미북한간의 3단계회담도 단기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미측이 북한측과의 사찰협상을 불발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IAEA와 북한간의 절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

정부, 北核가이드라인 확정

사찰거부대비 '제재共助'에 무게

북한핵무기개발의 유예안인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최정호(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핵무기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北, 對美카드위해 양보거부 판단 "시료채취 없는 再사찰은 무의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北 시료채취거부면 制裁

통일안보정책위의 추가사찰 이번週가 시한

통일안보정책위원회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EA의 지침을 유예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IAEA에 사찰단 파견 조건 요청

북한엔 연료봉 교체 연기 제의 방침

‘북핵’ 돌파구될듯

미국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입회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영변의 5메가와트 연료봉 교체 문제와 관련해 북한측이 교체작업을 일단 미루는 대신 원자력기구가 추가 및 후속사찰을 위한 사찰단을 파견하도록 각각 요청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연료봉 교체에 대해 사용한 연료봉을 선택·보관하고 사후에 정밀 관측한다는 원자력기구의 주장을 지지해 왔던 데서 크게 달라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협상의 교착국면을 헤쳐나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말 미국은 이런 구상과 함께 이번주초 북한과 원자력기구측에 막후접촉을 통해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통

보해 왔다. ▶관련기사 3면 미국은 금명간 뉴욕에서 북한과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측이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일정을 늦추고 추가 및 후속사찰을 받을 경우 3단계 회담을 열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원자력기구와 북한이 원자로 연료봉 교체문제로 계속 이견을 보일 경우 결국은 북한이 지난주에 수락한 △5메가와트 원자

로에 대한 감시장비 유지를 위한 후속사찰과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마저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태도를 바꿨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주초부터 북한 및 원자력기구와의 막후접촉을 통해 북한에는 연료봉 교체 일정을 미루도록 제의하고, 원자력기구에는 이미 입국비자를 받은 사찰단을

이번주 안에 평양으로 일단 파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국면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미국의 구상에 따른 경우 사찰단의 입북과 동시에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이 이번주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이런 구상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측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北·IAEA 査察협상 진전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시한이 5월 중순이므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幕前幕後대화가 뚜렷한 진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따라 북·미 협상에 유엔안보리의 제재논의도 10일(한국시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협상은 3단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어따라 IAEA측

북핵의 주요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19일 북한의 IAEA에 대한 핵연료봉 교체입회요구서한 전달을 시작으로 서신교환 및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그 결과 북·미 3단계 회담이 10일(한국시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협상은 3단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어따라 IAEA측



美, 3단계 회담 뒤 「연료봉 교체」 새提議

北서 수용하면 내주 사찰단入北 예상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시한이 5월 중순이므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은 3단계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이어따라 IAEA측...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negotiations and expectations for a breakthrough in the next week).

나, 미국의 「연료봉 교체 연기」라는 가이드라인을 감안, 북한이 이미 동의한 추가사찰 및 후속사찰 착수에 의견을 둔 것으로 보인다.

北核연료봉 IAEA 선별보관 조건

美, 3단계 高位회담 수용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

美-北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

【워싱턴 11일路透電】 3단계 北-美 고위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11일路透電】 3단계 北-美 고위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4. 5. 12

북한, 핵추가査察수락

駐유엔 代表사 "연료봉 교체 안해"…내주査察 시작

IAEA, 14일 査察단 파견

【워싱턴 11일路透電】 북핵 추가査察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추가査察을 수락한 것은 핵연료봉 교체 안해...내주査察 시작...IAEA가 14일 査察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북핵 추가査察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월 30일 3단계 회담을 전후로 추가査察과 동시 개최 추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을 대공 5대가 항의 영구적 원자력 협력... (transcribed text)

北核해결 돌파구 보인다

IAEA 사찰단파견 합의 안판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 핵사찰 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14일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 큰 숨통을 트게 되었다. 그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에 따르는 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연료봉 샘플 선정에 비롯하여 이에 대한 보관과 측정에 대한 사전보장이 없는 한 사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어온 원자력기구가, 연료봉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이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방사화합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과 감시기제, 유지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북한이 일괄 타결 전에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에서는 이라크에서 잃어버린 자존심을 북한에서 되찾으려고 기술적인 원칙문제만 가지고 강경하게 대드는 원자력기구의 비타협성이 정치적 해결이 불가피한 북한 핵문제를 결정적으로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모두 살려주는 '연료봉 교체 연기, 추가사찰 수용'이라는 타협안을 만

한이 지금 상태에서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상태가 보장된다면, 바로 3단계 회담에 들어가 핵연료봉 교체에 따르는 사찰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정치적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다. 원자력기구도 지금 당장 샘플 선택과 보관·측정에 대한 북한의 답을 얻어내려고는 하지 않고, 연료봉 교체문제를 다루는 '물'을 합의해 놓기를 원하고 있다. 원자력기구가 사찰단을 파견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을 제안한

IAEA 對北 새 제안 "숨통"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을 대공 5대가 항의 영구적 원자력 협력... (transcribed text)

"先사찰·後연료봉교체"로 선회 北·美회담 보장되면 北수용예상

한중 회담이 북한에 필수... (transcribed text)

미국 입김 크게 작용 연료봉 교체가 '복병'

사찰 성공적 완수면 3단계회담서 현안 정치적 협상

위한 후속사찰을 하기로 후퇴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처럼 후퇴한 배경에는, 계속 강경하게 나가다가는 북한이 수용하겠다는 밝힌 추가사찰과 후속사찰까지 놓쳐버리는 상황의 악화가 오히려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추가사찰과 후속사찰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핵연료봉 교체 때 원자력기구의 입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을 때, 내심으로 원자력기구가 이를 수용하기를 바랐다. 원자력기구가 원하는 핵연료봉의 샘플 선택과 보관·측정은 북한의 '핵 과거'를

들었고 원자력기구가 이를 수용하여 14일 사찰단 파견결정을 내린 것이다. 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북에는 북한이 이미 5명의 사찰단원에게 비자를 발급해 놓은 상황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사찰은 지난 3월과는 달리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사찰이 완만하게 끝난다면 3단계 고위회담이 이달 안으로 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핵연료봉 교체라는 문제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처럼 언제 새로운 문제를 끄집어낼지 모르는 복병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북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추가사찰 실시와 3단계 회담 개최문제를 핵연료봉 교체문제는 핵연료봉 교체 연기라는 전제 아래 잠정적으로 분리된 상태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은 북한이 핵연료봉 교체 연기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상에서 핵연료봉 교체라는 새로운 카드를 하나 더 갖게 된 셈인데, 3단계 회담을 꺼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IAEA 내주 추가사찰

사찰단 내일 평양항발 17일 입북 연료봉교체 입회문제 별도 협의

북한쪽 입장 서면 수신

【베를린=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북한쪽으로부터 핵사찰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수신해, 다음주부터 일단 영변 방사화확실험실 등에 대한 추가사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 키드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쪽으로부터 핵사찰 관련 입장을 담은 전문이 전달되어 왔음을 확인하면서 원자력기구 사찰단이 15일 평양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5명으로 구성된 사찰단은 베이징을 거쳐 17일 입북해, 1주일여 동안 사찰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찰단은 지난 3월 사찰을 완료하지 못했던 방사화확실험실내 사찰과 기타 시설에 설치됐던 감시장비의 유지·교체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키드 대

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입회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타결될 예정이며 이번 사찰단의 활동범주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스 블릭스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김영남 외교부장에 보낸 서한의 답신으로 전달된 이날 북한쪽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원자력기구는 북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교체 연기를 전제로 일단 방사화확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명간 사찰단을 평양으로 출발시키기 로 방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확답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당국에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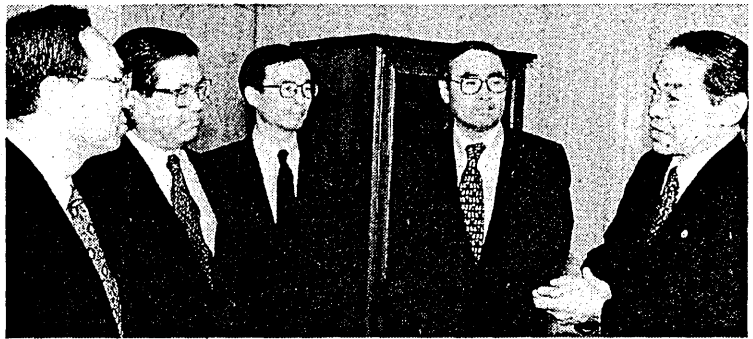
▽조선일보 1994. 5. 14

북한이 핵사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북한으로부터 핵사찰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수신해, 다음주부터 일단 영변 방사화확실험실 등에 대한 추가사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데이비드 키드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북한쪽으로부터 핵사찰 관련 입장을 담은 전문이 전달되어 왔음을 확인하면서 원자력기구 사찰단이 15일 평양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5명으로 구성된 사찰단은 베이징을 거쳐 17일 입북해, 1주일여 동안 사찰활동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찰단은 지난 3월 사찰을 완료하지 못했던 방사화확실험실내 사찰과 기타 시설에 설치됐던 감시장비의 유지·교체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키드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입회문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타결될 예정이며 이번 사찰단의 활동범주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스 블릭스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김영남 외교부장에 보낸 서한의 답신으로 전달된 이날 북한쪽 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원자력기구는 북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교체 연기를 전제로 일단 방사화확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명간 사찰단을 평양으로 출발시키기 로 방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의 확답을 요구하는 서한을 북한당국에 보냈다.

“3단계 美·北 회담기간
南·北 대화 재개돼야”

이와 함께 3단계 북·미 회담이 선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3단계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발언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베리아 북부 등 탈북자들의 수용 시설과 방사능 안전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안필환기자>

통일안보회의 대응책 고심



13일 오전 남북회담사무국에서 李洪九총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李炳台국방장관 李洪九부총리겸총일원장관 韓昇洲외무장관 金惠인기무장관 朴寬用정보와대비서실장. (洪碩憲)

정부 환영속 "짹짹"

「韓國빠진 핵협상」 역할감소 딜레마
「南北 대화와 연계」 원천만 재확인

관중 북측 회담 참가자에게
이들 단행시킬 여의 환영
환영하며 평가 긍정

관중 북측 회담 참가자에게
이들 단행시킬 여의 환영
환영하며 평가 긍정

北-美 고위회담 임박

北核 추가사찰 합의

관중 북측 회담 참가자에게
이들 단행시킬 여의 환영
환영하며 평가 긍정

IAEA 北核 추가사찰 내용

북측은 IAEA가 북핵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IAEA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放射室 작업추진에 초점

틀리프박사 내 표본 채취로 내용 분석 추진
재처리한 폐연료-원료로 핵추진물 순환가

미국은 방사성 폐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추진물 순환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 폐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추진물 순환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연료봉교체 착수 배경과 전망

워싱턴/김연주 특파원

북한은 12일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편지에서 추가사찰을 위한 사찰단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음도 아울러 밝혔다. 북한은 시설의 안정성 문제와 기술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연료봉 교체를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갔으며 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이 현장에 와 보면 연료봉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입회 없이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는 8천개의 연료봉이 있는데, 10개씩 묶은 8백개의 봉치가 연료실에 들어 있다. 이 8백개 봉치를 끄집어낼 때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가 아주 느려 북한이 밝힌 연료봉 교체작업은 연료봉 교체를 위한 주변 정리와 장비 정비, 또는 기껏해야 연료봉 한 묶음 정도를 끄집어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북한은 연료봉 교체의 연기를 주장한 외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교체작업을 착수했다는 정치적

현재로서는 내주초부터 시작되는 추가사찰과 후속사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사이에 핵연료봉 교체에 대한 문제 해결의 '물'이 정해지면, 3단계 고위회담은 이달 말께,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추가사찰과 후속사찰은 1주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이며, 연료봉 교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룬 시일 안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촉구하고 나서으로써 어떤 형태론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정치효과 노린 시늉” 분석

3단계회담 조기개최 촉구 속뜻도 아울러 작용한듯
원자력기구에 연료봉 샘플 선택권 부여 여부 관심

어가면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오던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연락을 받은 후에도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연료봉 교체작업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방사화학실험실의 추가사찰을 하면서 연료봉 교체상황을 아울러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연료봉 교체작업이 2개월 이상 걸리는 장기작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령 교체작업을 시작했다고 선언해도 실제 교체작업은 다분히 준비작업에 그치는, 교체작업의 '시늉'에 지나지

효과와 이를 바탕으로 3단계 고위회담의 이른 개최를 촉구하는 압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는 연료봉의 선택과 보관, 그리고 이에 대한 측정은 3단계회담을 열어 핵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며, 따라서 이미 시작한 연료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3단계회담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상황으로 몰아세워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간 이상 3단계회담으로 가든가, 아니면 유엔 안보리로 가든가 하는 두 가지의 길만 남았다.

전망된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감시 아래 연료봉을 교체·보관하고, 이에 대한 측정은 3단계 회담 이후에 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남는 것은 북한이 과연 국제원자력기구에 연료봉 샘플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8백개의 연료봉 묶음은 연료실의 부위에 따라 각기 고유한 번호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연소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한 연료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 부위에 있는 연료봉이 어느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기구는 각 부위에서 일정한 샘플을 선택하여 보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이 12일 국제원자력기구에 보낸 편지에서 추가사찰을 위한 사찰단의 북한 방문을 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했음도 아울러 밝혔다. 북한은 시설의 안정성 문제와 기술적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연료봉 교체를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갔으며 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이 현장에 와 보면 연료봉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전 냉각작업 가능성... IAEA 내일 평壤行

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 개시했다고 밝힌 것은

美 3단계 고위회담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수밖

다. <관람기사 3면>
이날 北美 실무접촉에

실무접촉서 밝혀

美, 고위급회담 개최 전면 재검토



核카드 극대화 「다목적術數」

北 「연료공급체 강행」 수심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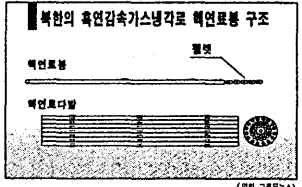
작업현장 사찰단 「자동화」 유도 美와 회담 초기 실험하려 시도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30분경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회담 중 북측 대표단이 남측 대표단과 회담하고 있다.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 "신종자세"

「연료공급체」 전과 교섭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자존심 상한 IAEA

「北 주장 검증 후 대응책 마련」

「延期보장」요구 「중대한 위반」 경고 무색
작업 진척도 따라 「強-穩시나리오」 강구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성급한 대응 北 고도전략에 말릴 우려”

“美의식 본격작업은 안했을 것” 나관 우세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연료공급체 강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카드를 극대화하는 다목적術數를 활용하고 있다는 수심이 커지고 있다.

査察팀向北: 내일부터 점검: 今週가고비

제원자력기구(IAEA)가 입회하지 않은 채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시작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안전상 이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美 北서 한달전부터 교체준비
北 “감시카메라 작동: 문제안돼”

【再査察】순조롭게 완료되면 정부, 北美회담 月内도가능

美측에 입찰전달

정부는 북한이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수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방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北美3단계회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입장을 15일 미국측에 전달했다.

에 교체된 연료봉이 다른 목적으로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核연료봉 교체작업 북한, 안전장비가 피

【서울=연합】북한은 14일 국

【워싱턴=연도코인=연합】美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1개월전부터 연료봉의 5MW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고 확인했다.

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1개월전부터 핵연료봉 제거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의 핵연료봉을 제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비드 키드국 제원자력기구(IAEA) 대변인은 15일 “핵연료봉 교체작업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연료봉을 임의로 교체했다면 IAEA는 즉각 사찰팀을 소환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에

제재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드대변인은 이와 관련, IAEA사찰단이 17일부터 북한핵시설에 대해 추가사찰을 하기 위해 15일 비행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사찰단은 지난 3월 사찰에서 실패했던 방사화확산실험에 대한 추가사찰활동과 함께 핵연료봉 교체작업의 진전 상황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연료 5MW원자로의 운영계획에 따라 핵연료봉 교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IAEA가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작동되는 가운데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

北 연료봉 임의교체 확인때 IAEA “안보리制裁 요청”

▽조선일보 1994. 5. 15

北核사찰 시작

IAEA

北韓이 연료 5MW 원자로 1기라고 밝힌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17일 이후 북한에 들어가 핵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갈

다(단정)를 하인노(3명) 16일 오전 7시경 獨逸 루프트한자항공편으로 출발한 IAEA 사찰

【東京=연합】북한은 14일과 15일 연료봉 교체작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찰단 14

북한에서 연료봉 교체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IAEA가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된 연료봉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근저가 있다”고 말했다.

3시 20분 북한으로 고령항에서 하부를 머무른 뒤 17일 오후 3시 20분 북한으로 고령항에서

【東京=연합】북한은 14일과 15일 연료봉 교체작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찰단 14

북한에서 연료봉 교체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IAEA가 설치한 감시용 카메라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된 연료봉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근저가 있다”고 말했다.

「北核」 막바지... 韓美 대응책 "긴박"

北 核 燃料 搬 入 IAEA 査 査 団 入 北

IAEA 사찰에 기대
북한의 고부 다면은 15
일 인접상의 이유로 북
부(5MW 원자로) 불 연
제라기 감찰을 개진한
신중함을 전개했다.

경고 불구 北 日 방 교 체 충격 플루토늄 추 출 물 확 인 촉 각

백악관 비서실장 "아직은 상황 지켜 봐야" 신중

을 해제하고 연료봉을
내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13일 북한의 국제원자
기구(IAEA)와 미국측
에 「추가 사찰을 위한 I
EA 사찰단」을 북한에
「연료봉 교체차수」란 두
가지 사찰을 통보했을 때
만 해도, 韓-美 정부는 내
신 「신중적인 연료봉 교
체」가 지양을 지시하
는 기미를 드러냈다.
국제적 원자력 협정체
에 들어간 상태여서 자
신의 핵카드를 강화시키
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펼
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그러나 뒤이어 나
북한의 고부 다면은 15
일 인접상의 이유로 북
부(5MW 원자로) 불 연
제라기 감찰을 개진한
신중함을 전개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아직은 상황 지켜 봐야" 신중
이 IAEA 인접성이 핵 연
료봉 교체에 착수한다면 일
체의 대화중단은 물론, 제
재에 착수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원자로에
이유이다.

IAEA는 이제 진행단계
로 접어들어 연료봉 교체
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하
는 때로 접어들었다.
5MW 원자로를 북한에
서 가동 중인 유일한 원자
로이다.
즉 공식적으로 플루토늄
을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산지인 것이다.
작년 3월 북한의 핵화산
금지조약(NPT) 탈퇴까
지 가져왔던 韓-美 소식고
핵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
찰은, 아니면 지난 9
월 사찰 때 발생했던 북한
과 IAEA 간의 다툼도
결국 이 원자로에서 연
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추
출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했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불리-보관 계
측 「작업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밝히는 핵심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북한은 어느 정도의
핵무기 제조 물질을 보유하
고 있는가가 규명되는 것
이다.

의고적 해결 고 미인센
북한은 이 작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IAEA는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게 최근 한 달여 동
안의 논쟁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韓-美 정
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료봉 교체에
착수했다.
그 작업이 어느 선까지
진행했는지는 IAEA 사
찰단의 관측으로 드러나
지만, IAEA가 지금 북
한의 태도를 받아들일 다
면, 韓-美 정부도 3 단계
美-北 회담 자체를 통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
하고 싶어하고 있음이 점
차 분명해지고 있는 듯하
다. <취재기자>

어쨌든 북한은 연료봉 교
체에 착수했고 「기술안
전상의 이유」 때문에 중단
할 수도 없다고 밝히고 있
다. 따라서 韓-美 정부와

北核연료교체 진행 확인되면 美, 즉각 安保理회부

▽조선일보 1994. 5. 18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3명이 17일 北韓 핵 사찰을 위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 북경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있다. 【北京=AP聯】

오늘入北 IAEA 사찰팀報告주시

빠르면 今週內 제재결정

“北연료봉교체 확인못해” IAEA대변인

【워싱턴=申相仁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인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둘러싼 美韓정부는 북한의 사찰단의 임의성이 입증될 때까지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안보리로 회부할 방

면 17일 平壤에 도착 예정인 IAEA 사찰단의 현지 보고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북핵문제를 다시 유엔 안보리로 회부할 방

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美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이미 실질적

인 핵연료봉 교체를 진행

시켰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미국은 이 문제를 안

보리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빠르면 今週內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의 사찰결과에

따라 미국의 향후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위급회담 재개조건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놀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사태가 진전됐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미국은 안보리회부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 타임스는 이날 북한이 IAEA 사찰단의 임의성이 단독으로 원자로 연료봉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힌에 따라

빌 클린턴 美 대통령이 그의 보좌관들인 북한에 대한 위협을 실천에 옮기고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한

대결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 사태를 둘러싼 핵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美 北 韓간 대화중단과 안보리의 경제제재유무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北京=申相仁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

스마이어 대변인은 16일

북한이 이미 寧邊 5메가

와트급 원자로에서 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北京=李在濬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3명이 17일 오후

중국 北京에서 고려항공

JS152편으로 북한에

입국한다.

사찰단 平壤 도착

【東京=AP聯】북한 핵사찰을 실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3명이 17일 평양에 도착했다

고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에서 이날 수신된 중앙통신 보도는 이들의 조사 활동은 약 1주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쪽을 경유, 비행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한 이들 사찰단은 平壤 북쪽 약 1백 km 떨어진 寧邊의 방사

화 실험실에 대한 추가 사찰과 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사찰단을 이끌고 있는 울리 하이노넨 단장은 이날 평양으로 떠나기

에 앞서 북한 원자력출구

과의 협의를 거쳐 핵사찰

대상 시설들에 대한 직접적

검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애기도 할 수 없으나 가능

한 한 빨리 사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核연료봉 검사방법이 최대 쟁점

위치별로 분리보관...정밀계측

한곳에 모아對美협상뒤 계속

IAEA팀의 교체현장 직경 10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7일부터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연료봉 8천개...교체기간 2개월 소요

IAEA-北합의대로 사찰 진행 기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5일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IAEA의 교체현장 직경 10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7일부터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연료봉 8천개...교체기간 2개월 소요

IAEA-北합의대로 사찰 진행 기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5일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연료봉 8천개...교체기간 2개월 소요

IAEA-北합의대로 사찰 진행 기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5일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연료봉 8천개...교체기간 2개월 소요

IAEA-北합의대로 사찰 진행 기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이 15일 북한이 신고한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시작했다.

사찰은 영연방 8일동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 더 머물러, 아니면 조기 철수할 지 여부를 담당 영연방 특별명사들이 시종각기 전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곳인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합설비인 '플루트라스'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두나라기 위한 국제사회의

미국무부 '北核' 팀인 민갑여사가 IAEA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받기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IAEA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연료봉 8천개...교체기간 2개월 소요

北核사찰 돌입

IAEA대표단 어제 平壤 도착

【北京=李在禧특파원】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17일 저녁 平壤에 도착, 2개월간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찰은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포함한다. IAEA 대표단은 어제 평壤에 도착했다. 이번 사찰은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포함한다. IAEA 대표단은 어제 평壤에 도착했다. 이번 사찰은 영연방의 7개 핵시설과 방사화합설비의 대한 사찰을 포함한다. IAEA 대표단은 어제 평壤에 도착했다.

I. 北韓 核問題

2. 北韓 核燃料棒 交替 관련 國際制裁 局面

「北 연료봉 교체 수준」에 “촉각”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이 파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파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이 파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北-美 합의위해 판매킨 것 “결론”

별다른 동수용-정착방안도 검토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이 파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이 파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北核 비관상행이다

安保조정의의 연료봉교체 계속되면 制裁불가피

사찰단체는 북한이 연료봉 교체 수준에 대해 촉각을 나타내자,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담 사무부의 서훈 홍 九 회의들을 노 부한 평 단 정 부총리 겸 방위부장관인 주 홍 부의, 김성일, 김재철 재민 북미합의파의 의 뻔 부의했다.

北 "연료봉추출물 立會봉인"

駐中 朱昌駿대사 "北美회담후 사찰" 제의

IAEA "추출중단 平壤협상 갖자" 클린턴 "오늘새벽 긴급 대책회의"

美관리 "北추출물 군사轉用안해"

【北京 柳東熙특파원】 朱昌駿 駐中북한대사는 18일 평양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의 핵연료봉 추출과정에서 추출된 모든 물질들을 모아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이 본月底前에 봉인하고 北美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이후 정상시기에 이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朱대사는 이날 하오 北京의 북한대사관에서 회견을 갖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유보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IAEA로부터 정기·비정기 사찰을 받을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이것이 우리가 핵연료봉에서 추출된 물질을 비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고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의와 아량」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18일 電】 북한은 IAEA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핵연료봉을 추출하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고 미국 관리들이 21일 밝혔다.

★관료기사 5면

이들은 이명희 유구한 한 관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의하면 북한의 핵연료봉이 모두추출된 후 평양에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전용하고자 분별이 시도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에 대해 매우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IAEA의 사찰팀이 이 연료봉의 군사적 목적을 유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21일 밝혔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20일 하오(한국시간 21일 새벽) 백악관에서 장관급 이참석하는 북핵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北京 柳東熙특파원】 朱昌駿 駐中북한대사는 18일 평양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의 핵연료봉 추출과정에서 추출된 모든 물질들을 모아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이 본月底前에 봉인하고 北美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이후 정상시기에 이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20일 밝혔다.

朱대사는 이날 하오 北京의 북한대사관에서 회견을 갖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유보한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IAEA로부터 정기·비정기 사찰을 받을 입장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이것이 우리가 핵연료봉에서 추출된 물질을 비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시키고 사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의와 아량」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18일 電】 북한은 IAEA의 5MW급 실험용 원자로로부터 핵연료봉을 추출하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았다고 미국 관리들이 21일 밝혔다.

★관료기사 5면

이들은 이명희 유구한 한 관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의하면 북한의 핵연료봉이 모두추출된 후 평양에서 핵무기 생산을 위한 전용하고자 분별이 시도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에 대해 매우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IAEA의 사찰팀이 이 연료봉의 군사적 목적을 유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21일 밝혔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20일 하오(한국시간 21일 새벽) 백악관에서 장관급 이참석하는 북핵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갖고 IAEA 사찰단의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 18일 電】 북한은 IAEA 추방요구문과 미국의 원료봉 인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추후추출물의 현황을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이를 추체적으로 타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北-美 회담 「爭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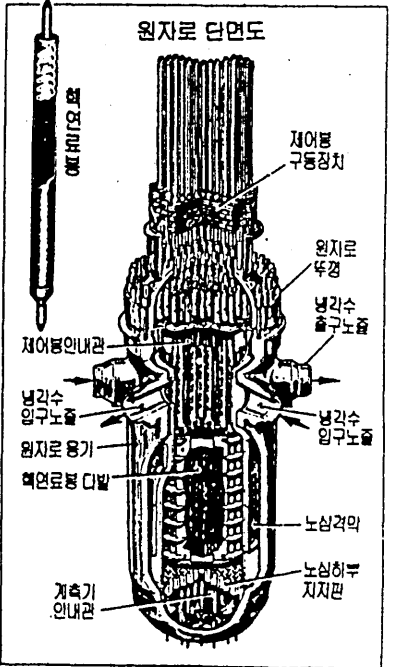
연료봉 교체

「과거 핵연료 무기轉用」여부가 초점 美 정면대응 어렵다 판단 시켜보자

한미 회담의 쟁점 가운데서도 북한 핵연료봉 교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연료봉 교체 시 핵연료봉을 교체할 때 과거 핵연료봉을 무기轉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연료봉 교체 시 핵연료봉을 교체할 때 과거 핵연료봉을 무기轉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핵연료봉 교체 시 핵연료봉을 교체할 때 과거 핵연료봉을 무기轉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핵 연료봉이란

원자로에 유라늄장착시키면기구 타고남에 폐기물처리비용추출

미국은 유라늄을 원자로에 장착하면 유라늄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유라늄을 원자로에 장착하면 유라늄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유라늄을 원자로에 장착하면 유라늄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정면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北-IAEA 연료봉 「보관」 논란

검측 쉽게 300개 따로 보관 요구 IAEA
"8,010개 전부 섞어 모아 두겠다" 北

북한은 IAEA가 300개 연료봉을 따로 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8,010개 전부 섞어 모아 두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IAEA는 핵연료봉을 검측하기 쉽도록 보관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은 IAEA가 300개 연료봉을 따로 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8,010개 전부 섞어 모아 두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IAEA는 핵연료봉을 검측하기 쉽도록 보관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북한은 IAEA가 300개 연료봉을 따로 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8,010개 전부 섞어 모아 두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IAEA는 핵연료봉을 검측하기 쉽도록 보관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美, 北과 회담재개 결정

NYT 보도 核사찰 美요구 수용 판단

제거核연료 안전보장 조건

가까운 장래" 제네바서

【뉴욕=김대현】빌 클린턴(후)합동기자간담회(21일)는(21일)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미국방송(NBC)이 20일 보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21일(21일)에(21일)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미국방송(NBC)이 20일 보도했다.

실은 위안현의 전담책임과 북한 스스로가 사찰단의 영변의 방사화합성실험의 대한 추가사찰을 허용하고 원자력가압기공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21일(21일)에(21일)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미국방송(NBC)이 20일 보도했다.

【워싱턴=김대현】미국은(21일)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미국방송(NBC)이 20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1994. 5. 22

高位대표단 訪北 北-AEA 합의

北韓총서 電文 보내
【인제=김대현】北韓의 黨委

를 협의키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대표단 訪北에 합의했다고 IAEA가 21일 발표했다.

IAEA는 21일 발표한 이 합의는 북핵이(21일) 북-미 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북한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미국방송(NBC)이 20일 보도했다.

北核, 다시 협상구면이로

北-美 고위회담 개최 결정 안팎

북한핵문제가 열차라 뒤처 략을 거듭해오다 다시 내걸 에서 협상구면이로 접어들게 되었다.

美를린턴 행정부가 지난주 말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 을 재개기로 결정한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연료봉고체감시 협상단이 24일 북한의 틀어막아게 되었

기 때문이다.

북한이 IAEA의 핵감시 협상단을 받아들일기로 한 것 도 따지고 보면 지난 20일 백 악관의 장관과 고위대표회의 가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 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측은 북한의 핵연료봉 고체감시와 관련, 카다란 상 환변화가 없는데도 왜 3단 계 고위회담을 개최키로 결 정했을까. 더욱이 미국측은 원자력에서 빼낸 연료봉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전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IAEA측은 아직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

다. 물론 미국측은 백악관 고 위대표회의가 끝난 뒤 공식적 으로 3단계 고위회담을 개 회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이를 결 정했을 뿐이다.

미고위회담은 2월 15일 합의의 미·북한간 3단 계회담 전체조건인 「신고협 의서」에 대한 전면사찰이 있었 기 때문에 전년도 당시의 약 속을 기준으로 하면 고위회 담의 추진이 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7개 핵시설을 사찰할 하지 못한 것은 방사화확산 협상의 대한 사찰이었으나 이번의 이를 사찰했고 7개 핵시설의 전면적인 감시장치 를 모두 점검하기도 했기 때 문이다.

핵연료봉 교체문제도 사실 북한이 기술상의 긴급성을 이유로 원자력의 가동정지 및 핵연료봉의 제거를 공표함의 로써 새롭게 등장한 이슈다. 그러나 핵연료봉의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은 신고협 의서 11조항에 의거한 핵연료봉 교체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은 신고협 의서 11조항에 의거한 핵연료봉 교체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美, "방사실폐함 7곳 모두 점검" 판단 派北 감시단 보고 따라 시기 유동적

이념적의 감정에서 비롯된 핵 연연료봉의 시공체제를 북한측은 유지할 수 판을 없

조사도 북한측의 일부 핵연료봉의 교체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북한이 IAEA가 이번 주 추방된 핵연료봉의 시공체제를 유지할 수 판을 없

조사도 북한측의 일부 핵연료봉의 교체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조사도 북한측의 일부 핵연료봉의 교체에 대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핵연료봉 교체문제 가 제기된 이상 IAEA측

北, "NPT 복귀 용의"

로동신문 美 적대정책 포기·3단계 회담조건

IAEA사찰 전면허용도 시사

IAEA협상단 오늘 入北

【노르웨이】북한은 23일
남양 미군이 그들의 대한
「적대적 접근」을 포기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에 가입하여 복귀, 핵시설
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
임을 시사했다.

노르웨이인인 이틀 미군이
북한과의 새로운 회담조건
를 거부함으로써 한때 회담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었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미군이
이같은 정책을 포기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한 삼당간
3단계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이 특별 지위를 갖게
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에 의한 불감초점인 시설
사찰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
고 주장했다.

〈권진기사 4면〉

한편 북한은 23일 로동
신문을 통해 수차례 노
북간 대화에 대해 「IAEA
에 의한 불감초점인 시설
사찰의 전면적 허용」을
북한이 전면적으로 허용
할 것이며, 동맹국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로 핵해결

【한】미군이 핵무기 해
결을 위한 美-北 3단계 회담
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영
안 가담도 북한이 3단계 회
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충기했다.

러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 朝美 3
단계 회담을 개최했다. 다만
북한이 북수지의 핵확산금지
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 서
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외교부 대북 정책 강화 검토

【서울】외교부 대북
정책 강화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북 정책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경제지원단(IAEA)의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IAEA 협상단 도착
고려한다. 23일 미군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나제 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정기 및 비상
사찰이 진행되고 있을 것
이며, 그 결과 북한이
제기되고 있는 영구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북 정책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경제지원단(IAEA)의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정책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경제지원단(IAEA)의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 보관이나 국제원자력
기구의 시료채취와 같은
문제들이 3단계 회담
을 전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 정책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경제지원단(IAEA)의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정책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대북
경제지원단(IAEA)의
사찰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北核향방 가늠자 「연료봉協商」

北·IAEA협의의 쟁점과 전망

북한과 미국의 3년간 핵연료봉 교환을 위한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원자로運用 추적사고 대립 관문통과여부來週 판가름

IAEA의 北核연료봉 협상단 일행 2명 중 한사람인 데미트리 루스 핵안보조지국장이 24일 평壤行비행기를 타기에 앞서 北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北京 卍報 卍>



북한과 미국의 3년간 핵연료봉 교환을 위한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다. 내주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IAEA의 협상결과 판단에 따라 北核의 前途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장대로 사할단 입회하는 것은 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사실상의 합의로 관할할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AEA는 25일 5월 25일 평壤에서 열린 북·미 핵연료봉 교환 협상에서 IAEA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金在禧기자>

北核사찰 완료

IAEA 美·北 회담일정 잠정합의

【평壤 卍報】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 1명이 北核 시설을 사찰한 뒤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찰단은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찰단은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사찰단원 1명이 北核 시설을 사찰한 뒤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찰단은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사찰단은 24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찰 결과를 발표했다.

對北 核정책 전면재검토

정부 非核化입장등 조정작업

▽경향신문 1994. 5. 26

北韓 核보유대비 "경고"

내일 統一안보조정회의서 구체논의

정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對北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새롭게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邊境 방사화시설 건설이라는 핵재처리시설을 보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거나 지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5MW급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결과 북한이 이미 2~3개의 핵무기를 개발했음이 밝혀진 점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李洪九 통일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도 알선방사화시설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

정부는 또 이에 앞서 26일 관공처 실무장관을 포함 27일 열린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도 알선방사화시설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을 새 문헌 각도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李 부총리가 지적한 문제를 집중 논의, 새로운 통일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26일 관공처 실무장관을 포함 27일 열린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도 알선방사화시설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선」을 새 문헌 각도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NPT) 체제유지에 집착, 북한이 이미 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할

방사화시설 시험 재료 채취

「영변核」 전용여부 곧 관명

연료봉 교체 立會도 협상 시작

【한·AP통신】국제원자력기
구(IAEA) 사찰단이 시

25일 IAEA 관계자들이 핵시설에서 나온 플루토늄 이 핵무기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근거로 쓰이게 된다. 이에 앞서 한

양에서 북한관측원과 50여 명이 대항 협상을 벌이고 있다. 26일까지 계속될 협상은 5명가량의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의 무이거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인도나 불이행이 북한의 핵개발을 촉진할지, 무사적인 영변로 전용할지, 영변의 핵 시설을 제거할지 등이

北核 또 탈선

'체적'만 남았나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
가 핵문제를 둘러싸고 다
시진전을 겪고 있는 것이
로 보인다.

평양의 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A(사찰팀과 북한간의 협
상이 일단 실패함)에 따라
이 협상과 밀접한 합수관
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
미국과 북한간의 27일 뉴욕
회담은 아나 연료봉 교

연료봉 실패 막다 3단계 3단계회담 성사 불투명

실무접촉도 아무런 소
없이 끝나고 양측은 3단
계회담 일정을 잡지 못
하는 미묘한 빠져 들었
다.

한중 미군이 북한이 연
료봉 교체를 통해 핵안전
협정을 깨지 않거나 교체
연료를 轉用하지 않기로
北·IAE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3단계
회담을 추진한다. 3단계

을 세웠다.
그러나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IAEA 사
찰팀이 북한에 대해 연료
봉 교체를 중단하거나 북
한의 과거 플루토늄 추출
에 대한 추적을 가두게 하
는 핵심연료봉을 별도로 저
장하도록 요구함에도 불구
하고 북한이 이를 모두 거
부할뿐 아니라 연료봉 교

체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교체 작업이 IAEA로
하연금 과의 플루토늄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
는 '남지못함'을 연재
널리지 못하는 현상
은 3단계 회담을 개시
하기가 어려운 입장
이다.

아직 北·IAEA 회
담이 결렬된 것은 아니
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 머물
러 있으면 6월 초
로 예정된 北·美 고위급 회
담은 북쪽 수박에 얼음
뿐 아니라 해빙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면 북한 핵문
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으로 전문가들 간담에 거
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2명의 I
AEA 사찰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핵연료를 계
속 교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도 교
체가 진행된다면 IAEA
가 북한의 89년 플루토
늄 추출량을 추적하기 위
해 샘플 분석하기를 원하
는 원자력 노심의 연료봉
이 교체될 시기가 곧 다
계 된다.

IAEA 측은 나중의
분석하더라도 노심 연료봉
만으로도 보편할 것을
북한의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보편적인 연
료봉에 대한 샘플 채취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관련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北·IAEA 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북한에서는 IAEA
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
면 과거의 열매 단풍의 풀

루투함이 추출됐는지
노출시켜 지난 수십 년 동
안 영토를 개발해온 핵
개발을 자체를 완성해
가 버리는 꼴이 된다. 그
렇기 때문에 북한이 I
AEA 요구를 선전하 들어
줄 가능성이 희박하
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도 계속 풀고 나가야 하는
북한은 이처럼 중요한 카
드를 움직일 때 3단계 회
담을 열기를 원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접촉에서 연료봉 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
이 는 북한이도 하연금, 연
서는 안철선을 넘지 못
하도록 경고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북한에서도 미국과의
회담을 깨지 않기 위해 핵
물질의 정량을 삼가는 것
은 물론 노심 연료봉을 교
체하는 상황으로까지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북한과 I
AEA가 어떤 타협점을 찾
을 수 있을지가 최대의 변
수이다.

〈원산진=金英鎭 특파원〉

연료봉 수입회협상 실패 北 이미 50% 선 교체

IAEA

【北京=朴勝俊기자】미
트리의 페리코스 국제원자력
기구(IAEA) 핵안전조
차위원이 28일 평양을 5
박하고 평양을 5박
가 20일 평양을 5박하고 평양을
조치에 관한 북한측과
의 협상을 관망하고 있다.
영변 5메가와 실험용 원
자로의 핵연료봉 교체
안정조치 이행 등의
회와 안전조치 이행
관한 북한측과의 협상을
위해 지난 24일 북한에
입국했던 페리코스
이날 평양을 떠나 北京
에 도착해서 이같이 밝
혔다.

美-北 회담 일정 못 잡아

다국기회담 연료봉 선별보관 異見 여전

【원산진=申相仁 특파원】
미국과 북한이 26일(북
국시간 27일) 새벽(북
시의 신주협을 통해
북한 3단계 회담을
개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을 논의했다. 그러나 연료봉 선
별보관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 일정이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연료봉 선별보관
문제와 관련, 현재 平壤의
소식들이 전했다고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요지.

5월19일자 귀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관한 중요한 사태추이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청과는 반대로 북한은 원자력기구가 제시한 필수적 안전조치 없이 5메가와트 핵발전 원자로 연료 교체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다.

5월21일자 전문에서 북한은 연료봉 교체작업을 중단하라는 원자력기구의 요청을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북한은 또한 원자력기구가 요청한 안전조치는 "추가 미·북한 회담이 열리면 연료봉 교체 작업중이라도 허용될 것"이라고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5월22일 2명의 원자력기구 사찰관리가 빈을 떠나 24일 북한에도

IAEA 총장 '안보리서한' 요지

착했다. 5월25일부터 사흘간 사찰단은 북한쪽 관리들 또 영변 소재 실험실 핵원자로 작업반원들과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지금 핵원자로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연료가 인출됐으며 이 작업은 원자력기구가 필요한 전면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자력기구는 만약 이 인출작업이 북한측이 확인한 바대로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경우 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른 추후 측정을 위해 연료봉을 선별·분리·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며칠 안으로 상실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를 받게 돼 있는 북한의 모든 핵물질이 실제로 안전조치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기구는 북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 양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뉴욕/AFP 연합뉴스



北京은 사찰단장 북한핵 사찰단장인 디미트리 페리코스 IAEA 핵안전조치국장 이 28일 平壤으로부터 北京공항에 도착한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있다. 【北京=AP聯合】

【워싱턴=丁海榮기자】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급속도로 핵연료봉을 인출하고 인출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충수하고 있다고 유엔의 한 전문가는 28일 밝혔다. 그는 27일 저녁 한국 시각 28일 오전)에 있는 유엔안

“연료봉 인출 중단” 美선 3단계 회담 취소 경고

安保理, 6명명 對北 결의안

보리 비공개 회담의 와 5개국이 사흘간 회담에서 북결의안을 준비하기로 의

결을 도모했으며,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이에 반대한지는 않을 것

가 없으며 경제제재를 추

고했다. <참조기자>

이런 안과도 소식통이 말했다. 이와 관련, 美정부는 이날 북핵의 연료봉 인출 작업을 중단하고 IAEA와 연료봉 추후 계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합의하지 않거나 회담의 3단계 회담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정부는 이날 고위 안보 관계자 회의에서 북한의 연료봉 인출 가속화를 3단계 회담의 장애요인으로 규정,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조기자>

北 "연료봉 교체 중단 않겠다"

【서울=연합통신】북한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핵안전조치 협상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핵안전조치 협상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핵안전조치 협상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핵안전조치 협상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핵안전조치 협상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원자로의 현재 상태와 기술적 안전상 이유"를 들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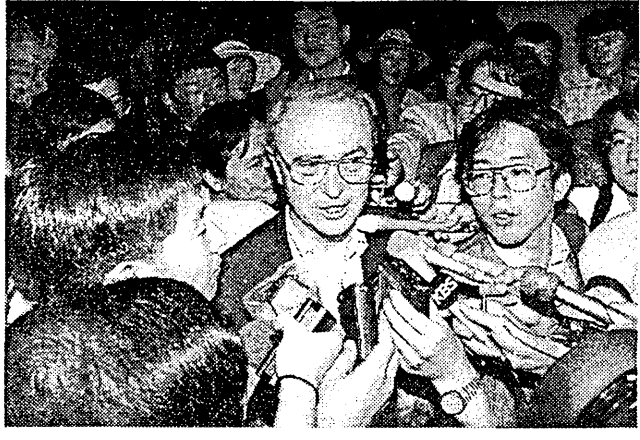
「연료봉 교체」협상결렬 안파

다. 연료봉 교체 협상결렬 안파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고비서 「先담보」전략

「고위회담」실의보장 싸고 對美협상재개 노린다

北 「核외교」 마지막 승부수



북핵협상을 위한 북핵외교차관관인 김기남(왼쪽)이 김기남(오른쪽)에게 설명하고 있다.

북핵협상을 위한 북핵외교차관관인 김기남(왼쪽)이 김기남(오른쪽)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平壤 순풍원가

北 정면대 국제은행 개성

북핵협상을 위한 북핵외교차관관인 김기남(왼쪽)이 김기남(오른쪽)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특수지위·안전성 주장 등 설득력 없어 협상력제고·核의지·開放반발 가능성

북핵협상을 위한 북핵외교차관관인 김기남(왼쪽)이 김기남(오른쪽)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IAEA 安保理 보고서 요지

5월21일자 電文에서 북한은 「현재의 원자로와 기술적, 안전성 이유로」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하라는 IAEA의 요청을 거부했다. 북한은 또한 IAEA가 요청한 안전조치는 「北·美간 추가회담이 열리면 핵심적인 교체 작업종이라든 하든 될 것」이라고 종래 입장을 되풀이 했다.

北核 강경선회... 긴박한 워싱턴

핵연료봉협상 결렬후 美표정

미국정부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연료봉협상 결렬을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핵연료봉협상 결렬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기술협력체(포우)의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아직까지 「협상」을 한 핵연료봉협상을 「협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의 결렬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협상」의 결렬로 보지 않고,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백악관 긴급대책회의 개최 "핵개발 증거인멸不容" 확인 최후통첩후 제재착수 검토

다시 보이는 北核

미국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협상」의 결렬로 보지 않고,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北韓 영변원자로 핵연료봉 교체에 관한 협상 실패후 28일 北京에 도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울리 하이노넨 사찰과장과 디미트리 페리코스 핵안전 조지국장이 「협상실패」사실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北京AP촬영>

핵탄 개발이 동북

北韓 핵무기에 발간 불이 꺼졌다. 영변 원자로 영연료봉 교체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北韓간 협상이 결렬 IAEA 협상팀이 영연료봉 교체에 동의하지 않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협상」의 결렬로 보지 않고,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北, 연료봉제거 왜 서두르나

긴장 고조시켜 實益 더 챙기기
"核彈 연료 추출 은폐 의혹" 증폭

미국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협상」의 결렬로 보지 않고,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미국이 이번에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핵연료봉협상의 결렬이 핵연료봉협상 8년째가운데서 3차례가 계속된 속도다. 그렇지만 과거의 핵연료봉협상과 달리

政府 대응 7가지 시나리오

北핵협상과 한층 앞보
고 있다. 한편, 김정은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北核협상 결렬되면

北핵협상의 결렬은
국제사회의 긴장
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해상봉쇄등 강경制裁 불가피

北핵협상 결렬되면
국제사회의 긴장
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中國태도-3단계회담 成事여부 주시 다각적 준비

美「플루투늄」목인댄 非核化 선언 파기 北서 핵개발 포기하면 상호査察 노력

北핵협상 결렬되면
국제사회의 긴장
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北핵협상 결렬되면
국제사회의 긴장
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北핵협상 결렬되면
국제사회의 긴장
을 높일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협상
은 1994년 5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한 핵무기 시험
실험 성공을 알리는
발언에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순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北 今週 넘기면 제재논의

연료봉 교체 관련 정부 美·中 통해 「중단」 노력

安保理도 금명수집협약의

I AEA 내달 6일 정기理事會

송대룡평주재 오를 안보회의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번 주말을 북한의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봉의 교체 작업을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중단」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평안북도 개성시에서 열린 IAEA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내년부터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안보회의에

정부가 「중단」을 요청했다. IAEA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의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IAEA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북한은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94. 5. 31

연료봉 교체 중단 촉구

송대룡평 “北核 상황별 대책강구”

안보회의의

송대룡평은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北核」 문제를 놓고 「중단」을 촉구했다. 송대룡평은 또 각국처에 대항서 북핵문제에 대해 연이은 재검토를 통해 연료봉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플러갈수 없다"... 「단호대처」 점검

北核 「인공위성」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위협線인박 불구 「대화」엔 기대 내일 安保理회의... 北태도 주목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朝鮮漫評 吳龍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단호대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安保理 「北核의장聲明」 채택

15개理事國 만장일치 IAEA와 즉각협의를 요구

不應뎌 制裁논의...北선 수용 거부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이리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안건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北, 의장성명, 수용 거부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北核 국제 제재 예비 단계

安保理의장 聲明 <요지>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美國은 軍事 긴장까지 각오 中國도 유엔 입장으로 선회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安保理의장 성명

【유엔본부 30일 밤 9시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오전 10시 반(한국 시각)에 열린 회의에서, 북핵의 국제적 차원(IAEA)과 즉각 협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연료봉 교체 계속땐 제재 불가피

“추후계측 가능성 남겨라” 설득성 경고...북한 마지막 ‘곡예’외교 주목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배경과 전망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북한 핵문제는 어느 순간에 어디로 뛰어나갈지 그 방향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럭비공에 비유한다. 3단계 고위회담 개최가 거의 확실시되는가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공은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튀어버렸으며, 사태는 또다시 중대한 국면으로 치달고 있다.

사태의 중대성과 긴박감은 유엔 안보리가 주말과 미국 공휴일인데도 겨우 비공식 협의를 가진 데 이어 30일 밤 9시20분에 안보리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형식의 의장성명인데다, 그 내용도 안보리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경제제재 조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태의 긴박감에 비해서 다소 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이번 성명 이후의 단계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경제제재 조처를 취하게

하는 수순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안보리가 촉구한 연료봉 교체방식을 북한이 거부하고 북한이 지금의 속도로 연료봉 교체를 계속할 경우, 이번 주중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분리해 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대화의 근거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매우 위험스럽게 절벽 가까이에 와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안보리 성명은 그 내용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의 뜻보다는 마지막 고비에서 북한의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마지막 간청'처럼 보인다. 이날 의장성명은 추가사찰과 후속사찰을 받아 들인 최근의 조처에 대해 "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진일묘한 조처를 취했음을 유념한다"는 말로 시작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가 바로 협의를 시작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안보리의 촉구에 따라 북한과 원자력기구 사이에 다시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최근 원자력기구의 협상제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원자력기구도 협의제계를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외면할 수 없는 터여서 '마지막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원해온 3단계 회담까지 깨버리면서 연료봉 교체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 바로 직전에 이르러 연료봉 교체를 중단하고 3단계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료봉 교체를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끌고 가서, 협상용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뒤 3단계 회담에 임하는 극단적인 비방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끝내 연료봉 교체를 계속 강행하여 마지막 선을 넘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핵

과거'를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의 '핵 과거'는 이미 정보기관이 예측하는대로 이미 1~2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을 이미 확보했거나 △△ 반대로 핵개발 내용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이를 도저히 노출시킬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요지>

다음은 유엔 안보리가 30일 채택한 북한핵 관련 의장성명 내용이다.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에 대해 94년 2월15일 원자력기구와 합의한 바 있는 사찰활동의 원료를 허용함으로써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의무이행과 핵무기 확산방지 협약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데 진일묘한 조처를 취했음을 유념한다.

이사회는 94년 5월27일자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앞서한을 심의하였으며 만일 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료봉 교체작업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 추후 계측을 위해 연료봉을 선택 분리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수일내에 상실될 것이라

는 원자력기구의 평가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

이사회는 북한이 원자력기구의 요구에 따라 연료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만 5메가와트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기술적 조처에 대해 원자력기구와 북한간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구한다.

이사회는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5메가와트 원자로 작업을 감시하기 위해 원자력기구 사찰관을 북한에 머물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이사회는 본건을 계속 안보리에 계류시키고 원자력기구와 북한간의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를 가질 것을 결정한다.

연료봉 위치·성분·이로 플루토늄추출량 탐지

北 왜 일괄수거·협박보관 우기나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핵사찰이 다시 논란의 부속이 됐다. IAEA가 원자력기구에서 매년 페렌연료봉을 선택·분리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IAEA가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이 서로한지도 물

러서지는 아니냐.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요구한 것은 연료봉 교체를 중단하고 3단계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연료봉 교체를 계속 강행하여 마지막 선을 넘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의 '핵 과거'는 이미 정보기관이 예측하는대로 이미 1~2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거나 △△ 반대로 핵개발 내용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이를 도저히 노출시킬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폐연료봉, 분리·번호부여해야 규명가능 비파괴검사로 내부 연소상태 알수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기구에서 매년 페렌연료봉을 선택·분리해서 보관해 두는 것을 IAEA가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이 서로한지도 물러서지는 아니냐.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요구한 것은 연료봉 교체를 중단하고 3단계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연료봉 교체를 계속 강행하여 마지막 선을 넘어서 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의 '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의 '핵 과거'는 이미 정보기관이 예측하는대로 이미 1~2개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했거나 △△ 반대로 핵개발 내용이 너무나 보잘 것 없어 이를 도저히 노출시킬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kg이상되는 핵연료봉을 분리·번호부여해야 규명가능...비파괴검사로 내부 연소상태 알수있어

유엔서 안되면 제재

순대통령-클린턴 전화회담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金泳三大통령



클린턴대통령

韓美간 긴밀한 협조와 단호한 공동대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朱槩植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金泳三大통령이 31일 오전 클린턴美대통령과 전화로 北韓 핵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金周晚기자>

순대통령-클린턴 「北核동화」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더이상 기만행위는 不容” 단호 安保理 요구 거부면 즉각 제재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순대통령은 31일 오전 8시 35분부터 약 20분 동안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순 대통령은 전화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동맹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순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北核 7일이 고비

安保理、對北의장성명 채택

韓외무 計測불능맨 즉각 제재

15개理事國만장일치 核안전성 보장 촉구

【서울 31일】북한이 핵재와 같은 속도로 핵연료봉 교체할 경우 31일 이전에 위험성을 넘겨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는 7일 인 제재가 추진되지는 않

을 것이라고 말해 핵연료봉 교체 불가능해지면 즉각 對北제재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韓장관의 이날 기자회견을 회를 갖고 對北제재방안과 관련, 『중국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도 계속 협조할 것이 라고 지적』 『정부는 핵무기 개발이 韓장관의 『현재 핵무기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의 태도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 라고 말했다. 韓장관의 이 어 『현재의 상황은 비판적인 요소가 다량적인 요소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완전히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봉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엔「조치」결정맨 적극동참 中에「거부권」자제「요청」키로

통일안보조정의 반전 결정

정부는 31일 李洪九부총 리 겸 통일안보조정의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北핵이 국제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국제사회의 협조, 단계적 인 對北제재 추진한다. 韓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마

서 독자적인 對北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은 연료봉 추후개발을 위한 임의성정 보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중국 등 여러 채널을 통해 對北협력을 계속키로 했다. 정부는 6월 열린 IAEA 정기이사회가 대화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때까지는 다각

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이기 로 했다. 정부는 또 안보 리를 통한 제재논의에서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측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요청키로 했다.

美, 對北 경제 제재 착수

백인관 안포회의 유엔결정성나면 兵力·무기증강

【워싱턴=丁海榮기자】를 린 행정부는 북한이 영토 분출 후 계속 가동 중일 것으로 추측하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對北 경제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회의를 소집, 향후 내용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안보리장관회의는 우방국들과 對北 제재에 대한 공조적인 외교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안보리장관회의는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유엔의 참견을 기다리는 한편, 백인관의 불만사항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장이 31일(오늘) 한국시간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백인관의 불만사항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北核 제재국면으로” 美 고위관리

【워싱턴=丁海榮기자】를 린 행정부는 한반도에 위정촌(北朝鮮)의 핵개발로 인해 북한 핵연료봉의 시버트 북한 핵연료봉의 시버트를 유엔 안보리에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교섭이 31일(오늘) 한국시간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백인관의 불만사항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워싱턴=丁海榮기자】를 린 행정부는 북한이 영토 분출 후 계속 가동 중일 것으로 추측하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對北 경제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회의를 소집, 향후 내용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안보리장관회의는 우방국들과 對北 제재에 대한 공조적인 외교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안보리장관회의는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유엔의 참견을 기다리는 한편, 백인관의 불만사항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장이 31일(오늘) 한국시간 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백인관의 불만사항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北측 “유엔 제재판결정적 조치”

【서울=內外】北朝鮮은 對南 경제협력기구(IAEA)가 영토 분출 후 계속 가동 중일 것으로 추측하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對北 경제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內外】北朝鮮은 對南 경제협력기구(IAEA)가 영토 분출 후 계속 가동 중일 것으로 추측하고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처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對北 경제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IAEA 「北核」 사실상 포기

“추후계측 불능”美통보 安保理 「제재」본격 논의

유엔 단계 재 조치 예상 “WP紙

【워싱턴=南경주】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일 북핵의 5MW발전용 원자로 수거 작업이 IAEA가 추후 계측 불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5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방안의 대안으로 결정된 미국의 시진핑 전 장관.

IAEA는 이날 북핵의 원자로 수거 작업이 “과거 원자로의 불능”과 “추후 계측 불능”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된다고 확인했다. IAEA는 북핵 수거 작업이 “과거 원자로의 불능”과 “추후 계측 불능”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된다고 확인했다. IAEA는 북핵 수거 작업이 “과거 원자로의 불능”과 “추후 계측 불능”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된다고 확인했다.

의 입장인 유엔가 수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러 되면 안보리에서 북핵 제재 방안을 논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유엔안보리 5국은 이 문제를 놓고서 “제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고조될 수 있다. 유엔의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안 759호를 비롯하여 “제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고조될 수 있다. 유엔의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안 759호를 비롯하여 “제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北 “제재맨” 참혹한 결과

金永南의 고부장 NPT 탈퇴 거듭 경고

【서울=연합=합】북한이 1994년 6월 2일 NPT 탈퇴를 선언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1994년 6월 2일 NPT 탈퇴를 선언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시적으로...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막다른 골목 들어선 北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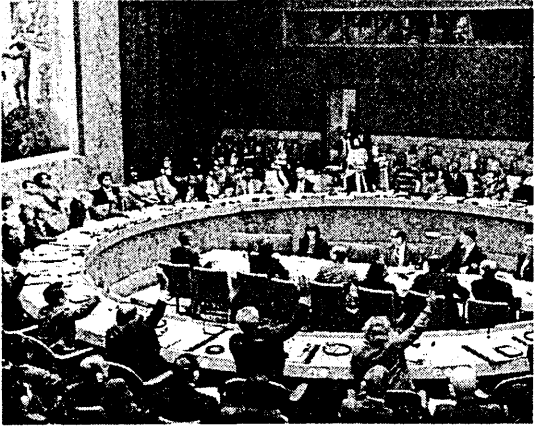
제재局面 맞아 상황긴박

북한은 1994년 6월 15일...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실행까지인 시간 걸려 협상기회

최악의경우 「특별査察」수용된다

북한은 1994년 6월 15일...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최근 보스니아사태를 논의키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의 전경. 15개이사국대표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북한핵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유엔본부 제공]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Text discussing IAEA's role and the situation with North Korea)

IAEA총장 北核보고 요지

기존에 따라 연료봉을 추후... (Summary of the IAEA report content)

심각히 훼손했습니다. DPRK가 추가 정보 및 장소 접근을 거부함에 따라... (Continuation of the report summary)

21일 탈퇴냐 재협상이냐

변방을 北韓카드에 주목

북한은 1994년 6월 15일... (Text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from the IAEA and the role of the border region)

實益창진뒤 막관 선회가능성 "核보유 관철이 목적" 분석도

한미에 북한핵 문제... (Text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 U-turn in North Korean policy after achieving nuclear goals)

“너무 몰면 끝장” 최고... 달라고

美·中·러 등 입장 고려 「強攻」의 안할듯 北韓 “플루토늄 추출” 이룩할 가능성

IAEA, 계측 ‘不可선언 이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는 2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 安保理 이관 이후 구체 논의 중 거부권 행사 경우 總會 결의로 선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對話길 터놓고 우선 警告

制裁 어떤 手順 밟을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AEA가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클린턴·엘친 3角 전화회담

어젯밤 “北核제재 결의안 6일 상정”

“국제평화 도전... 단호 대처”

美 3단계 회담 취소

北核제재 선언 한반도 상황 每時점점 돌입

【모스크바=김홍기기자】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인 금삼(金三)과 클린턴(Clinton) 미국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

리정제 재차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클린턴은 이날 오후 6시 45분(한국시간 오후 11시 45분) 모스크바에서 열린

관에 머물고 있는 김대중 평에게 전화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설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유엔안보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정제 재차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클린턴은 이날 오후 6시 45분(한국시간 오후 11시 45분) 모스크바에서 열린

평에게 안보리 결의안 상정은 뉴욕시각으로 6일(한국시각 7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과의 통화에서 엘친의 통화에 앞서 엘친

【워싱턴=江海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2일 북한 A의 공식 발표에 맞춰 안보리 핵안보회의 추후 계획 보리 이사국 및 유엔안보

과 구체적인 제재발안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을 매시간 점진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유엔 안보리의 회담, 제재 제재를 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판권기자 2·3면>

【워싱턴=江海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2일 북한 A의 공식 발표에 맞춰 안보리 핵안보회의 추후 계획 보리 이사국 및 유엔안보

3단계 회담을 취소하고 對北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했다.

클린턴은 최근 한반도 긴장고조와 관련해 이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방위태세를 시정하도록 점진적으로 대응하며, 사태발생시 대응시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데니스 부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간추렸다고 한 말을 우리는 이같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 미군은 상황전제에 따라 취해야 할 단계별 결재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와따라 한반도지역의 상황과 이와따라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 6. 4

「北核」오늘 긴급회의

【워싱턴=江海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2일 북한 A의 공식 발표에 맞춰 안보리 핵안보회의 추후 계획 보리 이사국 및 유엔안보

수령권을 중앙정부에게 이양한다. <金三=江海기자>

【모스크바=江海기자】 클린턴 대통령은 2일 북한 A의 공식 발표에 맞춰 안보리 핵안보회의 추후 계획 보리 이사국 및 유엔안보

정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 30분) 서울에서 긴급대처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 오후 11시 45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안보리 핵안보회의 추후 계획 보리 이사국 및 유엔안보

관에 머물고 있는 김대중 평에게 전화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설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유엔안보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정제 재차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클린턴은 이날 오후 6시 45분(한국시간 오후 11시 45분) 모스크바에서 열린

평에게 안보리 결의안 상정은 뉴욕시각으로 6일(한국시각 7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과의 통화에서 엘친의 통화에 앞서 엘친

北"美서 대화 거부면 핵 확대"

【東京=聯合】 3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미국에 제안하고,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핵개발 계획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1부 장관이 이날 중남부 지방의 회견에서 “미국이 대화의 응징을 우, 기증, 남북한간 협의사항을 기꺼이 준수할 것이지만 미국의 계속 강경하게 나올 경우 북한은 정체를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부 장관은 북한의 정책변경과 관련, “핵재의 핵개발 계획은 한 차원 앞선 다단계 계획으로 진척시키는 것이므로 단행한다.”

韓·美·러頂上 3角접촉 "금박"

북한(北朝鮮)이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영미(英米)·러(露)·북한(北朝鮮)의 삼각(三角)접촉(接觸)의 의의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더 끌려다닐수 없다" 意志 結의案 구체내용·시기 긴밀협의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3일 李洪九 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북한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崔鍾昱기자]

北核 유엔정무이사회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制裁수준별 多角대응 모색

유엔과 별도로 美·日과 공조계획 南北교섭중단도 對內的 대책도

북한(北朝鮮)은 영미(英米)와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영미(英米)와 북한(北朝鮮)의 대등(對等)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최근(最近)에 미국(美國)과 러시아(露西亞)를 상대로 삼각(三角)접촉(接觸)을 벌이고 있다.

美, 北제재案 安保理상정

국무부 성명 "빠르면 6일... 상징적 차원 아닐것"

3단계 회담도 취소

IAEA "北연료봉기 계속 불가능했다"

北 "협상 해결제의" 本社 北駐在관사관 전화

【서울 3일路透電】북한이 미국과 3단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상정 여부를 두고 3일 오후 4시 50분경 <미联社사 4.5면>의 정면에서 한시름을 안고 있다. IAEA가 북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북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중간 IAEA사찰단 보고에 따라 북핵이 이전의 핵 실험을 넘어 핵무기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IAEA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對北제재案 多角검토

정파 기묘한 동맹을 맺고 北핵문제에

정파 기묘한 동맹을 맺고 北핵문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IAEA가 북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북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파 기묘한 동맹을 맺고 北핵문제에

정파 기묘한 동맹을 맺고 北핵문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IAEA가 북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북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료봉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북한 핵 관련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유엔안보리 보고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北韓-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유엔에 對북한 제재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특별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국무부 특별성명 전문이다.

IAEA는 유엔안보리에 북한 핵연료봉기 계속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판단할 수 있는 IAEA의 능력이 훼손됐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따라 北韓-美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모두 취소한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유엔안보리에 회부됐으며 미국 정부는 안보리가 對북한 제재문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토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對북한 제재 내용을 두고 주요 우방 및 안보리이사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보리가 가장 먼저

미국무부 제재성명 (全文)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은 對북한 제재결정이 채택될 경우 이것이 단순한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안보리가 취할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의견교환을 마련하기 위해 수일내 對북한 제재의 내용을 우방 및 다른 안보리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對북한 제재는 그러나 미국이 희망하는 안보리에서의 토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형식의 제재도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바탕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투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 핵문제를 관련,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으며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중국이 안보리의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對북한 제재결의안이 표결될 경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워싱턴=연합통신]

韓-美-日 北核 단계제재 합의

내일 安保理에 草案제출 러-中 동참 설득노력

미신고 2곳 특별査察 촉구 北서 수용엔 制裁 피할수도

北 核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 - IAEA 총장

【서울 5일 연합뉴스】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IAEA 총장인 모리슨이 5일 밝혔다. 모리슨은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IAEA 총장인 모리슨이 5일 밝혔다. 모리슨은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IAEA 총장인 모리슨이 5일 밝혔다. 모리슨은 북핵 단계제재 합의에 따라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 의도를 밝힌 북한이 특별査察을 허용할 경우 4월 30일까지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4. 6. 5

北 NPT 탈퇴 위협의 발상

정부, 對北성명 核 연구용 증기인멸 교체 「非核化」위배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5일 연합뉴스】 정부는 5일 북한이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북핵 단계제재의 일환으로 핵 연구용 증기인멸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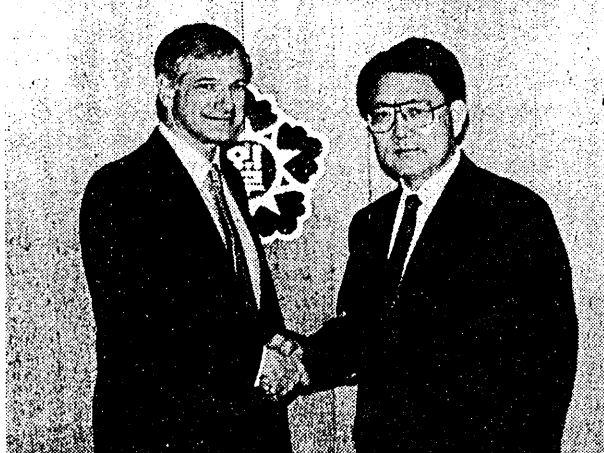
「韓·美·日 3국 핵대처회의」를 비이했다

韓·美·日 3국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核투명성 확보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北서 수용하면 95년 결의되고 제재안도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NPT 탈퇴」 배수진「단기간 강경대응」 제재시점 對美막후협상 타진 가능성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平壤에서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둘러싼 韓·美·日 3국 정상회담이 3~4일 이틀간 서울에서 핵대처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

北 제재는 전쟁, 慈悲 없다

祖平統상명 패트리어트는 보호장치 못돼" 경고

【경】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는 법안인 '패트리어트'는 보호장치가 못돼 "경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다. 북한이 이 상명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는 법안인 '패트리어트'는 보호장치가 못돼 "경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다.

모든 민족적 불행과 재앙에 대해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는 법안인 '패트리어트'는 보호장치가 못돼 "경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다. 북한이 이 상명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는 법안인 '패트리어트'는 보호장치가 못돼 "경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했다.

美와 고위급회담 열릴때 北 정·기·비정·기·査察·수·락

駐中북한대사 회견

【北京=柳東熙특파원】북한은 4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이를 전정선봉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르면 6월 중순에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I.A.E.A)의 정정선봉을 수락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I.A.E.A)의 정정선봉을 수락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군사대표단 訪中

崔光총참모장 이슬

【서울=최광수특파원】북한군사대표단 6명 중 참모총장인 최광수(崔光)가 평壤에 도착했다. 이 대표단은 평壤에서 6일 동안 군사적 정황에 관하여 회담할 예정이다.

美의 독자對北제재 韓國戰이후발효중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人道的 목적외 전면禁輸조치 무역 자유원칙속 경비·수속통해 제한 여행 KAL機폭파계기 무기금수 강화 군수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미국은 1950년 1월 1일 발효된 1951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PSA)에 따라 한국전쟁이후 발효된 미국의 독자對北제재가 한국전쟁이후 발효중이다.

北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돌발행동 가능성은 희박

초강경 반응속 「협상」 여운 남겨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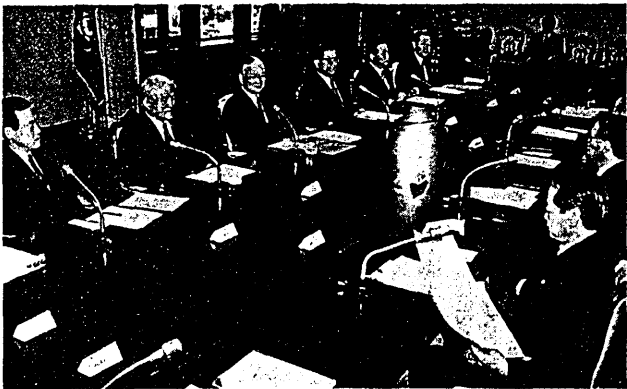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이다.

北核특별사찰 「마지막 촉구」

IAEA이사회전망

IAEA이사회의 결정은 북핵특별사찰의 마지막 촉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현지시간)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北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상철)

“우린 정말 끝났겠어” 아기가 “自嘲”분위기 安保理노의 지켜본뒤 후속조치강구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安保理노의 지켜본뒤 후속조치강구

우사시 대표단과 북한의...정적의 영향

우사시 대표단과 북한의...정적의 영향.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金日成속설 뭐냐 西方 촉각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특별사찰을 위한 IAEA이사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클린턴 “北核 독자제재 준비”

유엔 承認안되면 우방과 협의

安保理 상임5국 본격 논의 돌입 韓美日, 제재내용·強度 등 합의

【다.합.·클린턴=金次雄·南】美國은 중앙신인도 한 삼 안 을 통해 北核 문제와 관련된
【東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월 6일 이사회를 개회한 뒤 비공식 접촉을 해 北核 제재에 대한 본격

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3.6.에 관해서) 美
이영우 전 부총리 美
대사관 5일 부총리 美
제재사항을 수락하도록 압력
을 가하기 위해 유엔 제재
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
엔에서 對北 제재가 승인되
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와
함께 독자적으로 경제제재
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 문제의 의결적 해결을
바라보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3.4일 위
신에서 가진 韓國 日本
과의 3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對北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6일
초안의 확정을 위해 이틀
부담 다른 안보리 상임 5
사국들과 개별 회의를 차수

했다.
미국인 먼저 英國 프랑스
스페인 5국에 제재안 내용
의 내용을 먼저 중국 中國
과 日本에 먼저 對北 제재
의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인
체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초안의 확정 전에는
유엔에서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의 합의가 없을 10
개 보장이사국들의 협조
도 필요할 만큼 중국의 안
보리 상임이사국인 中國의
의결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韓美日 3국인 3자 회의
를 통해 對北 제재의 내용
과 강도 및 제재해제 조건이
토론하여 내일 6.7.에 3국
중심 회의를 갖고 합의
정이나 구체적 내용이 바
라지지 않다고 있다.
이영우 전 부총리 美
제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결의안 초안에 다소 완
화 조항을 삽입할 예정에
대부분을 韓美 3국
5일 유엔 회의를 마치고
고 부총리 안보리 6일
보고했다.

제재가 해결책 못돼
美 협상에 부귀해야
北 외교부장
【워싱턴】北核 6
월 7일에 대한 제재가 압
력인 핵문제 해결을 이루
면 노벨 평화상 영감을
유엔에서 美國이 협상의
부담을 진중히 이루었다.
유엔 안보리를 관장하기 위
해 미국을 거쳐 이틀 키에
프에 도착한 북한 외교부
장 김용은 “유엔 제재가
안보리 5국과 핵무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진
정히 원한다면 北美 3국
중심 회의를 통해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北 제재
러, 반대 시사
【모스크바 6일路透電】
러시아 정부와 韓國 美國
日本이 북한의 승인 없이
對北 제재 조치를 취한다
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러시아 일부
부의 한 고위 관리가 6일
말했다.
김용을 영구한 이 관리
가 “미국은 러시아가 북
한을 경제 무장 협박에서
관여한 적이 있다.” 이
런 러시아가 바로 對북
한 제재에 대한 자체 압력
을 다짐하고 한편으로는
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
엔 안보리에서 적어도 몇몇
이 같이 말했다.

러시아 이어 中·北韓도

多者間 협상 제안

다자간회의의 형성에 대한 제안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한국·일본·영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어 채택한 제재조치를 위반하면 이를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발효된 이 협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태리·타이완·러시아는 북한에 경제·무역 측면에서 큰 이혜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재에 대한 자체 입장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경제적 이혜도 고려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계기사 5면〉

【모스크바·北京·키예프·이탈리아·스페인·로이타·聯】北韓 핵문제와 관련해 韓國·美國·日本 등이 유엔을 통한 對북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북한·中國 등은 이와 별도로 관련국들이 참가하는 다자간 국제회의를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北核 해결 새 變數로

多者間 회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北韓 핵 문제를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제재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당시자는 韓美 양국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주로 중립적인 입장(IAEA) 그리고 북한이 옹호하며 그밖에 中國·日本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면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北韓·美·日·中·러 6개국과 IAEA 그리고 유엔의 참여하는 이른바 「영광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가 알 수 없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유엔본부 AP=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北韓 핵 문제를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제재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당시자는 韓美 양국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주로 중립적인 입장(IAEA) 그리고 북한이 옹호하며 그밖에 中國·日本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면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北韓·美·日·中·러 6개국과 IAEA 그리고 유엔의 참여하는 이른바 「영광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러서 3월 내놓은 案... 中·北韓 뒤늦게 호응

韓美 "제재 늦추기" 事態 복잡화 우려 반대

제재 반대 앞을 걷다
그러나 중립과 북한이 러시아의 제재를 명확히 지지하고 나설 경우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 어렵다.

의 대응은 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金泳三 대통령이 러시아 방해를 러시아가 제재결의에 동참할 것을 확신한 바 있다고 밝힌 대로 러시아는 안보리에 제재결의안이 상정되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北韓·美·日·中·러 6개국과 IAEA 그리고 유엔의 참여하는 이른바 「영광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北韓·美·日·中·러 6개국과 IAEA 그리고 유엔의 참여하는 이른바 「영광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北韓 핵 문제를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제재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당시자는 韓美 양국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주로 중립적인 입장(IAEA) 그리고 북한이 옹호하며 그밖에 中國·日本이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면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北韓·美·日·中·러 6개국과 IAEA 그리고 유엔의 참여하는 이른바 「영광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제안한 「영광회담」을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 韓美 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 러시아의 제안

安保理4國「北制裁」草案 합의

WP紙 보도

中國제외常任國 「NPT」 탈퇴 않 「선」으로

北 특별사찰 거부... 「NPT」 완전 탈퇴 「경고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韓美연합군정강法案 상정

美하원빠르면 9월 18일

만일 사태 대비 실무차원서도 검토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워싱턴=뉴욕통신】북한이 6월 7일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4개국은 그러나 북핵 불이 꺼지지 않기로 의견을 좁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핵 확산금지조약(NPT)으로

“제재 초읽기” 숨가쁜 北核대응

安保理시각

한시름 풀지 못한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中國태도 촉각...결의안에 기권 기대 經濟조치 「초반강공」 두갈래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美國시각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을만큼 참았다” 강경분위기 팽배 클린턴政府 외교포락 본적 시험대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AEA시각

IAEA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核전용 밝힐 증거 확보 물건너갔다” 寧邊 미신고시설 사찰없인 무의미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7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北, NPT 완전탈퇴 경고

“核사찰 불공정 계속 경우”

IAEA에서 한

【서울=연합】북한 원자력총국장 박영환(67)은 6일 한스브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인 요르겐 쇠함을 보고 IAEA의 불공정성의 계속될 경우 북한이 핵실험금지조약(NPT)에서 완전탈퇴하고 북서적인 핵확산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환은 이 서한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핵은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영미연합으로 영미연합 추후 계속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정

치적 편견부터 앞세우면서 핵문제에 공정한 해결에 전향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심하게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江澤民, 北에 自制 촉구

訪中 崔光 만다 “연료봉고체 긴장 고조 행위”

【北京=朴勝俊기자】江澤民 북한위원장의 방중 행사의 일환으로 6일 평壤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7일 평壤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韓어머, 어제를 뵈었다

권영진 부위 對北제재협력 요청 방침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韓의무 뉴욕특파원 회견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中「北제재 결의안」 거부 않을것”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조 韓美日 입장에 安보리 상임국 「北과 대화1년」 核전용방지에 보탬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8일 연합뉴스】 권영진 부위(총리실장)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위원회(이하 국정감사위)에서 1994년 1차 국정감사 중 '북한과의 협력'을 주제로 발언했다. 권 부위는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제재이전 對北대화 양겠다"

金대통령, 3부요인·與野대표에 천명



金泳三대통령주재로 8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李鐘遠기자〉

核개발반개도 용납못해 도발대비 총력안보구축

국가안보회의

「신속·단계적·실효성」北제재 3원칙 확립 정부

金泳三大통령이 8일 북 제재에 대한 유엔제재 전 유엔제재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회의를 하지 않 유엔안보회의를 천명했다. 유엔안보회의의 서민

주장李鍾遠대표의 남북 대화의 대항「북한이 담 할 때」대화를 하자고 해 위기를 넘기고서」다시 대화를 중단한다고 지적 하고「대화의 무용완전히 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만 북한과의 대화는 유엔안

보회의 제재가 결정된 뒤 에나가지아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이「북한에 대 한 제재는 유엔의 페니안 안보회의를 결정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의 단속 재 가동전에 부인하면서 「유엔도 지난번의 결정명 채택전도 있고 해서 거부 권행사를 간단히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대량 제재전의 정 상화(平壤)를 북한의 대화를 중도할 필요가 있고 북한 도 이를 원한다」것이라 말 고 있다면서 金대통령의 북방수령 선과와 관련「러 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에 관한조치」가 자동적인 조건의 사후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전 에의미를 표시했다.

이제 대령 金대통령이 「유엔 안보회의를 유엔이 부 기되며」중단과 「자율적인 조건의 사후화」에 대해 몇 번이나 「지나두려 하지 않 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정 상화(平壤)부터 협력을 발성한 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이 북한발북방

문제의 대해「과거의 러 시아가 탈출 북방수령의 합 법성을 인정 인정하고 다 음의 단계에 임용하는 사 의 단계적 절차를 밝혔다」 고 말했다고 「그러나 이번 정 상회담에서」만 협의사단 확인되면 유엔안보회의가 데 령 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했다. 〈金榮晚기자〉

국가위기 범국민·超黨 대처

안보위기를 「국민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8일 3부 요인인 김종환·김종태·김종현을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안보위기를 초월한 범국민·超黨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北核제재·실질적 해결방안 논의 “한반도 위기고조방안”가 목표

단계적 제재 中國 등 국제사회 동참 유도 방침

▲김대중 대통령은 8일 3부 요인인 김종환·김종태·김종현을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안보위기를 초월한 범국민·超黨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가운데)이 8일 오전 11시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김종환(왼쪽)·김종태(가운데)·김종현(오른쪽)을 긴급 회담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8일 3부 요인인 김종환·김종태·김종현을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안보위기를 초월한 범국민·超黨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회의」어떤가

▲김대중 대통령은 8일 3부 요인인 김종환·김종태·김종현을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안보위기를 초월한 범국민·超黨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도끼만행·버마사태 때도 소집

62년 설치... 91년까지 48차례
안보정책 대통령자문 수행

▲김대중 대통령은 8일 3부 요인인 김종환·김종태·김종현을 청와대 특별회의실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안보위기를 초월한 범국민·超黨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위기는 국민회의가 아니라 국민회의"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
 [서울=신경환기자] 두
 개의 사색사관, 1994년
 5월 10일, 베트남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4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는 100여명의
 베트남군인, 100여명의
 미국군인, 100여명의
 민간인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군인
 100여명이, 미국군인
 100여명이, 민간인
 100여명이 참가했다.

한반도 다시 전쟁 터진다면..

타임誌 특집 잇갈리는 시나리오

北서선제공격...인명피해수십만
B52등 韓美제공권...너달만에 平壤함락
화학무기 스커드위력 4주후 釜山까지
미군엔 전사 1천명

북한은 1994년 6월 8일, 평壤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4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군인 100여명이, 미국군인 100여명이, 민간인 100여명이 참가했다.



북한군은 1994년 6월 8일, 평壤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4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군인 100여명이, 미국군인 100여명이, 민간인 100여명이 참가했다.

북한군은 1994년 6월 8일, 평壤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4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베트남군인 100여명이, 미국군인 100여명이, 민간인 100여명이 참가했다.

北병력 휴전선80만... 하루에 폭탄 2천만발 퍼부어
 북한군은 휴전선을 따라 8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하루에 2천만 발의 폭탄을 퍼부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군은 휴전선을 따라 8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하루에 2천만 발의 폭탄을 퍼부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美, 연료봉고체추강한미련

북한이 과거 핵무명성 보장의 중추적 귀착점인 연료봉 고체추강을 훼손시킨 의도가 과거의 핵물질을 전처리하여 부유분체 미량의 투염성인 연료봉을 해서 도 미국과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 측 판단이다.

미국의 현재 핵무기 안보정책을 강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목적으로 이런 계산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미국의 고위

北核 재협상시사의 의도

충정체결정자들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경우 국제사 회로 복귀할 수 있는 무한 의지의 열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전용시설을 박정일 근거가 사라졌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측 공식전해가 표명될 정도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측의 다시 한번 대화도 무산될 것을 우려한 입장을 발명할지 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북핵무기의 전용시설 건설의 소신(信心)이 미국의 핵무기

심은 연료봉의 대한 추후 비파괴검사(NDA)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IAEA가 추후 제출을 위한 선별보관함을 요구했던 8개의 핵연료봉이 언제까지 돌려보내질 것인가에 있다.

연료봉(10개)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연료봉 선별보관함을 요구하고 있다. IAEA측 기동책자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IAEA측 주장대로 물봉이와 상당된다. 북한이 IAEA가 요구한 방식들을 무시한채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연료봉을 보관해 놓은 현상(현상)은

연료봉(10개)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연료봉 선별보관함을 요구하고 있다. IAEA측 기동책자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IAEA측 주장대로 물봉이와 상당된다. 북한이 IAEA가 요구한 방식들을 무시한채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연료봉을 보관해 놓은 현상(현상)은

미국이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북한과 IAEA간의 견해를 좁혀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의 따른 것이다.

한편 현재 대책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핵폐기물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북한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료봉 제출이 불가하면 핵무기 건설은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이 전방위들의 견해다.

“핵수축했지만 소멸된 것이 아니다” 강조 특별사찰보다 핵투명성보장 비중

이같은 북한의 비무연 무봉의 대한 추후 계속 가능성은 시인했으나 IAEA측 공식 전한 양측의 의견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핵투명성보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제국이 불가능하다 는 것이 IAEA측 공식 입장이다.

연료봉 보관방식의 대한 북한과 IAEA간의 가장 핵심적 견해차는 북한의 상사당 4개봉의 연료봉(40개)을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IAEA는 상사당 1봉 보관의

이렇다는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정부의 북핵무기 전용시설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도 지난 5일 북한의 핵무기 전용시설을 박정일, 핵수축 것이지 수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용시설을 박정일

현재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연료봉의 대한 추후 계속 가능 여부를 둘러싼 상황의 차이를 감안한 3단계 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신원=申相仁기자〉

北연료봉고체완료 사찰가능력성 사라져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양 8일 특파원 리기민 기자 특보】북한이 연료봉 고체추강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찰가 능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양 특파원 리기민 기자는 8일 평양에서 열린 IAEA 회의에서 “북한이 연료봉 고체추강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찰가 능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기민 기자는 “북한이 연료봉 고체추강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찰가 능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IAEA 北 제재案 마련

오늘 理事會서 채택될듯 對北원조 즉각중단 내용

【인=韓基泰 특파원】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9일 북한에 대한 원조중단을 구제적인 제재 조치로 포함시킬 것인 초안을 마련, IAEA 사무국에 제출했다.

IAEA가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안보회의 對北제재안 의 2000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7면 美, 英, 佛, 日, 러시아 등 18국과의 對北제재안 초안 35개, 이사회에 회람된 뒤 10일 이사회 폐막과 함께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I A

E A는 연간 50만 달러 상당의 對北원조를 증가 중 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원자력 의화분양 등 인도적

부담만을 제외하고 우라늄 탐사기술지원 전문가훈련 수 있는 상징적인 청구제

적 제재의 의미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핵물질전용

여부 규명기회가 사라진 현상황에 김정은우려를 표

현실적 및 핵물질에 대한

점근을 제공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허락할 것을 촉구

실하나 주요 이사국들은

스(토)결의안을 채택키 위 해 외교적 교섭을 벌이고

“制裁맨전쟁：南 核 폐화”

北韓 金永南외교부장 위협발언

【키예=프리프레스=합】북한의 金永南(김영남)외교부장 9일 유엔 안전이사회를 마치면서 “북한 사이의 전쟁이 일

이 북조선의 핵무기부전의

합 것이며 결국 핵무기의 핵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

【한겨레 7면】북한이 핵무기 폐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해결

【한겨레 7면】북한이 핵무기 폐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해결

【한겨레 7면】북한이 핵무기 폐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해결

IAEA 對北결의안 제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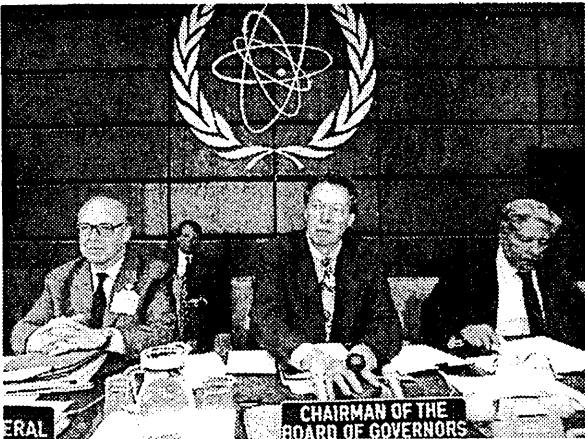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9일 밤 자택 기동회의를 열어 11국 북핵 문제의 결의안 초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4항(중립성)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北核」 국제제재 첫 가시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은 북핵 문제의 국제적 제재가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

安保理 대응 가능자役

中國 태도가 변수...원안 채택 무난할 듯
회원國 자격은 박탈안해 협상여지 남겨

특히 지금까지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해 IAEA로부터 구체적인 제재를 받던 11국 중 9국은 이미 1994년 3월 15일 IAEA의 핵안보조약(NPT)에 가입했다. 이는 북핵 문제가 핵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北·러 소유 플루투늄 燃焼토록 日에 의뢰

核전문가들 촉구

【서울 10일 특파원】 핵안보 조약(NPT)에 가입한 북핵국은 8월 15일 이전에 핵연료봉을 일본에 반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핵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핵국이 핵연료봉을 반출하지 않으면 핵연료봉을 폐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북핵국은 이를 거부했다.

IAEA 이사국 결의안 의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은 북핵 문제의 국제적 제재가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에는 "북핵 문제는 11국 공동의 관심사이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美, 北 '3단계회담 제의' 거부

“對話재개요건 충족돼야 협상” 下院선 北核결의안 채택

한반도 전력증강案 통과

【워싱턴=연합】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8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사찰을 수락하겠다고 제안하며 북미 3단계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부통령인 인턴 발표한 공소문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고 새뮤얼슨 사찰을 발

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과의 대화재개요건에 ‘핵실험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우리’는 핵실험을 위한 무제한 결의안을 찬성했다.

다그 박은 북미 회담의 대화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제 앞서 크리스틴 헬리 쿠퍼 부대변인은 북한

金永南의 고부장의 성명과 관련, 현재까지의 상황이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길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인턴 오후한은 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구하는 내용의 담겨 있는 95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

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北核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연> 기사 4면

이 수정안은 올린 페리쿠 방장위원의 계은 12월 1일 이전에 한반도 군사력 증강방안을 비밀보고서 형태로 의회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유사시의 한류는 대응태세와 한반도 전력강화 차원에서 우선시되는

지상 전력 강화를 위한 군 장비 확보 유무도 전력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해 ‘중 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美 대통령’이 한류정부의 지상 전력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럴드 슐론본의원(共和)의 제안으로 채택된 북핵 관련 결의안의 내용은 북핵정부를 해산할 수 있을 것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美 "특별사찰후 대화" 다시 強手

3단계 - 사찰연계 거부 배경

북한의 金永南외교부장
이 고위급회담을 전제조건
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사
찰연계의사를 밝힌데 대한
미국정부의 반응은 신중을
기한다.

미국정부 8일(현지시
간) 이날 북핵시설
브리핑에서 북한은 특별사
찰연계는 북한의 제의가 정
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
을 내 놓았다. 金외교부장
의 제의가 새판만 내 놓으
고도 북한이 이미 '불이
올수 없는 한계선'을 넘어
버렸다고 것이다. 국무
부 장관인 '미국정부의
핵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대화의 기초를 재구축하기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달라졌으며 이번에는 그
러한 조건에 훨씬 미달되
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북한이 핵물질을
실험하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보

제인 3단계 고위급회담
을 우선의 핵문제를 일
괄타결하는 중점의 주장
에서 한지도 지적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실제로 5MW원자
로의 영구적인 운영이 모
두 끝난 마당에서 대화의
기초를 새로 마련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의 영변 핵

미국의 유엔재판장 최
후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의 핵보유 저지라는 미국
강령기준과 영변 핵
장기조로 변하는 과정을
보고 한가지
흥미로운 분
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아니냐는 관측이 그것이며
그렇을 경우 그야말로 작
금의 핵분열이 새 판을 부
면들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당장 '영변
봉사찰'의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냐라
고 했던 미국의 갑자기
「전제조건」표현을 공식
논평에서 쓰게 된 배경도
이같은 의구심을 부풀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입
장에서 북한이 공지에
몰려 나머지 자기의 '핵
무기 보유국'임을 스스로
선언해 버린다는 경우 노상
정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核물질전용 金공보장업인 회담부의미

美강경선회 北核보유 확인때문 '분식도

장인 핵 대화지속의 기초
라고 강조해온 미국의 입
장에서 이틀바 '대화의 기
초'에 대한 구체적인 북
의사가 불분명한 이 단계의
사구란 의미가 없다는
해설이 나온다. 영변 핵

핵기초장소와 대해 특별
사찰을 실시한 방법과 영
변 핵장기조로 변하는 것
을 두고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실행할 수 있는 1단계 영
변 핵장소와 사찰연계 방
면에서 영변 핵장소와 영
변 핵장소와 사찰연계 방
면에서 영변 핵장소와 영

위한 다른 핵발전로 재
재판과 불확실성이 불거피하
다는 것이다. 핵개발포기
의 대가로 북한의 대화경
제완전과 사회적 안정을
구약했던 미국이 영변
의 '핵무기보유 사실'을
확인한

상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
다렸다는 것이 제재조치를
구체화시키는 것은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다. 즉, 미국의 최근 북한
의 '핵무기보유 사실'을
확인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전제조건」을
확인한

【영변 핵=특별사찰연계】

北韓 핵개발 포기않는한 安保理제재 반드시 성사

金대통령-클린턴 50여분간 電話회담

“美、한국 반대하긴 일일 않겠다”

“카터訪北 때 메시지 전달 요청 안해” 클린턴

【金泳三대통령】 클린턴 대통령과 50여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클린턴 대통령은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美】 클린턴 대통령은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江澤民 “中、北 제재 반대”

【北京=李在濬기자】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江澤民(江泽民)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日、北 군사 제재엔 不參

【도쿄=연합】 일본 외무성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 核問題에 대해 “美-日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 양국 정상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시점 "制裁 최선" 입장 재확인

韓美 전화회담의 미분적

【서울 3일路透電】 북핵문제에 대한 미·韓 정상회담이 3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에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제협력의 「다중이행」 노출

北 非核전제 대화제언 수용

【서울 3일路透電】 북핵문제에 대한 미·韓 정상회담이 3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에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3일路透電】 북핵문제에 대한 미·韓 정상회담이 3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에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永南의 동분서주 金永南북한외교부장(右)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 9일 베를린에 도착, 중국영사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베를린路透電]

가라사대

심민섭

계산해서 1원이라도 남기려고

安保理對北제재난항

美주도 국제공조 차질

중반대·러多철회의 주장 日은강도난항이 3단계案 제시

「표결까지數週日 걸릴지모」

【서울 11일路透電】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 통과를 위한 표결이 오는 15일 또는 16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중반대(중·반)와 러시아 등 다수국들이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강도난항이 3단계 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중반대(중·반)와 러시아 등 다수국들이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강도난항이 3단계 안을 제시하고 있다.

國益저울질 '4國4色'

安保理결의안 외 3항부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중반대(중·반)와 러시아 등 다수국들이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강도난항이 3단계 안을 제시하고 있다.

北입장 고려 대화해결만 고집 중 立地확대 겨냥 多者회담 고수려 동참 표명후 실행엔 소극 태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중반대(중·반)와 러시아 등 다수국들이 제재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강도난항이 3단계 안을 제시하고 있다.

美군사전문가들 2개시나리오 제시

미군사전문가들은 2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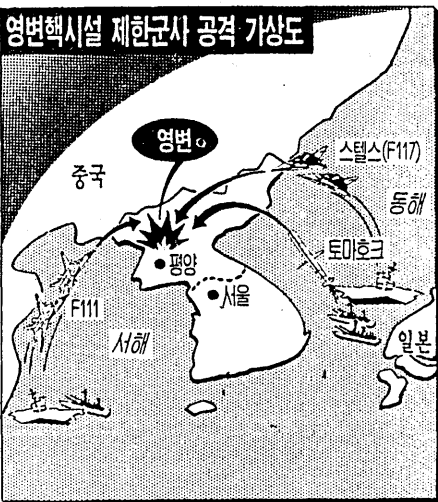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함서 토마호크로 핵시설 폭격

제1案

스텔스·F111A기로 용단폭격 제2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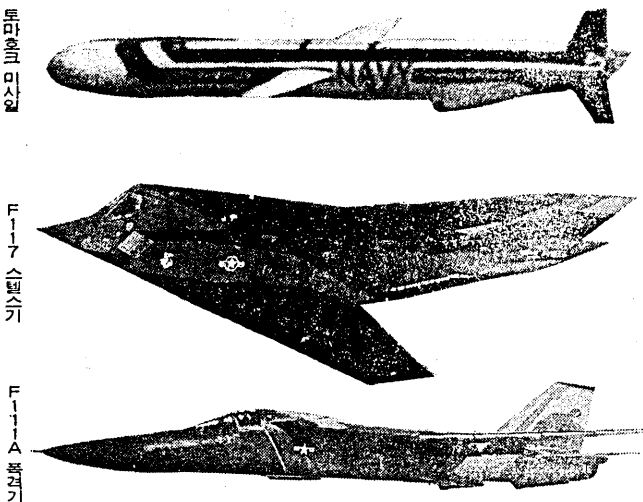
北도 전면남침·局地도발 택일가능성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寧邊公습」 정말 가능한가



미 공군 F117A 스텔스 폭격기

F117 스텔스 폭격기

F117A 스텔스 폭격기

제2한국전쟁터서면 초기부터 대량殺傷

美군남부 가산戰況 분석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戰勢장악엔 몇달 걸릴것

北 한밤기습엔 韓·美軍피해 극심할듯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부경민·평양】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와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韓·美·日 「對北제재」 재확인

서울서 어제 3角회담 결의안 긴밀협조 합의

▽한겨레신문 1994. 6. 11

북핵 8자회담 미, 수용키로

크리스토퍼, 러외무와 회담

【이스탄불=로이터 연합 특약】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의 하나로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10일 밝혔다.

나토 외무장관회담 참석차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장관은 이날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이렇게 밝히고 며칠 안에 제재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그동안 제재결의에 앞서 남북한과 미·일·중·러 및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참여하는 8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해왔다. 미국이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재결의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의 관리들은 8자회담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와 갈등을 해소하는 길로 나오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 관리들은 그러나 회담이 제재결의 이전에 이뤄질 것인지 후에 이뤄질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는 제재결의 채택에 앞서 8자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中國에 적극적 역할 촉구

安保理조치는 단계적 추진

【한경, 모닝, 일출】 3국인 11일 서울에서 연례 3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를 제재결의에 앞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위해 3국의 긴밀협력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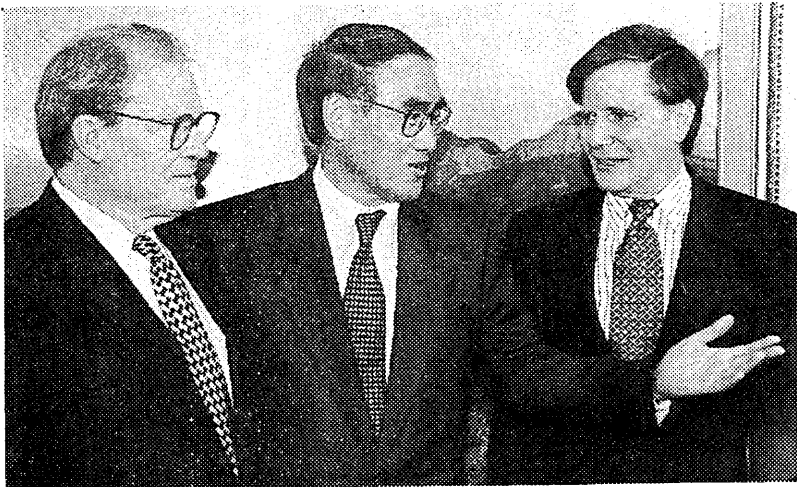
3국인 이날 회담에서 『安保理조치는 과거 회의 때 논의된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안보리가 제재조치가 되도록 하려

이날 오전 韓界외무부 장관과 피터 타노프 미국 국무장관이 열린 회담에서 『安保理조치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안보리가 제재조치가 되도록 하려

안보리의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660호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3國 “北核 입맞추기”



韓美日 서울 연쇄會同 안팎

韓·美·日 3국은 다음 주초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對北 제재결 의안의 유엔안보리상정 을 앞두고 11일 서울에서 韓·美·日 연쇄 회담을 갖고 對北 제재의 내용 등 에 관한 3국의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日、韓美 共助 전략 최대 협력 표명

北 태도 변화 위한 경제 제재 확인 中國 참여 유도 방안 안도 집중 논의

프 미국 무차관 및 가카 인 태도 등으로 지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 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간 별인 협의내용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 이유는 그간 韓·美·日이 추진해온 對北 제재가 중국의 소극적 불거져나와 미국은 결의

교화했다. 韓·美·日은 먼저 북한 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對北 경제 제 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설득과 북한해문제 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 적이라는 인식하에 중국

후 동북아시아의 외교안 보 경제분야에서의 입지 를 스스로 확립하려는 행 동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판 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당초의 경직된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유엔안보리 제재와 병행 해 다자간 국제회담 개최 를 지지하고 나섰으므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안 초안 회담조차 하지 못 했다. 물리적으로 다음 주 결 의안상정이 가능하지도 불확실하다. 러시아와 중 국은 제재에 앞서 다자 회 담 개최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고 이제 미국도 이에 불응하고 있기 못한 부분이 있다.

이와 달리 韓·美·日은 이날 회담을 통해 지난 4월의 유엔안보리 韓·美·日 3자 회담 결과 마련된 對北 제재를 재확인하고 실

현상유지 유엔안보리 상 의 관행적인 지원을 의사에 관해 소명자료를 에 관해 진지한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안보리 상 의관들은 11일 오전 회담을 통해 비

의 유엔안보리 상 의관들은 11일 오전 회담을 통해 비

의 유엔안보리 상 의관들은 11일 오전 회담을 통해 비

의 유엔안보리 상 의관들은 11일 오전 회담을 통해 비

간접시권 "8월회담 가능" 빌버거 기자

유엔안보리장이 사회의
북핵재 결의를 신중히
추진하길 미국이 다시
상기 3요를 시사하고
사기 불확실한 경우가
시정 수완을 발휘하
고 있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美 강경론 후퇴... 北核제재 "주춤"



〈미국인안보리對北核제재결의가 동맹국들과의 의견이론을 조율시
않자 재협상 가능성도 함께 타진하고 있다. 사진은 9일 김도환과 만
나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주요 인물> 김도환(美)
대사, 김기현(美) 대사로

막상 "칼" 빼어들자 러·日 뒷걸음질 펜타곤도 "밀어붙이기 한계" 여론

카터訪北·中 설득이 재협상 轉機 마련 기대

비공식 메시지를 후퇴하
고 있을 가능성이 배제하
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
북핵재 결의를 신중히
추진하길 미국이 다시
상기 3요를 시사하고
사기 불확실한 경우가
시정 수완을 발휘하
고 있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빌
버거는 10일 안보리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
관과의 회담 후 이 때까지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에서 카터의
訪北은 험위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오스카
「평안성의 접근」은
자를 놓아라 러시아의
3요(3요)를 수반한
제재안 통시에 추진하
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對北제재案 승인

무기禁輸·송금제한 결정

韓·美·日, 週初안보리 제출

【워싱턴 11일路透기자】미 의회가 11일 상·하원의안으로 북한에 대한 무기·송금제한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199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 의회는 11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11일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9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미 의회는 11일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9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향신문 1994. 6. 12

美·北 비공식 접촉 촉활발

日紙 보도 日사회당·중의원도 연쇄訪北

【東京 11일路透기자】일본의 신문들이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11일 미·북한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北核제재 첫 단계

강력조치 유보 「경고處方」 예상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수 있
는 경제적인 압박을 나타
내고 있다.
아직까지는 발을 댈만한
북제재의 수순이 아니지만
상황전개를 염두에 두면서

첫째는 對北제재에 대한
결정적 카드 마련해야

한 제재조치에 상응하
는 정도의 압박을 보이고
있다. 제재조치 자체를 점
점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조치보다는 아직도 대
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제재조치 강행에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북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軍事 긴장 부담
셋째는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제재조
치를 강구했을 경우 전혀

北 타격크면 中國 협조 어렵다" 판단 기술지원-문화교류 중단 우선 검토

美國의 對北核제재정책
이 평양정권의 대한 극단
적인 자제에 피하면서도

전반적인 국제협조를 동원
하기 위해서다. 이미 앞서
진태로 中國은 북한에 대

한 것이 중국인들의 지지
를 얻는데 훨씬 더 효과적
일 뿐만 아니라 기탁금을

한반도 軍事 긴장 부담
셋째는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제재조
치를 강구했을 경우 전혀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송승환(남) 배제할까

美의 對北核제재정책이
평양정권의 대한 극단적
적인 자제에 피하면서도

한반도 軍事 긴장 부담
셋째는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제재조
치를 강구했을 경우 전혀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總理주재 民방위회의 李榮德국무총리(左에서 두번째)가 13
일 오전 정부제 1 종합청사에서 국민안
보의식고취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소집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주재하
고 있다. (姜秀寬)

를 제1국민의 협조적
사 부하에 대한 부담감
나 재일교포들의 송환문제
등 북한에 대한 친밀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경우
북한에 대한 그 다음 단계
의 결정적인 카드가 마
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금
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북한
체류를 허용하고 있거나
이를 강제로 내보낼 경
우, 기밀기밀누설추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감
시 카메라의 기밀이 중
점을 겨냥하며 북한
우방국들이 한 차원 더
은 對北제재조치를 강구하
야 그 조치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로퍼
트 장관은 미 국무차관보의
표현대로 미국의 현재 취
하려는 제재조치가 북한의
지까지 해안 행위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이것이 북한정권의 대
한 「강제적인 조치」다. 북
한이 양으로 핵발전소(조
약(NPT)를 탈퇴한다면
지 5MW원자로의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경우
또는 수 차례의 연료공급
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을 비롯하여 핵발전소(조약

美, 對北 제재 대폭 완화

安保理 표결서 中기권 유도

“經濟서 「외교적 고립」 전환”

日 송금차단·油類금수유보도

【워싱턴 12일路透=연합】 미국 제재의 완화는 북핵의 외교 고립을 해고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는 대북 제재의 완화는 북핵의 외교 고립을 해고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는 대북 제재의 완화는 북핵의 외교 고립을 해고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北核강경美에 勇進氣流 부상

○출발단 걸북·카타訪北 등 변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한 이후 미 의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채널론 한계 새해법 모색

對話안될땐 「制裁가속화」 소지

카타르 방문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소련과 맺은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타협하지 않고 재안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 12일路透=연합】

北核 종합대응책 점검

「돌발사태」 대비 非常

15~17일 민방위 비상소집 戰時행동요령 25일 배포

국방부선 핵대책반 가동

北韓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한 가운데 정부는 유사시 대비책 마련에 본격화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새집 부를어 청와대 핵대책반을 가동했다.

주재부 중앙민방위회의와 함께 15~17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25일 「戰時행동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24시간 민방위의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25일 「戰時행동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24시간 민방위의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25일 「戰時행동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24시간 민방위의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민방위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또 25일 「戰時행동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1994. 6. 13

駐韓美軍 전력 3배 증강

韓·美 유사시 대비 스텔스 폭격기 배치 등 협의

駐韓美軍의 전력 증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3배 증강된 스텔스 폭격기 1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2개 여단과 3개 중대의 10개 전방부대가 U-2R 정찰기 등 정찰수단 확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협의를 통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駐韓美軍의 전력 증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3배 증강된 스텔스 폭격기 1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또 2개 여단과 3개 중대의 10개 전방부대가 U-2R 정찰기 등 정찰수단 확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협의를 통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金鍾沅 기자〉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협의를 통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I . 北韓 核問題

3. 北韓 IAEA 탈퇴 宣言 및 카터·金日成 會談

北韓 IAEA 탈퇴 선언 파문

정부 긴급 安保조정회의의

"수셀될까" 대응책 부심

美·IAEA 공식통보없어... 사실이면 심각

北韓이 예상외로 신속히 IAEA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무력 개발을 위한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각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한 후, 김일성 주석의 아들 김정은이 남한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우방제재를 추진한다.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한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했다.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IAEA는 北韓의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막기 위해 IAEA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막기 위해 IAEA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막기 위해 IAEA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이 IAEA 탈퇴를 선언한 후, 남한 정부는 긴급 安保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막기 위해 IAEA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개발을 막기 위해 IAEA 탈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 “미국과 담판 짓자” 속셈

IAEA에 불신감 누적...안보리 제재때 ‘NPT 탈퇴’ 준비된 수순 카터 방북행보 중대변수 등장...교착타개 다각노력 펼쳐질듯

북, IAEA 탈퇴 결정 배경과 전망

워싱턴 / 정연주 특파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한층 긴박한 상황으로 치달게 되었다. 물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자체가 당장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유엔에서 경제제재가 있을 때에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으면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다만 탈퇴결정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의 발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경제제재 조치가 한창 논의 중인 이 시기에, 그리고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데는 몇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은 지난 10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해 연 56만달러에 달하는 핵 기술지원금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이다. 원자력기구에 대한 누적된 적개심과 불신감이 결국 기술지원금 중단 결정을 계기로 이 기구와의 공식 결별로 나타난 셈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에서, 경제제재 등 바깥으로부터 닥쳐오고 있는 압력에 대해 북한 나름의 대응책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지원금 중단이라는 압력 행사에 대해서는 원자력기구의 탈퇴를,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대응책으로 내건 셈이다. 북한은 이러한 잇따른 대응책을 통해 미국측에 북-미 직접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동안 공들여 얻어 놓은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 동결'이라는 성과마저 놓치게 되리라는 부담감을 미국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당장은 원자력기구 탈퇴가 지금 논의 중인 경제제재 조처의 내용과 안보리 상정시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로버트 갈루치 미 핵전담 대사도 13일 포린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러한 결정이 경제제재 결의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고 시인했으며, 미 언론들은 이로 인해 결의안 초안 제출시기도 늦어질 가



김영삼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북한을 방문하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진천규 기자

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자체의 탈퇴보다는 그 이후의 북한 조처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탈퇴가 당장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그 다음 단계 조처로 연료봉 교체 현장에 있는 핵시설단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에는 어떤 조처를 취할지가 미국으로서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과연 무슨 메시지를 북한의

김영삼 주석으로부터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올지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갈루치 대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개인자격의 방문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을 미국 정부에 다시 전달하는 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카터 대통령의 북한 방문 결과를 보고 미국이 경제제재 결의안에 대한 마지막 결정과 대북한 정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카터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다음주로 예상되는 미국의 1단

계 경제제재 결의안 상정 이후 북한 핵문제는 일단 급한 숨을 한번 넘기면서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모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된 뒤 적어도 2주 이상은 회원국들 사이의 협상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터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그러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북한 방문이 앞으로의 북한 핵문제 사태발전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제재-대화' 병행방침 불변

“상황 근본변화 아니다” 의미 축소...‘사찰 불이행’ 예의주시

박종문 기자

정부는 북한의 돌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일단 심각한 사태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원자력기구 탈퇴가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제재를 위주로 하면서 대화를 추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당장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자세는 14일 열린 통일안보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탈퇴결정은 이미 심각한 북한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결정적으로 역행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으면서도 이에 대응한 특별한 조처는 거론하지 않은 데서

도 드러난다. 외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원자력기구를 탈퇴한 것은 일단 사찰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원자력기구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한편 앞으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과의 직접 대화 재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등 관계국들이 협의·작성한 1단계 제재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원자력기구 탈퇴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고, 경우에 따라

서는 제재의 강도를 높여주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북한에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기왕에 작성된 온건한 내용의 안보리 제재안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한국과 미국 조야에서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대북 강경론의 불길은 부채질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가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상황의 악화일 뿐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근거는 원자력기구 탈퇴와 사찰 불이행 선언이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의 북한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데 있다.

원자력기구 탈퇴를 순전히 법과 기술적인 면에서 볼 경우 북한은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원자력기구가 제공하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한 기술원조와 각종 편익을 거부하는 대신 북한이 내는 일정액의 부담금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언한 셈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이에 따라붙는 핵안전조치협정의 실행, 즉 사찰 시행은 사실 원자력기구 회원국인가의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실제로 대만 수리남 몰타 부탄 등 23개국도 원자력기구 회원국이 아니면서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핵안전조치협정을 맺어 사찰을 받고 있다.

원자력기구와 정부는 이런 점에서 북한의 ‘특수지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유보 효과는 예전대로 유지되고 있고 핵안전협정에 따른 사찰수용 등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현재 영변에 잔류하고 있는 사찰관 2명을 추방할 경우는 의무불이행의 확대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번 일을 이처럼 단순히 받아들이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자력기구 탈퇴에 이어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계기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마저 북한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더욱 확연하게 내다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체한 핵연료봉의 재처리 강행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탈퇴 의도가 사찰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데까지 가지 않은 만큼 당장 맞대응은 자제하더라도 북한이 이 선을 넘어버릴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여론을 징검다리 삼아 2단계의 강한 제재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카드 바꿔주기" 北의 국면 주도不容

北의「I AEA 탈퇴」정부의 대외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보면 정부의 시각은 「핵카드의 세분화」이다. 영평포도밭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계엄을 유린한 방향으로 몰고가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잘게 쪼개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외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분철을 기초로 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어떤 카드를 쓰건 이 제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핵포기의 좌우되는 사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14일 상오 열린 북연안포도밭정회의를 통해 서노 이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핵포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탈퇴선언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영향을 주는 조처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더 이상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탈퇴선언을 「자기대로 의욕을 고수한 측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입장을 축소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 따위의 유연 안보리의 제재결의 과정을 보다 앞당기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단 카터전미군대통령을 통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한 뒤 자세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에는 제재결의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비록 완만한 우선이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 고

"강수엔 强手로" 제재共助에 가속 "中·러 입지 좁아져 설득 도움" 판단

관계자들은 북한이 IAEA를 탈퇴한다고 해서 핵과 관련된 지위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탈퇴와 관계없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의 부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탈퇴선언은 남한이 북한을 유인한 북한의 제재결의와 대한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IAEA가 전기이사회에서의 표적원 핵연료 제재결의를 하지 않은 대한 대응으로 탈퇴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하면 「I AEA 탈퇴」가 카터전미군대통령의 북한대변인인 「강수엔」이 「카드 바꿔주기」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李洪九 통일부총리가 14일 상오 장관집무실에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탈퇴선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시킬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를 상충구조를 타고 있는 경제와 안보정책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 한반도의 안정을 최대한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회의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보대책을 마련하되 모반 노선을 진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화 안정보다 신중을 쓰는 것이 현재의 「핵카드」 부문의 장기화될 공산이 어느 때보다 높았으므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린」 물론 북한, 국제사회 모두 현 상황에서 한 번기를 쥐고 있다면 주도권을 영원히 놓치게 된다. 는 강수엔 수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梁承賢기자〉

「카터 평화」에 비상한 관심

미묘한 시기 南北수방 주목



카터 前美대통령

아연 양묘장의 對北 제 1차 수방사업 100만 달러가 지원된 양산 양묘장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11일 미국의 한 잡지에 실렸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양묘장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 6. 11

카터 내주 南北 차례로 방문

정부 對北 「단호한 입장」 전달 요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터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카터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터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카터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제재前 마지막 眞意 파악"

일부선 새로운 대화기회 기대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화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재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차원 '볼구北核'반전 기대

자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 유엔재조치가 구체화돼 가는 단계에서까지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미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카터 자신은 이번 방북이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하지만 같은 논평은 미국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카터 방북에 대해 백악관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성명하듯 실재하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별로 밀착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카터 訪北 美의 시각

성과없어도 대화노력의 부각 제재분위기 흔들려야 "비판도"

그의 방북목적만은 결론 도 카터 前 대통령의 활동에 개인적인 수필들이 분 가지를 현 시점에서 나를 대모 열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대우라 할 수 있는 카터 前 대통령을 "인내 카터"로 활용해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백악관과 대

다. 그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카터 前 대통령이 "반북재가"를 요청했을 때 나섰을 표시해준 클린턴 행정부가 이번에는 동의 해주었는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

다만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에서 "카터 특사" 편에 김대중에게 친서를 전하기 보다는 구두 메시지 정도만을 전달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카터 방북이 별다른 수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카터 前 대통령이 미국측으로부터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을 다스린 번국제사회에 확기시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반대의 행동을 그만둘 희생시키게 되는 외교적 계산도 카터 방북카드에는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을 지나치게 고무시키는 역기능적 측면 또한 지나칠 수 없다. 여차하면 제재결정의 불가피한 상황이 였다면 카터 방북이 실패했을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무나 흔들리게 이끄는 여권의 비판을 받을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카터는 사실상 核特使

백악관 고위관리 金日成 새 타협안 제시할 듯

카터 오늘 來韓 15일 訪北



카터 前 대통령

북한은 자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미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카터 자신은 이번 방북이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하지만 같은 논평은 미국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카터 방북에 대해 백악관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성명하듯 실재하는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별로 밀착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카터 前 대통령이 미국측으로부터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을 다스린 번국제사회에 확기시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하여금 반대의 행동을 그만둘 희생시키게 되는 외교적 계산도 카터 방북카드에는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을 지나치게 고무시키는 역기능적 측면 또한 지나칠 수 없다. 여차하면 제재결정의 불가피한 상황이 였다면 카터 방북이 실패했을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무나 흔들리게 이끄는 여권의 비판을 받을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해리슨 연구원은 金日成 북한주석이 평壤에서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타협 안을 밝혔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카터 前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인차원이지만 사실 상 백악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논평했다. 【워싱턴=연합통신】

한편 13일 오후 4시 30분 美 방북단이 평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터 前 대통령은 15일 평壤에서 14일 저녁 청와대에 서 제임스 레이니 駐韓 美대사가 배석한 가운데 金泳三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북한핵문제·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정 부측 관계자로부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카터 前 대통령은 이어 18일 서울로 돌아와 金대통령과 다시 면담할 예정이다. 그가 南北韓 사이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카터 前 대통령(71) 訪韓은 金大中 亞大평화재단이사장과 만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로 알려지고 있다. <康英鎭기자>

외교관들을 비롯한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이로 인해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는 불투명하다. 역대 미국대통령 중 북한측이 가장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 카터다. 그는 재임중 주한미군감축을 결정, 실행에 옮겼다. 그런 진보 인사의 북핵중재 실패는 곧바로 클린턴 행정부의 경솔한 외교행태로 비쳐지면서 그를 중심으로 공화당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더욱이 카터의 방북계획을 사전에 눈치 채고서도 우리 정부측에 별새조차 풍기지 않았다. 북핵협안 해결을 위해 유지됐던 韓美중재가 무시된 엄연한 중재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구도가 현실적으로 카터 단 장래에 동향했었다면 외교 설도 된다. 백악관이 카터 방북계획에 대한 논평을 가급적 삼가면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려면 이윤노 비수한 맥락이다. 【워싱턴=李相石 특파원】

「南北韓수담」을 보는 정부 입장

카터行步北의 僞用가능성 우려

카터전대통령의 남북한을 함께 방문하기 위해 의정보다 하루 앞서 13일 하오 訪韓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방문한다 일찌기 주장이 아니라 판문점에서의 발언이 있다.

카터전대통령의 남북한을 방문할 불고 갖가지 얘기가 돌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행문제가 판문점에서의 이념대결 추축이나 기타 특이한 의의가 있는 것보다 사실이다.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의 방문이 북한행문제와 상충한다. 북한행문제의 목적은 카터전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이 카터전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전량하락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데 있다. 북한은 조속히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데 있다. 카터전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데 있다. 카터전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데 있다.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내내 없던 시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내내 없던 시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새代案없이 제재분위기 흐릴수도” 분석

韓·美·日주축 국제공조체제에 추가부담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내내 없던 시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내내 없던 시국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해 초 빌리 그레이엄북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특히 위카면하의 원일행이었던 국무부 쿠노네스하가 과장을 통해서는 이른바 '일팔대결'을 韓美 두나라의 전담해 외교적 혼선을 야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梁承賢기자〉

북한행문제에 한미관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터 전대통령이 13일 판문점을 방문하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동시 방문이 주목되고 있다.

訪北행포에 엇갈린 시각

한미 양국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역할 긍정수 부정수

정부 “北전술에 이용당할 우려, 「갖고올 北메시지」 내용이 열쇠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카터 전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제재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심각한 국제분위기·단호입장 카터에 對北전달 요청

“核포기면 對美수교지원”

金대통령, 어제 2시간여 면담 카터 오늘 상오 訪北

“金日成 意中 서울 돌아와 전달”

金泳三대통령은 14일 하오 청와대에서 북한 방문을 하러 온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金泳三대통령이 14일 하오 카터前美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高明辰기자】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제는 물론 남북 관계 완화와 공동관심사에 관해 상당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에게 북한 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판문점 3면

회의 확고한 의지와 對北 제재 분위기의 심각성을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주석 金日成을 만났을 때 분명히 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한 것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이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하고 양이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의 對美수교 등을 지원하겠다고 결코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 대화에 있어 북한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일체의 부에 밝히지 않았다」며 「공주성과 북한 지도자들을 만나 긴장과 그중의 견해를 서로의 틀어와 전하였다」고 말했다고 朱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13일 韓半島의무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보는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북한측에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崔養植기자】

「반갑지않은 손님」이라
는 귀의 은유말이 있듯이
정부는 평양 방문(15, 18
일)을 위해 訪韓한 카터
前美대통령에 대해 실제
로 편치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

정부내에서 누구보다
金泳三대통령이 카터의
訪北을 매우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우선 시
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평양방문이
2년전부터 카터 訪北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美측
에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
력해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의사를 피
력하려면 순간 이미 방북
문제가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
만을 美행정부로부터 전
달받는데 그쳤다.
金대통령은 지난 10일
를 런던대통령과의 전화통
화에서 카터의 방북이 美
행정부의 의사를 담은 것
인지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카터前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가져오는
對北제재방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했
다.

하지만 정부는 기왕 카
터방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방북기간중 북
한의 對서방 미소좌전
말려들지 말고 한국정부
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를 상대로 인종의 「교
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金대통령은 이날 저녁
韓界의 무장파괴와 신라호
텔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청와대로 들어온 카터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만
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방북기간중 金日
成의 노획한 修辭와 「능
침」에 의한 金日成 「평화
주의자」로 오인하게 되는
懸念을 절대 범해서는 안된
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 것
으로 전해졌다.

北미소전략이용당하지 말라

金대통령, 카터에 뭘 주문했나

“상황오관 도발때 과멸” 전달 요구 “核 절대不容” 한국정부의 지 표명

정부는 金日成이 금년
자신의 생일때 초청한 서
방언론 앞에서 「나는 미
국에 가면 낚시를 하고 싶
다. 여러분도 올 여름 휴
가때 가족과 함께 평양에
올라와서 낚시를 하세요」
라고 말했다.
金日成의 이같은 미소전
략을 오관하면 방북을 전
후해 이용당한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金日成이 국내의
상황을 오관해 도발할 경
우에는 韓美양국이 모두
타당성을 인정할 불려일
으킬 것임을 분명히 전달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는 관측이다.

韓美양국의 군사적 준
비태세는 어느때보다 완
벽하다는 사실과 함께 한
국은 美수출품의사가 전
혀 없으며 북핵의혹이 해
소되면 다각도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
사를 전달해 주길 카터前
대통령에게 전한 것 같다.
셋째, 金대통령은 북한
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
고 있는 만큼 자신의 핵개
발까지 의지도 강력하다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
려졌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탈퇴선언을 하
는 등 국제적 고립을 자초
하면서까지 핵개발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으나 이는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金대통령은 거듭
경고했다.
문제는 카터前대통령이
오는 18일 방북을 미치고
관무정를 거쳐 방한할때
중재안을 소지할 경우
韓美양국이 어떻게 대응
하느냐가 또 다른 숙제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때문
에 이날 金대통령과 카터
前대통령간의 회담은 시
중 「부드러운 분위기」였
고 오는 18일 재회동 계획
도 마련돼 있다.
(尹永重기자)

成의 노획한 修辭와 「능
침」에 의한 金日成 「평화
주의자」로 오인하게 되는
懸念을 절대 범해서는 안된
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 것
으로 전해졌다.

“輕水爐건설 지원 계약엔 北 핵계획 즉시凍結용의”

金日成 訪北 美해리슨에 박영

【東京=李錫九특파원】北 핵계획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해리슨은 “美·日에 의해 북핵의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북 핵회담의 결과에 대해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북 핵회담의 결과에 대해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북 핵회담의 결과에 대해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북 핵회담의 결과에 대해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訪北 해리슨(카네기재단) 박영

【北韓이 바라다】정수로 원자로 건설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해리슨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차관제공 등 확실 보장맨

【北韓이 바라다】정수로 원자로 건설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해리슨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재처리시설건설 중지용의”

관계정상화엔 특별사찰 수용 “제재-교섭 양쪽 문 열어야” 제안

【北韓이 바라다】정수로 원자로 건설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해리슨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東京=李錫九특파원】北 핵계획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해리슨은 “美·日에 의해 북핵의 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美·日은 북핵 동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지원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核의혹 풀리면 北-美수교”

카터, 핵투명성 촉구

金永南외교부장 “동등한 대우해수면 해설”

【워싱턴=연합통신】북한핵실험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壤을 방문한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은 15일 저녁 김永南 北한 외교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 함께 축배를 들며 “핵의혹이 풀리면 북-미수교는 물론이고, 핵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16일 보도했다.

〈관계기사〉 3. 4. 5. 8면 > 카터 前美國대통령이 자 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美國 정부의 「비공식 특사」로 平壤을 방문중인 지미 카터 前美國대통령이 15일 저녁 金永南 北한 외교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 함께 축배를 들고 있다. 【CNN-TV 촬영】

북이 핵개발계획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터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 1994. 6. 16

카터·金永南 회담

어제 平壤도착 北核 우려감 표명

【워싱턴=연합통신】북한핵실험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壤을 방문한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은 15일 저녁 김永南 北한 외교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 함께 축배를 들며 “핵의혹이 풀리면 북-미수교는 물론이고, 핵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16일 보도했다.

〈관계기사〉 3. 4. 5. 8면 > 카터 前美國대통령이 자 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평壤에 도착한 지미 카터 前美國대통령이 평壤에서 金永南 北한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주 평壤 미국대사관 제공】

美, 北 2단계제재案 확정

數週 유예기간 거쳐 단행

北韓에 태도변화 마지막 기회부여

1단계 유엔 經援중단·무기禁輸

2단계 原油·금융거래 전면봉쇄

【워싱턴=美통신】안보리 15일(현지시간) 안이 전례 없던 브릭스(러·중·인)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中 "한반도戰 자동개입안해"

어둠과 폭풍의 朝·中우호조약에 條項없어

러 "北제재결의案 반대"

【北京=美통신】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할 경우, 중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제재-北극한행동 예방」 절충

결의안 초안 주요내용

1.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무조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한다.
 3. 이 결의안은 채택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
 4. 유엔 안보리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북한과의 핵관련 기술협력 및 원조 중단 ▲비정기 항공기 취항금지 ▲유엔 및 산하기관들과 모든 국가의 경제원조 중단 ▲무기 및 그 부품의 수출 ▲스포츠·문화·과학·기술 교류 금지 ▲외교 공관 및 범위 축소등을 시행한다. 북한이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을 탈퇴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對北 송금 금지와 ▲북한의 해외 자산 동결 조치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5. 북한이 의무를 준수할 경우 韓半島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6. 유엔 안보리는 이 사안을 계속 협의하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미국 정부가 14일 작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회람되기 시작한 전문 및 본문 20개 항의 초안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재구성한 것임)

安保理 채택 30일 유예 후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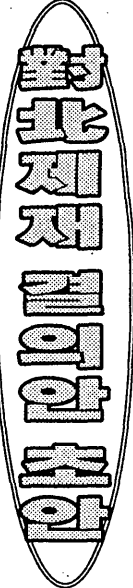
【유엔본부=김영환기자】 유엔 안보리 5월 15일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북한 NPT 탈퇴면 송금제재 中國입장 반영... 반대가 안할 듯 8국회담 검토 포함... 美-北 회담은 언급 없음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 안전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결의안 초안(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 유엔 본부에서 14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5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5091호이다.

北 "核사찰 계속 허용"

카터-金日成회담... 대화해결 합의



◇지미 카터전미국대통령이 16일 평양 주석궁에서 金日成북한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美CNN TV촬영】

사찰관 2명 잔류소락 輕水爐로 전환할 용의

金주석

오늘 두번째 회담 예정

【평양 16일 평양주석궁에서】 김일성 북한주석은 16일 평양 주석궁에서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접견했다. 카터는 C.Z.N.T.V와 가담한 핵사찰관 2명(美·韓)을 포함하여 핵무기를 대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5명의 사찰관 계속 허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2명도 포함하여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김주석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무기를 대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5명의 사찰관 계속 허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2명도 포함하여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는 5명의 사찰관 계속 허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2명도 포함하여 계속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 차이점이나 설계상의 세부사항을 완벽히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CNN이 전했다. 이 방송이 金日成주석과 카터전대통령이 17일 다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對美 협상유도 「시간벌기」

北 왜 카터 「환대」 하나

5MW 원자로 연료봉교환을 감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면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로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安保理등 긴박制裁 움직임 제동

核·北美관계 개선 일괄 타결 의도

핵무기 해설과 북·미 관계 개선의 단계를 포함하는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김일성(왼쪽)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오른쪽)의 17일 나란히 서서 서해협을 방문하고 있다. (서해협=AP촬영)

인 것도 사교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북한은 10일 김일성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카터-韓國 묘한 「인연」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故朴 대통령과 人權 싸고 감정 대립 北核 발언 混線으로 정부 입장 근후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5MW 원자로 연료봉교환을 감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면 미국은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고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대로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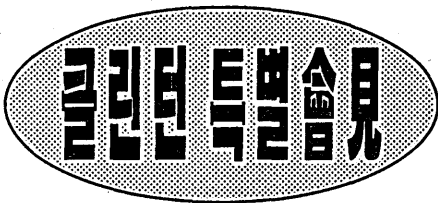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환대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韓炳權기자〉

〈李大熙기자〉



북한 金日成주석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16일 카타르대통령을 중재자로 두고 3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진 후,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상호 합의된 조치에 합의했다. 북한 핵무기의 개발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송주석은 평壤을 방문중인 카타르대통령을 통해 조전부이지만, 북한 핵개발 陳結을 시사하고 클린턴대통령이 이를 무기한 발전으로 평가, 북한이 원하고 있는 北美3단계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양측 정상이 교환한 메시지가 비록 직접 대담이 아니지만 사실상 북

한·미국의 정상간 직접 대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클린턴대통령이 16일 카타르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 백악관에서 장시간의 국가안보회의를 가진 데 이어 국무부가 특별성명을 썼을 때도 불구하고,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긍정적 평가를 전달했다.

이날 송주석에게 사실상 의미있는 예우를 할 것으로 송주석의 체면을 크게 살려준 것만 볼 수 있다.

이날 송주석의 메시지에 대한 미국의 함의의사 표시인 동시에 국가안보회의 메시지는 클린턴 송주석의

北核 긴장 해소 빛 보인다

대해 양측이 양측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유엔안보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특별성명을 발표한 것은 송주석이 카타르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가 현재의 북한 핵을 둘러싼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클린턴대통령이 현재 안보리에서의 북핵문제 재개 시늉하게 처민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재차 북대통령과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치를 흔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송주석의 메시지에

적의 메시지에 즉각적인 환영표시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송주석 역시 이번 카타르 방문으로써 미국에 북한의 한 것으로 보인다.

前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핵심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자로서 입장을 엮는 점을 크게 중시하는 재차결의안이 유엔에서

관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주석이 이번 카타르의 면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실제로 카타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세부적인 조전조건들의 타당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이 지금까지 요구한 당파 면담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수반되면 나머지 문제들의 예상보다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송주석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연접촉을 해체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은 경수로건설에 대한 희망과 핵개발중단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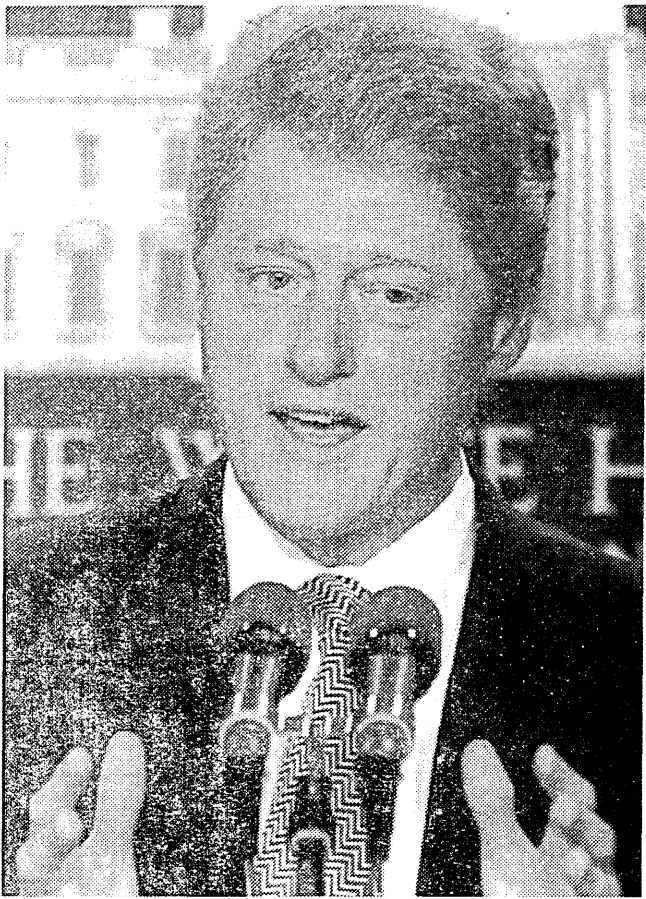
클린턴대통령이 그러나 유엔안보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현재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만으로도, 남북지대무무차파도 노는 것, 미정협의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각국 차관보들의 교차 방문을 통한 공식적 확인을 거둔다는 점에서, 조전부나 카타르가 양측이 이번 송주석의 메시지에 대한 추가 중언과 확인이 있기까지 북한의 태도를 평가할 것을 계속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리를 통한 북핵문제 재개 노력이 따라서 남북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의안 중언이 명시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조건인 IAEA의 긍정적 보고가 이루어지면 북핵문제 재차결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頂上간「간접對話」: 약속에 무게 “쟁점” 연료봉계측에도 중대진전

金진실성 확인전에 北태도 변할지 경계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북한 金日成주석의 北核동결 의사표명에 대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北-美3단계고위급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 AP=聯合】

통과된다는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도 북한의 체면을 크게 손상할 것으로 우려하고 나아가 유엔재제외에 도 미국의 한반도에서 군사적 안정을 계속하고 있어 유발전 전정의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고된한 것으로 보인다.

송주석의 이번 면담에서 카타르대통령의 미군내 및 국제적 위치의 대해 크게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클린턴대통령 역시 카타르대통령의 위치의 대해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같이 중언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카타르대통령의 이번 평壤행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와 각

【주거단=평壤특별대담】

水面위 떠오른다

非核선언 재검토

정파·대사관·북수리점차 돌아서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현재론 北核맞설 유일한 카드” 인식 “향후 電力수급 안정 위해서도 필요”

미국 국무부 차관과 북한 수석대표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이런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평양 17일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北 IAEA 사찰단원 체류허용 뜻

“제재막고美와 대화” 二重포석

NPDI 탈퇴양기한 추방하면 協定위반

【서울 17일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서울 17일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언해 왔다.

北南北韓 美 비핵화 선언 희망

가미(16일) 북한을 방문한 카터(16일)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방과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가진 전화 인터뷰 내용이 있다."
- 김진민 기자
△(16일) 오전 9시 10분 카터와 김정은은 2~3시간 정도를 나누었다. 그는 김정은 주석이 지난 15일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계속 희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한답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北韓 방문 카터 CNN 인터뷰

북한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 하나는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배출하고, 두 번째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이 핵무기를 배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核공격반을 우려 표시 : 대화해결가능 제재강행 : 北고립되면 문제 더욱 악화

핵공격반을 우려 표시 : 대화해결가능 제재강행 : 北고립되면 문제 더욱 악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美와 대화 겨냥 「核동결」 약속

美와 대화 겨냥 「核동결」 약속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北韓의 특별사절이 北美 관계 정상회담 평화협정 체결 후 방미할 때 기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北韓의 특별사절이 방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에도 北韓의 특별사절이 방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에도 北韓의 특별사절이 방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에도 北韓의 특별사절이 방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터-金日成회담 北제의 무엇이 담겼나

카터-金日成회담 北제의 무엇이 담겼나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對北 대화 - 제재 병행

金대통령 訪北 카터 만나 강조

金대통령은 18일 4월 4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이날 오전 서울로 귀환한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인전을 교환했다.

〈관계기사 3.5면〉

金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양양호텔에서 만났다. 김 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양양호텔에서 만났다. 김 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양양호텔에서 만났다.

대통령은 김대통령을 만나 김대통령의 진심적인 확인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조로 하는 북핵 제재의 필요성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담을 재개하더라도 안보 리의 제재 노림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김대통령은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또 북한 핵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 핵무기의 보유량을 0으로 줄이고 핵실험을 금지하는 핵실험금지협정을 체결할 것을 이 두 정상이 합의하고 이

했다.

金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괴담을 속했으므로 국제사회의 압박·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해결책을 추진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핵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이 금주석의 말에 환호했다. 김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이 금주석의 말을 환호했다. 김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이 금주석의 말을 환호했다.

다.

카터前대통령은 북한의 특별사찰 허용의 사드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허용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양양호텔에서 만났다. 김 대통령은 카터前대통령을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의 양양호텔에서 만났다.

이 단문자극 『카터前대통령이 평壤에서 임명된 미국의 「對北 제재 중단」을 둘러싼 대동행의 사전인 의견으로 규정, 부인했다. 그의 견해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그의 견해를 피했다.

金대통령은 백악관측의 카터前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부인한 사실을 17일 오후 (한국시간) 駐美한국대사관을 통해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金玄鑑기자〉

韓美합의 「앞선 행동」에 불쾌감

「카터訪北결과」 정부반응

정부는 카터전대통령의 방북결과에 대해 "의사 관행"인 정부를 정

의 방북결과에 대해 "의사 관행"인 정부를 정
관속시키려는 모습은 각의 합의를 내포할 뿐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터전대통령의 방북
김일성의 17일 2차 회담에서 제재중인 핵물
질에 대한 신중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북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파견하
한 카터의 방북이 행

對話구면 마련엔 긍정적평가

北진의확이천 제재-대화병행

일부北美「직거래」시각에 곤혹감연련

중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방북결과에 대해 "의사 관행"인 정부를 정
관속시키려는 모습은 각의 합의를 내포할 뿐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터전대통령의 방북
김일성의 17일 2차 회담에서 제재중인 핵물
질에 대한 신중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북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파견하
한 카터의 방북이 행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는 카터전대통령의 방북결과에 대해 "의사 관행"인 정부를 정
관속시키려는 모습은 각의 합의를 내포할 뿐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터전대통령의 방북
김일성의 17일 2차 회담에서 제재중인 핵물
질에 대한 신중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북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파견하
한 카터의 방북이 행

18일 카터전대통령의 방북결과에 대해 "의사 관행"인 정부를 정
관속시키려는 모습은 각의 합의를 내포할 뿐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카터전대통령의 방북
김일성의 17일 2차 회담에서 제재중인 핵물
질에 대한 신중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북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관들을 파견하
한 카터의 방북이 행

【종합기자】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클린턴, 對北제재 계속"

백악관 성명 카터「제재 중단」발언否認



◇金聖愛 공석 등장 평양을 방문중 인 카터前미대통령이 17일 대동강주석전용 요트에서 김일성주석과 2차회담을 마친후 서해갑문을 배경으로 부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주석의 부인 金聖愛(우측한복차림)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CNN-KBSTV촬영]

청와대에 사실무근근통보 核동결확인맨 회담재개

클린턴이 유엔제재중단 전화

金日成은 관계개선조치 약속

카터

청와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7일 밤 카터前미국대통령이 북한 金日成주석에게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對北제재 추진을 중단했다」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국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클린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안보리 제재 추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日成 朴斗植기자>

를 전면 부인했다. 다디 마이어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제재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카터의 제재 중단 발언을 일축했다. 미국부도 이날 「核안정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한 뒤 3단계 고위급 회담에 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

다고 밝혔다. (東京 夫社榮기자) 訪北 중인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은 17일 金日成 북한주석에게, 클린턴 美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려는 노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고 美CN N방송이 平壤발로 보도했다. 카터 前대통령은 이날 金日成과 요트에서 3시간 반에 걸쳐 가진 2차 회담에서, 「나는 당신에게 클린턴 행정부가 유엔에서 對北제재조치 강행 활동을 중단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金日成에게 말했다. 카터 前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3단계 고위 회담을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싱턴 당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측이 원하는 것으로 원자로의 교체 등을 미국이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CNN이

방송은 보도했다. 카터 前대통령은 金日成에게 자신이 발사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여러번 전화 통화를 가진후,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보도했다. 金日成은 이에 대해 「대단히 기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金日成은 또 합류전 당시의 실용미군유해 수색작업을 위해 미북한 합동팀을 만

“北, 핵무기보유 의사 없다

카터 회견 美·北수교 서로에 이익

18일 카터 전美대통령은 18일 南北韓 정상회담과 관련 『北韓의 金日成 주석이 제안을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 제안이 더 이상 지연없이 이행에 옮겨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미·북 수교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카터 전美대통령은 18일 南北韓 정상회담과 관련 『北韓의 金日成 주석이 제안을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 제안이 더 이상 지연없이 이행에 옮겨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카터 전美대통령은 이날 오후 駐韓 美 대사관저에서 南北韓 정상회담을 결사하느니 자의권을 갖고 『美·北 수교의 대등성은 양측의 고위급회담이 끝나고 정상회담이 성립되면 성립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美·北 수교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美대통령은 『美·北 수교는 남북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金日成, 船上서 중재역 제의”

카터 「訪北 뒷얘기」 CNN 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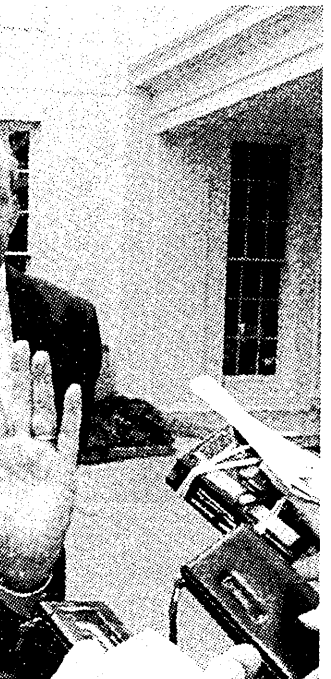
지난 1주일 동안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다. 대신 남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발품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카터 전美대통령은 19일 CNN TV와의 회견을 통해 자신의 방북경험을 회고했다. 카터 전美대통령은 방북 중 중재역 제의를 받았지만 미·북 수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립된 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金 40여년간 남북 많은 제의 오갔으나

의사전달·이해부족해 번번이 수포로

전쟁 가능성 확신 訪北 추진

(大同江에서) 배를 타고 상하의단을 하던 자리에서 나왔다. 김주석은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간) 그럴듯한 제의가 많이 오고 갔으나 커뮤니케이션 부재와 상호 이해부족 때문에 그 때마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북한에 오게 된 경위와 카터 전美대통령이 한 일 등에 관해 물었다. 뒤를 말하며 우리가 중재역 제의를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남북한이 자기들끼리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미 카터 전美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방북결과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김주석이 이북에도 상하의단을 하던 자리에서 나왔다. 김주석은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간) 그럴듯한 제의가 많이 오고 갔으나 커뮤니케이션 부재와 상호 이해부족 때문에 그 때마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북한에 오게 된 경위와 카터 전美대통령이 한 일 등에 관해 물었다. 뒤를 말하며 우리가 중재역 제의를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남북한이 자기들끼리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주석이 이북에도 상하의단을 하던 자리에서 나왔다. 김주석은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간) 그럴듯한 제의가 많이 오고 갔으나 커뮤니케이션 부재와 상호 이해부족 때문에 그 때마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북한에 오게 된 경위와 카터 전美대통령이 한 일 등에 관해 물었다. 뒤를 말하며 우리가 중재역 제의를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남북한이 자기들끼리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北-美수교 상호이익때 가능”

카터회견 일문일답

지미 카터前美國대통령
 18일 오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訪北결과를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미국정부가 안보리 제재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귀하의 방북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韓美 양국 대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非核化 이행中-러도 참여해야 北에선 「제재를 모두」로 생각

金日成수석에게 얘기했던 데그정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개인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금수석이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안보리 제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클린턴대

— 中國과 러시아가 韓美 과 수교를 맺을 경우 북핵의 수교를 권할 것인가?
 「의견은 다르다. 그러나 북핵은 핵문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교는 상호 이익이 되어야 가능하며, 내 개인적 견해로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것 같다.」



지미 카터前美國대통령이 내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내 제안에 금수석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금수석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금수석의 방북은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이 대화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이 대화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 금수석의 방북은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이 대화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이 대화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 금수석의 방북은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남북이 대화를 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카터회견 발표문 요지

나는 카터센터 소장 겸 개인자격으로 北韓을 방문했다. 이번 訪北은 91년부터 몇 차례 있었던 북한측의 초청을 수락하는 형식이었다. 나는 美國을 떠날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나의 방북계획을 설명했으며 클린턴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나는 국무부 관리들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받았다.

내가 이번에 방북을 결심한 것은 한반도가 北韓核문제에 의해 대결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북한지도층과의 직접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나는 金日成수석과 북한고위관리들을 만나 몇가지 사항을 분명히 제안했다.

그 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 잔류허용,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장비의 유지허용, 핵부명성의 보장 등이다.

이같은 나의 제안에 대해 金수석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개발 의사가 없었으며 현재도 핵보유자가 없다고 밝혔다.

金수석은 현재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3단계 北韓-美 회담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또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金수석은 또 경수로 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을 것을 공식 보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

金수석은 미국이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또 金수석이 밝힌 핵개발 동결의사는 영구동결이 아니라 경수로 전환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 동결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金수석이 한 얘기를 미국정부에 전달했다.

나는 어제 金수석과 다시 만나 만약 金수석이 한 얘기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안보리에서의 對北韓 제재는 의의가 중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3단계 北韓-美 회담도 재개되고 이 회담에서는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수석은 나의 이같은 말이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입장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나의 이러한 제안은 외교경로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金수석과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다. 金수석은 남북분단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북문제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수석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金수석은 특히 金泳三대통령이 전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남한측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나는 이러한 金수석의 말을 金대통령에게 전달했다.

“北核위기는 끝났다”

카터, 白宮보고 金日成 병력감축제의

美, 연료봉 재처리 중단 등 北 美 회담 조건 제시

【워싱턴=연합통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위기는 이제 끝났으며, 따라서 對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필요 없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계사 4, 5면〉

平壤방문할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 만나 金日成 북한주석과 회담에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김포데이비드에 서 휴가중인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세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클린턴 대통령도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또 『北韓이 병력을 각각 10만 명으로 줄이고, 비무장지대 등 무관용의 미정고역사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뉴욕=李璋奎특파원】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3단계 고위급 회담 개최에 세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뉴욕 타임스紙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美정부가 북한에 대해 ▲寧海원자력에 연료봉을 장전하지 않고 ▲최근 원자로에서 인공적인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북한에 체류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원 2명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인 세 가지를 우선협상 전제 요구할 방침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 핵위기는 끝났다”

美軍도 비례해 감축... DMZ 開放도

北·美 핵위기 끝났다” 카터 訪北 결과 회견

인들의 반응을 허용하고 그 다음 차츰 개방의 폭을 넓혀가는 제안도 아울러 내놓았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의 이같은 제안은 남북 정상회담제와 함께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 후 자신은 개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핵위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번 평양방문이 각종 김일성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과정에서의 김일성 회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미국은 北 美 3단계 회담이 열린 후의야 對北 제재논의를 중단할 것이며 그러기 전에는 제재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金英鎭특파원】 북한주석 金日成은 19일 평양에서 각국 10대평의회 회담을 시작하고 평양의 김일성주석과 회담의 미국군 참수주장대신 주한미군도 19일 평양 회담장에서의 회담을 위해 비례해 줄자는 제안을 했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 및 로버트 갈루저 부부차관보의 회담을 회견에서 金日成이 자신들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제 의와 함께 이같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金日成이 남북한군대가 철수함으로써 휴전선을 완전히 비무장지대(DMZ)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며 민간

“金日成 약속 행동 통해 평가”

클린턴 회견 美, 北 핵개발 동결 검증 착수

【워싱턴 21일】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핵개발 동결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결은 「회담중인 조선들이」는 북한이 한 말을 행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20일 카터 대통령의 북핵개발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 나타나기는 했지만 「우리」들은 통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우진(한남)은 21일 새 화요일인 21일 새벽(미국시간)인 20일(미국시간)에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 “북한이 김일성의 카터 약속을 20일 카터 대통령의 핵개발 동결을 통해 이행한 것은 대화를 위한 명백한 토대가 될 것이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정말로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약속을

美정·관가 「카터 발언」 비판 제기

“核위기는 안 끝났다”

북한측 양보한 것 없어 美하원 일부 주장
카터는 집에 머물러야 이끌며 前 국무

【워싱턴 21일】 카터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 미국 대통령이 남한 방 위기가 끝났다고 언급한 해를 제기했다.

리 해럴드 하원 일부 의원장(민·인·야)은 19일 CNN 방송 회견에서 「카터의 발언은 카터가 바뀐 핵위기를 종결할 때가 아니라 핵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데이비드 모리슨 의원은 「(북·미)회담이 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세계에 도전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공격이 방사능 나진을 가져오더라도 폭격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협정을 위반하고도」 말했다.

말을 받지는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렌스 이글버거 국무부 장관은 이날 CNN 방송 회견에서 카터의 발언을 「과 관념」이라고 진술했다. 그가 집의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바깥에 있었다고 சொ아 불인 뒤 「카터가 북한을 돌치고 있는 살인자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다」고 말했다.

核"계위" 동결엔 對北 협상

북일련 "카터訪北"는 "희망적 징후들" 확고이중

【서울 21일 특보】 북일련은 21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북한을 방문하는 데 있어 "희망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는 21일 평양에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할 예정이다. 북일련은 카터의 방문이 북미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터는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련은 카터의 방문이 북미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터는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金日成 병력감축 제안"

【서울 21일 특보】 북일련은 21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병력감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일성은 병력감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일련은 김일성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병력감축은 핵무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카터 회견... 南北 10萬장만 유지

【서울 21일 특보】 북일련은 21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회견하면서 남북 10만 장만 유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카터는 회견에서 남북 10만 장만 유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북일련은 카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10만 장만 유지는 핵무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일련은 카터의 방문이 북미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터는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련은 카터의 방문이 북미 협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터는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北 10만減軍제의 '허구성'

북한 10만 減軍제의 '허구성'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만 장만 유지를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 장만 유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10만 장만 유지를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西方교란 선전戰術의 구심

北 유사시 동원체제 완벽... 實現 불가능
주한美軍 감축도 '철수'의 새 표현일뿐

【서울 21일 특보】 북일련은 21일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일련은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도 '철수'의 새 표현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북일련은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일련은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도 '철수'의 새 표현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북일련은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일련은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사시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도 '철수'의 새 표현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北·美 금명 실무접촉

미국무부 소식통 카터 訪北결과 확인

“核개발계획 동결 보장엔 月末 고위회담 열릴수도”

【워싱턴=李鍾連특파원】 워싱턴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北美 실무접촉이 이른바 21일(현지시간) 북어도

【워싱턴=李鍾連특파원】 워싱턴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北美 실무접촉이 이른바 21일(현지시간) 북어도

【워싱턴=李鍾連특파원】 워싱턴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北美 실무접촉이 이른바 21일(현지시간) 북어도

▽세계일보 1994. 6. 24

美北 3단계회담 내달초 제네바서

클린턴 北核동결 공식통보

【워싱턴=李鍾連특파원】 워싱턴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北美 실무접촉이 이른바 21일(현지시간) 북어도

【워싱턴=李鍾連특파원】 워싱턴 카터 前美대통령의 방북결과를 협의하기 위한 北美 실무접촉이 이른바 21일(현지시간) 북어도

北核포기·수교등 「일괄타결」 모색

美·北 3단계회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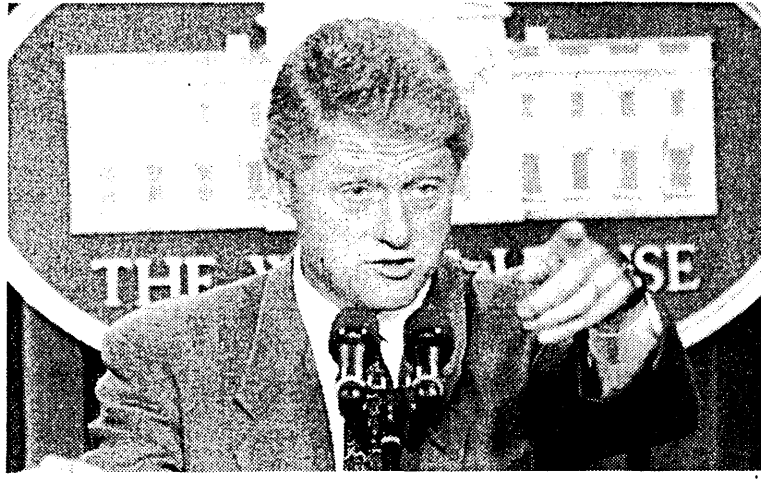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北 NPT 복귀·특별사찰 요구 확실

輕水爐 지원·經協·核안전 제기할 듯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클린턴은 미국대통령의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할 것이라는 공식확인을 받았다. (우·김근호 촬영)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클린턴 성명

보. 정치 및 경제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었으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安保理에서 추진해온 對北제재 노력을 유보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南北간 정상회담 추진 노력도 환영한다.

나는 이같은 진전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카터 前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같은 진전은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찾는 새 기회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韓半島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이 北핵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희망한다.

이번 회담이 가능한 모던원안 논의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 회담이 어떻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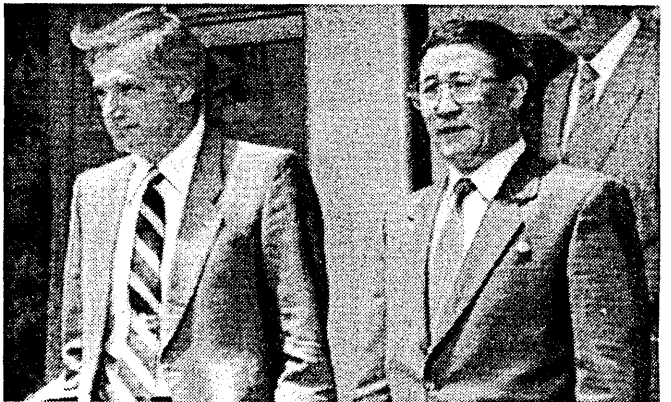
클린턴 성명에 담긴 뜻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은 23일 다음달 초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국경도 극복하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폭의 체포함 시사

“해결의 시작”... 조심스런 접근



빌 클린턴 대통령은 23일 다음달 초 3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일 제네바 미대표부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김정은 북한 외교부 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클린턴 성명全文

지금 북한 상황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음을 발표하고자 한다. 오늘(한국시간 23일) 오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이 지속되는 동안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다음달 초 제네바에서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음을 북한에 통보한다.

북한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동안 ▲핵연료자로에의 새로운 핵연료 장전 ▲사용 핵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팀을 북한에 잔류시키고 영변 원자로의 안전 조치 감시장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은 북-미간의 대화기초를 회복하는 이같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핵문제에 관한 발표에 덧붙여 미국은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정치·경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다.

미국은 이 대화기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유보할 것이다. 미국은 또 남북 정상회담 추진 협의를 환영한다.

나는 이번 진전을 이루어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번 진전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분리시킨 제반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지난 1년여간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구해온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고하고 현실적이며 단호하게 계속할 것이다. 이같은 접근방식은 보답을 받을 것이며 미국은 이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이번 진전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같은 소식을 영구적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입장 배려 없이 “중대한 진전”

南北대화 지원, 절끄러웠던 韓美관계 복원도

북한이 23일 발표한 고위급회담 추진 의사를... 미국 정부는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北核 대화로 해결” 재확인

南北정상회담서도 폭의 체포함 시사

북한이 23일 발표한 고위급회담 추진 의사를... 미국 정부는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金대통령 - 클린턴 電話 조율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미국은 이번 진전을 환영한다. 이번 진전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발견하는 새로운 기회이다.

北·美·日·영·한·중 北·美·日·영·한·중 北·美·日·영·한·중

議題의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北·美·日·영·한·중 24일 김·정·김

美 「先핵해결 後관계개선」

3단계회담日程의 3월 종료

美·北·日·영·한·중 美·北·日·영·한·중 美·北·日·영·한·중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미국외교부=합】미국과 북

北선 병행요구... 절차상 異見으로 차질빚진 않을듯

北선 병행요구... 절차상 異見으로 차질빚진 않을듯
北선 병행요구... 절차상 異見으로 차질빚진 않을듯
北선 병행요구... 절차상 異見으로 차질빚진 않을듯

“클린턴·金日成正상회담가능”

北韓 국제사회협력등 변화조건

고위관리 첫인금주목

【워싱턴=연합】북한이 지고 원한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수점한다 무장관 24일 말했다.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수점한다 무장관 24일 말했다.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수점한다 무장관 24일 말했다.

가장 먼저 대한 정부를 받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수점한다 무장관 24일 말했다.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을 수점한다 무장관 24일 말했다.

행위를 시작한다면 나는 그에 응하리라고 확신한다. 클린턴대통령이 기쁘게 회담하고 싶었다.

「고위급회담용 당근」 유력

「北·美정상회담」 과연 열릴까

카터訪北당시 金日成 제의한듯 核·修交등 예상외 급진전될수도

워싱턴 크리스토퍼 미국 주재 대사관 24일 북한 金日成 주석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올 때 북·美 3단계 회담을 위한 주류가 되고 있다.



클린턴



金日成

전면 회담 전인간 정세 강 조했다. 크리스토퍼 장관이 제시한 조건은 한마디로 북한의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고 미국의 대북 핵합의 100%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회담을 열려면 북·美 정상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북·美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은 핵합의와 핵무기 보유 문제이다. 북·美 정상회담은 핵합의와 핵무기 보유 문제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회담을 열려면 북·美 정상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북·美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은 핵합의와 핵무기 보유 문제이다. 북·美 정상회담은 핵합의와 핵무기 보유 문제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회담을 열려면 북·美 정상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탈영민 미국측의 북한 인권개선추진소파 회담 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공개제이다.

「3단계회담」 8일 제네바 개최 核 일괄타결등 논의

北美 단장 姜錫柱 가를루치

양국 정상 발표

【서울 27일 3단계 北美회담이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무부장관인 이원관 영장(英)을 통해 「北美회담」은 3단계회담 개최를 위한 일련의 실행계획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8일 제네바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에서 姜錫柱의 국무제 1부부장인, 美國측에서는 갈를루치 국무부 차관보가 각각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며 회담장소인 제네바에 있는 샴판대회를 오가며 번갈아 진행되며 첫 회담이 北美대표단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 27일 北美 3단계 회담이 내달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발표했다.

(IAEA) 사찰요원 2명 이 北韓 영변원자로에서 몇 주 동안 사찰을 진행해온 동원 2명과 교체하기 위해 北韓으로 떠났으며 이 해 北韓으로 떠났으며 이 해 28일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스 마이어 IAEA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매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東京외환시장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연매입 달러매각에 앞장섰으며 이에 따라 달러당 90수엔 대의 엔고가 정착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신문 1994. 6. 28

美-北 3단계회담

새달 8일 제네바서 개최

백악관 발표

核협상 진전뿐 양국 정상 회동 가능성 배제 못해

【워싱턴 AP 27일 北美회담이 내달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원관 국무부 차관보가 각각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며 회담장소인 제네바에 있는 샴판대회를 오가며 번갈아 진행되며 첫 회담이 北美대표단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北美 3단계회담 개최를 위한 일련의 실행계획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8일 제네바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AP 27일 北美회담이 내달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원관 국무부 차관보가 각각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며 회담장소인 제네바에 있는 샴판대회를 오가며 번갈아 진행되며 첫 회담이 北美대표단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北美 3단계회담 개최를 위한 일련의 실행계획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8일 제네바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北, 플루투늄 핵소신고

— AEA 총장 발언

일을 끌어주기 위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북한은 원자력 제조의 핵심기술인 플루투늄의 보유량을 축소시키고겠다고 한스 블렌스 국제원자력기구(AEA) 사무총장이 29일 밝혔다. 블렌스는 총장이 이 날 이타르스카야의 회견에서 「북한이 아직 심각한 핵위협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간헐적으로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北,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듯

3단계회담서 核동결조건... 최소 24억弗 소요

韓-美-日 합동회의... 北, 인책 논의

【워싱턴=연합통신】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에 對北 제재 유보 유청

정부 南北정상-軍事당국자 핫라인도 추진

【워싱턴=연합통신】북한은 50여개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회담에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 2기 지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는 「이미」 합의의 일환으로 「비핵화선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보할 예정이다.

〈참조 31면〉

美, 北과 領事교환 容의

美-北 3단계 회담 시작 첫날 두차례 核등 집중논의

“非核化 거론 말고 일괄타결” “양쪽 모두 만족할 방안 있다”

美 [] 北 []

【제네바=차정환기자】 美-北 3단계 회담이 첫날 두차례 核등 집중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核等 문제를 놓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측은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核等 문제를 놓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양측은 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核等 문제를 놓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8일, 미국측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 차관보(오른쪽)가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서 북한측 대표인 송錫柱의 국무 제1부 부장관과 함께 악수를 하고 있다. <제네바AP통신>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 차관보가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뒤 북측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또는 13일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다. 한편 회담에 앞서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7일 미국은 북한과의 3단계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다. 로버트 갈루치 국무 차관보가 제네바 북한 대표부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뒤 북측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일 또는 13일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다.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 美-北 대표단의 일원이 나 임명을 요구한 이 관료는 이를 배정할 명을 통해 3단계 회담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갈루치 국무 차관보가 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核等 문제를 놓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 말했다.

美-北 회담 첫날 어떤제의 오장나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 첫날인 8일 미북측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보좌리슈의 논리를 사료로 내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로 지원연립사부 소교한철지핵안전보장(NSA:북한의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다해협을 사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모 미북 정부가 영국의 영미연합을 띄우기 시켜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核투명성-輕水爐」 입장탐색



◇姜錫柱 북한의외교부 제1부부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로버트 갈루치 미국국무차관보(오른쪽)가 8일 北韓-美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핵투명성-輕水爐」세부시간표 요구

美 經協 등 제시

구조조정에 대한 현재 寧邊 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의 수조와 부속시설은 이미 출핵을 위한 조건부제로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8월말쯤까지 이의 대한 처리단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안전성을 이유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들은 북측이 하루연락 8단계에 달하는 북한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가 8일 회담장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핵투명성, 자정전도성, 동결상태, 중수, 강조, 미국의 중수로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간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양측이 신뢰를 상호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북회담 과정의 핵투명성 보장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추가정보 제공 △핵폐기물 저장소 확보 △2개 미신고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허용 △인출 핵연료봉 사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3가지 방향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문제와 관련하여는 사안이 진전되고 영국의 제안과 관련해 북측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들이 실사구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의견〉 제네바=申相仁 柳惠珠(대연)

회담성공엔 北美관계 정상화 순조

제네바회담 美대표 金三勳대사 회견

【제네바 7일 오후부(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美대표 부로서 7일 오후 6시 30분 제네바의 北美 3단계고위급회담의 성공을 환영하며

밀한 경제체제를 유지해

심사가 對 북한 핵무기 선

설치하거나 영사관계를

해결점을 모색할 것 희망

한 부장부 金三勳대통령

제 1차 회담의 성공을 환영하며

이 회담의 성공을 환영하며

美대표 회견 요약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수로 財政지원 않고 중재에 적극 美와 긴밀협조... 北核해결의 場기대 美대사

【제네바 7일 오후부(현지시간)】 제네바 주재 美대표 부로서 7일 오후 6시 30분 제네바의 北美 3단계고위급회담의 성공을 환영하며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담의 성공을 환영하며

金三勳대사 회견요지

고위급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담성공엔 北美관계 정상화 순조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北-美 제네바회담 임박 전망

갈루치 "대이상 무의미"… 추개여부 추후 결정키로

【제네바=延菊熙】北韓과 美國간의 3단계고위급회담이 12일 오후 1시 30분경 북-美 양측의 1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12일 오후 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美 양측은 12일 오후 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美 양측은 12일 오후 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全軍 특별경계령

송대룡장관

【서울=김기현】북한이 12일 오후 1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美 양측은 12일 오후 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美 양측은 12일 오후 2시 30분경 2차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II. 南北 頂上會談

1. 頂上會談 豫備接觸

김대통령 국가수락

카터訪北설명 장소·議題 실무협의서 결정

南北頂上회담 열린다

金日成 "어디서든 조건없이 빨리만나자" 제의



카터, 喬瓦홀담은 金泳三대통령이 18일 청와대를 마치고 入京한 카터 前美대통령으로 부터 南北회담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朴柄祐기자>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 北韓수석간의 南北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돼 北韓核무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金대통령은 18일 3박 4일간의 訪北행정을 마치고 이날 再入京한 지미 카터 前美國대통령과 청와대의 서 1시간 30분동안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시간 장소의 구애받지 않고 조건없이 金대통령을 만나겠다는 金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았다고 이틀째 수락했다.

朱煥植 청와대대변인은 "전제 조건 없이 金대통령을 빨리 서울내에 만나고 싶다는 金주석의 부탁을 카터 前대통령이 전달한 데 대해 金대통령이 좋다고 화답했다고 발표했다.

金대통령과 金주석간의 南北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이는 南北韓 분단사상 최초로 이 된다. 朱대변인은 金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의사는 카터 前대통령이 북한측의 전달할 것이며 개인이라 밝혔다.

朱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시기에 대해 "金대통령은 金주석이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고 제의한데 대해 간담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朱대변인은 "金주석은 카터 前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의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진간의 협의토록 하자고 전달해 왔다"며 "따라서 장소 및 의제부제에 대해 실무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개인이라 말했다.

朱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정상회담장소가 서울 평양 중 어떤 장소가 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실무진이 구체적인 어떻게 구상할지의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23-5-23(23) 朱대변인의 발표에 의거 정상회담개최가 합의될 때까지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 추진이 중단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핵무기가 파괴될 수도 있거나 정전협정이 체결

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조치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의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문제 등을 6·25전쟁을 南北韓과거사의 대한 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尹鍾重기자>

북한은 1994년 6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南北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북한은 1994년 6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한반도에 변화의 새 기류

남북 정상회담이 18일 오후 4시30분...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假想의 악수...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남북 정상회담이 18일 오후 4시30분...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北核포기」보장이 최대 변수

북한이 핵포기를 보장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변수... 남북 정상회담 수락배경 전망

실무협의 어떻게 하나

남북 고위당료급자 직접담판 가능... 실무협의 어떻게 하나

기존 채널 탈피... 절차생략 예상

남북 고위당료급자 직접담판 가능... 기존 채널 탈피... 절차생략 예상

대부분 政權유지카드로 惡用

새 政權 실패마다 단골메뉴로 80년 이후 공식제의만 5차례... 대부분 政權유지카드로 惡用

金대통령, 頂上회담 수락 배경-전망

南北 정상회담 개최가 국경일로 합의됐다. 물론 합의 자체가 성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는 아직 없다.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 北朝鮮 최고지도자가 17일 2차 회담을 마친 후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峯)을 나란히 서서 둘러보고 있다. <서해갑문=AP촬영>

南北 정상회담 개최가 국경일로 합의됐다. 물론 합의 자체가 성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는 아직 없다.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 北朝鮮 최고지도자가 17일 2차 회담을 마친 후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峯)을 나란히 서서 둘러보고 있다. <서해갑문=AP촬영>

南北문제 해결 "정면돌파"



◇金日成북한주석과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이 17일 2차 회담을 마친후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峯)을 나란히 서서 둘러보고 있다. <서해갑문=AP촬영>

한 상황에서 일단 제재를 해제하면 老獪한 「지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한 상황에서 일단 제재를 해제하면 老獪한 「지연」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조기개최 제안 "파격적" 판단

돌발제에 제지연전술 내심경계

실무팀구성등 成事까지 장애물 많아

金주석이 기존의 남북 제와 안보리제재 문제는 대화창구를 통하여 별개의 사안이라는 「배수」 카터라는 그것도 「美國」 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정부로서는 당

전적으로 수락한 것은 이번 金주석의 회담조건에 일종의 「파격성」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金대통령은 지난 장소에서의 구애 받지 않고 조건없이 그것도 「패」 시일내에 「만」 자는 대우에 크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짐대로

초심회하기 어렵었던 카터를 통해 전달받은 「金」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배경 설명에 걸린 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여러 측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金대통령의 金주석제의를 「金」 수석의 확약대로 「빠」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재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공의를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밝힌다. 「金」 주석의 확약대로 「빠」

頂上회담 이번엔 정말까

前職대통령마다 제의...北측서 매번 일축 金대통령 「핵」 있는 한 약속 불가 한때 회기

金泳三대통령이 지미 카터 前미대통령을 통해 제안한 金日成 북핵 문제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련이 깊다. 「金」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미국의 다짐대로

25일 취임사에서 金日成 주석을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고 기본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번의 제의도 본격적인 회담의 기사가 크게 반박되지 않을 것이다.

金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정상회담의 의도는 이는 북한이 그 해 3월 핵 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함으로써 빛이 바래고 말았다. 金대통령

은급기야 6월 초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 문제를 가진 상대와는 약속할 수 없다고 회기를 막아 버렸다. 金대통령은 그 해 9월 한신중공업의 회견에서 「정상회담」의 건이 조성과 있지 않다고 말했다. 北核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판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이 안된다면서 「金」 주석과 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기 위해서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이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金대통령이 「그」 그로부터 한 달간 「그」 단 2월 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전제 조건을 없애 버렸다. 金대통령이 「북」 핵 개발을 지지하는데 마음이 편다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2월 20일 정당한 것이다.

金대통령의 앞서 3월부터 6월까지 지 朴正熙, 金斗煥, 盧泰愚 前대통령도 모두 정상회담을 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金주석이 이같이 제의를 일축해 왔다. 북한의 「만」 지난 해 5월 姜成山 총리의 對南 전담위원을 파견 「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교환을 제의했었다. 「북」 특사 교환을 위해 8차례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鞠箕然기자>

금작제의·수락...南北 새 기류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주석은 분단후 첫 남북정상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성사여부는 앞으로의 실무접 촉에 달려있다. 사진은 金대통령과 金주석.

조건없는 頂上회담

북정부는 무더기 사찰근로 보도라고 공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수락은 분단 40년의 제재에서 대화로 바뀌게 될지 미지수다.

朱植植(주)대변인의 유언 제재추진 20년만에 대해 "그분제의 정전회담이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만, 김주석은 김대중의 정전회담 제의가 제재를 피하기 위

대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면 정상회담 수락은 지금까지와는 달 리 조건이 없진 것이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정산회담에 대비해왔 고 특히 카터전대통령이 이번의 북한을 다녀오면

남북실무접촉이나 또는 특사교환이 이뤄지게 되 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서는 北·美 3년제회담을 포함, 2개의 채널이 가 동된다. 북의 정상회담 제의가 북·美 회담을 위한 지연전술이 아니라면 북 한 핵문제 해결을 사실상

【崔奎植기자】북한이 북한의 안이론의 핵실험을 통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정산회담의 실패를 수 없게 됐다. 그렇 지만 이는 정상회담의가 순수한 의도에서 나왔고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열 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다. 북한의 정상회담을 위 한 실패의 과정이나 北·美 3년제 회담 진행과정의 서술 수 있는 핵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다. 미 국이 카터방북을 계기로 남북도 함께 제재에서 대 화로 돌아 우리 정부도 중 심을 잡지 못하게끔 풀려하 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그 려서 나오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카터전 미국대통령이 金日成북한 주석의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전하고 金泳三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락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대중은 김주석의 제의나 金대통령의 수락이 사전절차를 거친 후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金주석의 제의 의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성사여부가 성 과에 대한 속단일 수 없을 것이다.

을 통해 「인제 어디서나 조건없이 金대통령을 빠른 시일내에 만나고 싶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이 에 대해 金대통령도 북한 유언 제재추진 20년만에 김주석의 카터전대통령이 「미국정 정정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김주석의 카터전대통령이 「미·金대통령이 지난해 2월

제재서 대화로 급變” 정책표류 적정도

성사면 핵문제에 새 돌파구

交感없이 돌출: 수단이 일러

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 고 북한의 시를 불타다. 모를다고 예상했다고 朱 대변인의 밝히고 있지만

미국에 맡겨볼게 소의했 던 우리의 인정이 호전되 는 것이 사실이다. 북부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핵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 고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하계 회담을 열었다. 핵문 제만해도 상무사찰문제를 통해 북한의 과거 핵실험 의 투명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무접촉 통해 事前조율 필요

南北정상회담 구체절차는?

카토전담부(平壤)를 통해 전달된 김일성주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노태우 대통령은 5월25일 북측의 첫 특사교섭제의 의포함돼 있던 정상회담제의 의포함돼 있을 것이란 보고 있다.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議題문제가 成事변수 될수도 정치적妥結 「장애」없앨가능성

「원칙」합의 불구 「成事」까진 고비산적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평안북도 평壤시 평壤가공기업의 1차 생산라인 장신공의 한 명이 평壤가공기업의 1차 생산라인의 한 명이다.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이후 지난 3월18일까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8차례의 실무대담을 통해 두 정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여 6월18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 이번 경우가 전과 다른 것인 「金日成주석의 최고 의사를」

- ◇南北頂上회담 관련 제의日誌◇
- △79년 1월19일=朴正熙대통령, 「남북한 당국자 무조건 만나자」고 제의(연두기자회견)
 - △81년 1월12일=全斗煥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국정연설)
 - △81년 6월5일=全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 직접회담제의(平統자문회의 개회사)
 - △81년 7월1일=北韓 金日成주석, 남측제의거부
 - △88년 2월25일=盧泰愚대통령, 金주석과 대화용의 표명(대통령 취임사)
 - △88년 10월18일=盧대통령, 平壤방문 회담용의 표명(유엔총회 연설)
 - △93년 2월25일=金泳三대통령, 金주석과 회담용의 표명(대통령 취임사)
 - △93년 5월25일=北韓 姜成山총리, 정상회담논의 위한 특사교환제의(對南 전화통지문)
 - △94년 2월25일=金대통령, 核문제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사 표명(취임 1주년 회견)
 - △94년 6월16~17일=北韓 金주석, 카터前美國대통령 통해 남북정상회담제의
 - △94년 6월18일=金대통령, 北韓 金주석제의 즉각 수락

南北관계 획기적 돌파구 기대

분단후 첫 頂上대작 이루지면

북한주석 김일성의 조건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남북대화 제언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핵문제 해결의 도둑이 된다'는 북측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일성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일성의 주장이 북한 내부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71년 12월 20일 출생지인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김일성은 1982년 9월 16일 1차 집권기간(1982년 9월 16일부터 1987년 9월 16일까지) 동안 북한을 이끌었다. 그는 1993년 2월 25일부터 1년 4개월 동안 2차 집권기간을 보냈다.

김일성은 1993년 2월 25일 3차 집권기간(1993년 2월 25일부터 199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하며,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다. 그는 1997년 2월 25일 4차 집권기간(199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1997년 2월 25일 5차 집권기간(199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1년 2월 25일 6차 집권기간(2001년 2월 25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05년 2월 25일 7차 집권기간(2005년 2월 25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 2월 25일 8차 집권기간(2009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13년 2월 25일 9차 집권기간(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2월 25일 10차 집권기간(2017년 2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측, "核 해결 도움" 판단 전격 수용

南北정상회담 추진경과



金泳三大통령

▲생년월일: 1927년 12월 20일
▲출생지: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
▲학력: 51년 서울대 철학과 부속 1년 4개월
▲집권기간: 93년 2월 25일부터 1년 4개월
▲「感의 정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치적 순발력·판단력이 뛰어나다.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도 돋보인다. 최연소 의원, 최다선 의원(9선), 최장수 원내총무, 최연소 총재(당수) 등 정치경력 다채.



金日成주석

▲생년월일: 1912년 4월 15일
▲출생지: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남리
▲학력: 29년 滿洲 吉林省 육문중학교 중퇴
▲집권기간: 48년 9월 (제1차 내각수상)부터 46년 동안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우려할만한 인물이지만 한편으로 영리하고 침술성 있고 꽤 예리한 독재자라는 평. 카리스마적이고 사려깊고 철학적이라고 함.

북한주석 김일성의 조건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남북대화 제언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핵문제 해결의 도둑이 된다'는 북측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일성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일성의 주장이 북한 내부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71년 12월 20일 출생지인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김일성은 1982년 9월 16일 1차 집권기간(1982년 9월 16일부터 1987년 9월 16일까지) 동안 북한을 이끌었다. 그는 1993년 2월 25일 3차 집권기간(1993년 2월 25일부터 199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하며,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다. 김일성은 1997년 2월 25일 4차 집권기간(199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1년 2월 25일 5차 집권기간(2001년 2월 25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05년 2월 25일 6차 집권기간(2005년 2월 25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 2월 25일 7차 집권기간(2009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13년 2월 25일 8차 집권기간(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2월 25일 9차 집권기간(2017년 2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 〈南北韓 정상회담 관련 日誌〉
- ▲81년 1월 12일 = 全斗煥대통령,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국정연설)
 - ▲81년 6월 5일 = 全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 직접회담제의(평동정 책자문회의 개최사)
 - ▲81년 7월 1일 = 북한 金日成주석, 우리 측 제의 거부
 - ▲88년 2월 25일 = 盧泰愚대통령, 金日成 대화용의 표명(대통령취임사)
 - ▲88년 8월 15일 = 盧대통령, 金日成 회담제의(8·15경축사)
 - ▲88년 10월 18일 = 盧대통령, 평양 방문 회담용의 표명(유엔총회연설)
 - ▲93년 2월 25일 = 金泳三大통령, 金日成 회담용의 표명(대통령취임사)
 - ▲93년 5월 25일 = 북한 姜成山총리, 특사교한문한 정상회담제의의(對南전통문)
 - ▲94년 2월 25일 = 金대통령, 핵문제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의사선명(취임 1주년회견)
 - ▲94년 6월 16~17일 = 金日成, 남북정상회담 수락의사표명
 - ▲94년 6월 18일 = 金대통령, 金日成주석 제의의 즉각수락

이것이 1994년 6월 19일 1차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이다. 이 회담은 1994년 6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성주석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81년 1월 全前대통령 첫 공식제의

金日成, 90년 訪北대표에 처음 언급

북한주석 김일성의 조건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남북대화 제언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핵문제 해결의 도둑이 된다'는 북측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김일성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일성의 주장이 북한 내부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71년 12월 20일 출생지인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김일성은 1982년 9월 16일 1차 집권기간(1982년 9월 16일부터 1987년 9월 16일까지) 동안 북한을 이끌었다. 그는 1993년 2월 25일 3차 집권기간(1993년 2월 25일부터 199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하며, 현재 북한을 이끌고 있다. 김일성은 1997년 2월 25일 4차 집권기간(199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1년 2월 25일 5차 집권기간(2001년 2월 25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05년 2월 25일 6차 집권기간(2005년 2월 25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 2월 25일 7차 집권기간(2009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일성은 2013년 2월 25일 8차 집권기간(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2월 25일 9차 집권기간(2017년 2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1994년 6월 19일 1차 남북정상회담의 시작이다. 이 회담은 1994년 6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성주석은 회담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頂上 회담 예비접촉 28일 板門店서 열자

副총리級 포함 대표 3명이면 議題 제외 시간·장소 협의 희망

〈對北 전통문〉

우리 겨레는 반세기 가까이 불신과 대결로 인해 민족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핵문제도 인해 남북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귀측을 방문한 바 있는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은 귀측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빠른 시일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전해 왔습니다. 나는 위임에 의해 이와같은 귀측의 제의에 대해 민족의 염원으로 보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내외상황으로 보나 매우 바람직한 일로서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귀측에 알리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측은 핵문제로 인해 조성된 남북간 긴장국면을 조속히 해결하고 화해협력 관계를 정착시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남북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는 6월28일(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예비접촉 대표단은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5명 내외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안에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對北 전통문 발송

정부는 20일 北韓의 전 문명의 對北 전통문을 對北 閣僚 10인 板門店 對面 10층 寓所에 10시 30분경 발송했다. 전통문은 對北 閣僚 10인 板門店 對面 10층 寓所에 10시 30분경 발송했다. 전통문은 對北 閣僚 10인 板門店 對面 10층 寓所에 10시 30분경 발송했다.

시기·장소문제에 대한 논의 집중할 것을 희망

▽동아일보 1994. 6. 21

한반도 고 평화 예비접촉에 선 정상회담 의제 문제를 배제할 것을 시사했다. 빠른 시일안에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북측의 뉴스전 회담을 촉구하고.

李洪九 對北 전통문의 서 우라 정부의 제안내용을 밝히고 귀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귀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안에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李洪九 對北 전통문의 서 우라 정부의 제안내용을 밝히고 귀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 귀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안에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南北정상회담 빠른수록 좋다”

李洪九 부총리 예비접촉

【가정】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문제로 시간낭비 없을 것”

【가정】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물줄기 합류 여부 가 성패 좌우

南北정상회담
北美3단계회담

진행상황 따라 서로 영향... 정부, 同時 추진 고려

빠르면 이번 주 초 北美
간 심층접촉이 재개될 것
으로 보일 가능성이 남
간 조선양측 정상회담의
주요 실용의 원칙적인 합
를 보게 될 한 단계 합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물
기 동시 추진 가능성이
자했다. 그러나 이 두 개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상회합도 심각한 난

북한은 이번 주 초 北美
간 심층접촉이 재개될 것
으로 보일 가능성이 남
간 조선양측 정상회담의
주요 실용의 원칙적인 합
를 보게 될 한 단계 합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물
기 동시 추진 가능성이
자했다. 그러나 이 두 개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상회합도 심각한 난

북한은 이번 주 초 北美
간 심층접촉이 재개될 것
으로 보일 가능성이 남
간 조선양측 정상회담의
주요 실용의 원칙적인 합
를 보게 될 한 단계 합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물
기 동시 추진 가능성이
자했다. 그러나 이 두 개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상회합도 심각한 난

南北 맞대면 「核해결」 지름길

李洪九 통일연구원장

20일 對北전문자에 대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늦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들 입장을 지켰었다. 이번엔 지미 커터 前美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이 빠름 시점에 아무 조건 없이 뜻을 공신채널로 확인했 나. 『현재 남북한 공식 접촉 채널이 없다. 어떤 절차를 통해라도 이 기회를 활용해 주면 좋겠다.』

李부총리 對北전통문 배경설명

기술적 문제 구애 받지 않을 것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해왔으며, 오히려 상층부 중층부 및 이차외교관급에 이르기까지 남북 양측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어떤 경우든 시기를 정하지 않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할 것 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 한의 핵무장정확도가 한반 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3단계회담 에서의 北美간의 합의수준 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는 어떤 수준이든 시간의 소모 없이 한 단계라도 비핵화 실현 이 최대의 이익 중 하나다. 『현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분과 관련해서 北美간 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장 주장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핵결 핵무기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어떤 입 장을 지켰었다. 우선 정부 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

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北韓 美 3 단계 고위 대담과 정상회담 사이의 관계가.』

『핵무기 해결이 어떤 지점 까지 세자이므로 북시의 진행돼 왔다. 국제원자력 기구(IAEA)와 북한 사 이 대화의 가장 일차적인 것이며 여기서 발전하는 어떤 대화를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해 왔다. 그러나 핵무기 기반 적으로 한 단계라도 비 핵화 진행이 없으면 해 결할 수 없는 문제다. 따 라서 세자원의 대화 가 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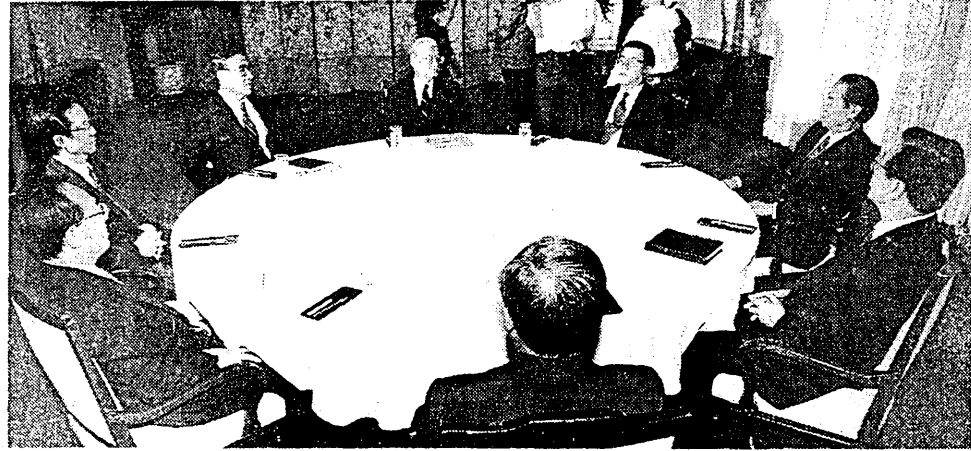
〈康英鎮 기자〉

"북한本心 직접 만나 확인"

예비접촉 전격 先제의: 頂上회담 성사 탐색

정부가 20일 북한측에 대해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전격 제의한 것은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전해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의사를 나타낸 직접 채널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20일 오후 3시 30분쯤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개화하자 김일성 주석의 의사가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된지 불과 2시간 만에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榮德(右)과 김일성(左)이 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일성은 "북한측은 정부에 대해 예비접촉을 전격 제의했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대표 부총리급 격상 강화의욕 핵문제 돌출맨 신축 대응키로

북고 시간을 끌며 정세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측에 대해 예비접촉을 전격 제의한 것은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전해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의사를 나타낸 직접 채널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20일 오후 3시 30분쯤 알려졌다.

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북한회담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측은 정부에 대해 예비접촉을 전격 제의했다. 정부는 이를 신중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신중히 대응키로 했다.

가라사대

심민섭

고삐 먼저 잡기

정부는 아직까지 '대화' 또는 '우호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신중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신중히 대응키로 했다.

樂觀극물 多角대책착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개 최를 위한 예비접촉을 위한 추의 제의에 대해 이어 구체적 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정부는 북한의 판문점에 의 주시하면서 정상회담의 성사될 경우의 대비한다 각 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 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오대 金泳三대통령 주석의 정상회담 제의에 기 대를 걸고 있느냐고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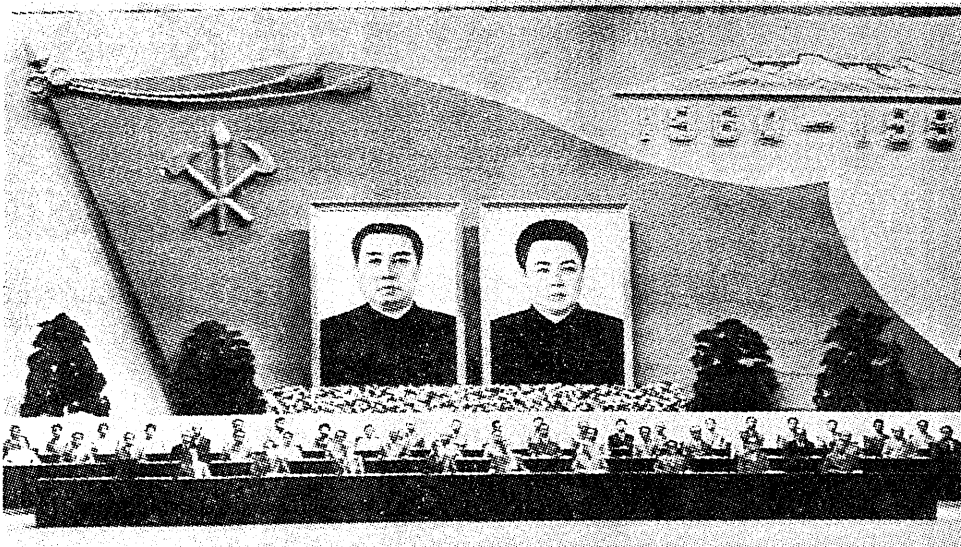
南北 정상회담 部處 준비 표정

일 예비접촉에서 정상회담 의 시간과 장소만 결정하면 된다고 기회를 따마다 감 조.

정오대 관계자들이 국제 정세와 남북한 사정으로부터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 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실 무적인 준비와 정책, 대외 발표를 일단 북일회담을 일

한 노위협과 자국 『여러 가지 정황이 확보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북한의 진심성 이 옹기 쏘아지기를 확인해 야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정오대 관계인 송건영은

“빠르지만 철저하게”



金日成부자의 대형초상이 나란히 나붙은 가운데 金正日 金正日 취임30周의 노동당 중앙위원 취임 30주년 기념식이 18일 평양에서 거행되고 있다. <平壤=AP 陸 嶺>

北「變心」촉각속 예비접촉 기대 추진 一元化에 활기: 장소 등 협의

외무부선 制裁차질 곤혹: 청와대 「즉각수용」 다소 不滿

성명하게 정상회담을 수락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연구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성명한 것이 아니 다』고 해명.

한 관계자는 『북한이 국 구적으로 노린 것은 미국 과의 대화라는 점을 감안하 면 남북간의 교류를 말하 고 『북한이 대화를 말하 다가도 갑자기 돌아선 적이 많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시.

외무부선 制裁차질 곤혹: 청와대 「즉각수용」 다소 不滿 이 추부총리를 방문, 15분 가량 밀담을 나누는 등, 鄭수성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질문에 『그저 인 사차 들렸다』고 말했으나 통일원의 예비접촉 준비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

외무부선 制裁차질 곤혹: 청와대 「즉각수용」 다소 不滿 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쪽 의 전제조건인 핵, 북한의 「과거해」북인, 핵무기 확산 금지조약(NPT) 체결 유 지주력 줄이려 들면, 마편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대외부 면 주장은 「유엔 대북제재 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결 의안 초안 내용의 대해서도 일부 양보의 여지가 있다」 등 의하지 않고 있어 제재 노력 이 순탄치 않음을 솔직히 시인.

추각을 모두 세우고 바짜 긴 장. 특히 남북회담 사무국 의 한 관계자는 『북의 반응 이 관문점 남북연락사무소 를 통한 대담 전담의 형 식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고 분석.

외무부 관계자들은 또 정 부가 당초 카터前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알레르기 반 응」을 보였다가 다시 카터 前대통령이 서울에 와 기자 회견을 통해 金日成북한주

核과거 덮어뒀선 안된다. 日

南北韓 정상회담 합의... 各國 반응

【日】 가키자와 고지(楠 浩弘)의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타의 제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韓國의 의향과 美 北韓교섭을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을 노리는 北韓의 의향이 일치했기 때문이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南北韓의 의도가 서로 달라 의제와 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의 서면회담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정상회담의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日】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이미 추

출했음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과거」의 문제를 불문에 부쳐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한다.

〈모스크바=李昌淳특파원〉

철저한 준비로 실질 성과 거둬야 **유럽**

상호실체 처음 인정하는 상징성 **러시아**

YS 흡수통일 不願이 북 끌어내 **中國**

【유럽】 프랑스·英國·獨逸 등 유럽국가들은 南北韓 정상회담 합의에 일제히 환영한다. 입장을 밝힌다.

프랑스와 英國의 관리들은 「南北韓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고 「南北韓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다.

【러시아】 「남북 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다.

러시아가 20일 駐 韓 國 대 사관이던부터 남북 정상회담

【中國】 「中國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힌다.

대외선 정치·외교 경제 등에 있어 남북간의 격차가 워낙 커서 남북간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모스크바=李昌淳특파원〉

【日】 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타의 제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상회담 합의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韓國의 의향과 美 北韓교섭을 위해 유리한 환경조성을 노리는 北韓의 의향이 일치했기 때문이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南北韓의 의도가 서로 달라 의제와 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의 서면회담이 나타날 것으로 보며 정상회담의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日】 특히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이미 추

인도적 교류

軍 상호사찰

頂上 회담

金日成 메시지 3가지였다

北 회피 못하게 정상회담 선택 진실성엔 의문... 成事 두고 봐야 金 대통령, “北 頂上 회담 수 없었”

고위당국자

북한주석 김일성이 21일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金日成(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인도적 교류, 남북한 군의 상호사찰 등 3가지였다.

북한주석 김일성이 21일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金日成(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건을 위한 인도적 교류, 남북한 군의 상호사찰 등 3가지였다.

이와 관련, 카터전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金日成(김일성)과 우호회담을 가진 뒤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金日成(김일성)은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보냈다. 첫째, 남북한 군의 상호사찰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둘째, 인도적 교류를 통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셋째, 남북한 간의 상호사찰을 통해 양국 인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터전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金日成(김일성)과 우호회담을 가진 뒤 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金日成(김일성)은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보냈다. 첫째, 남북한 군의 상호사찰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둘째, 인도적 교류를 통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셋째, 남북한 간의 상호사찰을 통해 양국 인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속히 대좌”제의와 거리 멀다

【北京21일 김일성 북한주석의 金日成(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의 3가지 8월 중반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金日成(김일성)은 21일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金日成(김일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은 8월 중반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회담을 통해 양국 인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단 바이트
면담과 대화의 일환
아전민행가 31호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북한주석 金日成(김일성)이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환영했다. 그는 “북한은 8월 중반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회담을 통해 양국 인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으로 있다면서 “판사 金日成(김일성)의 ‘가장 먼저 사할 것’이라 하고, 둘째는 우리와 20일 추후 북대륙을 리명의로 전환한 여비접촉제의와 관련한 군사회담이라 보기도 했다.”

북정관계 전문가인 한 관계자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鄭鍾旭(정종욱)의 말을 인용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鄭鍾旭(정종욱)의 말을 인용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기(前)총리 미망인 밝혀
정부관계자
정부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鄭鍾旭(정종욱)의 말을 인용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鄭鍾旭(정종욱)의 말을 인용한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는 “北은 김일성의 제의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北 뭘 노리나” 또다시 안개속

金日成 「8.15 정상회담 희망說」

북한 김일성 주석의 평양을 방문한 미키노케오(三木武夫) 전 일본 총리의 미망인 무쓰코요시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8월 15일 북한 지리에서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북한측 통일방안을 합의하기 위한 이른바 ‘민중대화’가 한창 열리고 있는 평양을 방문한 무쓰코요시사의 발언은 두 정상회담을 위한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도에 의의를 두지 않겠지만 유엔 안전 무쓰코요시가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방문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일 유엔총회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對南선전공세 이용 속셈우려 정부선 신빙성의심 신중자세

“北側 공식회담 두고 봐야” 조심스런 樂觀論 유지

21일 하오 북경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방북 10주 기념식이 열렸다. 김 주석은 방북 10주 기념식에서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회장의 발언은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주석은 방북 10주 기념식에서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주석은 방북 10주 기념식에서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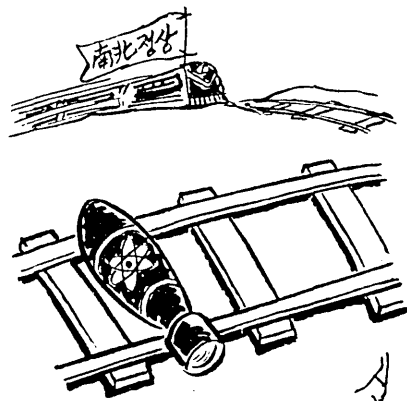


◇金泳三대통령이 지난 20일 朴寬用비서실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李洪九통일부총리로부터 정상회담관련 보고를 받고있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주석은 방북 10주 기념식에서 “북한은 남한을 통일할 때까지는 휴전협정을 폐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라사대

심민섭



열차가 설지 어떨지는

北 28일예비접촉수락

板門店서 정상회담 협의

북측인방의 전통문 南側제의 그대로 수용

북한이 28일 8월 23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위한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3차 예비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판문점 28일 1시〉
북한이 28일 1시 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3차 예비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제1차 정상회담을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제1차 정상회담을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쪽 전통문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기려는 것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방침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참예한 정세는 북남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때에 귀측이 이번에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 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임에 의하여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위

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하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28일(화) 오전 10시 판문점 귀측지역에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원을 보낼 것입니다.

남측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 실현을 위한 10시 판문점 회담을 내기로 했다.

〈金鳳先기자〉

李부총리 수석대표內定

북한이 28일 1시 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3차 예비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제1차 정상회담을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제1차 정상회담을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이번 제1차 정상회담을 28일 4명의 수석대표를 28일 4명의 수석대표로 합의할 예정이다.

北 예비접촉 조건엔 없는 수락안과

22일 오전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에 참가한 우리측의 제의와 北측의 22일 회담을 양측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지만, 北측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金泳三 대통령의 정중환 수석의 이끄는 20인 대표단을 판문점에 예비접촉을 전격 의뢰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頂上회담」 길은 트였다

남은 12시간 동안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수락한 우리측의 제의와 北측의 22일 회담을 양측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지만, 北측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美·北 회담 명분 얻기 전략일수도

신속회심등 前例없이 적극 자세



◇宋榮大동원차관이 22일 북한측이 우리측의 판문점 예비접촉 제의를 수락하는 전통문을 보낸 직후 기자회견에서 예비접촉에 임하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李範錫기자>

이와 달리 남북이 평양 회담조차 수용하게 되면 북측이 제시한 대안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8·15 평양회담을 수락하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만나면 北의 또 다른 발전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측이 22일 예비접촉을 수락한 것은, 北측이 판문점 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회담 실현의 청신호

北 예비접촉 수락 배경과 전망

북한이 22일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측의 28일 예비회담 제의에 그대로 응응해옴으로써 정상회담 성사에 일 단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예비회담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및 의제 등 절차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측이 이에 별다른 이의없이 화답해 온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첫 단계가 제대로 채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측이 이처럼 예비회담의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실천의지가 확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宋榮大 통일원차관)고 긍정평가하고 있다.

북측이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 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



宋榮大 통일원차관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이 우리의 제의를 수락한 것과 관련, 정부입장과 예비회담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국면전환용" "대화노력" 평가상반 접촉과정서 진실성여부 최종 검증

해선 정부내에서조차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첫째, 북한이 얼마전까지 핵연료봉 교체로 국제제재 움직임을 자초한 데서 절감했듯이 이른바 핵카드의 효력이 소진되고 있는 데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이다.

즉 당면한 국제제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美北 관계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시각이다.

이게 북측도 미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핵문제와 관

제재의 고삐를 완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정상회담의 모양새와 관련해 모종의 불확실한 동기가 개재되어 있다는 추측이 다. 즉, 前일북총리 부인인 미키여사를 통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처럼 북측이 金泳三 대통령을 오는 광복절을 기해 평양으로 초청, 그들의 각본에 따른 '8.15 민족대회'의 일환으로 정상대화를 가 지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 시

점에서 개연성이 적은 관측이다.

이처럼 북한이 자금에 처한 내외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나름 예비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도 그만큼 다 목적인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물론 북한의 정상회담 실현의지의 진심여부는 28일 이후 열릴 몇 차례의 예비회담 과정에서 최종 검증될 것이다.

있다. 우리측 전문가에 전혀 없이 신속히 회신해 왔을 뿐 만 아니라 대표의 級응 예비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도 선선히 응해 왔기 때문이다.

북측이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 으로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

계개선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美北 3단계회담을 추진시키기 위해서인 최소한 형식 상으로라도 남북대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핵문제를 종재키 위한 카터 전미대통령의 남북이 후에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같다.

셋째, 북한의 對南 전략 진출에서 후퇴하고 진심한 남북대화의 움직임이다. 는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년도 역시 점에서 체제동요를 우려해 전면적 교류와 개방이라는 모험을 할 용량이 아니라

北의 對南전동문 (全文)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영덕 귀하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의 새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방침입니다.

오늘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북남 쌍방에 다같이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를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때에 귀측이 이번 우리와 최고위급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표시한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임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지자는 귀측의 제의를 환영하며 그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쌍방 최고위급회담의 개최는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28일(화) 오전10시 관문점 귀족지역에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원(수행원)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성산
1994년6월22일 평양

이번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정상회담의제를 논의하지 않고 장소나 어떤 출사가 임상이어서 북측의 예비회담에 순조롭게 응해줄 경우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다음달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장소나 시기문제 등 순수한 절차문제 이외에 중점처럼 의제문제도 시간을 끌 경우 카터前美대통령을 통한 북측의 정상회담 제의 자체가 핵문제와 관련된 국면전환용임이 입증될 것이다. 또 불필요한 전제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보일 경우 지나해부 터 올 8월까지 계속했으나 실패로 끝난 특사교환 실패 접촉의 재판이 될 것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북측이 어떤 인물들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도 북측의 실행의지를 어느 정도가 늘릴 수 있다. 수석대표로 金日成부자의 신임이 보다 두터운 인물이 나질 경우 정상회담 성사가 가능할까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具本永기자〉

核포기-經協 교환이 초점

南北정상회담 불발 무늬

북한은 28일 우리측의 첫 번째 다섯인 화해회담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측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포기 협정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핵포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8일 우리측의 첫 번째 다섯인 화해회담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측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포기 협정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핵포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再會 등 「화해」 폭넓게 논의

통일문제에 먼저 거론됐던 교착소지

북한은 28일 우리측의 첫 번째 다섯인 화해회담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측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포기 협정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핵포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절측 북대포기 거론

28일 판문점회담 앞두고 관측

28일 판문점회담을 앞두고 관측

북한은 28일 우리측의 첫 번째 다섯인 화해회담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측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포기 협정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핵포기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首席엔 金容淳 對南담당 미서 유럽

強性 祖平統서 나을정아 「그럼」 우면나



林春吉

金永南

安炳株

金容淳

白南俊

黃長博

金英柱

金令哲

〈속보〉

7월 頂上회담 제의키로

통일안보회의 장소 어디든지 北側に 일일임

예비접촉 수석대표 李洪九 부총리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예비접촉」 3인의 대표

23일 정통부를 통해 정 회담을 성사키 위한 교섭 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받아들부한중의「신선하다」고「정확」받들지 도모된다.

李洪九 부총리(80) 鄭鍾旭 부총리(80) 尹汝鶴 부총리(80) 3명이 모두 對北접촉에 깊이 관여해오기 했으나, 직접 회담장에 나선 적은 없던 「부경염」자기 때문이다. 부단 이후 최중의 대표로서



李洪九 부총리



鄭鍾旭 수석



尹汝鶴 특보

6共대 한민족공동체방안 立案

核문제·대통령의중 전달역 수행

언론인출신... 對北관계도 일가견

李洪九 부총리
鄭鍾旭 수석
尹汝鶴 특보

북한의 대표와의 직접적인 인접. 이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예상되는 北-美간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宋泰山기자)

「頂上회담 可視圈」 준비 박차

오늘 긴급 統一안보조정회의... 세부대책 논의 1차접촉서 서울개최 제의-7월말 成事 추진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남북정상회담 임박을 전담키로 했다. 28일 예정된 7월 7일 평壤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2차 방북을 계기로, 28일 평壤에서 李洪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尹汝鶴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예비접촉을 추진한다.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북한이 양측과도 합의...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북핵변의 리얼

북핵변의 리얼...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南北 모두 서로 "適期" 인식

文民정부 과감성 北도 동조하기 쉬워 金日成 "생전에 共存체제" 보장 바랄듯 지나친 낙관론 "北韓 기만전술 일지도"

이민의 의견...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송추석의 자언...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의기인사 무야...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적의 수반은...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수평협정의 바람

수평협정의 바람...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언제 어디서 열릴까

언제 어디서 열릴까...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남시기 北장소 선택 가능성

美-北 3단계회담 결과 고려... 남시기 北장소 선택 가능성

남시기 北장소 선택 가능성...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남시기 北장소 선택 가능성...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頂上회담 7월-平壤 개최 유력

頂上회담 7월-平壤 개최 유력...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頂上회담 7월-平壤 개최 유력... 정상회담 낙관론이 우를 보편!

北「예비접촉」대표통일파

단건 **金容淳 대표 安炳洙·白南俊**



金容淳



安炳洙



白南俊

北(경인)은 28일 판문점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본부의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하고,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북한 개방파의 리더로 꼽히는 김용춘은 남북회담본부의 대표로 임명됐다. 김용춘은 1983년 1월 1일 창립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198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

김용춘은 서울 15양산 26년로 주민 15명이다. 그는 1983년 1월 1일 창립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198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

북대표 중량급... 회담중시 의지

北대표 3인 어떤 사람이냐

北(경인)은 28일 판문점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본부의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하고,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金容淳

金부자 심복... 개방과 旗手

安炳洙

뛰어난 이론가... 南결끄러운 상대

白南俊

부드러운 성품... 최근 급성장 눈길

북(경인)은 28일 판문점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본부의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하고,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북(경인)은 28일 판문점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본부의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하고,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북(경인)은 28일 판문점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본부의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하고, 임명인사 명단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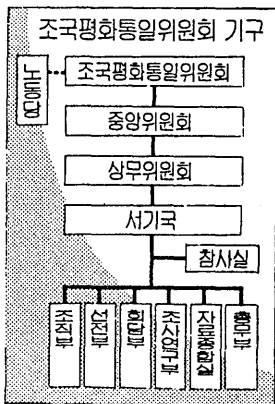
北「祖平統」어떤 기구인가

노동당 외곽단체... 61년부터 활동 南北교류 명분속 적화통일 선전

南北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가할 북측대표 3명이 모두 對南통일선전술전위단체로 알려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平統)에서 나온 것으로 이 단체의 성격과 기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祖平統은 지난 61년 5월 越北작가 洪命勳을 위원장으로 한 33명의 준비위원회에서 조직된 노동당의 외곽 사회단체다. 南韓의 4.19혁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對南혁명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앞세우며 제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을 망라하여 급조된 대남전위기구다.

祖平統은 △남한 각계각층인사 및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적화통일 실현투쟁고취 및 선전활동을 하며 △노동당의 통일 및



남북대화정책을 대변하면서 실질적인 통일 대화업무를 추진하고 △남한내 주요사건 또는 새로운 정책제시 때마다 「조평통서기국보도」등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등 간부 대부분이 당정치국원과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겸하고 있는 黨政 고위간부들이다. 위원장은 지난 84년 1월 이후 許鎭이 맡아오다 지난 91년 5월 그의 사망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부위원장은 金容淳 黃長 權(당비서) 楊亨燮(최고인민회의의장) 林春吉 呂燕九(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정준기(대외문화연락위원장) 安炳洙 정신혁등 13명이며 서기국장은 白南俊이 맡고 있다.

(黃有成)

합의안 체결면 첫회담 판문점 개최

예비접촉 정부방문 장소관계없이 내달 1차회담

북과 남이 1차회담을 위한 합의안을 체결하면, 양측은 26일부터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도 평양 회담 가능성 검토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南北정상 서울-평양 교환방문 추진

南北정상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료 정동욱 「신허구추방안」 연구

정동욱은 「신허구추방안」 연구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신허구추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에비접촉 휴일 「모의회담」

「代役」北대표 나서 8·15평양개최등 주장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26일 판문점에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최합의서」草案 제시

오늘은南北정상회담 예비접촉

“시기·장소·용통·성·돌·것”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 남북지역인 평화의 휴에서 우리측은 「남북정 예비접촉이 28일 오전 10시」 집에서 개최된다. 이날 접 상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

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7 월을 전이내에는 정상회담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정 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중 단 되고 있는 남북공동위협 회 를 재가동, 구체적으로 현 안을 해결해나가는 입장 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 다. 시기와 장소문제에 대 해 중점을 갖고 이번 실 무접촉에 임한다는 게 정 부의 기본 입장이다.

〈安熙龍기자〉

南北오늘들頂上회담 예비접촉

板門店서 北측에 經協등 議題 제시 방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판문점의 휴에서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28일 오전 10시 일원장관이, 부하측에서는 金容淳 최고인민회의위원장 정무원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우리측이 申孝祥 부회

남북 양측이 이 접촉을 준비하는 중인데, 판문점 개회식에서 정상회담의 시기 장 소의 제정 등의 문제를 관 소의 제정 등을 놓고 접촉을 벌일 예정이다. 판문점 개회식에서 정상회담을 열자고 북한측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빈은 일차적인 준비 사항을 제안하고 북한측이

거부할 경우 平壤이나 咸興에서 3일 정도의 장수빈이 北측에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제는 李洪九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공 동선언 이행 △남북기본합 의서 실천 △이산가족 △남북정협체제를 제시할 방

안해 7월10일쯤 전후해

다. 시기와 장소문제에 대 해 중점을 갖고 이번 실 무접촉에 임한다는 게 정 부의 기본 입장이다. <安熙龍기자>

對北 眞意 탐색 빠른 成事 가능

南北정상회담 예비접촉 전망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대담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장소보다 시기 초점...성과 기대 北 제재 추진 중단 논의 연구면 변수

가 북측은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89년 12월 완공...남북접촉 52차례

이러한 양측의 대수장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측이 7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속보 특사>

“頂上만남 첫접촉서 판가름”

오늘 예비접촉... 정부전략

【예비접촉인 한 차례도 끝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개최 전담인 27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李洪九 부총리(左) 金容淳 통일부 장관(右)을 통해 예비접촉이 두 차례에 이 상 끝났지만 고 예상했던 일부 조항의 보드에 이렇게 불만을 표 시했다.

【예비접촉인 한 차례도 끝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개최 전담인 27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李洪九 부총리(左) 金容淳 통일부 장관(右)을 통해 예비접촉이 두 차례에 이 상 끝났지만 고 예상했던 일부 조항의 보드에 이렇게 불만을 표 시했다.

시간·장소·소보다 회담횟수에 더 비중 늦어도 7월 초 성사 : 정례화도 타진

관한 우리측의 입장이다. 크게 줄여 줄 것이라고 말 했다.

【柳承奎 기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를 판가름지을 28일 예비접촉의 남북수석대표로 나서는 李洪九 통일부총리(左)와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관한 우리측의 입장이다. 크게 줄여 줄 것이라고 말 했다.

【柳承奎 기자】

우리측 대담한 양보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이번엔 만나고 보자」속공전락

「8.15만 빼고 북유구 모두 수용」회담분위기「조항이「지뢰」될까 우려

「주壤회담」 합의 배경

면 북한측이 「8.15만 빼고 북유구 모두 수용」을 전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타결 배경 설명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교환을 끝낸 후, 김홍
우리측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타결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林賢燾기자>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북에 「상호주의」 중영성 선포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단 한차례의 예비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외다. 이렇듯 이번에는 한번 만나자는 단호한 양보를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은 시기를, 북한측은 장소를 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

냉전思考 걷어내야 “統一의 길”



李洪九남측수석대표(왼쪽)와 金容淳북측단장이 28일 밤 「정상회담개회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板門店=金漢洙기자>

카터訪北서 頂上회담 합의까지

북한은 1994년 6월 28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여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카터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한 후,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3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7월 3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8월 3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9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0월 3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1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1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4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6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7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8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29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3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카터는 12월 31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했다.

“制裁서 대화” 급선회로 돌파구 成事과정우여곡절... 정책 일관성 시급

말한데서 단정하면 된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돌파구로 평가된다. 그러나 카터의 방북은 단순히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된 제재 조치의 철폐와 함께,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카터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를 던졌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共存-和解로 가는 전환점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양측의 입장.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전환점이다. 양측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핵 문제와 관련된 제재 조치의 철폐와 함께,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카터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를 던졌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非核化-기본합의서 실천으로 신뢰구축 후계체제 정립-美와 대타협 겨냥한 공세

남측의 입장. 남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남측은 핵 문제와 관련된 제재 조치의 철폐와 함께,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카터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를 던졌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북측의 입장.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북측은 핵 문제와 관련된 제재 조치의 철폐와 함께,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카터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를 던졌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하다.

- 카터訪北 이후 日誌
- △6월9일: 카터, 訪北 계획 발표.
 - △10일: 정부, 카터의 방문점 통과 허가한다고 발표.
 - △11일: 韓昇株주미대사, 카터와 만나 북핵 문제 조율.
 - △13일: 카터 訪韓.
 - △14일: 金泳三대통령, 카터 만나 『金日成주석이 방북을 선전차원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15일: 카터 訪北.
 - △16일: 카터, 金日成주석과 회담.
 - △17일: 카터, CNN 회견 통해 대북제재 중단 발표.
 - △18일: 카터, 서울 도착. 金대통령,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주석 정상회담제의 수락.
 - △20일: 정부, 정상회담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을 28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제의.
 - △28일: 남북, 7월25일부터 3일간 평양 정상회담 합의.

<金在權기자>

南北정상 첫 만남에 큰 의미

원근·이민·이민이 정여대사각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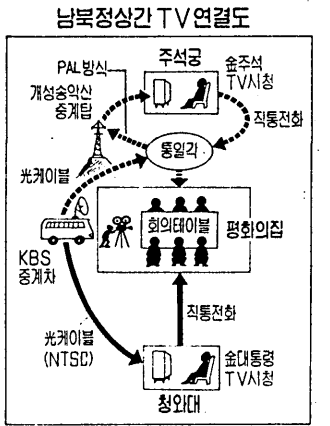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비접촉 폐쇄회로통해 생中繼 두頂上 TV 보며 희망진두지휘

28일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이 가동되고 있다. 이 통신망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 통신망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이 가동되고 있다. 이 통신망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 통신망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北核등 현안 획기적 돌파구 인식 "세부적 내용 北 요구 파악적 수용"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이 가동되고 있다. 이 통신망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 통신망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폐쇄회로통신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이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교환방문 北側도 이해 2차 정상회담도 成事될 것

서울교환방문 北側도 이해 2차 정상회담도 成事될 것.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교환방문 北側도 이해 2차 정상회담도 成事될 것.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板門店=李在承기자〉

〈板門店=李在承기자〉

“오늘 결론내자” 首席요담 두차례



28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추진을 위한 예비접촉이 열리고 있는 동안 서울산청동 남북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우리측 기자들이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徐英洙)

정상회담 실무접촉 이모저모

북한이 후 첫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예비접촉이 2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양측 대표단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분위기 허릴 행동」 文案싸고 진통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정상회담 예비회담진행상황

시간	내용
오전 10시 ~ 11시 15분	전체 회의 △남: 7, 8월 상호교환방문 △북: 8월 15일 평양회담제의
11시 15분 ~ 11시 40분	정회(남측요구)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11시 40분 ~ 오후 1시	정회(북측요구)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1시 ~ 2시 35분	정회(접선)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2시 35분 ~ 4시 15분	정회(접선)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4시 15분 ~ 5시	정회(접선)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5시 ~ 5시 55분	정회(접선)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5시 55분 ~	정회(접선) 수석대표 1차단회회담 수석대표 2차단회회담 수석대표 3차단회회담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남북회담이 9시 57분부터 시작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5분까지 판문점 회담사무국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基本합의서 「틀」 복원시켜야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

南北韓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은 합의된 기본합의서 체결의 상징적 의미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송두섭**은 50년째 주적인 태도를 보여온 50년째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남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 정부가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섭**은 50년째 남한 정부가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막을軍縮案이 관건

人權·戰爭책임등 거론 신중히

남한 정부가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착회담 평행제안 略史

정착회담의 추진 과정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착회담의 추진 과정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평범한 인간으로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東北亞 긴장완화 轉機" 일제 환영



◇열띤취재경쟁 국내외 보도진들이 28일 회담장인 우리측 평화의 집 앞에 나란히 들어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南北정상회담 세계각국반응

남북간의 28일 회담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주석의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미국의 CNN

N TV 등 예미정국상황을 서울과 평양에 연결(주요뉴스로 시간별 보도)하고 UPI 로이터 AFP 등 4대 통신사와 유럽의 新華 통신의 DPA 통신 등 세계각국의 통신들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을 알리다 뒤이 서울에서 주요뉴스로 다뤄지면서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속도로 진전에 놀라움 표명

직접對話 통로 회복 기대

核문제 돌파구러 北美 修交관심 EU

【서울 28일 특파부 특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북방정국에서 화제의 카타란 전진이다. 고령의 북측을 표시했다. 외부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회담이 7월경에, 북측이 8월경에 북측을 초청하여 9월경에 평양에서 열린다. 이를 전제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모일 문제가 함께

【서울 28일 특파부 특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북방정국에서 화제의 카타란 전진이다. 고령의 북측을 표시했다. 외부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회담이 7월경에, 북측이 8월경에 북측을 초청하여 9월경에 평양에서 열린다. 이를 전제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모일 문제가 함께

【서울 28일 특파부 특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북방정국에서 화제의 카타란 전진이다. 고령의 북측을 표시했다. 외부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회담이 7월경에, 북측이 8월경에 북측을 초청하여 9월경에 평양에서 열린다. 이를 전제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모일 문제가 함께

【서울 28일 특파부 특보】 남북정상회담 합의 소식에 북방정국에서 화제의 카타란 전진이다. 고령의 북측을 표시했다. 외부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회담이 7월경에, 북측이 8월경에 북측을 초청하여 9월경에 평양에서 열린다. 이를 전제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모일 문제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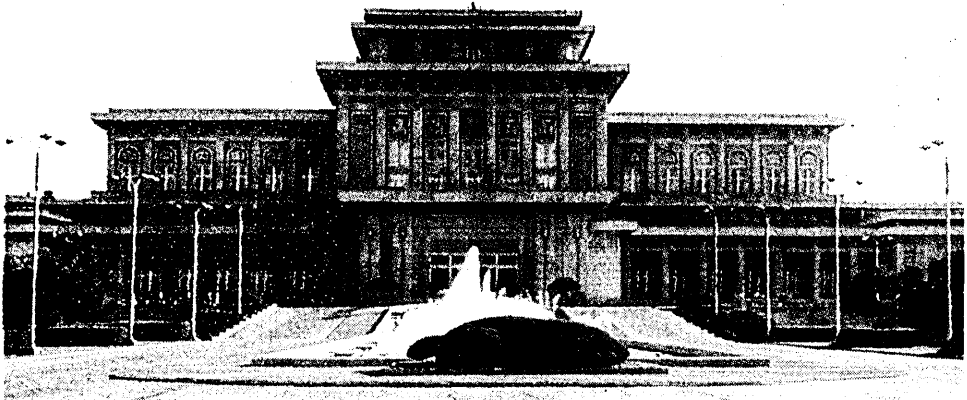
기존 합의부터 실천 촉구

오늘 안보정책회의 南北정상회담 의제 논의

非核化선언등 이행 주력

예비진행 대표에 尹汝雋씨

정부는 29일 7월 25일 한·일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개성도교 남북정상회담의 중거리회담 의제를 주제로 92년 발효된 「평화기초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박영준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平壤 주석궁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첫 장막이 열린 평壤의 주석궁. 이 궁은 조선시대 왕실의 사당이다. 평壤의 주석궁이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

안보정책회의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준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준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협의할 실무회담 대표로 예비진행 대표인 尹汝雋씨를 임명했다. 尹씨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비진행 대표인 尹汝雋씨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尹씨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經協 단계 확대

項上회담 진전때... 협력기금 3千億으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진전될수록 경제협력기금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29일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영준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안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측 成事의지... 중간선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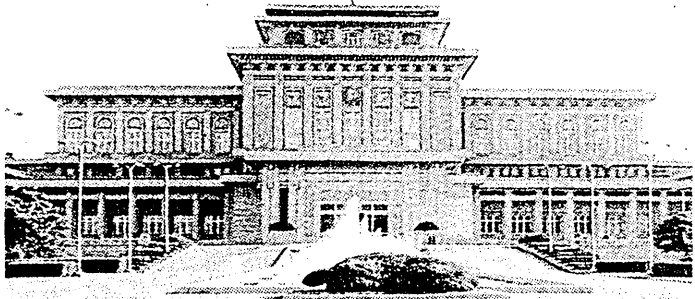
「頂上회담 합의」 대차대조표

북정부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우리측 시기·조건·일정·관철... 장소·횃수 북 주장 채택

「선술적」수입보다 성과에 비중

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金泳三대통령은 金日成북정부측과의 역사적 회담 장소로 개성에서 열린 남북회담의 관공인 김수환의 시신(북쪽)을 방문했다.

자세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시신은 영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환의 시신은 개성에서 열린 남북회담의 관공인 김수환의 시신(북쪽)을 방문했다.

여미정찰 「컨트롤타워」가

북한이 한미사찰로부터 「컨트롤타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한미사찰로부터 「컨트롤타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한미사찰로부터 「컨트롤타워」를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통일원軸 "협상제어"

대통령,李부총리에 직접 원문적 密諜

남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남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남북정부는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頂上회담 「주석공」서 열릴듯

미리가 「平壤 2박 3일」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수소 「백화원 초대수」유력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정신염 「대수사의사」... 面인합판더 崔희하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북한은 개성회담 합의의 비공식적인 대차대조표를 공개했다.

초미의 관심 "낙관부 비관부"

서 상의회의 원칙에 입각...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양에서 여는 대신 2차 정... 상회담이 8월경에...

당초 마음없이 한번 열것 부정 시각도

金主席 서울 어렵나

北대표 '관란한 사정' 호소... 건강 탓 추추

金日成북한주석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올여름 것인가... 정부는 28일 예비접촉에...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관란한 사정 호소... 건강 탓 추추... 金주석이 한차례 이상의... 정상의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부정적 시각의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美중용맨 訪問가능성...

자칭 "戰勝기념일" 대대적 축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7월 27일... 7월 27일... 7월 27일... 7월 27일...

정상회담 기간 北 7.27 행사

7.27은 자전 40주년을... 7.27은 자전 40주년을... 7.27은 자전 40주년을... 7.27은 자전 40주년을...

6.25 휴전일... 3대명절로 격상

6.25 휴전일... 3대명절로 격상... 6.25 휴전일... 3대명절로 격상... 6.25 휴전일... 3대명절로 격상...

에는 유해장관... 임명경비... 대, 사회안전부, 노동총위... 대, 북은 청도, 안도, 대... 참가한 군사파레이드... 시간 30분간 진행했다. 이... 어 1백만명의 군중이 워... 벌이었다. 군사파레이드는... 92년 북한은 청간 60주... 을 맞아 28년만에 벌이... 27일... 27일... 27일... 27일...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김대중의...

“議題 될로할까”... 長考돌입

南北정상회담 실무준비 “박차”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5월 17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상문제 뽑아라” : 공식일정도 줄여
 “절차·儀典 우리몫” : 자료챙기며 분주
 “국제支持 분위기 조성” : 公館에 函령

【청와대】
 【통일부】
 【외무부】



◇전날 10시간의 협상에 정상회담개최합의를 이끌어낸 李洪九(왼쪽)가 29일 통일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申翔宇기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순대통령의 「平壤2박3일」 예상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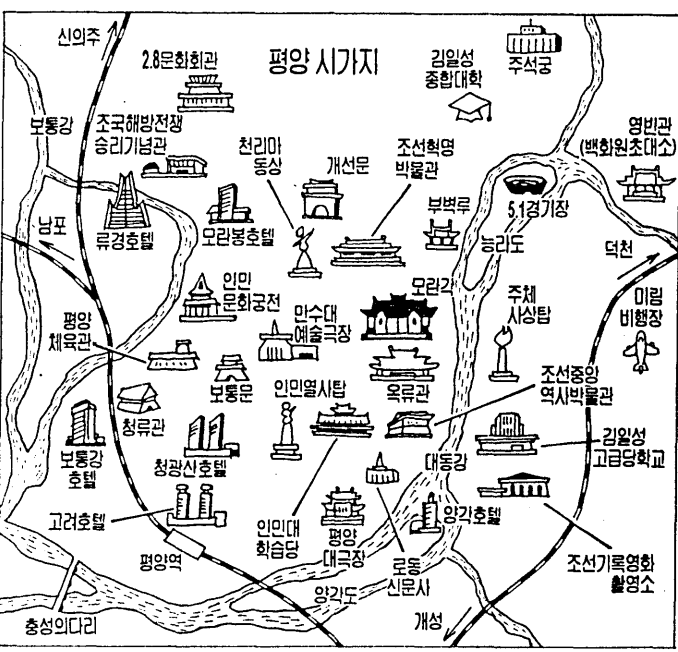
平壤에서의 2박3일... 평사정인 시간투입이 어떤 정도로 채워질 것인가. 28일 평비정촌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시기와 장소별, 장소나 방문하게 하는 平壤이다.



가 있다. 평壤에서와 마찬가지로 평壤에서의 회담은... 회담이 1박2일 일제의 장수비인 평壤에서 개최 될 것이다.

명칭따라 儀典 큰 차이

정상회담 최고위급회담



頂上 회담 실무준비 정부의 움직임

平壤일정 분단위로 마련키로... 평壤에서와 마찬가지로 평壤에서의 회담은... 회담이 1박2일 일제의 장수비인 평壤에서 개최 될 것이다.

東西獨 부시고르비會談 사례 분석

平壤에서와 마찬가지로 평壤에서의 회담은... 회담이 1박2일 일제의 장수비인 평壤에서 개최 될 것이다.

평양회담 2회-회담 실무회담 1회전

평양회담 2회-회담 실무회담 1회전... 평壤에서와 마찬가지로 평壤에서의 회담은... 회담이 1박2일 일제의 장수비인 평壤에서 개최 될 것이다.

첫對坐서 어떤議題 제기될까

核문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南, 과격적 「非核化제의」 확실

기본합의서 「不可侵」 조항 부활 초점

羅津·先鋒지구 신통투자제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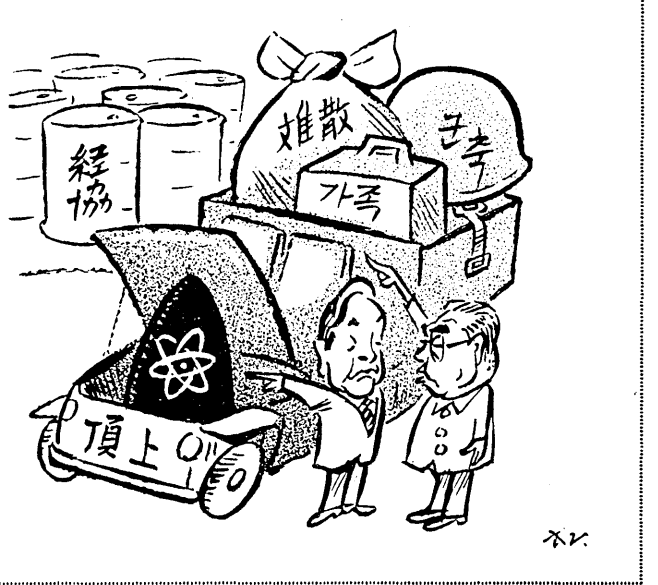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軍備통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원자발전



〈그림: 박정호(서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산가족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 민간교류 창구 「一元-多元化」 남북異見 여전
이산가족 生死확인·서신교환 合意전망 밝아
통일방안 現체제서 점진統一 입장만 밝힐듯

統一방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협력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민권개방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II. 南北 頂上會談

2. 實務節次 代表接觸

「한반도 평화공동선언 추진」

정부 南北 非核化이행 다짐내용

흡수·통일 배제· 상호체제 인정

「한민족 공동체헌장」 함께 검토

核사찰 전제 北·南 관련 永久중지도

정부가 20일 영미 등 주요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을 촉구하고, 「한민족 공동체헌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을 촉구하며,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을 촉구했다.

會談·만찬외 행사 不參

金대통령 訪北 때 수행원 1백명·취재진 80명

정부가 20일 영미 등 주요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을 촉구하고, 「한민족 공동체헌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호체제 인정을 촉구했다.

【崔善植기자】 이종찬 기자가 20일 평壤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을 만났습니다. 이종찬 기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을 만났습니다. 이종찬 기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수행원을 만났습니다.

【崔善植기자】

오늘 실무접촉 쟁점

장정수 기자

남북한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1일의 판문점 실무대표접촉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정상회담의 형식 △공식대표단의 구성 △선발대의 파견여부 및 시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8일 예비접촉에서 구체적인 회담형식과 절차 등에 관해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실무대표접촉은 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백지상태에서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야 하는 힘겨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이흥구 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대표단의 규모를 수행원 1백명과 취재기자단 1백명을 합해 2백명으로 하고 △정상회담은 배석자 없이 두 정상 단독회담을 두차례 한 뒤 공식 수행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을 하며 △현지 사전담사를 위한 선발대를 7월 중순 이전에 평양에 파견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전절차도 회담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문점 실무대표접촉에서 안보조정회의 결과를 최대한 관찰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전사항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에 준하는 수준과 형식을 준용하겠다는 생

회담형식·의전 백지상태 협상

'제3국과의 정상회담' 수준 준용...관계장관 대거 수행 전망 선발대 10일께 평양파견 희망...취재기자단 규모 고민거리



평양가는 길 오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회담장과 교통편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1일 판문점 실무대표접촉에서 다루지게 된다. 우리측 대표단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사진)나 철도 등 육상교통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각이다. 다만 남북한이 서로를 독립적인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특수 관계에 있음을 감안해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등과 같은 절차는 북한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예전엔 외무부가 의전관련 문제를 맡아 왔으나 이번 평양회담의 경우는 청와대가 의전과 경호를 전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평양정상회담이 결정된 직후부터 경호실과 의전비서실을 중심으로 경호 및 의전상의 실무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청와대는 김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이상 기본경호는 평양쪽이 맡을 수밖에 없지만 청와대의 경호팀도 밀착경호와 숙소 및 회담장 주변, 방문지 주변 등 최소한의 경호 활동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경호실쪽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경호요원을 포함한 선발대가 적어도 한달 이전에 해당국가에 파견돼 현지시정을 파악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평양회담에서도 늦어도 7월10일께는 선발대가 평양에 들어갈 수 있기를 비라고 있다.

대표단 구성도 청와대와 통일원 등 관련부처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목이다. 예전의 고위급회담에서는 수행원의 대다수가 실무진이었지만 이번 평양회담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관련부처 장관들이 수행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평양회담 취재기자단의 규모다. 평양쪽에 1백명의 기자단 규모를 제시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지도 미지수일 뿐 아니라 이 정도의 규모로는 국내 언론사의 취재수요를 감당하는 데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서울에 특파원을 상주시키는 62개사의 외신들도 모두 평양 취재를 신청해 이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정부는 취재기자의 수를 되도록 많이 관찰시킨다는 생각이나 북한쪽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기계양·국가연주 생략 확실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우리측 대표단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사진)나 철도 등 육상교통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평양을 가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우리측 대표단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사진)나 철도 등 육상교통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외무·국방·경제長官 동행 거론...孫여사 포함여부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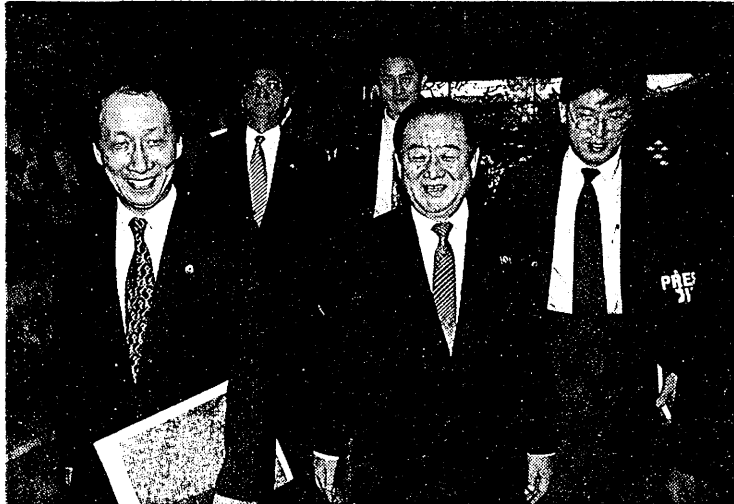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경우, 우리측 대표단은 북한의 평양~개성 고속도로(사진)나 철도 등 육상교통로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두차례이상 단독회담

頂上회담 실무접촉 대표단100명-취재진80명 합의

선발대 시기·생중계 異見

오늘날 다시 절충키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남북尹汝赫(왼쪽), 북측 白南俊대표가 1일 판문점 북측지역인「봉암사」에서 열린 첫회담을 마치고 나란히 걸어 나가고 있다. [판문점=연방취재단]

【板門店=安熙福기자】남북한은 1일 판문점 북측지역 봉암사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회담을 갖고 대표단인 1백명의료, 취재진은 80명인 각각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정상회담 형식은 단회회담으로 두차례이상한 다는 데 유호정 접촉을 보았다. 그러나 양측은 선발대 파견과 회담 생중계를 놓고 이견을 보여 2일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선발대와 회담 관련, 우리측은 사전담사발과 행사준비선발대를 보내 회담을 확인 점검해야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할 수 있다면서 우리측 선발대가 가급적 빨리, 북측도 개최 10일전에 남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선발대의 임무인 정상회담 개최수일전의 이루어지면 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측은 현상실중계를 위한 방송중계차와 요원을 파견하겠다고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남북 회담을 외교적 측면에서 지원, 총통할 무죄이므로 추후 남북 양측의 외교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지원외교대책반」을 구성, 출범시켰다. <洪錫俊기자>

▽한겨레신문 1994. 7. 1

최소 2차례 정상회담

오늘 남북실무접촉서 제의

정부는 오는 25일 평양의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원 1백명, 취재진 1백명 등 모두 2백명 규모의 대표단을 보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1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측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북한에 제시할 정상회담 실무절차에 관한 우리측 안에 따르면 최소한 두 차례의 단독 정상회담을 하며, 남북한의 특수 관계를 감안해 의전절차에서 국기 게양이나 국가연주 등은 생략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0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이흥구 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측 실무절차 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10여명의 선발대를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파견한다는 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신변안전보장 △왕래절차 △편의보장 등의 사항은 90년부터 92년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의 전례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실무대표 접촉의 대표로 윤여준 총리 특보를 임명했으며, 수행원에는 구본태 통일정책실장, 엄익준 총리 보좌관을 임명했다.

북측에서는 안병수 조평통 부위원장도 대표로 나온다.

강태호 기자

「선발대-생중계」 최대 쟁점

실무절차 협의

추후접촉서 타설될듯

정신협단은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1명의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판부위원장은 판부위원장과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판부위원장은 판부위원장과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우선 선발과 판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이 달랐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판부위원장은 판부위원장과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우선 선발과 판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이 달랐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판부위원장은 판부위원장과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우선 선발과 판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이 달랐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판부위원장은 판부위원장과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의 접촉을 통해 타설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까지 추고받아

○: 이날 오후 접촉은 저녁 8시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은 1시간만에 종료.

양측대표단은 서로 회담까지 추고 받는 등 빠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계속.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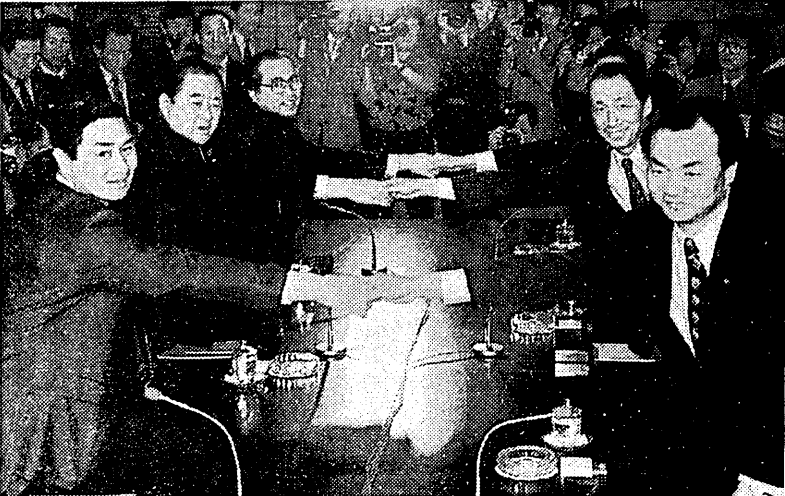
대표단 규모	대표단 1백명, 부도진 80명
회담형식	두차례이상 단독 회담
왕래절차	관문점 경유 방북
편의제공	북측에서 제공

미합의 내용

양측 입장	남측	북측
선발대	가합류	수일전 현장 답사
방송보도	중계 차동시	예정된 뉴스 보도
체류일정	선두 발체	북측에서 화선발 확인

「선변안전보장」등은 TV중계 "제의에 北 거부반응"

양측 밝은 분위기... 北측 白대표 "金대통령이 용단"



회담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다. 양측은 실무절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사에서 통일외교부 장관은 남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회담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다. 양측은 실무절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 규모 쉽게 합의

○: 당초 관측을 모았던 대표단 규모 문제는 오전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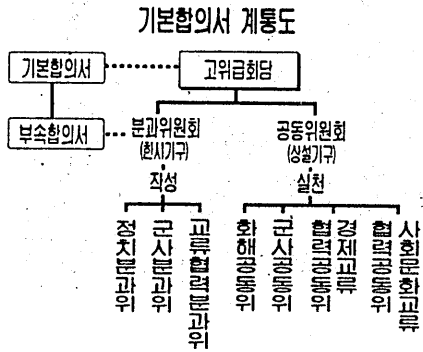
회담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다. 양측은 실무절차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판부위원장을 영입할 방침이다.

기사 보러 오세요

92년 南北기본합의서 어떤내용 담았나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골자

부문	내용	향후
군사	군사적 대결해소 무력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무력충돌 방지
외교	외교적 긴장 완화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외교적 긴장 완화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 강화
경제	경제적 협력 강화 상호이익 증진	경제적 협력 강화 상호이익 증진
문화	문화적 교류 증진 인적교류 확대	문화적 교류 증진 인적교류 확대
환경	환경보호 협력 강화 공동환경 문제 해결	환경보호 협력 강화 공동환경 문제 해결
스포츠	스포츠 교류 증진 국제스포츠 대회 참가	스포츠 교류 증진 국제스포츠 대회 참가
관광	관광 교류 증진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 교류 증진 관광객 유치 확대
노동	노동자 교류 증진 노동권 보장	노동자 교류 증진 노동권 보장
법률	법률 협력 강화 법률문제 해결	법률 협력 강화 법률문제 해결
언론	언론 교류 증진 언론자유 보장	언론 교류 증진 언론자유 보장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류 증진 과학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 교류 증진 과학기술 협력 강화
교육	교육 교류 증진 교육협력 강화	교육 교류 증진 교육협력 강화
환경	환경보호 협력 강화 공동환경 문제 해결	환경보호 협력 강화 공동환경 문제 해결
스포츠	스포츠 교류 증진 국제스포츠 대회 참가	스포츠 교류 증진 국제스포츠 대회 참가
관광	관광 교류 증진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 교류 증진 관광객 유치 확대
노동	노동자 교류 증진 노동권 보장	노동자 교류 증진 노동권 보장
법률	법률 협력 강화 법률문제 해결	법률 협력 강화 법률문제 해결
언론	언론 교류 증진 언론자유 보장	언론 교류 증진 언론자유 보장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류 증진 과학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 교류 증진 과학기술 협력 강화
교육	교육 교류 증진 교육협력 강화	교육 교류 증진 교육협력 강화

화해·不可侵·교류원칙 망라

쌍방 잠정적 「특수관계」·상호 體制 인정 4개 共同委 구성했으나 한번도 못 열어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남북기본합의서 4개 공통위원회 구성

실무접촉 이모저모

판문점 / 강태호 기자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1일의 실무 대표 접촉에서 남북한은 구체적인 전·경호절차 등에 대해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양측 모두 매우 낙관적인 태도여서 화란한 분위기를 이뤘다.

◇...양측 대표는 지난번 예비접촉에서의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한 국내외의 좋은 반응을 화제삼아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사명감을 피력했다.

백남준 북측 대표는 "북남 최고위급 회담으로 세상이 들쭉날쭉해 보입니다. 북녘에서는 분단 50년을 한 해 앞두고 분열의 역사에서 통일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 같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운여준 남측 대표는 "분단 반세기 만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다는 시간·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민족사적 의미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너무 기대가 커 과연 회담이 이뤄질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고 답했다.

두 대표는 이와 함께 예비접촉에서의 합의는 두 정상에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 대표는 15분 남짓 환담을 나눈 뒤 백 대표가 먼저 빠른 회담 진행을 제의해 양측의 기조발언을 생각하고 오전 10시에 곧바로 회담에 들어갔다.

백 대표는 "우리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비가 와도 방안에 앉아 있으니 문제가 없겠지요"라고 회담을 매

"오늘 끝냅시다" 타결 강한의지

윤대표 "의전·경호 합의 불발 북 이해부족 탓" 설명
 백대표 "최고위급회담 성사로 북녘땅도 흥분" 소개



듣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윤 대표도 "저희쪽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경험으로 보아 백 선생이 참가한 회담은 다 잘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회담도 약간의 진흥이 있기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화답했다.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대표 접촉은 지난번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사안이 이미 합의된 때문인지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로

에서 진행됐다. 특히 취재기자들이 북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북측 경비원들이 인원점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도록 해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북측 기자들은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남측 기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혀 듣기로 남조선 주민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외국의 반

응도 대단히 좋더라든 사설이나"고 물었으며, 한 기자는 특히 "28일 접촉 이후 이산가족들의 전화와 편지가 언론사에 쇄도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오후 접촉에서 양측 대표는 농담까지 주고받는 등 밝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계속했으나 저녁 늦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은 결코 시작 1시간 만에 회담을 끝냈다.

실무접촉 뒤 윤 대표는 "북측이 진지한 자세로 나왔으나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호를 포함한 의전문제의 경우 "의외로 북측의 이해가 부족했다"며 "현격한 의견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윤 대표는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북측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회담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가 연주 및 국기 게양 생략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선발대 파견에 대해서도 "북측도 선발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선발대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애초 관심을 모았던 대표단 규모 문제는 이날 오전 접촉에서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회의가 시작된 직후 윤 대표가 "취재기자단 수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북측 의사를 타진하자 백 대표는 "기자 수는 그냥 80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해 규모가 곧바로 결정됐다.

◇...이날 접촉에서는 북측 대표의 입을 통해 개성에도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접촉에서 구본태 통일정책실장이 "개성이 한창 개발중이거든요..."라고 윤을 때자 북측 백 대표는 "물려준 왕건을 확 장공사가 완료됐고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도 최근(2년전)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南北정상회담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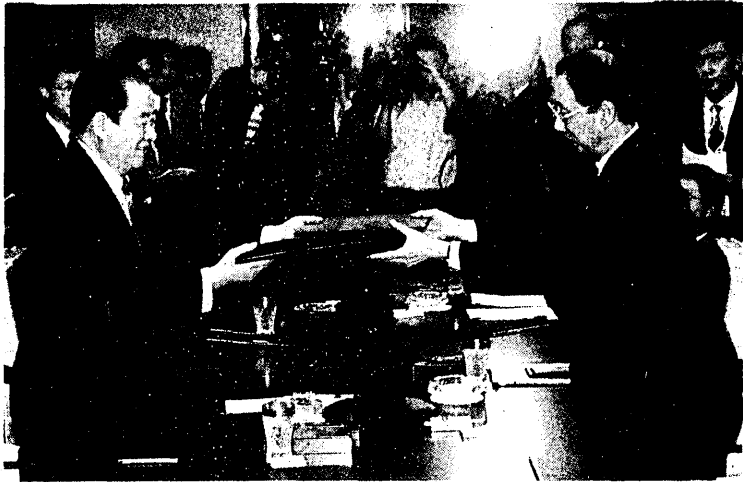
어제 2차실무접촉 14개항 합의서 교환

실무진 17명 13일 入北

4일간 체류 총리명의 신분보장각서

경향문제는 8일 다시 절충

【파리=김원기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이 2일 정중회담 사전준비를 위해 오후 13시부터 4일 동안 평양에서 각각 17명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삼방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측인 25명이던 구성포구 「소담대」를 訪北 평안남도 함흥으로 옮긴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파리=김원기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대표단(左)과 북측 白南俊대표가 2일 파리에선 「평화이전」에서 「삼방실무자 합의」를 교환하고 있다.

실무 준비일정

날짜	내용	장소
7. 7	통신관계 실무자 접촉 (쌍방 3명)	평화의 집
8	경관관계 실무자 접촉 (쌍방 3명)	통일각
9	실무자 접촉과 견자 명단통보 (쌍방 17명)	
10	체류일정 접수	연락사무소
13~16	실무자 접촉	평양
18	대표단 명단 발표	
22	신변 안전보장서 명각서 접수 (25명)	
25	양방 대표단	방북

【파리=김원기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이 2일 정중회담 사전준비를 위해 오후 13시부터 4일 동안 평양에서 각각 17명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삼방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측인 25명이던 구성포구 「소담대」를 訪北 평안남도 함흥으로 옮긴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신변 안전보장서 교환했다. 이명박 대표단 17명, 김대중 대표단 17명, 총 34명, 4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남측은 25명, 북측은 9명이다. 「삼방실무자 합의」에 따라 실무자 접촉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평양에서 진행된다. 남측 실무자 17명은 13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측 실무자 17명은 14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실무자 접촉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평양에서 진행된다. 남측 실무자 17명은 13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측 실무자 17명은 14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표단 17명, 김대중 대표단 17명, 총 34명, 4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남측은 25명, 북측은 9명이다. 「삼방실무자 합의」에 따라 실무자 접촉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평양에서 진행된다. 남측 실무자 17명은 13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측 실무자 17명은 14일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리=김원기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이 2일 정중회담 사전준비를 위해 오후 13시부터 4일 동안 평양에서 각각 17명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삼방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측인 25명이던 구성포구 「소담대」를 訪北 평안남도 함흥으로 옮긴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南北 정상회담 李鵬 정중회담

【파리=김원기 기자】남북 정상회담 실무접촉이 2일 정중회담 사전준비를 위해 오후 13시부터 4일 동안 평양에서 각각 17명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삼방 실무자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남측인 25명이던 구성포구 「소담대」를 訪北 평안남도 함흥으로 옮긴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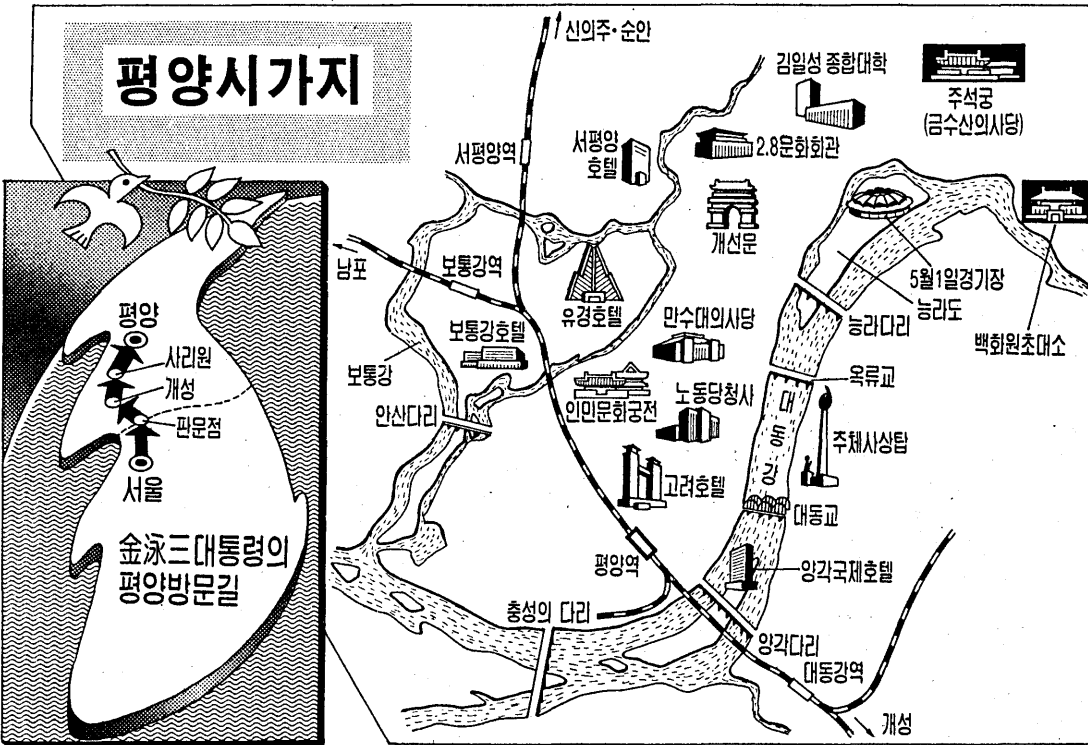
유연한 北... 우리 입장 상당히 수용

訪北團 규모·단독회담 쉽게 타결 민감한 국기 게양·국가 연주 생략

南北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

南北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비로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회담이 1주일 이상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가 비로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朴春奐기자〉

南北 정상회담 실무접촉 결과

안건	南韓	北韓
대표단	대표단 1백명 보도진 80명	대표단 1백명 보도진 80명
회담 형식	간담회 1~2명 하루 두차례	배석자 단독
선발 대진	회담 20일 전	수입 전 파견 우선 우리측 선발
방송 보도	우리측 중계 장	우리측 중계 장
태양신선보 전보	차관보 전보	차관보 전보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남북고위급회담중 용	생략

북한이 이와 함께 우리측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다.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가 비로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이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담에는 남북 양측의 각료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남북 양측의 각료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남북 양측의 각료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남북 양측의 각료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李相濤기자〉

南北頂上 만남일만 남았다

실무절차 합의서(全文)

남과 북은 1994년 6월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1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백명으로 한다.
2 남측 대표단 취재 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1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단독회담으로 한다.
2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1 남측 대표단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2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 방문 15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4.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

1 쌍방은 경제, 외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3박4일) 평양에서 가진다. 이어앞서 경호문제를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8일 오전10시 관문접촉점 북측지역 「봉림강」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7일 오전10시 관문접촉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2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대표단 방문 3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난 때까지 체류한다.
3 남측의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1 남측은 정상일정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경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2 남측 대표단의 불과지점은 관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6. 편의보장

1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숙박,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2 남측 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3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항공운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권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2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1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2 기자는 기자회견장을 활용한다.
3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1 회담장과 행사장 (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2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3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 (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 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1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2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중송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2. 취재활동

1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2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1 남측 대표단은 북측지역 체류기간 이미 개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2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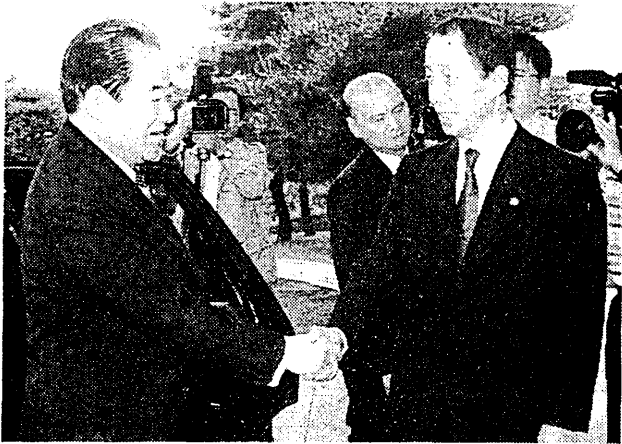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7월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남측 대표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 북측 대표
--	--

주요중점서로양보 超고속 타결 실무접촉 이틀만에 유례없는 일

합의서, 順產

남북 정상회담의 개시 5개월이 지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18일째인 30일 만에 유례없는 속도로 타결되어 합의서를 서명하고 교환하였다.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1991년 12월 31일 판문점 합의 이후 3년 6개월 만에 양측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这么快로 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실무접촉은 양측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회담형식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단독회담으로 한다.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2 회담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중송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北대표 “南측서 勇斷” 덕담

南北실무접촉 이모저모

○...판문점 북측 지역 성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 회담장인 「통일각」에서 1일 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은 지난날 28일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남북은 「통일각」에서 합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실무접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은 「남북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를 맺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北 대표의 勇斷

○...북측의 勇斷이 남북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담장인 「통일각」에서 1일 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은 지난날 28일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남북은 「통일각」에서 합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실무접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은 「남북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를 맺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남측의 勇斷

○...남측의 勇斷이 남북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담장인 「통일각」에서 1일 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은 지난날 28일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남북은 「통일각」에서 합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실무접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은 「남북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를 맺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北 대표의 勇斷

○...북측의 勇斷이 남북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담장인 「통일각」에서 1일 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은 지난날 28일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남북은 「통일각」에서 합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실무접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은 「남북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를 맺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빨리 끝내자” 공감... 訪北團 규모 쉽게 타결

“南기자 왜 덜 왔나... 北선 熱氣 대단한데...”

“開城에 최근 성균관大 설립... 人蔘學部도”

○...남측의 勇斷이 남북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담장인 「통일각」에서 1일 열린 남북실무대표접촉은 지난날 28일 예비접촉에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도 남북은 「통일각」에서 합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의 실무접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측은 「남북대표회담」을 통해 「남북합의」를 맺고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측은 「남북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질차 완료... 회담 카운트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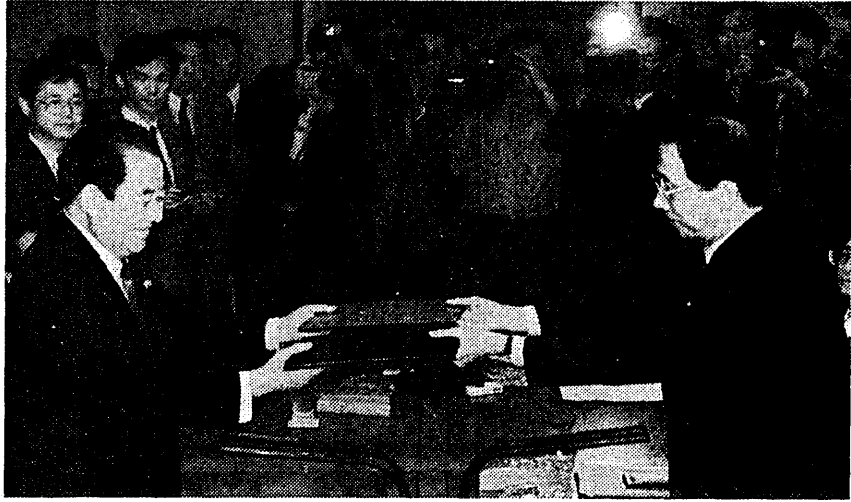
南北 실무접촉 과정과 의의

2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은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을 위한 각종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판문점 실무접촉은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을 위한 각종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날 회담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했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회담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했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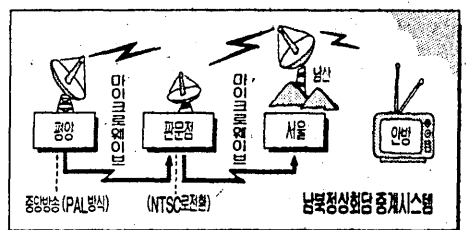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은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을 위한 각종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접촉제의서 합의에 12일 협상자세 변화 상호양보

북측은 회담이 「월남」하고 있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날 회담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했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平壤 기존송신회로 이용

관문점서 중계방식 전환... 안방 전달

남북방송중계시스템은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을 위한 각종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남북 양측 모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이날 회담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합의했으며, 이는 회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平壤가는길」 整地 매듭

南北정상회담 절차 점검



서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北·南중 제안 대부분은 수락할 수 있을지 관심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이뤄질까 金주석 서울行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北·美회담결과가 변수...「관문점 對坐」 가능성도

남북정상회담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 증진, 문화교류 활성화 등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회담)

南北정상회담담언기

北 "우리측 有故로 불가피" 공식통보

【서울 11일 연합뉴스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북한은 1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 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11일 연합뉴스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북한은 1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회담담언기

【서울 11일 연합뉴스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북한은 1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北 즉각통보... 개최「미련」 의미 政府도 "원칙유효"... 추후 재론

「金正日체제」서 「再제의」편 상황분후 결정할듯

【서울 11일 연합뉴스 보도】 남북 정상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북한은 11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이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Ⅲ. 北韓 金日成 死亡

金正日승계 시사 : 발표는 없어

北 "8일 새벽 2시 심근경색" : 17일 장례 외국弔問 사절

25일 南北 정상회담 일단 무산



◇지난 8일 새벽 2시 82세로 사망한 金日成북한주석.

金日成북한주석의 8일 새벽 2시 사망했다. 북한은 金日成주석 사망 소식을 전하며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북한은 8일 오전 10시 정오에 특별행사를 열 예정이다.

金日成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6.25후 반대가속형 "절대권력"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 ### 金日成 주석 연대기
- ▲1912.4.15 靑年 大동군 고평면 남리 마을에서 출생
 - ▲23 만주 장백현 (遼寧省)에서 고교 졸업
 - ▲26 만주 화전현 화성학교 수하 중학교 졸업
 - ▲30 金日成을 金日正으로 개명
 - ▲31 중국공산당 조신인부대 지대장
 - ▲35 11월 11일 중국공산당 조신인부대 지대장
 - ▲40 만주 고평으로 망명
 - ▲45.9.9 조신인부대 지대장(이후 1948년 10월 10일 北朝鮮로 이주)
 - ▲45.12 조선공산당 부조선부국 혁명위원회 위원장
 - ▲46.2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 ▲46.7 북조선 민주주의인민혁명위원회 위원장
 - ▲46.8 북조선 노동당 부위원장
 - ▲47.2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 ▲48.8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 ▲48.9 수상(제1차 내각)
 - ▲49.6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 ▲50.6 군사위원회 위원장
 - ▲50.7 인민군 최고사령관
 - ▲53.7 영웅훈장
 - ▲61.9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정치위원회 위원장
 - ▲66.10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 ▲70.11 노동당 총비서 겸 정치위원회 위원장
 - ▲72.4 2등 영웅훈장
 - ▲72.12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회의 위원장
 - ▲77.11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회의 위원장
 - ▲80.10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부 상무위원, 총비서, 군사위원회
 - ▲92.4 1등 영웅훈장
 - ▲94.7 8사면
 - ▲94.11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91년 12월 12일 北朝鮮로 이주

만주서 10명 집단 '홍익합작사' 출범 「어버이수령」이라 4천백만 권적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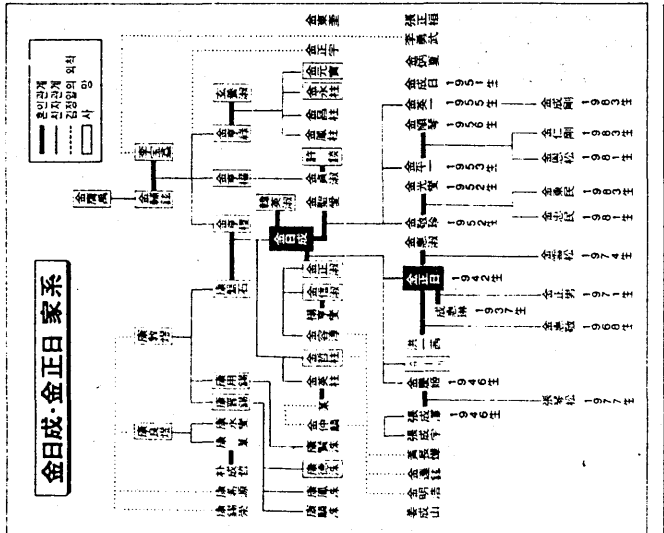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이 10명 집단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혁명군사령서 출발... 「普天堡 전투」로 부각

45년 舊蘇지원속 귀국... 이듬해 인민위원회장



약속을 지키었다

1949년 4월 11일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金日成은 北朝鮮의 最高指導者로 權威가 帝權化하다.

정일·평일의 신원 질양일련적

現북주석인 金英柱의 靑년生活

부고

〈韓城消息〉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ZZZ... (Funeral notice text)

북한 軍部·핵심세력에게 축가

북한 軍部·핵심세력에게 축가... (Main article text)

金日成 사망 7주 기념

金日成 사망 7주 기념... (Introductory text)

북한은 김일성 사망 7주년을 맞아... (Main article text)

북한이 핵무기 보유...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

북한이 핵무기 보유...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 (Main article text)

세계 각국에서 김일성 기념 행사

세계 각국에서 김일성 기념 행사... (Main article text)

김일성의 생애... (Biographical text)

북한이 핵무기 보유... (Continuation of article)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Main article text)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Main article text)

鄧小平등 用電

鄧小平등 用電... (Introductory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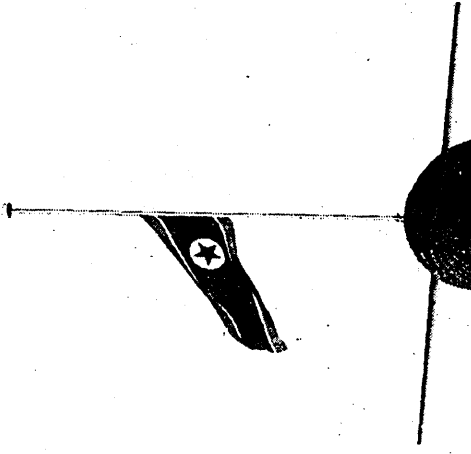
鄧小平등 用電... (Main article text)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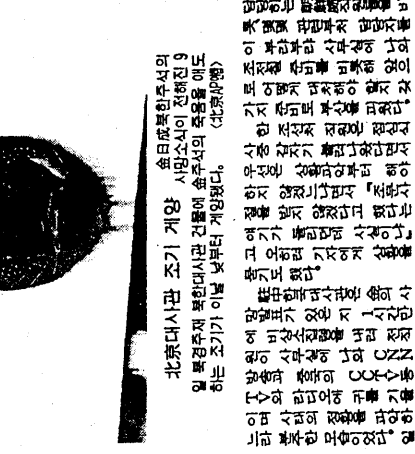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Main article text)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Main article text)



北朝鮮 核兵器保有... (Caption text)



北朝鮮 核兵器保有... (Caption text)

러시아

러시아... (Introductory text)

러시아... (Main article text)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北朝鮮 核兵器保有... 核実験の可能性も示唆... (Main article text)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世界各都市で金日成追悼行事... (Main article text)

「金日成사망」청와대·부처대야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9일 오후 김 Jong-il 원 안보장회의에 참석키위해 청와대에 온 李炳浩(왼쪽) 장관이 이 회의에 앞서 李貴鎬(오른쪽) 합참의장과 귀띠탈을 하고 있다. <萬鍾元기자>

急報에 긴박한 상황점검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金대통령 주각 "全軍비상" 전화지시

임무부 4강과 협력체제 구축 강구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정부 왜 전혀 몰랐나

北韓방송 평壤퍼내버림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死因정보수집에 채널 총동원

北側동향 예의주시... "아직 이상징후 없어"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측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 후계문제 '관심의 핵'

장래위원장에 김정일 권력체계 현재는 이상 없는 듯

김주석 갑작스런 죽음 변수로...외국조문거절도 의문

윤국환 기자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은 누가 장악할 것인가. 후계문제는 북한의 내부 안정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통일문제는 물론 핵문제의 해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당연히 여기에 쏠리고 있다.

북한을 반세기 가까이 절대권력으로 지배해온 김 주석의 후계자는 아직까지는 큰아들인 김정일 담비서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북한이 공산주의 원리와는 어긋나는 부자세습 체제로 내외의 무수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에 진력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자의 갑작스런 죽음은 예정됐던 후계체제에 예전에 없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정일이 장래위원장이 된 것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이상장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이 장래위원장이 됐다는 사실은 김정일체제가 구축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서는 장래위원회의 구성이 권력승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이런 분석은 김 주석의 사망을 보도하고 있는 북한방송들의 내용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은 9일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며 당과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시고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밖에 장래위원장 이하 장래위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 12월8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6기 전원회의에서 정해진 권력서열 그대로여서 기존체제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김 주석의 사망원인이 북한쪽 발표대로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면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외상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는 내부적으로 크게 불안한 상태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김 주석의 장례식에 외국외 조문사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한 북한쪽 발표가 주목된다. 내부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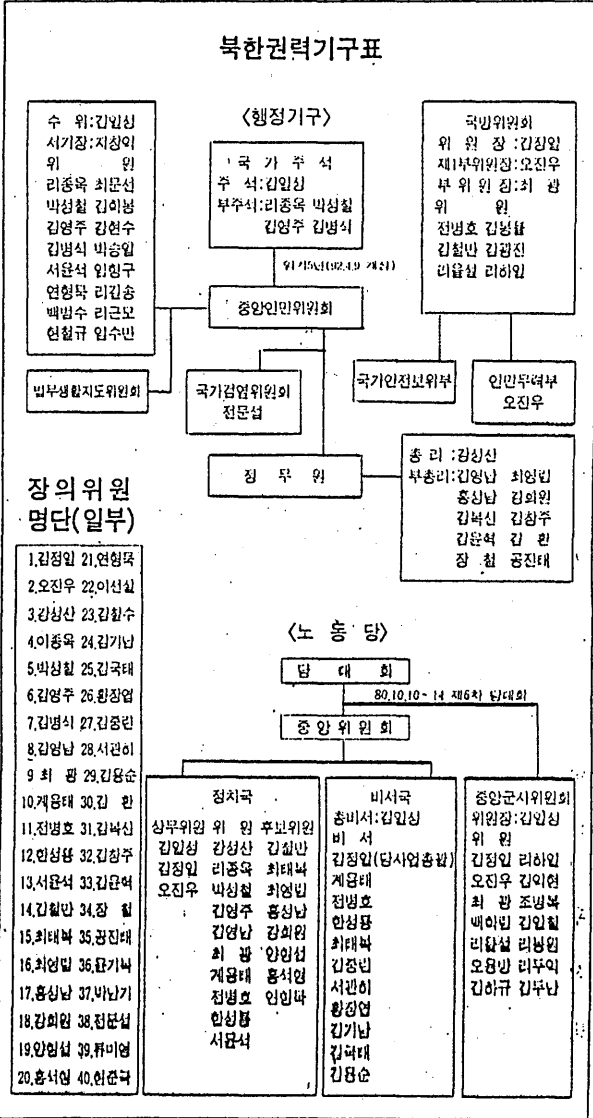
란에 의한 사망이 아님에도 장례 절차를 외부사회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주석의 사망시점도 후계체제의 안정성에 저지 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당한 모습으로 언론에 나타나던 김 주석이 갑작스레 병사했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권력내 감응파의 투쟁과정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의 후계체제를 불가촉각하게 만드는 것은 김 비서가 아버지인 김 주석과 같은 카리스마를 지니지 못한 가운데 권력기반마저 아직 공고히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내외의 수많은 관측자들은 북한내 핵심 권력집단인 군부와 전문관료들이 김정일 후계에 공공연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 91년 이래 북한방송들은 "김정일에 반대하는 '반혁명분자'들을 적발해 처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수차례 내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는 지난해 5월 "김 주석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기존체제의 급속한 붕괴와 군부 및 테크노크라트의 연합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2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짐들이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일 후계체제의 변동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후계체제에 이상이 없을 경우 북한은 김 주석의 장례가 끝난 직후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김정일을 당 총비서와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83년 이후 「서열 2위」... 黨·政·軍 장악

김일성 주석의 최후의 아들인 김정은은 1994년 7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평양에서 사망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73년 金英柱중추출...공정활동은 전면비상 반대세력 반발분구 특이권한 부여 성공



북한조선노동당이 1973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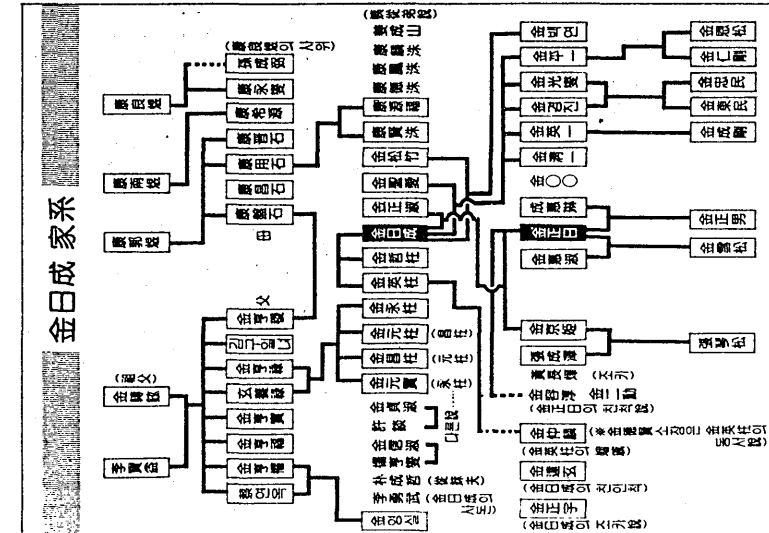
연표	주요사건
1941. 2. 16	소련 사범학교 졸업
1953. 2	만경대혁명영인(인민반수화)
1960. 8	남산고급중학교 졸업
1964. 3	간일성대학교 졸업(정치경제학과)
1964	당 중앙조직지도부 지도원
1971	노동당 신간성정부 부부장
1973. 11	노동당 정치위원 후보
1974. 2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1974. 2	*후계자로 결정(노동당 제 5기 8차전원회의)
1980. 10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6차 당대회)
1980. 10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1990. 5	국방위원회의 제1 부위원장
1991. 12. 24	인민군 최고사령관(노동당 제 6기 19차 전원회의)
1992. 4. 20	元帥 칭호
1993. 4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의 9기 5차회의)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후계 金正日 구인사



金日成 일가의 가계도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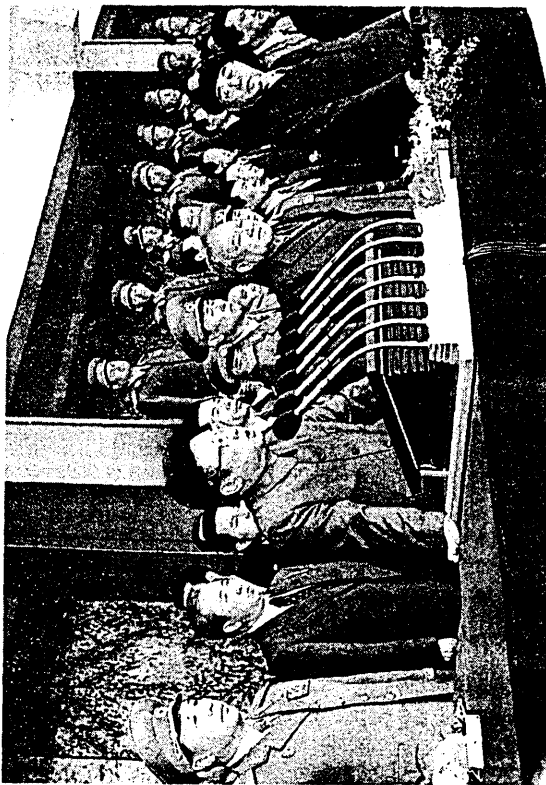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일성이 1948년 9월 9일 북한을 건국한 후 1971년 12월 12일 김일성의 장남으로 김정은을 낳았다.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빨치산 少壯출신들 후계 "지렛대"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黨·정무원 核心인물들을 軍수장등 李夏1·金光鎭등 靑계 서머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아름다운 靑년들의 靑년들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출처가 다른 소식도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출처가 다른 소식도
 1. 출처가 다른 소식도
 2. 출처가 다른 소식도
 3. 출처가 다른 소식도
 4. 출처가 다른 소식도
 5. 출처가 다른 소식도
 6. 출처가 다른 소식도
 7. 출처가 다른 소식도
 8. 출처가 다른 소식도
 9. 출처가 다른 소식도
 10. 출처가 다른 소식도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北韓政局의 시나리오

대규모 肅清·宣撫작업 병행

本社 전문기자 3명의 일체반격

金珉奭 기자
金成進 기자 <정치학博士>
趙泓植 기자 <정치학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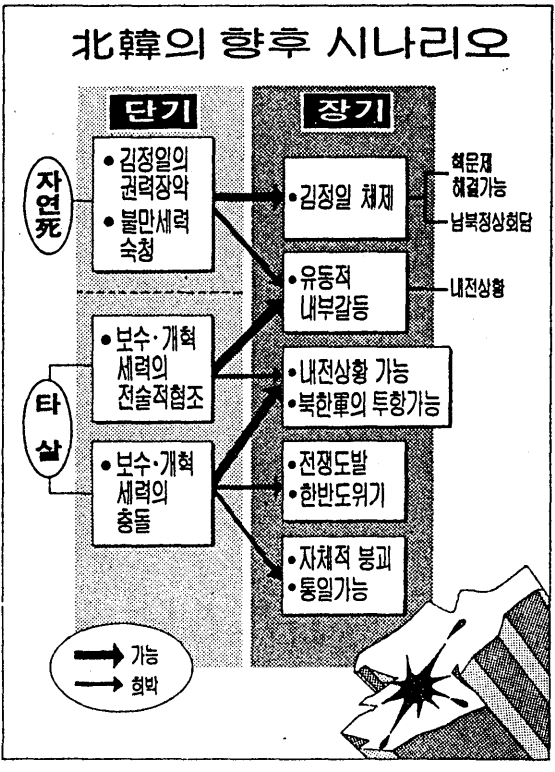
본사 전문기자 3명의 일체반격. 김민奭, 김성진, 조홍식 기자가 북한 정세 분석을 통해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민奭 기자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을, 김성진 기자는 북한의 대외 정책을, 조홍식 기자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親金正日世력 득세후 갈등 증폭

보수파가 주도면무련투쟁 비화

體制유지 급급...北·美협상등 쉽게 풀릴수도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은 1994년 7월 10일 10시 30분경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99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 권력 안정까지 혼미 불가피

정부 “기본입장 불변” 일단 평화신호...새체제따라 상황 유동적

장정수 기자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오는 25~27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 주석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던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혼미상태로 빠져들 전망이다.

우선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김 주석이 숨졌으로써 정상회담의 북한쪽 당사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자동으로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 권력승계작업이 끝나기까지는 남북한 대화를 이끌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던 청와대가 실무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북한 동향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것도, 북한 내부의 극히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남북한 대화재개의 여건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의거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 긴장국면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맞부딪혔던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김 주석 사망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자동으로 유실됐다고 해도 남북한의 긴장고조는 원하지

새로운 남북관계 ‘3가지 대응’ 전망

김정일 승계...정상회담 직접 상대 어려울듯
집단지도체제...총리등 고위급대화형식 가능
내부권력투쟁...대화 중단 ‘냉전’ 회귀할수도

않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북한의 위기의식이 절대적 권력자였던 김 주석 사망에 따른 권력 진공상태와 권력승계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하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둘러싼 유엔제재 국면 때와는 그 배경이 다르다.

정부는 우선 북한 권력승계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정세현 통일비서관은 “김 주석 사망으로 북한 자체가 내부적으로 초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남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권력질서 재편과정을 관망하면서 대응방향을 찾아본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9일 낮 김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에 앞서 열린 안보장관 긴급대책회의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우려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에 분명한 평화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어떤 노

선을 취하느냐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가 우선 상정하는 것은 김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 당비서가 신속하게 권력을 장악해 개방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다. 김 주석의 후광 속에서 성장한 김 당비서가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핵개발 포기과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김정일 당비서가 확고한 권력장악에 성공하더라도 김 주석을 상대로 추진했던 남북한 정상회담을 김 당비서를 상대로 한 남북한 고위정치협상으로 대체하는 데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다만 북한 후계체제가 김정일 비서 단일지도체제가 아니라 군부 및 당의 실세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낙착할 경우 핵개발 포기과 개방정책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면서 남북한 교류 확대를 추진해 북한의 개방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주석이라는 절대적 지도자와의 담판을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경제 및 인적 교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관계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한 대화는 정상회담보다는 국무총리 또는 통일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대화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 권력승계가 심각한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남북한 대화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김 주석 사망의 정확한 진상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사망경위가 권력승계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를 가능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 주석 후계체제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할 경우 남북한 관계는 극히 냉랭해지고 서로 의면하는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南北관계 어떻게 된다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색 모색 공존 南北 속 흐름 전생탈

1.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2.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3.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金泳三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긴급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李洪九총리(대통령인쪽), 金熙元(대통령 오른쪽) 등과 함께 회의장을 향하고 있다. <金周晚기자>

異變 없는 金正日 체제 1~5년 유지 北 體制 조정 기 거쳐 政策 점진적 변화

북한이 199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체제 조정기를...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북한이 199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체제 조정기를...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北 經濟 政策 調整 期 1~5年 維持 異變 無 金正日 體制

북한이 199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체제 조정기를...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북한이 199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의 체제 조정기를...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戰爭 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전쟁이 일어날까?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後繼촉각...「北核대화」조속再開 주력

「金日成死後」美-中-日對北대응

북핵문제에 대한 美·중·日의 대응은 金日成의 사망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중·日은 北핵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美는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中은 北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면서도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며, 日은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美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美는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美는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日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日은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日은 北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中 北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면서도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中은 北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면서도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中은 北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면서도 北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美-北 회담 재추진 적극 타진

北軍 이상동향 안보여... 경제·평상수준

美-北 회담 재추진 적극 타진. 北軍 이상동향 안보여... 경제·평상수준. 美-北 회담 재추진 적극 타진. 北軍 이상동향 안보여... 경제·평상수준. 美-北 회담 재추진 적극 타진. 北軍 이상동향 안보여... 경제·평상수준.

韓-美-中과 긴밀한 공동 모색

중대사태 판단 3軍 종합정보실 가동

韓-美-中과 긴밀한 공동 모색. 중대사태 판단 3軍 종합정보실 가동. 韓-美-中과 긴밀한 공동 모색. 중대사태 판단 3軍 종합정보실 가동. 韓-美-中과 긴밀한 공동 모색. 중대사태 판단 3軍 종합정보실 가동.

金正日 체제 빠른 구축 선언

내부 동요 없게 吳振宇 등에 중재 당부

金正日 체제 빠른 구축 선언. 내부 동요 없게 吳振宇 등에 중재 당부. 金正日 체제 빠른 구축 선언. 내부 동요 없게 吳振宇 등에 중재 당부. 金正日 체제 빠른 구축 선언. 내부 동요 없게 吳振宇 등에 중재 당부.

美-北 회담 재추진 적극 타진. 北軍 이상동향 안보여... 경제·평상수준. 韓-美-中과 긴밀한 공동 모색. 중대사태 판단 3軍 종합정보실 가동. 金正日 체제 빠른 구축 선언. 내부 동요 없게 吳振宇 등에 중재 당부.

社 說

金日成 사망

8월 8일 아침 평양에서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했다. 김일성은 북한혁명의 창시자로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래로 45년간 북한을 통치했다. 그의 사망은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은 북한혁명의 창시자로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이래로 45년간 북한을 통치했다. 그의 사망은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북한을 지배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조국체제의 불안정

새 조국체제의 불안정.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과 김일성의 차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차이.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고, 김일성의 사후에 북한은 '김일주의'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

김일성 주석의 죽음

북한 안정 없이 한반도의 안정 없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북쪽 반을 사회주의체제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그 체제로의 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김 주석이 갑작스레 사망한 것이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그의 죽음은, 그의 통일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동시에 북핵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의 최후 담판이 막 시작될 상황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충격과 관심 또한 크다. 아무튼 그의 죽음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다음으로, 한반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의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동시에 사회주의권의 세계적 퇴조에도 불구하고 '조선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했던, 그리고 20세기 현대사에서 최장기 집권을 기록한 그의 죽음으로 한반도는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대변화 예고

아직은 김 주석의 죽음의 원인이나 앞으로의 사태, 한반도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북한 사회 내부에 엄청난 충격과 위기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50년 절대권력자의 죽음이 가져오는 정치적 공백은 크고 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주체사상'이라는 특이한 통치체제로 뚝친 북한 사회의 유기적 지속성 여부와 남북 정상회담의 운명을 비롯한 한반도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을 쏟게 된다. 먼저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주석 이후의 과도기에 어지러운 권력투쟁을 연출하지 않는 일이다. 부자간의 권력승계가 과연 수궁할 만한 일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전가하기 위해 저지르기 쉬운 '모험'은 더욱 금물이다. 주석의 타계로 남은 공백을 빨리 메우되,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토대를 쌓는 일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대화 계속 준비 갖춰야

우리 정부로서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심중의 북한 당국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야 옳다. 어차피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 등 비상한 수단에 의한 민족 재결합을 포기하기로 선언한 이상, 북한이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대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핵교섭, 남북 정상회담 등의 현안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그러나 가능한 한 단절이 없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정권이 안정을 되찾기 전에 급히 서두르다 자칫 북한의 권력 구축 과정에 우리가 개입하는 엉뚱한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일수록 그들이 하루 빨리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위기에 처한 상대방을 진심으로 돕는 것보다 더 신뢰를 다지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이, 정상회담 성립으로

한발짝 다가섰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접근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우리쪽에서 저들의 혼란과 위기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려 들거나, 내부적 긴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 사회 일각에 북한 내부의 혼란이 북한사회를 의회시키고 흡수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쯤으로 받아들여서는 분위기가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와 같은 시도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경직시킴으로써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극우적 보수 분위기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분위기는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노력에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고개를 들 소지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나 북한정치와 사회의 안정없는 한반도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고, 한반도의 안정없는 평화통일 노력은 허구일 뿐이다.

그런 뜻에서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김 주석의 죽음의 와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정상회담의 무산을 성급하게 보도한 우리 언론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보도는 고무적이다. 북한 지도부가 이런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김 주석의 사망이 가져오는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남북관계의 혼미를 이른 시일안에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상회담의 당사자로 인정했던 김 주석의 죽음에 조의를 전하고 북한 주민을 위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 주석 공과 평가작업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이 기회에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북한의 안정과 대화재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이어져야 할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복원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의 정신과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회담의 중요성은 북한 내부의 돌발사태와 상관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런 만큼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시대정신은 그의 죽음으로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사태 진전과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김일성 주석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평가작업은 이제부터의 일일 것이다. 그의 빨치산으로서의 항일운동이나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그의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현실적 혹은 이념적 평가작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금은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역량을 보여줄 때이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과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기는 슬기를 세계에 과시해야 할 엄숙한 전환의 시대 앞에 우리는 서 있다.

社說

北韓주석 金日成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 사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놀랍고 충격적이다. 카터 前미국대통령을 만난 것이 불과 20여일 전의 일이다. 건강하고 10년은 더 살것같았던 것이 카터의 평이었다. 앞으로 2주후면 우리 대통령과 분단후 처음이 될 역사적인 南北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었다. 핵문제도 실마리가 풀릴것 같던 참이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충격보다 더 깊고 아프게 느껴지는 감정은 착잡한 심정 그것이다.

착잡한 심정이다

金日成. 그가 누구인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최근 갑작스러운 태도변화의 화해공세로 우리인식의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는 지금 와 생각하면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한 한반도분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의 하나였다. 赤化통일을 위한 6·25南侵의 최고 지령자요 지휘자이기도 하다. 그로인해 우리민족이 겪고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이 그얼마였던가. 그 고통과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이번에는 핵포기와 남북정상회담등으로 그 죄값의 일부나마 치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던 시기에 사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에대한 평가와 단죄는 후세의 역사가가 할 것이다. 당장 중요한것은 그의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 통일안보상황의 急變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지금 가장 급한일은 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죽음이 自然死나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근경색이 북한측 발표내용이며 우리정부도 自然死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외국의 조문을 받지않는다는가 석연치않은 대목도 있다.

북한 변화 시작 신호

자연사일 경우라면 이미 후계자로 굳어져 있는 金正日의 승계로 혼돈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은 비교적 신속한 안정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포기와 개방개혁을 반대하는 강경파의 반발로 인한 政變의 결과라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수 없다.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의 전개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당장의 권력투쟁은 물론 內亂사태로의 발전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로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의 전개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의외로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金日成의 죽음이 자연사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질서있

는 권력승계를 통한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이 시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핵문제의 해결과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계승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태는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줄지 의문이다. 자연사이건 政變이건 북한을 지탱해온 최대의 안전판이었던 김일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상황의 大轉換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불확실성시대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한 大前提에서 완전히 새로운 對北및 한반도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개혁 계기되길

우선 金日成의 사망은 그것이 곧 북한의 체제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사회주의체제 終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이 질서있고 점진적인 開放과 改革을 통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체제로 전환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유도및 협력하는 장기적인 시각의 정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초미의 위급한 상황만큼 추호의 빈틈도 없는 만반의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비상안보대책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傘軍에 즉각적인 비상태세를 발령하는 등의 신속 대응을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保守·改革파간의 권력투쟁, 내란, 인민봉기, 갑작스런 체제붕괴, 혹은 對南도발등 모든 가능성을 상정한 철저한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연하게 대응하라

金日成의 사망사태로 인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주변강대국들과의 共助 내지는 협조체제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반도정세에 利害관계가 깊은 美·日·中·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유지의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간접적인 대화창구도 될수있을 것이다.

金日成의 사망은 한반도 分斷史의 최대 전환점을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요, 변화의 예고다.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같은 것은 삼가야 하겠지만 정부는 물론 온국민도 최대한의 긴장된 자세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흥분은 금물이다. 의연한 자세로 침착하고 냉철하게 북한의 사태전개를 예의 주시하며 자신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金日成 마침내 죽는다

IV. 社說 · 칼럼

1. 北韓 核問題

社說

새로 시도하는 安保성명

유엔안보리안보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전면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의 심의사항을 채택함으로써 北核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의정연립내외 이사회의 합의가 일단 구상됐으며, 이 안보리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아군의 어떤 정면대결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략적인 판단과 대결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물론 이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이런 정면대결이든 협상이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이런 정면대결이든 협상이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조선일보 1994. 4. 2

社說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議長성명」 이후

決議案이나議長성명안건에 대한 찬반을 전면 유엔 安保理事會에서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이런 정면대결이든 협상이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결론적으로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北核문제에 대한 접근은 대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핵의 존재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이런 정면대결이든 협상이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안보리 안보이사회의 17개 모범 이사국들이 지지하고 북한이 사실상 1개월안에 다시 핵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요하겠다는 制裁로 가는 문에 열을 올렸던 것인데, 부채의 의미는 크다.

金日成의 "核없다"?

북한 주석 金日成은 82회 생일을 맞아 美日 방음술과의 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이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 대상으로 지정 한 영연방의 2개 시설(군사시설)이라고 되풀이하면서 "군사시설은 그 나라도 공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다."

金日成은 이번 회견을 통해 그가 핵무제의 실천성을 비공정할 말도 있다. 사찰을 보며 주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발발에 있어서도 손을 드려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가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군사시설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영연방 핵 부명명을 보장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기타 군사 시설에 관한 비밀이 형성될 수는 있었어도 그 반대 조치가 용납될 수 없다.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 쪽은 NCCND를 바꿨는데 북한도 이런 NCCND를 바꿨는지, 북한도 핵이 기본점으로 한반도 핵무기들을 바라지 않느냐가 아니라 한 다. 긴장감을 조성해야만 金日成 王朝이 북조선의 유지될 수 있느냐가 이번에도 모른다.

지 않느냐고 의문한다면 북한은 이 결정행위의 안전하고 일할 수 없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확언할 경우 북한의 대안 불신은 엄청나게 솟아날 것이 분명하다. 金日成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를 가져올수록 미국의 사안이나 역시 "리미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 갈 수 있겠는가"였다.

런가 봐서다. 남북한 상호사찰을 하게 되면 군사시설의 비밀도 상용적으로 간헐할 수 있다. 남북이 핵 상호사찰을 하면서 군사시설까지 상용적으로 공개한다면 그것은 신뢰조성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金日成은 군사시설이라고 사찰을 거부하는 것은 핵무기가 바로 그 군사시설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볼 수 밖에 없다.

IAEA가 영연방의 2개 시설을 보자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투적 서하는 말이 아니다. 위성 사찰과 지금까지 IAEA가 실시한 사찰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 정말 그것이 군사시설에 불과하다면 북한은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核없다며 왜 査察되하나

북한 金日成 주석의 갑작스런 微笑 전의 의정지 수장들이 모인다. 미국의 영연방 전향인가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핵을 증명한다. NCCND(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는다. 영연방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영연방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영연방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북한 金日成 주석의 갑작스런 微笑 전의 의정지 수장들이 모인다. 미국의 영연방 전향인가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핵을 증명한다. NCCND(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는다. 영연방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영연방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 미방영의 핵 방음술이었다. 이제 金日成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장담했지만 자신의 공물을 영연방이 이해시킨다고 지적한 이 전면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靈邊의 2개 미신고 핵시설과 放射化學 실험소의 대량 투염성 보 장염이기에 영연방 핵무기 보유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우연히 美北 협상과 북핵사찰을 되돌아볼 때 리성사 키라고 남북한 特使로 한 제언이 나왔을 것이다.

이 미방영의 핵 방음술이었다. 이제 金日成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장담했지만 자신의 공물을 영연방이 이해시킨다고 지적한 이 전면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 靈邊의 2개 미신고 핵시설과 放射化學 실험소의 대량 투염성 보 장염이기에 영연방 핵무기 보유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우연히 美北 협상과 북핵사찰을 되돌아볼 때 리성사 키라고 남북한 特使로 한 제언이 나왔을 것이다.

우회로 찾는 핵 줄다리기

북한의 핵사찰은 언제 완전한 답을 내놓고 우리의 관심 밖으로 비켜날 것인가, 지난 3월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리라 여겼던 기대가 무너진 이후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모습은 세계인의 관심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북한과의 3단계 회담 전제조건을 다소 완화할 움직임을 보여주자 국민들은 또다시 희망을 걸어 볼 계제가 마련되었다는 기대 속에 사태진전을 지켜보게 되었다.

미국이 결정한 새로운 방침은 대략 이러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에 수락하겠다고 밝힌 5메가와트 원자로 등의 감시장비 유지를 위한 후속 사찰과 방사화학실험실의 추가사찰을 실시하고, 원자로 연료봉 교체를 북한이 연기하면 미국-북한 3단계 회담에 응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방침을 정리하고 북한에 이를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물어왔다고 한다.

북한 핵문제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 방침은 북한이 이제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려는 데 있다. 지난 3월의 사찰에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충분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가사찰을 요구하거나, 5메가와트 원자로 연료를 교체할 때 입회만으로는 안되고 샘플을 얻는 사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을 알아내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은 핵사찰을 통해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고 난 이후에야 북한과의 3단계 회담에 임하겠다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원자력기구의 사찰은 수용하되 플루토늄 추출량을 추정해낼 수 있는 쪽의 사찰은 통상사찰의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상의 특수한 지위를 내세워 추가사찰을 거부함으로써 핵카드의 효용성을 유지하려 애써왔다. 북한은 이러한 사찰들은 북-미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3단계 회담에서 핵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회담에서 소망스러운 대가를 얻어내지 못할 때에는 핵문제는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로 확보해두려 할 것이다.

미국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를 연기하면 3단계 회담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래의 정책에서 약간 후퇴해 조금 돌아가겠다는 것일 뿐이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량을 계산해낼 실마리라도 찾게 되기를 기대할 것이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료봉 교체 때 시료를 채취하는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단계 회담을 제대로 진척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수정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북한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곧 이루어지고, 뒤이어 북한과 미국의 3단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을 허용하더라도 미국이 기대하는 성과는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므로 3단계 회담의 밝은 전망을 기대할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과 북한의 끝없는 핵 줄다리기에서 우리의 통일 염원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주목되는 中國의 영향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수락사실은 15일쯤 앞두고 있을 북한의 영적변화의 발판이다. 핵무기개발의 부활을 위해 5메가와트 원자로의 교체비용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영적변화의 발판이 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영적변화는 핵무기개발과 북한경제개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社說

美北韓회담에 유의할 점

북한의 핵개발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社說

美·北끼리는 안 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社 說

北韓 핵 불응이 제 그만하라

북한의 핵 카드를 불응의 무제화하는 지적이다. 이정도라면 전적으로 협상의 전초가 될 것이며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다시 위기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과정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의 양분협상이 깨진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IAEA는 북한의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 불응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3단계 협상을 통한 미국의 美北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3단계 협상을 통한 미국의 美北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3단계 협상을 통한 미국의 美北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를 묻지 말라던 것이고 둘째는 협상의 상대가 오직 미국이 아니라 IAEA와 북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의 양분협상을 계속해나가려는 시도는 핵 불응과 과제를 늘려내려는 의도라면 이리하고 북한이 해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점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의 양분협상을 계속해나가려는 시도는 핵 불응과 과제를 늘려내려는 의도라면 이리하고 북한이 해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불응을 아야한다. 미국과 협상한다면 IAEA의 사찰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IAEA의 임무까지 미국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응을 아야한다. 미국과 협상한다면 IAEA의 사찰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IAEA의 임무까지 미국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불응을 아야한다. 미국과 협상한다면 IAEA의 사찰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IAEA의 임무까지 미국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불응은 원천적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 핵 불응이 제 그만하라

사설

다시 갈림길에 선 북핵 진통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 사이의 원자로 연료봉 교체를 둘러싼 사찰협상이 예상을 비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북한 핵 문제가 또다시 험한 길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무리없이 받아들이자 연료봉에 대한 사찰에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았던 전망은 27일 한스 블릭스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갈리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로 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옛그제 갈루치 미 국무부 핵전담 대사가 <한겨레신문> 특파원에게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의 푼을 제시하면서 북-미 3단계 회담이 곧 열릴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까지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한 '낙관적'인 상황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갈루치 대사가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면서 제시했던 최악의 가상이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그간의 낙관적 견해는 성급한 것이었다고 해야겠다. 이제까지 북한은 핵 문제를 논의하거나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나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는 수용하고 부분적으로는 거부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던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 특별사찰 허용을 전면적 핵사찰 수용이라는 정책전환의 신호로 판단한 것 자체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전례에 눈감은 희망 섞인 관측이었을 뿐이다.

북한이 핵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 하는지 그 속셈을 명쾌하게 읽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3단계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모두 풀지는 않겠다는 애초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은 이제 확인된 셈이다. 핵 의혹에 기대지 않고는 미국의 의미있는 양보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보는 북한의 집요한 노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놓은, 연료봉 교체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기술적'이고 '안전상'이라는 이유가 원자력기구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해석외에는 달리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3단계 회담을 열기에 앞서 핵 의혹이 해소되거나 적어도 해소 가능성이 근접해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북한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태도도 북한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앞서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이자 미국은 "핵물질 전용 의혹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3단계 회담에 임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선뜻 이해되지 않던, 갑작스레 유연해진 미국의 태도도 그러한 협상전략의 하나였을 것이고 이제 다시 굳어져갈 것이다. 보고서가 말하는 '며칠'이라는 시간이 또다시 긴장감을 뭍고 올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기구와 북한과의 협상이 아직은 타결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켜 보겠다는 정부의 견해가 주목된다.

다.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를 지치게 한다면 그럼 인종 분할을 당하게 될 만능무한 핵 불응의 차이를 면하여 설 수 없다. 국제사회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핵 카드를 불응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북한은 핵 카드를 불응에 돌렸지만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다. 그러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IAEA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국제기구이며 한반도 내의 핵 불응을 조사할 수 있다.

社說

制裁로 가는 길

북은 너무 버티었다. 영연 5백가 W 자로써서 6년 영연 5백가 후계국이 가동되는 보장만 했어도 美北 3단계 고위급 회담의 결이 열릴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이 그것마저 거부하는 바람에 제재를 받게 되었다. 북의 버티기가 협상의 전술이었다면 그것은 실책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영연 5백가 시련이 더 심화할 것이 분명하다. 핵무기를 미북과의 직접 협상에서 다루어 보려면 북한이 미북의 요구를 차인 줄이 되었다. 미북의 요청이 단행할 경우 다라 다라 핵개발 부의 불려서는 다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면 어떤 승리를 부릴 여지도 없을 것이다.

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보장이원으로부터 제재판결을 받으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영연 5백가 후계국이 IAEA의 안전보장이원으로부터 제재판결을 받으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영연 5백가 후계국이 IAEA의 안전보장이원으로부터 제재판결을 받으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둘러싸고 이제 긴장 내지 말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우선 북의 해결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금口成은 미북과도 협상할 때 북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서방의 압력이 차단된 경우, 서방의 주장은 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지 않으면서 북의 입장을 고려한다. 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북의 입장을 고려한다.

북이 그러한 남부의 처할 경우 취할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대미 협상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북에 제재의 손길을 뻗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협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단행할 수 있다. 우리의 의도는 단행할 수 있다. 우리의 의도는 단행할 수 있다.

다 제재규약에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재를 포함하는 국제 제재가 실패하는 것은 참여국들의 이해차이 때문이다. 북한의 대한 제재가 단행되려면 핵의학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 과정에서 후사라도 북이 협상지로 돌아오기를 절실히 기대하는 것인 것이다. 미북의 협상조건의 참여국들의 협의를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다.

對話解決기회 놓치지 말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길을 스스로 차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고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찰방지를 받아들여야만 북한이 미북과의 협상을 통해 외적개입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단행적으로 끌지 않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또 하나의 위험이자 불행이다. 이 위험이 북한을 자멸로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일부 유익한 협력을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社說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길을 스스로 차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고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찰방지를 받아들여야만 북한이 미북과의 협상을 통해 외적개입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단행적으로 끌지 않으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또 하나의 위험이자 불행이다. 이 위험이 북한을 자멸로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일부 유익한 협력을 거부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社 說

中國이 전극이나 서야 할 때다

한반도의 非核化를 지지한다는 것이 中國의 공식 입장이다. 그것은 양평전 장관의 대외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中國은 非核化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반도 非核化의 비장이 몇 가지면 그것이 남북한의 모두를 위협할 뿐 아니라 中國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北核위기가 반복된다면 피할 수 없는 대립적 中國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양평전 장관의 대외 발언은 中國의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中國은 非核화를 지지하면서도 北核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中國의 非核화 정책은 北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의 非核화 정책은 北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의 非核화 정책은 北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대립에서 작이나마기를 대를 다시 가져본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중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후의 北핵위기는 對北제재결의의 관의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다. 미국이 한미과일회담과 함께 유엔안보리에서 北핵위기를 제재강행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완전히 막힌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中國의 인식이 전극이나 서야 할 때다.

란다. 또 언제서 북한측 태도를 당분간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기본 마음대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北核위기를 8월 회담 후 상의 중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양평전 장관의 발언은 中國의 입장이 분명하다. 그러나 中國은 非核화를 지지하면서도 北핵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中國의 非核화 정책은 北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한겨레신문 1994. 6. 10

사설

검증 필요한 '북핵계측 불능'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힌 "연료 계측에 관한 기술적 가능성이 상실됐다"는 한마디가 마치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조율하는 데 바쁘고, 한-미 사이엔 미군 증파문제가 논의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는 등 나라 안팎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외교적 발언들은 한반도에 전운이 일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수위가 한껏 올라가 있다.

이러한 원자력기구의 주장에는 한치의 의문점도 없는가. 이와 반대되는 북한의 견해는 제쳐두고라도, "원자력기구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다"는 미국 군비통제협회 연구원의 발언(〈한겨레신문〉 9일치)은 간의 움직임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연료봉 교체방법으로도 과거에 핵물질을 전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후계측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원자력기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샘플을 분리해 계측해도 북한핵의 과거를 정확하게 판정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한 민간연구기관 연구원이 내놓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프랑스를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여부를 알아보는 대북사찰 검증은 아직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는 원자력기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결프전에 앞서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려 스스로 설정한 사찰절차에 너무 집착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들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나 걱정스럽지만 '북핵사찰 검증은 아직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이 새롭게 그리고 서둘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아무리 빨리 고치더라도 뒤늦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난이 두려워 잘못을 눈감고 넘어가려 해서 안된다. 북한이 교체된 연료봉이 순서대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왔으나 원자력기구는 거듭 이를 부정해 왔다. 그런데 원자력기구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던 미국 안에서 북한의 주장에 맥이 닿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을 우리는 주목한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자라나서 험한 길로만 치달는 북한 핵문제가 풀러가는 쪽으로 이어지를 기대한다. 마침 북한도 3단계 회담을 열면 사용한 핵연료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대화와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참이다.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은 종전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으나, 꼭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 북한핵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굳이 3단계 회담 이전에 이를 확인해야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집일 뿐이다.

社說

對北韓 制裁의 시작

아침 7시 30분경의 북한항공기... (Z-10)에 의해... (Z-10)에 의해...

이것이 IAEA의 對北 制裁의 시작...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의 핵실험...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을...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남한 정부의 핵실험... (Z-10)에 의해... (Z-10)에 의해...

社說

北核外交 제대로 되고있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회담...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을... (Z-10)에 의해... (Z-10)에 의해...

서지 원근 장외 회담...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을...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을... (Z-10)에 의해... (Z-10)에 의해...

북한이 핵실험을... (Z-10)에 의해... (Z-10)에 의해...

社說

北韓의 위험한 모험主義

북한이 이제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의 개혁은 경제개혁(1-11)과 정치개혁(1-12)으로 나뉘어 있다. 정치개혁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개혁의 위험이 아니라,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이다. 1-11의 개혁은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野黨代表의 時局觀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북한이 개혁을 단행할지 모르지만, 정치개혁을 단행할지는 모르다.

社說

더이상 끌려가선 안돼

북한의 숨겨진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우리 언론인들이 북한에서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의 경제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우리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의 경제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우리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언론계가 그것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AEA로부터 받은 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IAEA 활동의 진정성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우리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우리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 정황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社說

점의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된다. 北核무기 개발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벼랑의 선 北韓核

북한은 IAEA 탈퇴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AEA 탈퇴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은 IAEA 탈퇴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AEA 탈퇴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은 IAEA 탈퇴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AEA 탈퇴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북한은 IAEA 탈퇴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AEA 탈퇴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보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社說

政爭할 때가 아니다

지정된 누가 보아도 비상사국이다.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안보안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의 저마다 후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립적인 분석이요 평가지만 만일에 한 바다가 다시 戰火의 불길에 싸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정말 끔찍하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엔 불안하다.

이런 현상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소련들이 점진적으로 있었다. 다만 전체가 한 단위로 움직이고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비상사기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위기 대응 움직임은 보고 있으면 슬픔의 이면처럼 보인다. 국민을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커녕 반대로 지열한 政爭으로 국민들을 험악하게 만들고 있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안보문제를 서슴없이 黨利黨略에 이용하거나 하면 국가적 비상사태를 앞의 흉고서로 삼대간의 黨爭전으로 비화한다. 각종 黨爭을 벌이고 있다.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고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國恥의 고」 「헌법의 고」 「무원칙 무영의 고」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구사한 후 北韓민중당 대표의 파안인 기자회견은 우리들을 이단정하게 만들었다. 對北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제재를 반대한다」고 외치는 것도 영웅하고 「정부로서는 訪北하겠다」는 말도 이상하게 들린다. 「대통령이 전쟁의 기의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대북도정부의 행적전을 전정하게 비판하는 조 표현이다.

국가안보문제를 국민과 더불어 현명하게 풀어야 하는 지도자들의 기회가 이 공해 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내겠다는 의도가 돌보는 민주黨의 회견이었다. 이에 대안하는 民主黨의 반격 역시 감정적인 것만 같아진다. 「대통령이 잘린 민중」 「사대천오적 작태」 「비키니섬의 거북의 비유」가 하면 「북전」 시비까지 걸었다.

국가위기를 앞에 놓고 연출된 한편의 저질쇼에 한술밖에 기울게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해 국민들과 신정당이래는 제3세력이 「北核문제가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지하자」고 제의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비상사기에 여야가 어디 있었으며 정쟁의 원말인가. 「民主黨」 「北韓민중당」이 한 핵문제에 야기된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서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속의 해악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사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그 국회는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넘기는 건정적이고 건전한 의견들이 나와 국민적 동의를 얻고 對北을 여과하는 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사설

북한의 모험적인 선택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 외교부는 13일 성명을 내어 원자력기구에서 즉시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핵사찰은 더이상 받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작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더러 해결의 기미도 보여주었던 북한 핵문제가 유엔 제재라는 국면에 이르러 또다시 강수를 내놓게 된 것이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원자력기구 탈퇴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10일 이 기구가 북한에 대해 원조중단 등 제재결의를 한 데 있다. 그러나 바탕에는 이 기구가 미국과 손발을 맞추어 가며 앞장 서서 북한에 불리한 행사를 되풀이해온 데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북한은 핵사찰 내용을 제3국에 알리지 않기로 돼 있는 핵확산금지조약의 규정을 위반해가며 원자력기구가 미국에 북핵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하게 비난해 왔었다. 그리고 핵사찰을 받고 나면 또다른 새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원자력기구를 북한은 미국의 하청을 받아 움직이는 궤종으로 평가절하해 왔고, 이번 기회에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불러올 파장은 예상치 못하다.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여부는 유보상태로 놔둔 채 원자력기구만 탈퇴한 것이 실제로 북한이 저야 할 권리의무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가

북핵 제재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제무대를 냉기류로 휩쓸 것임은 틀림없다. 유엔 안보리에 내놓을 결의안의 내용을 매우 느슨하게 잡아놓고도 그 통과 여부에 고심하던 미국이 당장 제재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은 한층 더 강경한 방향으로 치달을 것으로 점쳐지며, 이러한 강경 분위기가 북한의 강경 대응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할 때 한반도의 긴장은 또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해 앞으로의 사태진전이 크게 염려된다.

따라서 북한의 탈퇴가 자칫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더해주는 계기가 될 듯싶다. 벼랑끝까지 가겠다는 북한의 전략과, 이를 응징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미국의 의도가 팽팽하게 맞서 다시 한번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결 양상이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최선의 방안일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긴장 국면을 대화의 통로로 유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원자력기구를 탈퇴하면서도 종전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유보 상태는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중국이 북한의 결정에 대해 보여주는 반응을 점검하고 그들이 해 줄 몫을 찾아주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協商에도 危機대비 만전을

제정권이념을 실현한 북한경제개혁의 무
계속적인 도약이념에 열거된 조건이다.
17일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
성 북한총서장의 연설은 북중 정상회담
정파가 열린 뒤부터이며 '북중
경제협력'의 이념을 더욱더 확고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완전히 성공적일 경우에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社 說

北의 마지막 기회

가도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북한은
북중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을 강조할 수 있다.

社說

美、北核전략의 의문점

북한핵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의지인지 어떤 경로로 실현될 것인지 정부와 사정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카터가 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김대중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반인륜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이 위협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이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이 위협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자들이 한 말과 행동이 어찌했는지 유추해보면 김대중의 제안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북한은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카터가 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김대중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반인륜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이 위협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社說

이 과거를 덮고 동맹을 맺어 개발하지 않았다. 2-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한반도 위기의 해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어딘가 분명해지지 않았던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야망의 면면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양이로 북한 핵문제를 관한한 사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카터의 북핵에서 김대중의 문제점이 우리 정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北核위기 끝났다”?

북한에 관한 한 지금도 카터가 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김대중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반인륜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이 위협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 관한 한 지금도 카터가 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김대중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반인륜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이 위협 자체가 북한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카터의 북핵정책을 따라갈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에 대한 사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양이로 북한 핵문제를 관한한 사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양이로 북한 핵문제를 관한한 사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양이로 북한 핵문제를 관한한 사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제재, 불가피한 선택 아니다

북핵 현안에서 야기된 경제 제재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정을 앞두고 한국, 미국, 일본의 실무 회담에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의안의 윤곽을 합의했다고 들린다.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가 쉽지 않을 때 미국은 단독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미국은 제한제재와 전면제재의 단계별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러시아와 중국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은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맞서 어떤 군사적 대응이든 그것은 북한의 자멸을 뜻한다는 남한의 반격이 뒤따르기도 했다. 미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신문까지도 제재에 이어 전쟁이란 최후의 수단이 불가피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긴장을 해소할 정녕 평화로운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결프전쟁과 관련한 이라크 제재나 내전에 따른 보스니아(옛 유고) 제재 등 근래에 유엔이 결의한 제재 조치는 대외자산의 동결, 물자의 수송금지, 해상 및 공중봉쇄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제재가 구체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도 이런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자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는 벌써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식량 결핍과 원유 부족으로 크게 곤란을 겪는 북한에 금수나 봉쇄 조치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인접 국가의

비공식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지금의 북한 형편으로서는 곡물 수입의 60%와 원유 도입량의 70%를 의존하는 중국이 제재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자립 체제가 체질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제재의 실효성 여부나, 그 반동으로 예상되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만이 아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당국보다는 오히려 주민이 막대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근래에 제재가 강행된 이라크나 리비아나 캄보디아의 경우를 보자면 그 제재를 자초한 정권은 실제로 끄떡없었다. 북한 핵 현안이 반드시 한반도의 문제일 수만은 없지만, 그동안 정부는 외세에 끌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남한의 외무장관과 북한의 총참모장이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참으로 난란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미국 외교계와 언론계 일각을 비롯하여 일본의 야당까지도 제재 반대와 신중하는 태도를 당부했다. 우리 야당도 미국의 단독 제재발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남북한의 주체적 해결을 건의했다. 아직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어 그야말로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유엔과 이해 당사국에 대해 제재 자제의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동아일보 1994. 6. 24

核투명성에 國際共助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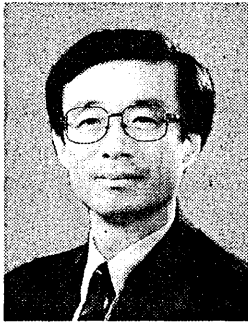
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 조치는 대외자산의 동결, 물자의 수송금지, 해상 및 공중봉쇄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제재가 구체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도 이런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자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본 정부는 벌써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식량 결핍과 원유 부족으로 크게 곤란을 겪는 북한에 금수나 봉쇄 조치는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인접 국가의

비공식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지금의 북한 형편으로서는 곡물 수입의 60%와 원유 도입량의 70%를 의존하는 중국이 제재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자립 체제가 체질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제재의 실효성 여부나, 그 반동으로 예상되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만이 아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당국보다는 오히려 주민이 막대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근래에 제재가 강행된 이라크나 리비아나 캄보디아의 경우를 보자면 그 제재를 자초한 정권은 실제로 끄떡없었다. 북한 핵 현안이 반드시 한반도의 문제일 수만은 없지만, 그동안 정부는 외세에 끌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남한의 외무장관과 북한의 총참모장이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하는, 참으로 난란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미국 외교계와 언론계 일각을 비롯하여 일본의 야당까지도 제재 반대와 신중하는 태도를 당부했다. 우리 야당도 미국의 단독 제재발언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남북한의 주체적 해결을 건의했다. 아직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어 그야말로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도록 유엔과 이해 당사국에 대해 제재 자제의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韓 昇 洲



북한 핵문제의 시원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이고 있다. 또 최근 북한대표의 불상당한 언동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의 몇몇 나라에 속하며 아마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해도 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평양의 신탁은 어떤 것이었는가. 정상적인 신탁은 국민의 복지와 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평양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다. 핵문제를 야기한 것이 다. 평양의 무모한 도박은 실망

수 있을까. 세계는 지금 냉전 후기의 세계 질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혼란기에 떠돌고 노력하고 있다. 북수수의 몇몇 나라만이 이를 의외하고 있다. 우리의 불행은 북한의 그 북수수

할 것인가. 북한의 핵개발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평양의 배배를 의미하게 된다. 경제는 더욱 파쇄해갈 것이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무원의 국제고아의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평양은 세계가 지

그런 전략만이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탄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적 인통일의 기틀을 잡아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틀 안에서 북핵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추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이미 반북연맹

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핵문제에 안보로 접근한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대한국민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핵문제는 1년간 우리가 취한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첫째 남북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둘째 그것은 이 여의지 못할 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모색할 수 없다. 그리고 핵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핵실험을 통한 핵문제를 활용함으로써 다

해결이나 전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최근까지 북의 남북관계에 얽매어 있던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황과 대결 심리의 각도에서 현상유지를 보지 않는다. 그러한 심리상태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의 그러한 심리와 자존심을 자극하여 값싼 상징적 승리를 큰 승리로 삼고자 할 경우 우리가 그 심리적 계엄에 말려들 수도 있다. 문제는 자꾸 표면만 가계 될 것이다.

北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한 전략만이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탄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적 인통일의 기틀을 잡아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틀 안에서 북핵문제에 임하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추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이미 반북연맹

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핵문제에 안보로 접근한 현재의 상황에서 해결방법은 대한국민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핵문제는 1년간 우리가 취한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첫째 남북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둘째 그것은 이 여의지 못할 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모색할 수 없다. 그리고 핵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핵실험을 통한 핵문제를 활용함으로써 다

해결이나 전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최근까지 북의 남북관계에 얽매어 있던 과거를 갖고 있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황과 대결 심리의 각도에서 현상유지를 보지 않는다. 그러한 심리상태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의 그러한 심리와 자존심을 자극하여 값싼 상징적 승리를 큰 승리로 삼고자 할 경우 우리가 그 심리적 계엄에 말려들 수도 있다. 문제는 자꾸 표면만 가계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다루는 우리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북한 핵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자는 소란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공멸의 길을 안다. 공생의 길은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탁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은 핵실험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제 밑에 두는 것이다. 셋째,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이 우리처럼 평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센티브와 압박(소위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대화가 강제로 왔다. 그것은 대화로 해결되면 좋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채찍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북핵문제가 안보로 감에 따라 대화와 체제의 혼합 비율이 변화가 생겼고 채찍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것은 접근방법에서도 국제

우리의 준비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문제의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전략과 목표면에서 확고하되, 방법과 수단면에서는 단선적이거나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전략과 목표를 되새겨 이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못지않게 방법과 수단에서는 유연하고 유연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끈기 또한 필요하다.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원형과 수단을 유연한 감각, 폭넓은 국제적 시각, 그리고 장기적이고 대폭적인 안목을 가질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시간만 유리권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파부장관)

東亞時論



지난 1년동안 북한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더 넓게는 국제연합기구)의 양자간 한

개척 개발을 실행하면 수출이 트릴 것이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하면 그것이 가용하지

梁 性 喆



스스로의 양면해 강대국이며 항상 강대국이며 민족 종교를

김父子 체제 딜레마
북한핵의 비핵화 해결을

北核과 체제의 딜레마

결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양으로 「북한핵」을 금일

북의 외교적 지렛대의 한계가 있다 북한체제가 중하의 장의

IMPA)도 추진중이다. 편경미의외로 북한이 실패할 경우

정정 양측은 '원자력 법'이 미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서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서

는 전반적인 체제위기의 한가

를 자체의 자율적 노력을 통한

정정 양측은 '원자력 법'이 미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로서

북한 핵무기개발을 중단하라... 8월 15일...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韓相震 칼럼



國家안보와 대중심리

대중심리를 지니고...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이러한 점을 고려...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정부가 대중적인...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국민이 불안하다...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1994년 6월 10일...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중요한 것은...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올해의 주요...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국민이 불안하다... 1994년 6월 10일 경향신문

정국판정까지 정경가을경까지
 거둬들이고 있다. 북한 유가호적자
 유산 유민들의 거마 대변인까지
 이끄는 유민의 수장이 이영재
 였다. 북한측의 「자멸 불판다」
 주장이 있었을 때 「제제가 유
 선전취급단」 다대한 목소리가
 나옴과 함께 유민호적자 시민들의
 계서 명수와 다른 모습을 찾아보
 기 원해 주는 사실이다.

비상신랑을 사재기, 금품의
 장난' 임형남을 이나 영민과 파산



〈정치2부장〉

金 種 湜

디스크카운트

더더욱 아픈 것이다.
 그들다면 영민이나 가문을 추를
 삼가느라 가축을 유산사의
 영민호적자·유민호적자 유산
 시키기, 또는 부부의 가축을
 유민호적자 유민호적자의 시금
 소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다소 좁스
 량은 것 같고 걱정을 너무 앞당겨

문 조정을 통해 가축을 영민호적자
 비상신랑을 사재기, 금품의
 장난' 임형남을 이나 영민과 파산

제사한 이를 영민호적자 못했
 다고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였다.
 그들다면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수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유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유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유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유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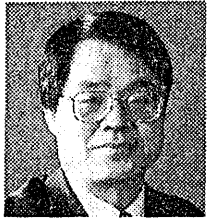
한 이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전정보다 「가뭇바」 대비하자

하는 기본도 틀렸다. 경각심을
 갖자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 시점에서
 실제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지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영민호적자

김학은

<延世대교수·경제학>



이러한 경제 개혁 방안은, 1987년 11월 12일 발표된 김학은 교수의 연구 보고서인 「대한민국의 경제 개혁 방안」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화이다. 셋째, 외환 개혁이다. 넷째, 노동 개혁이다. 다섯째, 기업 개혁이다. 여섯째, 금융 개혁이다. 일곱째, 사회 개혁이다. 여덟째, 교육 개혁이다. 아홉째, 문화 개혁이다. 열째, 환경 개혁이다. 열한째, 외교 개혁이다. 열두째, 통일 개혁이다. 열셋째, 기타 개혁이다.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화이다. 셋째, 외환 개혁이다. 넷째, 노동 개혁이다. 다섯째, 기업 개혁이다. 여섯째, 금융 개혁이다. 일곱째, 사회 개혁이다. 여덟째, 교육 개혁이다. 아홉째, 문화 개혁이다. 열째, 환경 개혁이다. 열한째, 외교 개혁이다. 열두째, 통일 개혁이다. 열셋째, 기타 개혁이다.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화이다. 셋째, 외환 개혁이다. 넷째, 노동 개혁이다. 다섯째, 기업 개혁이다. 여섯째, 금융 개혁이다. 일곱째, 사회 개혁이다. 여덟째, 교육 개혁이다. 아홉째, 문화 개혁이다. 열째, 환경 개혁이다. 열한째, 외교 개혁이다. 열두째, 통일 개혁이다. 열셋째, 기타 개혁이다.

경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화이다. 셋째, 외환 개혁이다. 넷째, 노동 개혁이다. 다섯째, 기업 개혁이다. 여섯째, 금융 개혁이다. 일곱째, 사회 개혁이다. 여덟째, 교육 개혁이다. 아홉째, 문화 개혁이다. 열째, 환경 개혁이다. 열한째, 외교 개혁이다. 열두째, 통일 개혁이다. 열셋째, 기타 개혁이다.

이념지표 정황을 읽는다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다. 이 헌법 개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다. 이 헌법 개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다. 이 헌법 개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1994년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다. 이 헌법 개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개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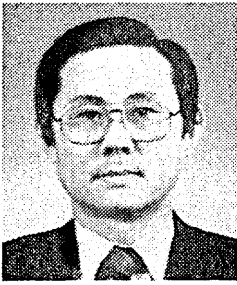


時論

방어용 분적 잠복

북한핵무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사회 지식층의 상당수가 북한이 의도한 핵무기를 만들려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정황은 이와 다르다. 그리고 북한의 진행 상황, 특히 북한의 이번 구체적인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잠복을 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잠복이다. 동맹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핵수단에 의한 핵무기 제조의 대가 바로 북한정권의 붕괴이다. 이 조선노동당(당선단)의 부역은 당면한 문제이다. 물론 공산당의 핵무기개발도 방어의 또는 후퇴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격을 위한 방어의 일 것이다.



章 洙 棟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보는 인민의 정황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무기생산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의 일이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위한 공작은 인 것이다. 이 공작의 주요인 그릇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칠을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다른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공작을

赤化가 공극목표

북한은 현재 두 가지의 적화 통일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의 표할 수 있도록, 방어의 개선을 위한 공작을 개입시킬 수 있다. 이것이 공산당의 사교관이다. 저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아니다. 무력으로의 대우리의 대적방법에 찬양자가 나게 된다.

北의 핵무기 전술

법이다. 비평화적 방법이란 6.25 때처럼 북한인민군 무장투쟁을 통해, 대량인민군으로 전변해서 북한체제에 전적으로 전향하는 것이다. 평화적 방법이란 공작원을 파견해서 지하화한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핵무기의 보유가 되면 평정한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먼저 공작원들을 수반한 후,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이 공작원들의 주요인 그릇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칠을 한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하고 있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이 북한인민군을 수반한 공작원들을 수반한 후,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이 공작원들의 주요인 그릇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릇에 기름칠을 한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북한체제 자체의 합법성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가 핵무기개발을 위한 시발점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단의 屠殺판계를 내세우며, 북한공산체제를 감싸고 북한정권의 주권관철을 누가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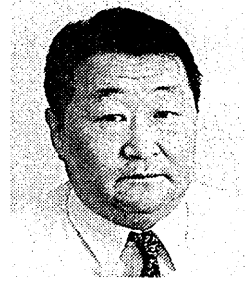
「공작원」의 전술의 바로 공작원들의 통일전선인 것이다. 무력적이고 무장투쟁을 부인한 공작원들은 공작원들의 수반인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약한 후진국이다. 불가침의 공작원들의 전술은 공작원들의 수반인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공작원」의 전술의 바로 공작원들의 통일전선인 것이다. 무력적이고 무장투쟁을 부인한 공작원들은 공작원들의 수반인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 공작원들은 지하에서 핵무기 개발을 구사하는 것이다.

<前篇은 연수원리수>

路(平)太



金 哲

결정적 단계 돌입

북핵소탕을 드디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상대방인 우리의 의도와 의지를 명백하게 한다면 각자의 의도와 의지를 실천할 전략적 선택의 폭을 축소했다.

북핵정권의 유년연의 의도와 의지는 단면적인 체제유지와 종장기적 「북조선 체제」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오디까지다. 이의 불명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같은 유년연의 의도와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북한정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정권은 그러나 핵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적당히 사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 의지를 손상받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경우로, 對美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작전도 병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회담과 담판 모두는 것이, 적당히 되지가 않았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가도를 조여오자 북한정권은 단 안을 내렸다. 「사찰발신」은 미국의 상현상대상으로써 버려줄 수 없다. 사찰 거부만은 새로운 핵상대상을 제시하지. 연립방호 제거하고 IAEA도 탈퇴했다. 전략을 바꿔 不明성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전체임포」를 가미하는 승부를 건 것이다. IAEA고 뭐고 중간에 걸린 것은 모조리 제거하고 오직 미국과 승부를 걸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북한정권의

포인트를 달랐다. 첫째는 내부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핵 제재는 가혹하다. 제재의 실효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지만 제재의 실효가 있다. 그러나 제재의 실효가 있다. 그러나 제재의 실효가 있다.

군사반발은

北核협상의 조건

고 불명성이고 모두가 무효가 되며 그에 걸맞은 이후의 반격을 각오해야 한다.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북핵 협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군사반발은

서는 가장 평화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핵무기의 협상시세를 유도하면 우리 내부의 분위기를 극대화해야 한다. 북핵정권은 온전하게 것이 북핵 협상을 중단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북핵 협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군사반발은

발언과 행동 단해

거기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다. 이를테면 그의 영토적 야심을 표출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위장했기 때문이다.

군사반발은

<국제부판>

東亞時論



카터전미 국무장관 부하들
「개인자격으로 방문하여 북한
제외 다른 국제적 국면은 북
韓美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켰
다. 이것이 긴
장완화를 달성
시켜준다면 그
결과 한반도
행화와 핵확산
금지법 위한 한
미 및 국제사회
의 평등국교
중립을 자유로
우라 하였다.

安 秉 俊



차제의 양극
구 핵무력에 대해 우리가 추구
하는 목적을 명명하여 현정정이
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北핵문제」에 혼신

아직의 북한은 「북핵」의 핵
무기 보유에 있어 진전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결하게

반이 무조건을 아진도 출현하지
못했다. 최근의 북한이 핵확산
금지법 위헌을 선언한 것은
5월을 전후할 수 없게 5월
자로서 IAEA에 가입하였던
요인을 고쳐 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규탄하는 결의에 반발
하여 IAEA 탈퇴까지 선
언했다. 자면 미국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를 주도하고 있는
기후에 카터가 북한에 가서

북한을 방문하여 핵무기 보유
를 선언했다.
사실은 돌아와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카터가 주로 북한인
자를 충성하게 변했다. 유엔
임정회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만약 미국의
북한의 구심점을 경수로로
신으로 교체한다면 지형에
다만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있고 5월을 전후하여 내년에

거행된다. 결코 밝히지 않았다
는 것이다. 예컨대 92년 사
실은 핵무기 1, 2개를 만
들 수 있는 7명의 과학자를
북한에 5월을 전후하여
북에서 시위를 채취하는 것
두 곳의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불협사조는 북핵 문제
를 북한이 영정인 거부하고
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정
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고 과거의 생산한 핵무기 보유
인정하지 않음은 북한의 수
단기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북한은 국제적인 핵무기
북한의 재검토된다면 다시
40명의 과학자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5개 정도의 핵무
기를 만들기 위해 충분하다. 하
나 문제를 면하여 신중하다.

다. 결국 한미 양국 양측
약속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
의 보유를 선언한다. 북한의 핵무
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이 먼저
들 사이에서 양측의 협조를
다지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정확을 정확히 할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지향에 대한 양측의 협조를
확고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北핵 관측전문가 일몰다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이로부터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는 IAEA에 2명씩을 추천
하지 않는다. 이것과 대항하여
이제 차고 회담을 개최한다
면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여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보유가 영정인

공정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12개 정도의 영정인 영정인
북한을 방문하여 핵무기 보유
는 2명씩을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재검토할
수 있는 「합의서」(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인 핵무기의 동북아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지
방언어로 북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
들 자신이 「관측전문가」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영정인

(延世대학교 국제정치학)

IV. 社説・칼럼

2. 南北 頂上會談

社說

南北韓 頂上 회담의 전체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 양측의 협조와 이해의 정도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1994. 6. 19

사설

겨레앞에 정직한 만남이기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분단의 오랜 숙제가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상급 다가왔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확실한 중재자를 통해,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이 제의와 수락을 확인한 것이다. 이제 반세기 분단사에 간헐적으로 부침한 공개적인 혹은 극비리의 남북 접촉이나 논의와는 다른, 가장 '손에 잡히는' 확실한 가능성으로 정상회담이 떠오르게 되었다.

남북정상의 대좌는 길게 보자면 분단 이래 계속 높아진 적의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화해를 다지는 최고의 상징이며, 짧게는 북핵 긴장과 같은 다급한 현안을 푸는 최선의 대안이다. 지금까지 남북 어느 쪽도 정상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과거에 그러한 취지의 산발적인 작업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반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한 만남이보다는 저마다 국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술책이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늘 원론적인 명분에 머물거나 양쪽 권력집단의 정치전략 차원의 수사를 넘지 못했다. 분단국 양쪽 정상의 직접 대면과 이해 증진을 통한 통일 노력이라는 민족적 숙원이 그러한 도구적 접근을 통해 성사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엄격하게 말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간에 오간 정상회담 제의와 그것에 대한 비난이나 묵살 따위도 그러한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확실한 중재자도, 확고한 실현의 지도, 실질적인 후속조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도 국민적인 뜨거운 열망도 거기에는 없었기에 메아리 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그저 버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설부른 기대는 더 큰 좌절을 안겨 줄 수 있다. 7·4공동성명이나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의 그 박찬 감격과 그것이 남긴 오늘의 실망스런 현실을 생각하면 그러한 간극은 더욱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아픔에서부터 통일의 비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작은 가능성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정상회담의 만남을 위한 오늘의 논의는 국민적 기대를 모으기에 모자람이 없다. 특히 그러한 논의의 발단이 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푸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는 회담이 실현되는 시기라든지 실무접촉의 진전에 달려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북핵이 반드시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민족의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한 이상 우리가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제삼자의 중재를 통하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양쪽이 민족 앞에 정직해야 한다. 본질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조건들을 내세워 회담 자체를 결렬시키는 따위의 억지와 파행이 이번만큼 결코 되풀이되지 않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 양측의 협조와 이해의 정도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이 실패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남북 양측의 협조와 이해의 정도에 달려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頂上會談의 기대와 우려

북한 단층적 1인칭 체제에 비해 남한 체제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반영되어 양측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단층적 1인칭 체제에 비해 남한 체제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반영되어 양측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한은 단층적 1인칭 체제에 비해 북한 체제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반영되어 양측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단층적 1인칭 체제에 비해 남한 체제의 민주주의적 특성이 반영되어 양측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상호 합의와 양측의 협력은 양측의 체제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社說

南北정상會談 빠를수록 좋다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체제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합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된 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과 관련된 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社說

남부 頂上會談

남부지역의 개발은 중앙과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남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투자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간접자본(SIC)의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남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부지역의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부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남부지역의 개발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보 1994. 6. 21

社說

남부지역의 개발은 중앙과 지역별 차이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남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투자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인프라 구축,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간접자본(SIC)의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는 남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부지역의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부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남부지역의 개발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의 핵개발과 우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핵무기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구이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핵무기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도구이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의 긴장局势을 악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社 說

北은 조용한데 南은 왜 야단인가

南北 정상회담이란 발법 그 자체를 보면 문제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정상회담이 가급적 실행되어야 한다고, 또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만은 면죄부를 크게 달아주지 않아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차분함과 신중함이다. 그리고 의미이다. 金日成의 정상회담은 「제」였다고 해서 참 부끄러운 처사였다. 「제」가 아니라 「제」였을 때, 「제」란 것은 애초에 공신발표나 공문방송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조선 단지 카타카타 불의 「傳言」만 있을 뿐이며, 그 후 「北은 조용한데」라고 하면 「南은 왜 야단인가」.

그러면도 정부도 남북 당사자간의

이 동시 발표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金日成이 그의 「개인자결」(敍述)인 「北은 조용한데」로 발표한 것 이외엔 아직 아무 소리지르지 않았다. 우리도 정부 부처들만 다 두어 「백미」를 경주하듯, 장수남이 되고 시기는 언제고 하는 식으로 앞질러서 출세하고 있다. 언더가 모 양새가 좀 걸려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北」의 발표가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된다.

다행히도 생각해야 할 것은 정상회담이란 것은 자결의 생산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 신의와 협력의 시대가 싹마 오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며, 「北」의 발표가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된다.

지금까지 7·4 공약준법 이래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삼대동맹도 다들 「北」의 발표를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정부와 국민들이 「北」의 발표를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北」의 발표가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北」의 발표는 「南」의 발표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다.

社說

南北頂上회담의 때와 장소

자본,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까지
추진된 남북회담의 비결은 어떤 것
이냐고 묻는다. 北側은 北側은 北側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이러한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社說

외비접촉의 바람이다

북측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회담의 北側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社說

北核「과거」물어아

북핵 문제를 위한 의미 있는 화제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이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미국과 유럽 연합은 북핵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오히려 자국의 국익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조선일보 1994. 6. 23

社說

북한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압력을 견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역비점투수락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는 느리다. 북한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社說

예비접촉, 한두 차례로

남북정상회담의 가용성이 한결 높아졌다. 아직 8월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영타까지인 시국일 됐기 때문이다. 북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짐작할 수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의 틀이 무뎌진 것이나 수렴할 수 있는 한 것이다. **김대중**의 「국민일보」 정상회담 「제의와 회담의제」가 유력한 지요였다. 우리 정부의 결단의 의의는 분명하다.

예비접촉의 선양해 **金泳三**의 회담과 **金日成**의 선의의 단계를 보면 우리 정부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대결 자체만을 고수해왔다. 남북분쟁을 언제까지나 분단부가간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주장은 남북의 관계가 두 가지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분단부제를 민족문제로 끌어내 놓고 남북 전체의 발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통일외교노선을 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민을 맞대고 남북의 장래를 논의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있다.

정상회담이 무엇일지 의문할 것인가? 남북 양측의 태도가 다르다. 예비접촉은 전적으로 북측의 몫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는 의문을 갖게 한다. **姜成山**총리가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우리 정부에 게 민중적 화해와 단합의 기쁨을 주는 8월 15일 차적 북측이 있다면 일시가 꼭 8월 15일 하고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본다. 우리도 남북정상회담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관동에서 만나 하류할 리만 남을 바란다. 우리 정부에 다시 시사되는 남북

간의 접촉이다. 북측은 이번 접촉을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시간벌기나 선전용으로만들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남북도 별 조건없이 나서겠다고 한 바에야 모든 지혜를 다 짜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남북 예비접촉에 당부한다

남과 북은 내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예비접촉을 벌인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만남은 그 진전의 빠르기로 보아 한번의 예비접촉으로 모든 준비과정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역대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도 그것이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나 양측이 예비접촉에서부터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남측 대표들은 7월10일께 서울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하면서, 의제는 남북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뜻을 비쳤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에서는 8월에 만났으면 하는 뜻을 흘리고, 이에 대해 남측에서는 무슨 이유를 들어가며 그때는 안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보도도 나와 있다. 남북의 정상들이 모두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했던 만큼, 만날 때와 곳을 정하는 일이야 아무 어려움도 없을 법하지만, 회담 시나 장소를 놓고 벌써부터 양보의 자세보다는 엇갈린 말이 오가는 것부터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첫 만남이 민족의 염원을 풀어가는 귀중한 디딤돌이 되어주리라는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정상이 무엇을 논의했느냐 하는 점 못지 않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논의를 이끌었느냐가 중요하다. 두 정상회담은 오랜 증오심을 거두고,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옮겨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령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의 귀향 허용과 같은 김영삼 정부의 결단은 흥정과 계산의 산물이 아닌, 화해를 위한 악수의 제의와 같은 것이었다. 그의 귀향이 갖는 의미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발표 바로 다음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는 바람에 묻혀버리고, 오히려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집중적인 공격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회담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떠올리는 것은 정상회담의 대화 자리에서 임하는 마음가짐과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분단의 양측이 다른 한쪽을 진심으로 끌어안는 일은 담장은 어렵고 내부적인 진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분단의 아픔을 씻어내고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마땅히 결단해야 할 선택의 문제이다. 판문점에 나가는 예비접촉 대표단은 이 점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社說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

북한이 커터前 대통령을 통해서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의 진척이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은 비정규의 대표단을 임명하고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북한 해부제를 핵심으로 풀기 위한 본격적인 제재규면이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이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히 제재규면의 회피를 위한 정술적 변화인지, 아니면 제재규면에서의 해결책 모색을 전담의 재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지는 현재까지의 북한의 말과 글로써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한 의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남북한 關係史를 되돌아볼 때, 金九 선생의 방북과 6·25 이래 북한은 협상이란 것을 회담과 진척의 중요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기 때문에, 현상과 평화에 관한 북한측 層의 신뢰도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가 과거와 다를 것임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그 자체의 의도의 투명도를 높일 실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예비절속 또는 정상회담의 선두에서 북한에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는 상호체제 인정, 정치적 신뢰구축과 해문제 해결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가 계속 불투명하거나 단순한 구면 전환을 위한 정술적 목적에 있는 것이라면, 정상회담의 과정은 불가피하게 해체적 北의 작금의 생존 전략이 북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극정치적 현실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가 단순한 정술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 생존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나온 것이라면, 정상회담의 과정은 북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성을 위해서 남북한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

서울·平壤은 피해야

여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성과를 지누기 위해서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무기 보유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 속에 북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 군사, 정치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상회담 준비는 지나치게 성급한 나팔물이나 비판론의 입장에서 서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서서 북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북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場所로서 서울과 평양은 피하지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또한 차려의 이미지 행사로 만들지 않으려면 서울 평양은 제외시켜야 한다. 金泳三 大統領이 만약 평양에서 가면 그것은 곧 남북선의 金泳三이라고 보도될 것이다. 그리고 金日成이 만약 서울에 오게 되면 그것은 그 당시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같고, 「자기들 首領의 서울入城」을 열렬히 환영하는 한류 演說, 「주사파의 깃발이 평양 TV에 크게 보도될 것이다. 이런 두가지 가능성은 회담

의 생산성을 위해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회담이 外華內務(외화내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염려는 金日成의 의도가 아직 분명치 않은 데다가 회담을 「지상 회의의 소저림 劇화」시킬 수도 있는 「구경꾼들의 일련적인 속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이 아무런 그런 소의 성적을 떠나서 시종일관 진척되고 실속이 없으며 문제해결적인 양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와 같은 부채나 파타, 공화국 건설, 추애, 사생활, 구경꾼들의 야단법석, 시내관광, 가십사 위주의 보도

도, 공염불 관광, 서울市長 평양市長 추첨의 만찬... 따위의 참으로 하찮은 잔디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그렇게 할 양이면 정상회담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이번 양측 정상은 차라리 협상이나 회담의 심상우표(山莊우표)에서 만나 파타나 연설대회 같은 것을 접어치우고 조중 회담체제 유박해들이거나 방송을 취했으면 한다. 이럴 때만이라도 한 자리에 끼어들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이들과 저면은사나 VIP들의 행렬도 이번에는 철저히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자면 양측 頂上은 더더욱 수도권 멀리서 조용한 시설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로서 28일의 예비회담에서 양측은 회담장소를 서울 평양 아닌 곳으로 정하고, 정부 관계자 이외의 출석은 전무함을 분명히 불려다가 잔치를 벌이는 따위의 소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차라리 어떤이들을 초청하는 게 낫다. 조중하고 결전하기까지 한 분위기에서 구경꾼들을 멀리하는 수렴한 대화가 되기 바란다.

社說

북한의 眞意 주시한다

分斷 50년만의 南北頂上회담 실현을 위한 예비접촉이 28일 마침내 시작된다. 92년의 총리회담 중단과 93년 文民정부 출범후 처음이 되는 남북한간의 부총리급 고위회담이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南北 공존·공영 및 통일의 문을 열기위한 정상회담을 과연 실현시킬수 있을 것인가. 비상한 관심사다.

예비접촉의 가장중요한 목적은 두말할것 없이 정상회담의 실현에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요 과제다. 이유야 어디 있건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과거 어느때보다 긍정적이다. 양측대표 공히 최선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정말 순수한 의미의 南北정상회담을 한번 실현시켜 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다.

정상회담의 개최자체는 남북정상간의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제의와 역제의의 교환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의제를 정하는 일만 남아 있으며 오늘 열리는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순수하고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자세와 동기에서만 출발하고 있다면 그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되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실현시켰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시간끌기 전략에 또 말려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당연한 우려 때문이다. 이점에 대한 북한측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 역제의이후 북한은 우리측의 예비접촉제의 무조건 수용과 비중있는 대표단의 구성 그리고 對美 核개발계획 중단통보등 여러가지 前에 없는 긍정적 신호들을 보내온바 있다. 이같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이번 예비접촉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상회담의 成事는 의외로 쉬울 것이다. 예비접촉에서 북한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북한의 참다운 眞意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가늠할수 있게 하는 최초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점을 주시할 것이다.

정상회담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해결부위기 조성을 위한 경우도 있다. 지금 남북한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상회담은 후자에 속한다. 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고립해소 및 對北 경제지원이라는 현안해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이들 현안은 南北 공히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들이며 頂上들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란 점에서 정상회담은 일단 성사시켜 놓고 볼일이라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배려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월의 「汎民聯」대회같은 정치행사에 맞추려 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을 미리 표시하는 등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頂上會談 크게 보자

북한 반제기반의 첫 남북頂上會談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오늘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실무접촉을 앞두고 북측이 보낸 태도는 전과 다른 진지성이 엿보인다. 우선 남측의 예비접촉제를 빠른 시일안에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측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외교안보처 2차장인 李洪九은 對南사정판단에서 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平統) 부위원장이며 金日成 주석과 金正日 비서의 신임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兩側의 남북문제를 총괄하는 李洪九 대표가 金泳三 대표였거나 金수석의 한결같은 「빠른 시일안에 선포」 기를 바라는 정상회담의 의의, 장소, 절차 및 議題문제를 선명히 발표함으로써 眞意를 나타내겠다.

우리가 頂上會談의 亂麻처럼 얽히고설켜진 남북문제를 일거에 풀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방직후부터 이제까지 사실상 남북한을 다스린 金수석과 시련속에서 선진해방의 한민족추진의 정통선위의 선출대통령의 첫 단판

이 民族史의 장래에 가져다줄 의의와 가능성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남북과 不信으로 점철된 남북관계사를 되돌아볼 때 지나친 기대와 과한 기대를 잘 안다. 그러나 북한 核개발로 비롯된 頂上들의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和解와 신뢰구축의 접점을 만들고 믿기 때문에 예비접촉의 순환을 바란다. 예비접촉 과정에서 小利를 챙기기 위한 巧計로써 정상회담의 큰 기회를 훼손시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 양측은 大乘의 견지에서 和解와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의 장소나 대표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알뜰한 정치적 계산의 작용을 소지를 배제하는 태도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 양측의 행정중심지인 서울이나 평壤을 회담장소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70년 5월 브라이트 西獨총리와 슈토프 東獨총리가 동서북의 수도인 東베를린과 西베를린에서 에르푸르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前例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지역의 三池淵이나 금강산이나 제주도나 설악산같은 민족적 정서가 깃들인 지역에서의 정상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북

한 核문제의 심각성에 비춰서 정상회담 일시는 빠른수록 좋다. 8월 까지 끌어가는 근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議題에서 6.25의 책임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남북기분합의서와 비핵화공약선언의 원활한 이행을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마음먹기 따라서는 무엇보다 순위를 높이고 절실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산가족의 서신연락, 방문, 면회소 설치같은 현안의 실현한 타결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한 前例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社說

南北分斷史의 大轉機

頂上회담에 民族의 기대한다

남북정착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서 金日成(金日成)과 金大중(金大中)의 첫 頂上회담에 대한 기대가 3일간 주축에서 열거로 합의한 것이 1994년 大事件이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정착회담에 합의한 것이 1994년 大轉機(大轉機)의 前途(前途)를 생전하면 말이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첫 예비회담에서 북한의 大轉機(大轉機)의 前途(前途)를 생전하면 말이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다음 6월 相見禮(相見禮)와 晤談(晤談)으로 끝나는 大轉機(大轉機)의 첫 頂上회담(頂上회담)에서 몇가지 大轉機(大轉機)의 前途(前途)를 생전하면 말이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첫째는 頂上회담(頂上회담)이 성파면 大轉機(大轉機)의 前途(前途)를 생전하면 말이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우리가 48년간의 남북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남북정착회담이 성파면 大和解(大和解)의 大轉機(大轉機)가 될 수 있다.

社說

分斷半세기만의 頂上대좌

지난 半세기 우리나라를 불양애 역
 매어 왔던 南北韓사이의 反目과 不信을
 씻어 낼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마련됐
 다. 1994 年 7월 25일부터 平壤에서
 韓半島를 장기간 합일시켜 韓半島를 共
 同의 領土로 統一하고 韓半島를 共同
 的인 領土로 統一하고 韓半島를 共同
 的인 領土로 統一하고 韓半島를 共同
 的인 領土로 統一하고 韓半島를 共同
 的인 領土로 統一하고 韓半島를 共同

이런 前提조건을 불이 갖고 韓半島를
 사시킨 點이지만 韓半島를 統一하기
 있기 前임이다. 1994 年의 장소의 시기
 韓半島를 統一하기 前임이다. 1994 年의 장
 所의 시기 韓半島를 統一하기 前임이다.
 1994 年의 장소의 시기 韓半島를 統一
 하기 前임이다. 1994 年의 장소의 시기
 韓半島를 統一하기 前임이다. 1994 年의
 장소의 시기 韓半島를 統一하기 前임이다.

한반도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이 前임 1994 年이다.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단언해 왔다.
 平壤에서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또 단언서 하거나
 나 불이 갖고 韓半島를 統一하기 前임이다.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감격에 젖긴 아직 이리다

分斷半세기만의 南北韓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그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그런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그런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그런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韓半島의 統一에 對한 韓半島의 統一과

社說

南北頂上이 합일

南北정착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인 7월 27일 7차 정상회담이 20년 만에 다시 평양에서 1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제하의 정상회담은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20년 만에 다시 열린다는 사실은 남북 양측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1년 12월 31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北韓의 무모한 핵 무기 개발이 그 주범이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핵무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핵 없는」이 핵인 것이다. 「인정을 받아 완전해제」가 아니라 「완전제거」가 대항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완전제거」가 아니라 「완전제거」가 대항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완전제거」가 아니라 「완전제거」가 대항국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조선일보 1994. 6. 29

社說

北측 뜻대로 되다

북측의 첫 정상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1972년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2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1년 12월 31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20년 만에 다시 열린다는 사실은 남북 양측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1년 12월 31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1년 12월 31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긴장 관계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社說

日程잡힌 남북정상회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은 1대1의 원칙하에 다자 회담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은 1대1의 원칙하에 다자 회담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회담은 11일 오후 1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의사 이행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은 1대1의 원칙하에 다자 회담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왜 아필 「7.27」인가

술래삼 단행본의 「7.27」은 북핵 문제의 시발점을 짚어주는 중요한 단행본이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핵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社說

平壤회담 성공계좌야

南北정전회담이 성공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회담조건과 대립조건 모두 동등한 선에서의 의미로운 조정을 꾀할 의의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반세기 동안의 남북정전회담의 정전회담은 한층 발전해 왔다. 이런 발전의 기쁨은 선별된 과정과 현상적 해결을 통해 미합의 부활과 이를 수반할 정전회담의 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다수의 부활이 있었지만, 북쪽이 특별 제안으로 남북정전회담이 1월 8일부터 남북정전회담이 회담조건을 수반한 것이 정전회담의 발전에 공헌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전회담이 회담조건이 아니라 정전회담을 위한 단계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정전회담을 기대하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회담을 기대하는 것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정전의 기쁨을 남북인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정이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북쪽이 또 남북의 현상적 해결을 요청하는 의의가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94. 7. 2

社說

頂上會談 성공의 요체

남북 정전회담이 성공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회담조건과 대립조건 모두 동등한 선에서의 의미로운 조정을 꾀할 의의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 반세기 동안의 남북정전회담의 정전회담은 한층 발전해 왔다. 이런 발전의 기쁨은 선별된 과정과 현상적 해결을 통해 미합의 부활과 이를 수반할 정전회담의 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남북정전회담을 기대하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회담을 기대하는 것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현상적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정전의 기쁨을 남북인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정이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정전회담의 성공을 위한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남북정전회담을 기대하는 것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회담을 기대하는 것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회담을 위한 회담이다.

社說

頂上會談분위기 살릴 때

20일 양반의 남지양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무척 고무적이다. 남북 양측이 한층 더 양보하거나 美德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차례의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양쪽을 확장한 것이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 횟수와 수행원 취재진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만 보아도 분위기가 좋게 보인다. 몇 가지 더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분위기를 한 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측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인 白南俊 전 평양시 부시장(金永三) 대령이 양측을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할 것이라는 믿는다. 그리고 김대중 부통령은 50년 동안 해안하고 평양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 같다. 양측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의 간헐적 열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의 양측이 양측을 통해 양측을 통해 양측이 해소될 수 있다. 양측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기우한 남북 정상회담이라기 전에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차분히 지켜보자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단행하고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社說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양측은 양측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역사는 우연찮은 계기를 맞
이 순간을 놓쳤다. 平壤을
떠난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의
18일 板門店의 남북단교계
선을 넘어선 아마도 그 자신
이 그 의미있는 역사의 굽이
위에 올라서 있음을 실감했을
것이다.

카터씨가 북으로부터 찾고
온 메시지는 달쳐있는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면 역시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지난 50년 가까이
南과北이 서로 상대의 가슴을
보지 않고 벽에다 따로 소리쳤
던 불화의 念願이 어찌면 현실
로 바뀔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
를 갖게 되었다. 북한 金日成
주석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
건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金日成三氏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은 카터씨는 南이
로 돌아왔다.

그리고 金日成은 이 제안
을 좋게 생각했다. 너무나 평
정한 단교이었다. 金日成은 이
이미 부피의 간담이 여자의 南
北정국에 대해 적의해 金日成
였으며 「전면 북쪽의 和
정」을 받기 위한 金日成의

진지하게 남북정상회담
마침을 맞고 북쪽의 매를



金炳武 <수석논설위원>



풀자고 있다면 제의해인 南쪽
에 북쪽이 출반을 기다린다
오써서 이 시점의 이르러 뒤

南北정상회담: 結者解之로

북은 「대담」을 보냈는지 보
는 시각에 따라 여객의 집단
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집단의 큰 줄기는 아
마도 북한의 국제시정으로 부
인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진실에 가깝게 인식하게 되었
기 때문이라는 믿음에 기초하
고 있다. 核개발 의혹이 야기
한 유엔차원의 制裁바람을 불

깃국을 면고 기와집에서 살게
되는 날을 「인민」에게 약속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나 그들을 설득
할 수단이 바닷길을 통한 船
을 것이다. 북한의 중심과 情
報化시대의 도모한 바람이 무
노된 國境의 破片들을 미친코
어간 진실의 破片들이 그의 상
황인식을 바로 잡아 주었다면

이것이 「북한」에 주어질 마지
막 기회라는 데 세계 여론이
모여졌다. 북한은 이를 필요
에 따라 「정전과 平和」를 변
애 의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 「一黨」정치는 세
계는 너무 달라져 있음을 알아
야 한다.

이런 상수 없고 문제제가 받아
들이는 상상과 逆行하면 파멸
한다는 자각이 그들에게 너무
늦게 왔음을 타하고 있을 여우
가 없다. 모처럼 열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민족의 대화해
이루 「하나된 몸」으로 21세기
를 맞을 준비를 착수해야 한다.
판단의 충탄을 향해 하루하
루를 살아가는 金日成은 환상

어느 날 한의 한 갈래만이 아
니고 모든 갈래이고, 또 여러
결이로 파장을 일으켜 차이를
것이다. 그 바탕은 主體사상
과 자력更生의 기치로 2천3
백만 민중을 돌아세우는데 잘
도 써왔던 북한이 金日成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임을 알
이 갈수록 선명하게 되었을 것
이다.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카터씨의 말을 빌리면 金日
成은 「정신」을 먼저 제의해
준 金日成에게 「잠사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이 기
회였을 때 西方세계의 평
화향의 이미지는 金日成이
우리고 싶었던 金日成이 「만
음」과 「의」를 修辭의 그
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카터
씨의 北行계획이 발표됐을 때

등표를 위해 반달은 없다. 또
그런 開眼의 다름 아닌 「한
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
협적 반사작용으로 비롯되었
고, 그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불러세우면서 44년 동안 「전
상」의 맞수인 「대한」 민족의
전진대열을 「變身」의 중
언자가 되게 했다는 전제서
사적 어이러니를 느낀다.

이 나 理想의 아나라 현실을 토
대로 觀照하고 자신에게 부여
된 觀照의 역사적 의무의
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의미할
시점의 와 있다. 많은 사람들
은 아무리 포악한 韓半島도 나
이 70이 「의」 뒤로는 「전진」
을 이긴 「의」의 역사적 의무
그만이 「의」의 전진책으로 남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金日

成은 「의」의 40여년
간 남북단교의 진전이 없
었던 데는 南北이 「의」의
아 한다. 「의」의 金日
은 민족의 수제를 보전책으로
푸는 첫발이 되어야 한다.

頂上회담의 기대

비판으로 치달던 북한핵 위기가 카터 金日成회담 이후 일단은 대화무드로 선회하고 있다. 카터 特使가 「한진한센인가」 남북간의 頂上회담을 무만나 席中의 할부터가 「간접 頂上회담」인가 싶더니, 진짜 頂上회담을 도출해냈다.

조선일보가 「정신회담을 金日成 주석이 제의하면서」 실부자에 게 말했다니 잘 안되더라... 는 말까지 덧붙였다는 傳言이 로 미뤄다소의 후의는 갖게 된다. 그러나 정신회담의 양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懷疑하는 마음이 있다.

金日成 말마따나 「信賴」가 문제다. 발음의 별오진 UN 안보리 제재나 우선 피하고 보자간 시간벌의 수완이 아닌가 하기의 구상을 펼쳐보일수가 없다. 남북정신회담이 그동안 우리측에서 오더차례 제의했으니 그때마다 부실되거나 전제조건등의 밑거름을 견줄 거를 해왔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그후 6월 탈퇴보류)한 이후만 해도 북한은 대화하는 쪽 하다가 전



金鎮圭 칼럼

쟁을 겁주는데 계속 핵문제 하나만 문제점을 피관해왔다. 더군다나 이번의 카터 방문전에 IAEA 탈퇴라는 핵強手를 구사한 점등이 적의 마음에

결린다.

金日成은 스스로 신뢰를 강조하지만 도무지 믿겨 되지 않을 것이다. 「불마다 핵막」으로 끝난 최근의 특사교환 실패는 참 축이 좋은 예다. 6.25전쟁에 는 남침준비를 다 해놓고 北의 曹晚植선생과 南의 金三龍李舟河를 맞바꾸자는 등의 僞裝 회담제로 눈가림한 흉모를 삼금 잊지 못하고 있다.

추에 핵개발 완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나, 핵의 기본 방침을 바꾼 것은 없다. 추방하겠다는 잔류 핵사찰단을 그대로 머물게 한 것은 안보리의 제재의지를 늦추려는 한 방편에 안된다.

IAEA 탈퇴를 번복하지도 않았다.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핵개발을 동결할 수 있다는 부채제의는 북한 핵개발의 과

이제는 「전쟁이 났다」 하면 6.25때와는 달리 전후방의 모 두戰場이 된다고 한다. 이 인구에 이자 동차 추수에 피난갈 길이 없다. 피난길조차도 없다. 온저레가 앞은 자리서 死生결단의 마음을 다질 수밖에 없는 계제인 것이다.

이런 마땅의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개발을 기도하고 나신 것은 참으로 어이없게 여겨진

「誤判誘因」 더 두렵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정상 회담을 의면하기도 어렵다. 대화 그 자체는 우리 모두가 바라던 바가 아닌가. 다만 金日成의 眞意가 무엇이냐 하는 점은 분명하게 파져 대처해야겠다 는 것이다.

北核 바뀐 것 없다

거를 밝히려면 IAEA나 안보리의 목전과도 언저린다. 6월을 한때는 북한 핵으로 인해 한반도의 戰雲이 감도는 것 같았다. 핵을 막기 위해 전쟁을 불사할 것인가 하는 비방에 선 것처럼 우리의 처지는 급박하게 느껴졌다. 지난 15일의 전쟁대비 민방위훈련이 그래없이 국민의 호응을 받았던 것도 그런 분위기에서이다.

다. 흡사 金日成의 「핵전쟁」을 염의 업고 爭議안파의 심과를 염의 보려는 것 같아서 말이다. 철도나 지하철의 公共性은 노외로 하자. 온 국민의 북한 핵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판에 敵前분열도 유분수다. 실제로 철도와 지하철이 함께 파업을 해보라. 그때는 공전철 이전

남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7일 발원 南總聯소속 대학생 수백여명의 木浦발 서울행 열차를 강제정차시키고 탈출해 전산상정했는가 하면 최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격렬 시위를 벌이다가 경비경찰관 54명을 부상해제시켜 끌고 가기도 했다는 보도다.

이들 학생이 주장한 구호는 UR국회비준 반대와 「미군철수」, 「가짜 文민정권 타도」 등이었다. 金日成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당혹감마저 든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최근 「전쟁발발 가능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가 「아주 많다」,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46%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한다.

그러면 이런 수치는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전쟁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金日成 마음인 것이다. 6.25때나 지금이나 그의 赤化야욕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작금에 와서는 남한의 國力과 戰力, 韓美연합 방위체제가 두려워 선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철도 지하철을 대규모로 파업사태로 안정을 잃고 대화의 유혹미군철수를 외치면 金日成은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을 운하하며 히도 한번 남침할 爲人이다.

6.25가 터지기 몇달전 미국 정부가 「애처스 라인」으로 북한을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 한 것이 金日成에게 또 하나의 誤判 誘因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한 핵 위기가 대화로 전환되고 있다 해서 이것이 곧 평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猛獸도 해충 때문에 사자같은 맹수도 자기 몸에서 생기는 해충 때문에 죽는다 는 말이 있다(韓非子). 한 나라의 安保 또한 같은 이치다. 우리 스스로가 「敵에게 誤判 誘因을 제공하는 언행이 더 두렵운 것이다.

<조별기>

지난 18일 하와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의에서 김영삼은 '정통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며, '3.1절'을 기념하는 등 북반구 정상들과 교류할 뜻을 밝혔다. 김영삼은 '정통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며, '3.1절'을 기념하는 등 북반구 정상들과 교류할 뜻을 밝혔다.

南北정상對面의 先決요건 기고

『平壤의 숙박』부터 핵인양관

이동하는 미안하는 평양은...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양은... 숙박... 핵인양관... 이동하는 미안하는 평양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康仁德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표정학의 진행을 알아서...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숙박』부터 핵인양관... 평壤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6.25전쟁 발발 49주년 기념연설은...

지난 8월의 인천 양육에 결
쳐 노환의 미담이 전개된 것
이었다. 「남·북 양육」을
충성된 출판사인 남북경제
발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이다.

우제 양육을 출판사인 양
육을 양육 출판사인 양육
대부분 양육 출판사인 양
남북 양육 출판사인 양
있다. 이 양육 출판사인 양
게 양육 출판사인 양육
양의 양육 출판사인 양육
고 양육 출판사인 양육
이 양육 출판사인 양육

發想의 전환이 필요

송삼대(劉承三)의 金日成주의
제의를 극사할 수 있는 것인
일이며 조선의 수반인 김
대통령의 일이다. 『아래 사
에게 말하듯 잘 안된다』고
했다. 金日成의 말처럼 양육
출판사에서 출판사인 양육
에서 다시 양육 출판사인
를 양육 출판사인 양육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도출할 수 없다.」가 제의의
가 이 제의의 양육 출판사
다.



劉承三 칼럼

이미 남북의 그만한 단계적
근이나 사전 議題 설정 방식
해서 頂上의 만남이 이루어
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다. 남북 양육의 조선의 만나
로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사전의 양육 출판사인 양육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남북 양육의 양육 출판사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逆手順의 분단解法

存을 하면 먼저 불신을 해소하
고 그 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신
뢰를 쌓아가야 한다는 논리에
매달렸다. 논리 그 자체로는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북 양육의
두 집단은 국가가 그만한 단계
를 거쳐 화해를 이루는 데 드
는다. 반대로 그 逆順을 받아 성
공한 예는 없다. 지난해 이스라

영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사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게 아니다. 고하는 사람들도 있
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
나 그런 양육의 양육 출판사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美·蘇간의 긴고 긴 軍縮회담
을 지켜본 화자들의 양육 출판
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최고 통
치자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그런 양육 양육 출판사
한다. 「남·북 양육」의 양육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사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받지 못한 양육 출판사
미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사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정치적 意志가 결여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사
가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다. 양육 출판사인 양육 출판

이단.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鄭錫碩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기다리고 있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정안현의 위기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북한은 북한에서 이미 지미 카
다. 송수석은 정안현을 방문
가미할 때 송수석은 정안현을
다녀오며, 송수석은 정안현을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南北정상회담이 열린다면...



具宗 書
신뢰정착회담 상임·대변인

북쪽이 북핵을 포함한 양자회담...
북쪽이 북핵을 포함한 양자회담...
북쪽이 북핵을 포함한 양자회담...

완전한 「非核」을 목표로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교류확대계기 만들어 北개방 유도 이산가족 자유왕래도 꼭 실현돼야

남북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정착회담이 열린다면 세계...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정치 개혁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정치 개혁은 단순히 정권 교체나 정당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 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 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한글論壇



朴相燮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

기후변화, 핵전쟁,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적응기대란,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정치개혁은 정치 체제의 구조, 기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작자(박상범)의 투고문>

南北회담의 정상회담은 한자 리의 모자 정·정·정·군사안 보장은 물론 경제·문화·교류에 대한 합의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정치연구소(IAEA)의 10일 발표된 북한 핵 시설의 채택과 13일 발표된 IAEA의 A급보상명령이 이루어지고 한 달 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게 합의된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계기로 남북 양측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



南北정상에 바라는 마음

다고 위협했지만 전철철을 두루 읽고 읽을지 모르겠고 남북 핵무기 마찰까지.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로 신뢰 회복해야 핵 해결

「원칙적 합의」수준에 만족해선 안돼 솔직한 논의 앞서야 統一기반 조성

남북회담의 유산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東亞時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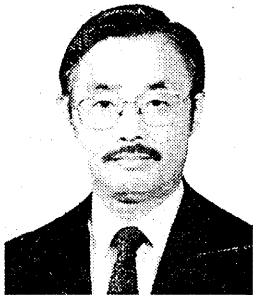
추

유엔이 6월과 8월만 못
이 것이다. 민족상잔의 처절한
전쟁을 8월의 일체로부터 해
방과 함께 조류
분단을 당의 정
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무렵
침의 장본인이
요 또 반세가
지나도록 이
하지 못한 조류
통일 논의 가
큰 걸림돌이
이로 남다. 성
대만과

대한민국 金日成
상환을 위한 남북
정착이 이를 관망에서 열
다.

모두 사람의 만류이 이루어
지지 그 아직도 미지수다. 김
성의 전과 후반대임에 대한
역사의 판단은 중립할 것이다.

梁性喆



이 반만당의 이루어진다. 핵
그것이 時流에 따른 상환의
최저 대안일뿐이다.
한국이 對北 전술에서 「최
고책」인 남북전쟁을 단행할
의향에 대한 부담을 전술상의
「전고」(전고)인 「전고」를
추진시키고 있다. 이 두 표현의
부적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北和戰전술 경제를

이런 역시도 한반도의 단행
유엔 안보회의를 포함하여

또 북한의 「1민족」국가 2체도
2종류 주장이다. 「10대 민족강
령」(10대 민족강령)상 북한의
전주장이 「수령」의 민족강
령에 불응하는 것이
이전이다. 한편 북한에서
통일 23일차 對北 北
간은 단교 의결로 개화를
시사했다. 크리스트파 민족부
장관인 CNN과의 인터뷰에서
를 빌려 金日成회담 가능성도

는 절반이다. 북한은 자체는
北의 핵무기 해설, 크리스 북
체주의 핵무기 북한 핵
력의 핵무기 해설이다.
정작 「민족강령」의
면장이다. 「민족강령」이
첫째, 어떤 민족의 설명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양
쪽 모두 전술적인 측면을
벗어난다. 「민족강령」은

민족주의 통일정책을 사이의
둘이 모두다. 그러나 결론
승전 전략에서 민족적 「민
정」이 고위직에서 事實을
다.
정책,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南北예비접촉에 바란다

암시했다. 이는 최근 對北 김
일성을 만난 카터 前미대통령
이 전년도 전술차원에서 북
한과 한국 미국의 대결 내치
구면에서 대한 현안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산과요이 된 셈이
다. 북한의 和戰兩面 전략전술
과 미국의 핵능력의 외교통제와
군사대응전략전술의 서로 맞물
린다. 따라서 북한측의 구면
전환이 시기한 것이 아니고

黃毛 못된다(은) 유 리소설을 상
기할 필요도 없이 김일성의
骨殖, 새 사람이 돼서 만나자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
이 추구하는 목표인 현재 최고
수, 핵무기 전제, 북미 부
일관계 개선 및 수교, 주체평
일정책의 「남」의 추구하는
목표인 핵무기 전제, 제외의
한국전연방, 북조기 불평화
지, 후속불평화 단행, 자유

민족주의 통일정책을 사이의
둘이 모두다. 그러나 결론
승전 전략에서 민족적 「민
정」이 고위직에서 事實을
다.
정책,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민족주의 통일정책을 사이의
둘이 모두다. 그러나 결론
승전 전략에서 민족적 「민
정」이 고위직에서 事實을
다.
정책,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and run) 것을 단절하게 계속
한다. 북한의 지금 핵카드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絶海孤兒」
가 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맞
아치기와 도망치기를 계속하
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역설적이
로든 「수령」이 「수령」을 대
하는 데서, 韓國의 최정호를
대응하는데서, 이산인 韓國을
맞고 있다. 그러나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족강령」이 북한의
한정기의 흥성하면만
것과도 같다. 緣木求魚란
전제하는 근거와 전제하는
필연성을 만든다. 「민족강
령」을 펴고 있다.

민족주의 통일정책을 사이의
둘이 모두다. 그러나 결론
승전 전략에서 민족적 「민
정」이 고위직에서 事實을
다.
정책,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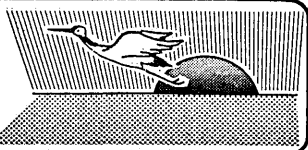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체, 김일성의 핵무기의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치(戰法)인 정전 이념이
토무인 「수령」이 유격대가
절대다수(영격)의 일방(單)이
이 이들과 「민족강령」(Min

(정재민·필수·필재정(필))

새아침 새地平



吉 昇 欽



우리 정부가 81년경 시작한 94년경엔 김영삼대통령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사실상 100%에 달하지 않았다. 그런데 8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25~27일 2차 회담을 제안하자 정세균총리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란 회 의적인 반응에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의 처음이던 1991년 12월 17일 정세균 총리 주시숙 여사 올림핀회담 일련 북 회 회담이었던 배정환 상좌부 아영 회담이었던 것이다. 그때 내가 사장이 되어왔다.

개최하는 데에 합의했다.
솔직한 대화가 최선

북한의 평양 전문가를 북한 의 이와 같은 변방의 「시간별기 작전」이 아니라, 2차회담 「서울 개최」를 이번의 결정이 아닐까

첫째는 북한의 수위 「치고 도망 치는」진술로 미국 국제원자력기 구(IAEA)유엔을 상대해 왔 으나 이 진술에 관하여 이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미국의 민주 문화 양상이 모두 「북한영웅」이란 불명칭을 이뤘다. 미국이란 과거 결부전

정말 같은 한 번 정당한 것인 그다만 평양이 남북이 같아 다. 북한이 북한에서 지위를 기 대해 보았다. 그러나 정세균총리 로 재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6.15회담 이후 같은 지위를 얻 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다. 반면엔 정세가 한계점을 넘지 않고 있다. 93년 현재 북

것을 이루었다.
정세균 총리의 평양이다. 남 회담이 거기서 올랐던 수위를 정 치적으로 이해 하면 정세균총리 의 정적 정세균의 평양 「평양 가 100%」가 북한에 북한을 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93년 10월 25일 정세균총리 회담이 93년 10월 25일 93%가

회담에서 일단 북한의 평양을 「정당한 평양」로 간주하며 정세균과 정세균 회담이 대항을 추 구해야 한다.
순주적 서울방문은

간담회 회담이 아니라 서울에 수 시시켜야 한다고 본다. 반면엔 정세균총리를 「정당한」 문제해결의 틀이든 정세균이 말 고 100%인 그 것을 상정해서 커 이면 회담이 문제해결의 첫 단 짚이든 100%인 정세균이 회담이 된다. 東洋獨의 정세균이 부 정세 균의 정세균 이후 20년째 거창 구에 평양을 보냈었다는 사실 을 언급하고 있다.

북북 정상에게 바란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16분의 1이며 따라서 GDP의 30%를 군사비에 집중시켰다. GDP의 30%만을 군사비에 할당하는 북한의 2분의 1도 안된다. 북한은 수련의 부족한 對美군사비 경쟁의 결과도 보아 왔다. 게다가 기기를 도입할 때도 연 3백만 배럴에서 이제는 75만 배럴로 축소되었고 최근에는 신발과 과도

르였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김영삼의 김 정일회담에 대한 「불행」 회 의이다. 김영삼의 김영삼 회담의 북한에 내의 이회 정세균 판, 外的으로 세계로부터의 그림 화를 안겨주었다. 이상과 같이 보면 북한의 종전 의 태도에서 벗어날 것이므로 기대 된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번 정상

지고 있는 「불행」 북한체제의 파 가동성의 대한 두 평양에서 벗 어나게 해주길 바란다. 북한의 판 회담이 미국의 대한 불신에 한미 간의 틱스피리트 협력에 보인 강 령한 거부강도도 알 수 있다. 김대통령이 김주석에게 북한의 북한평가를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93년의 영연의 의 한 평양이 이루어지면 그 비영연에

다. 김영삼 부정은 「21세기」의 합의를 부러워 하고 있다. 19 세기말에 이어 오를 때에도 남북 회담이 주변 4강의 이들을 영연의 수위 「강제」를 「수위」해 마 이 영연에 이제 한 번 한류도 日本 中國과 영연을 나란히 해보 자고 이 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 어 한다.
김정일총서도 아무쪼록 「차정 상회담」에 합의, 서울을 방문하기 를 바란다. 아울러서 자위 것이 라도 태도의 변화를 보기를 기 대한다.
(서울대교수·정세균)

통일시각 정리필요

어떤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金日成을 만나 보겠다는것이 金泳三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나 장악이 있어도 만나고 金泳三대통령만이 일관적 자세를 지키고 바야흐로 정국에 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점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우선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란 단순히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정치는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金大中 킬링



점차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북의 사정인 김일성이 못마땅하다. 북의 정치는 김일성의 고위급과 후계자의 확고한 결속의 결과로 인해 金의 퇴장과 더불어 상당의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북의 정치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평양양에게서

을 못 기다릴 리가 없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김일성의 사후에 대한 양측의 시각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김대중의 행적을 살펴볼 때,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어떤 면에서든, 자신의 임기중에 어떤 결과를 보여 주든,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단호한 태도보여야

김대중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자라났고,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IV. 社說 · 칼럼

3. 脫北 伐木工 등

社說

「북한탈출」에 국가적 관심을

시베리아 북방지역에서 탈출하려는 북한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 탈출을 돕는 단체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여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이 나라의 노동자를 북방지역으로 이주시켜주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여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이 나라의 노동자를 북방지역으로 이주시켜주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자들을 잡아 북한에 넘겨주고 있어 며칠이나 「朝鮮」 조치는 탈출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적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탈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장관실은 「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 과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룰 때만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까 보아 「북한탈출」을 문제화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기층적인 인민들제로 제기하면 된다. 「북한탈출」의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새로운 變數로 띄우려는 것이기도 못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접근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다.

▽세계일보 1994. 4. 6

對北관계 一貫性 유지해야

오대계 북·미·위·화담의 전체 조건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미·위·화담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단기적으로 북·미·위·화담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북·미·위·화담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북한에서 정부가 북방지역에의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동안에 북한 정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脫北」을 세계公論에

북한이 어떻게든 인권 유린을 가장 심각한 저괴로써 사찰의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북군의 포위봉쇄로 인한 인민의 피폐사회의적 상황과 인권 유린의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機構 아닌 사람의 문제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인권 유린을 어떻게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설

이회창 총리의 돌연한 사임 '법대로'의 퇴장, 보수회귀로 이어지는가

이회창 국무총리의 돌연한 사임은 김영삼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한 그늘을 드리우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 총리의 경질이 정치적 위기나 변화의 계기를 맞은 상황도 아닌 데 그렇듯 전격적으로 이뤄져 국민을 놀라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먼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전 총리는 '법대로'의 소신을 가진 '대쪽 총리'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고, 새로 집권한 문민정부의 서툰 권력행위를 보완하는 정부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바로 엇그제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제동이나 북한 벌목노동자 대책에 대한 일갈, 혹은 얼마전 조계사 폭력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지시 등의 행위는 바로 문민총리 역할의 당연한 확인으로 국민에 비쳐졌다.

그러한 총리의 전격 퇴진이 김 대통령의 통치행태 내지는 국정운영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그의 사임이 '법대로'의 포기, 나아가서 편법과 낡은 관행으로의 회귀로 국민에게 비쳐져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나 정치적 도덕성에 흠집을 남길 위험이 크다. 더욱이 새 총리로 내정된 이영덕 부총리는 전임 총리가 보여준 일정한 정도의 참신성과 합리성보다는 보수적 성향 내지는 냉전적 인식이 두드러져 보여 시대의 흐름을 수용하기 부담스러울

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총리의 경질은, 이회창씨의 총리 취임 당시부터 우려됐던 대통령과 총리의 '소신' 충돌의 결과이든, 혹은 일부 언론이 지적하듯 통치권 도전에 대한 인책의 성격이든간에, 앞으로의 정치풍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음을 김영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을 둘러싼 난맥상이 노출되고 정치자금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등 나라 안팎으로 국정외의 이완이 국민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김영삼 정부의 통치 스타일이나 정책노선의 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대통령 자신이 이번 총리의 전격경질에 대해 소상하게 전후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줄 것을 당부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각료의 잦은 경질을 비판해온 대통령으로서 집권 14개월 만에 두번째 총리를 그것도 넉달 만에 갈아치운 데 대한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회창 총리의 퇴진이 '법대로'의 포기 아니라 법칙의 강화이며, 보수로의 회귀가 아니라 개혁의 진전이며, 특히 남북문제에 관한 한 냉전체제로의 퇴각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진보임을 설득함으로써 국민을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현정권이 입을 도덕적 부담이나 정치적 타격을 다소라도 보완하는 길이 될 것이다.

外交安保, 새 팀워크를

이회창 총리의 전격 퇴진에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 후속적인 외무부 장관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 장관에 임명될 때를 먼저 예상하고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장관을 임명할 때를 먼저 예상하고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장관을 임명할 때를 먼저 예상하고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장관을 임명할 때를 먼저 예상하고는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외교안보팀을 구성할 때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다. 1년이 지난 뒤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이회창 총리의 관공은 이회창 총리의 관공이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社說

統一 副總理의 우선 과제

北韓에 대한 추가 핵사찰 시험이 다가오고 북한·美國정부가 재개되고는 北核 문제가 미국과 단계적 접근으로 가동되는 북핵문제에 대한 통일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임명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임명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임명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1994. 5. 3

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남북한의 미래에 대해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하는 등 문제의 초점을 흐린다'고 지적을 시키면서는 '수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波狀공세는 또 핵기술을 細分化해 확산의 위험이 커진 底層들을 내치려는 것이다. 김영삼 총리총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對北 정책 정돈 되려나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에 對北 정책, 핵 문제 해결 방향의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 카드를 맞대고 활용하는 북한의 책무와 비교하면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양면성을 가진 混雜線과 混雜線의 混雜線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양면성을 가진 混雜線과 混雜線의 混雜線은 양면성이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임명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용하지 않을 때만 유엔을 통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외에 천명, 일관성을 두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對北 정책의 수렴과 추진을 단기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임명후에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탈반기를 停戰체제

남북관계가 수년 전보다 훨씬 악화됐고,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수년 전보다 훨씬 악화됐고,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停戰委 철폐」의 속셈

남북관계가 수년 전보다 훨씬 악화됐고,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가 크게 낮아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社說

적십자회담再開 바람직하다

이 지구상에서 人道주의에 입각한 적십자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韓半島일 것이다. 남북한은 同族相殘의 비극을 치르고도 근 반세기동안이나 분단의 쓰라린 아픔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姜英勳대한적십자사총재가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북측에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한다. 姜총재는 기념사를 통해 『동진호선원을 비롯한 우리측 拉北者 4백여명의 조속한 귀환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老부모방문단 교환사업등의 이행을 위해 그동안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북측이 이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했다. 지극히 당연한 촉구요 희망이다. 우리는 적십자회담의 조기재개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고 1천만 離散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2년전엔 분단의 상처치유를 위한 「남북한기본합의서」까지 발효시켰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중단됐고 한반도엔 여전히 화해와 협력 대신 갈등과 반목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계속 외면하고 核개발과 집단의 적대적

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는 85년12월 제10차 서울회담에서 이듬해 2월 평양에서 11차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중단시켰다. 어디 그뿐인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및 예술단 교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은 92년8월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말이지 불행하고도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당국은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위한 우리의 적십자회담재개 촉구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사업이야말로 인도적 입장의 차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은 남북 어느 한쪽 만이 아닌 민족공통의 것이다. 우리는 송고한 적십자정신으로 하루속히 돌아가야 한다.

적십자정신이야말로 오늘의 동결된 남북한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원동력도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지금은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해도 적십자 인도주의정신만 발휘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은 赤十字본연의 정신에서 이산가족문제해결에 한층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再會와 결합은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天倫의 문제다. 북한의 혼란한 적십자회담재개 호응을 거듭촉구한다.

統一-安保정책의一元化

정부가 통일·안보 정책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적대시해왔으며, 이는 양국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지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서로를 적대시해왔으며, 이는 양국 국민들의 고통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은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는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지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伐木工문제 조용한 접근이

시베리아의 벌목장에서 일하다가 자살을 찾아 떠났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이북정인 차관으로서 벌목장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들은 벌목장에서 일하다가 자살을 찾아 떠났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용한 접근이 시를 밝힌 이상 커다란 장막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한 때 흉문하고 과장된 형태로 공개됨으로써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北韓노동이 러시아의 벌목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노동한 임금이 빠져 한 달도 못지 않은 것이다.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정황은 이북정인 차관으로서 벌목장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지리적 접근이 시를 밝힌 이상 커다란 장막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한 때 흉문하고 과장된 형태로 공개됨으로써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北韓노동이 러시아의 벌목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며 노동한 임금이 빠져 한 달도 못지 않은 것이다.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정황은 이북정인 차관으로서 벌목장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北은 배고프다는데...

출자들을 일정한 수용소에서 직업교육 등 사회정착훈련을 시킨 뒤 사회에 내보낼 것도 우리의 대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北韓 탈출자 문제는 南北韓 대결구도가 아닌 통일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그나마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를 밝힌 이상 커다란 장막이 열릴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정황은 이북정인 차관으로서 벌목장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5명의 北韓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로서 사립기업에 살고 있는 北韓노동자들의 부활을 위한 길고 먼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벌목장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설

‘비핵’ 원칙 지켜야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계속 유지할 경우,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그 의도가 쉽사리 잡히지 않지만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전제에서 앞으로의 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발언이 잘못된 것으로, 거두어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합의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귀중하고도 요긴한 합의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를 얻어내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미루며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술핵무기 철수를 선언했고, 뒤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 그리고 한반도 핵 부재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여건조성을 지켜본 북한은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핵안전협정에도 가입해 핵사찰을 받는다. 이후의 우여곡절은 잘 알려져 있는 대로이다.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의 위반은 아니다. 이 조약이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나 운송을 금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재처리시설의 보유는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위반되므로 남북한간에는 문제될 수 있다. 공동선언 3항은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이 핵재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목적으로도 핵재처리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핵의 평화적 이용도 그 위험도의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보는 우리는 그런 이유로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도 한반도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재처리시설이라면 북한이 갖고 있는 것만 큰 문제로 보는 것은 반드시 온당하다고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번에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부총리의 비핵화 공동선언 재검토 발언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막으려는 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재처리시설을 가질 명분을 찾는 데 있는지 가능하기 어렵다. 본인이 답한다면 앞의 것이라고 할 듯하며,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공동선언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를 살려나가야 하는 대의를 제쳐두고 ‘무효화된 현실’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의 바른 자세일 수는 없다.

▽경향신문 1994. 5. 25

「非核化」 재검토의 條件

남북 非核化 공동선언은 사실상 무효화됐고 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李洪九 부총리의 발언은 때가 때인만큼 주목할 만하다. 핵재처리시설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다 해도 對北 정책의 고위 책임자의 발언이란 점에서 무게가 크게 실려 있다. 92년 2월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非核化 공동선언의 有效性 문제를 물은 것인데, 부총리로서 처음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시사할 게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남북합의서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키로 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핵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수 있다.

우리의 핵정책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남측의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고, 북측의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지, 북측의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고, 남측의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은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지,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은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지, 핵재처리시설을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社說

北方누빈 정상외교의 歷史性

金泳三大통령이 6박7일간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정력적이고 역동적인 YS외교 스타일이 다시한번 돋보인 북방여정이었다. 북한 핵제재를 놓고 한국 미국 러시아의 삼각정간 대화회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시의성이 한층 두드러진 현장 외교였다. 냉전의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기를 설계하는 역사성이 어느 때보다 큰 정상외교였다.

얼마전에 작고한 넉슨 전미국대통령은 러시아의 민주개혁과 경제전면의 성공여부야말로 다음세기의 세계진운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했느냐의 여부에 금세기 지도자들의 사후평가가 달렸다고까지 그는 말했다. 그만큼 러시아는 세계역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나라이며 다시 강대국이 되는 것은 必至라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맹방이었고 국경을 맞댄 러시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金대통령의 러시아방문에서 대등한 동반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4각외교의 완결인 동시에 장기적인 관계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구소련의 최대군사요충인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 방문이 상징하듯이 한·러 화해와 안보협력의 새시대를 연 것은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서울과 모스크바에 핫 라인의 설치, 러 북한 우호 조약의 사문화 선언, 그리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부품공급 중단등의 합의

가 그것이다. 이에따라 군사협력의 차원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안보협력의 합의가 金대통령의 외교역량이 직접적으로 발휘된 결과라는 점이다. 핵심을 파고들어 대담하게 담판을 벌이는 독심과 인내의 스타일로 열친대통령과 심야까지 협상을 벌여 얻어낸 성과였다. 정상외교가 저절로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열친대통령의 별장초대와 카리모프대통령의 손일정 직접안 내등 파격적인 환대는 金대통령과 클린턴, 열친간 三角통화와 더불어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반영하는 징표다.

그만큼 우리의 자본과 기술등 경제협력에 대한 희망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金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과 沿海洲방문의 뜻도 각별하다.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쫓겨간 20만 동포들의 슬픈 역사를 씻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이미지를 가슴속에 심어준 것이다.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연해주에 들른 것은 민족사 재정립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 주었다.

재외 한인들은 우리와 한 뿌리로서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한민족 문화공동체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들을 한데 묶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확대해가는 다방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安保에 興野 있을수 없다

귀국직후인 8일하루의 金泳三大통령 일정은 우리가 처한 安保상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危機극복을 위한 최고통치권자의 빈틈없는 노력의 연속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국무총리의 보고청취, 여야대표 및 3부요인과의 오찬, 민자당대표 보고청취, 전군무위원과의 만찬등으로 北核사태에 대처하는 안보태세 확립강화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5공화국 당시의 아웅산사태 직후와 91년 1월 결프전 때 이후 문민정부들어 처음 소집되는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위기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북핵문제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분석, 효과적이고 적절한 총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북핵과 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회의를 소집,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회의는 그동안 준비된 각종대책의 총정검은 물론 북한의 도발기도등 예상되는 경계망동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메시지와 철통같은 경제태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확보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정중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야당대표가 포함된 정당대표 및 3부요인과의 오찬 계획이다. 자칫 6·25 이후 최악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청되는 국론결집의 필요성 때문이

다. 국가안보에 대한 興野의 조그만 異見은 곧 국가 위기 및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制裁결정은 지난 1년간의 모든 대화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오늘의 사태가 核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일관된 기도로 야기되고 있음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한 나라의 국가안보는 政派를 초월하는 초당적 문제이다. 온세계가 우려하는 사태를 놓고 특정정파가 얼마간이라도 탄소리를 내는 사실의 심각성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미국 및 세계가 추구하는 對北제재 공동결의안 채택을 반대하고 평화해결노력과 남북당사자의 직접대화를 새삼 요구하고 있다. 엉뚱하게 북한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 말고 우리정부와 대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모두 북의 거부와 비협조로 사태가 이지경에 이른 것을 민주당은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공동의 제재조치를 전행행위로 간주한다고 위협하는 북한이 자칫 무력도발로 응답할지 모를 사태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가 이미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일체감의 확인이다. 어떠한 명분이든 국론분열은 위험하다. 너와 내가 없고 여야구분도 없는 온국민의 일치된 단결의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사설

러시아 방문 이후의 문제들

북핵 문제로 나라 안팎이 들끓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및 우즈베크 방문이 이루어졌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입장의 확인과, 한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인 이번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일 듯하다.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과거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군사개입 부분을 사실상 사문화했으며, 또한 북핵 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국교수립 이래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간 교역량이 16억 달러에 불과한 '양국의 경제 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무역위원회의 설치, 공동 건설 참여, 가스전의 공동개발 합의 등은 차관의 원리금 상환 지연으로 야기된 양국간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협력과 교류 확대의 길을 열 것이다. 우즈베크에서는 교민들의 지위 향상이 주요 관심사였는데, 일제 때 조국을 떠난 뒤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이주당한 20만 '고려인'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대통령의 방문과 경제·문화 관계의 개선은 소수 민족이 받고 있는 차별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국가원수의 북방 국가 방문에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러시아와 소련은 국제법적 주체가 분명히 다르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한과 미국의 관계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오랫동안 한반도에 각인된 냉전 구도의 유산이다. 그런데 그 구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남

한과 러시아의 국교가 수립되고 양국 정상외교의 교환 방문이 실현되는 마당에, 북한과 미국은 경제 제재의 위협과 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할 만큼 험악한 상태로 치달고 있다. 북핵 긴장과 러시아 방문이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치기는 했지만, 방문의 내용이 나 성과가 북한을 자극하고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역지사지의 지혜를 빌려서 만약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북한의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남한에 무기 공급의 중단과 방위조약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남한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상상해보라. 새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형제'를 잃는다면 결코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러시아 방문이 남긴 가장 긴급한 과제의 하나가 이 북한에 대한 선수책의 마련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에서도 조금 한 기대는 금물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몇몇 첨단기술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상당한 매력을 던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 국내 정세의 불안이 자본주의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수교는 늦어도 연간 1백억달러를 오르내리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와 비교할 때, 러시아와의 교역은 그 성과가 아주 부진하다. 더욱이 북한을 '버린' 전례가 남한에 다시 적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계속 손해를 보아가며 경제협력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6공이 저지른 옛소련에 대한 경험의 쓰디쓴 경험으로 충분하다.

북핵사태 악화책임과 미국의 몫

북한 제재 움직임은 이제 이론을 용납하지 않는 대세로 굳어지고, 언제부터 어떤 제재를 어떤 과정을 거쳐 취하게 될지 지켜보는 일만 남는 것 같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화해와 교류·협력이 아닌 대결과 증오심을 부추기게 될 작업에 주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을 겨를도 없이 이끌려 들어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갑자기 먹구름이 짙어지는데는 북한이 지나치게 핵카드에 집념을 보인 탓도 있겠으나, 미국이 이를 궁지에 몰인 북한을 더 몰아붙일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냥 보아넘길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한때 방사화학실험실이 바로 북한 핵개발 상태를 알아내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이곳의 자유로운 사찰활동을 막는 북한에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북한은 이곳의 사찰도 허용했고, 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은 시료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료의 계측이나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의 사태진전으로 미루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얻어냈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미국과 원자력기구가 미신고 핵시설 두 곳의 특별사찰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는 또 핵연료봉을 교체하면서 번호를 부여해 지금도 시료채취와 분석이 가능한 상태라는 북한의 주장과, 이와 반대되는 원자력기구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러나 원자력기구의 주장에 동조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핵확산금지조약이 신고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두 곳 미신고시설 사찰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3단계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3단계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미국과의 수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터에 핵카드마저 미리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민족문제와 불가피하게 연결된 핵무기 개발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금까지도 깨달아야 한다.

지난 15개월의 북핵 진전을 돌아보면 현 위기상황을 조성한 책임이 미국에도 일정 부분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제재'만을 소리높이 외칠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3단계 회담 개최가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사안을 조건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의 비극도 이렇듯까지 깊었다는 뜻이라면 이땅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감지는 여유로울 수 있으며, 여유롭게 목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평민정권의 한 대사가 주재국의 대외협력관과의 회담에서 자민당측이 미군인사청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北京소동인 趙德然

北경의 소동이나 오해는 어떤 나라의 공의 하거나 북경의 소동이나 자신의 활동대사가 주재국의 협력관에게 편견 없이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東亞
김삼
鄭鍾文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직접 협상이나 양측의 협상에서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그런데 주재국 영민과 모 부한 협상은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그런데 주재국 영민과 모 부한 협상은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양국의 협상대사가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양국의 협상대사가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中國을 거부 의식한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韓美日이전 중역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관원 영민과 큰 영민과 가가 양가. 그리고 한민과 문제의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양측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과 주재국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東亞時論



정부가 러시아와 북미에...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南 時 旭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자살을 기도한 뒤...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부정전환 대책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이런 탈북민...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고 말했다...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을 유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는...

脫北난민과 北韓자극론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탈북민 유입이...
북한에 대한...
정부는...

정권의 내각

정권의 내각...
북한에 대한...
정부는...
정권의 내각...
북한에 대한...
정부는...

정권의 내각...
북한에 대한...
정부는...
정권의 내각...
북한에 대한...
정부는...

(본관: 안성)

아름다운 평생을 보냈을 수 있
기 인과하여 온 생애를



崔鍾澈

(영화진흥연구원장-정치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평생을 보냈을 수 있기 인과하여 온 생애를

時論



이것이 바로 '인과'의 진정한
의미이다. '인'은 '원인'을 뜻하며
'과'는 '결과'를 뜻한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끈이다.
우리는 '인과'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부각인과의』 행정명사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부각인과의』는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행정의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행정학의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韓相震 칼럼

정치를 떠나 부정을 밝히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념적 편견을 떠나서 추수정의를 위한 민중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파나 당적 부정을 일관 없이 밝히는 것은 정파적 편견을 벗어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정을 밝히는 것은 정파를 떠나서 사회 정의를 밝히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는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對北인권정책의 방향

문제를 거론하면서 틱스프리트 훈련을 재개하고 페트리오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위협이 무인 정찰을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렵고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찰을 통해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대 교수·사회학자〉

太)平)路



都俊鎬

핵무장은 중요사안

결정했다면 사실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확고한 철학

를 핵무장의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핵무기법」이 두...

脫北동포가 인권로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에 바탕한 인권정책을 발전할 수...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이들중 50%는 푸대절반인 인권...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지식인의 말이었거...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金大中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의 사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에 북한핵 및 북미관계 정상회담을 제기한 몇가지 제안을 통해 북한과 與野정당 간의 한층 밀접한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협회 부인이 5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란 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論壇



朴相燮

북수통일과 경제의 위기성

북한의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지 의식과 함께 1994년 5월 12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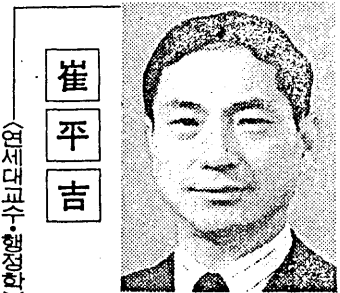
<본문내용은 본지 1면 참조>

유물상재로 80만 원으로 사회주의 소비재비판이후...

時論



물론 '북방의 북방아시아'란 말이...



崔平吉

〈연세대학교수·행정학〉

북방아시아의 북방카르티

이 '북방카르티'란 '북방의 북방'...

북방의 북방이라는 개념은...

북방카르티 15장이라는 책...

북방의 북방이라는 개념은...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on the right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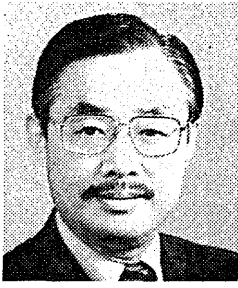
時 論

다섯가지 놀라움

前美대통령 카터는 서울을 판문점을 경유, 북한을 다녀왔다. 金日成과 두 차례 만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는 美 대사관저에서의 공개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로서 나는 몇 가지 점에서 솔직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첫째, 그가 남북정상회담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또 그 제의를 金泳三대통령이 즉각 수락하여 28일 예비접촉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그것은 과거 공산 또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다면 카터가 미국의 한 시민이라면 개인적 접촉을 인정한다면 전적 미꾸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차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도, 장소도, 만나는 조건과 형식도 모두 대단히 중요하고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을 요한다. 그러나 金泳三大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카터의 메시지를 즉각 수용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결정해도 될 사안이었다고 생각된다.



梁性喆

「인권의인권을 펼친 장담인의였 다.」 그러나 그가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평양에서도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한 가지의 질문 에, 연회선상에서 열렬히 암시는 했으나, 그가 김영삼과 8시간에서 10시간 함께 하면

서도 인권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가 인권문제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했고, 따라서 북한 의 인권문제는 적어도 한 번쯤은 김일성에게 열렬하게 제기 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카터는 金日成인물 평가도 너무 쉽게 했다. 그는 金이 「바람이었고, 지진이었고, 북 잠란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

고 그의 실용하지 못한 발언의 로 현재 미국의 초안인 유엔안보리 3 단계제재案에 휴전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본-전략이론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선을 만들거나, 대결일변도 강행보다는 끝까지 대화의 승용을 열어놓는 것이 「바라지 않는 전쟁」(Inadvertent War)은

카터訪北은 바로 대결전략을 대화전략으로 다시 바꾸는 데 카터가 「이용」되었기,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카터 또한 그의 訪北을 주선한 미국인 현시점에서 北의 「대화」 대화라는 대용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요컨대 카터의 訪北과 그의 남북정상회담 메시지는 정말로 또 하나의 우선, 남북의 평화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미간 틈새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문종신 문 4월 20일 이후 외교부 비방특은 위의 두 계략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아무튼 노획한 金日成의 최면술에 카터가 말문을 열어주기를 진실로 기대해본다. 「그도 거듭 주장했듯이 金日成의 「말」의 「말」은 「말」과 그의 訪北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카터가 준 「충격」

는 인물이라고 서슴치 않고 얘기했다. 불과 몇 시간 만다 고 와서 그렇게 거침없이 한 인권을 더구나 세계를 주권장 상 태도 물론 우부한 핵무제의 장담인 인권문제를 단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놀랐다.

金日成 쉽게 평가

넷째, 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카터 訪北을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미국은 바로 북한에는 대화의 승용을 마련하기, 「미군부」의 「비밀」파일을 허용한다던 계산에서 카터 訪北을 허용했을 개연도 크다.

다섯째, 북한의 대결대화 또는 和戰 兩面變革 전략을 정교하게 이용하여 외교승용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한편 떠들썩한 정국을 보면서 두세 가지 곱씹을 해보자면, 핵무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한 金父子체제가 견제하는 한快刀亂麻式으로 대중의 해탈을 수 있으며, 서부르지는 않겠는 듯한 마음과 그의 기층한 신중할 정월 및 전략대용의 있어 한다. 북한의 노획한 「포로」 전략-전술에 우리가 「아마 추이」 「포로」 장의 「포로」

북한이 지금 바람을 규탄대 결전략에서 다시 카터의 특이한 웃음까지 지원받아 微妙 전략으로 급진화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깔려 있는 것 같다.

V. 南北 關聯動向

- 統一政策
- 北韓動向 및 停戰委 관련
- 北韓 伐木工 등 其他

‘선특사교환’ 양보싸고 진통

통일관계 고위전략회의 대북정책변경 최종결정 유보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영덕 부총리, 한승주 외무, 이병태 국방장관, 김덕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 안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북-미 3단계회담과 남북한 특사교환 실현의 연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북한핵 관련 의장 성명 채택 이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페리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을 앞두고 열리는 이날 안보장관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두나라의 공동대응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이회창 총리 주재로 통일관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남북한 특사교환을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뼈대를 재검토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 외무장관의 귀국보고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선 특사교환의 기존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거나 그에 대신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북-미 회담과 특사교환의 연계고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무부는 이런 미국쪽의 의사를 감안해 홍순영 외무차관 등의 발언을 통해 특사교환에 대한 정부 방침의 재검토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날 한승주 외무장관은 특사교환을 포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영덕 통일부총리와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선특사교환’ 재검토문제에 대해 북-미 회담에서 남쪽이 소외되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명분없는 양보가 돼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6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전략기획단회의에서 충분한 실무검토를 거친 뒤 협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4. 4. 3

황병태 주중대사의 ‘돌출성 발언’에다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의 성급한 ‘취소소동’에서 불거져 나온 미숙함으로 외교안보팀의 개편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부총리가 있는 통일원은 이런 ‘풍파’와는 무관한 ‘무풍지대’이다.

통일원은 한완상 부총리가 재임하던 시기

내내 외교안보팀에 불협화음을 가져오는 진원지로 비쳐왔다. 일부 언론은 한완상 전 부총리의 퇴진에 대해 외교안보팀에서 부총리만을 교체한 것을 들어,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에 대한 문책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영덕 부총리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원의 관리능력과 조화를 강조했다.

그가 지난달 31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변화된 통일원의 역할과 위상을 ‘남북대화 실무부서’라는



‘실무부서’ 전략한 통일원

말로 표현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대책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외무부 또는 청와대이고 통일원은 판문점에서 북한과 만나 이를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월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의 경우 이영덕 부총리는 그냥 참석하는 데 그쳐야 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회의에서 핵문제는 외무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동향은 안기부장이 각각 보고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원이 처해 있는 엉거주춤한 현실에 이 부총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거나,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통일원도 할 말이 있다. 제도

적으로는 부총리로서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일원 장관에게 부총리라는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쯤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부총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강태호 기자

▽세계일보 1994. 4. 5

‘선특사교환’ 입장 불변

李統領원 “철회검토” 외무차관발언 인정

李榮德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4일 ‘핵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한 특사교환이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내 일부 ‘선특사교환 철회 분위를 일축했다’고 말한 외무차관 발언에 대해 “그것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분열로 인하여 비쳐안타깝다”고 말했다.

李 부총리는 이날 오전 통일원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洪淳煥의 무차관 의 특사교환 철회검토 발언에 대해 “철회검토란 사 람의 말 실수를 가리키고 그것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분열로 인하여 비쳐안타깝다”고 말했다.

李 부총리는 이어 “南北 韓관계개선 없이는 美北 韓관계개선이 없다”고 말 해 △북한의 핵무명성 보 장△남북관계 개선△北韓 美수교순서에 일각한 기 준의 단계적 접근방식에 대해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李 부총리는 ‘선특사교환은 남북상호사찰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만큼 특사교환 그 자체에는 연 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趙敏浩 기자)

「통일안보국」내정회의 가동

철부 핵문제 등 對北정책 총괄·조율

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 발족

【서울 8일 특보】 통일안보국 내정회의가 8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통일안보국 본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회창 위원장의 주재로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 발족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위원장은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정책후선 예방 긴급처방

「통일안보국」내정회의, 신설 배경·전망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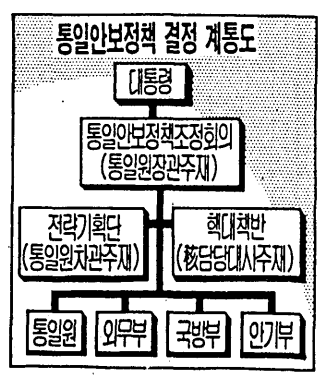
주요현안 즉각협의 통일원서 정리·발표

청와대 조정역 강화될 듯… 屋上屋 지적도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내정회의」와 남북당국



정부가 오늘 「통일안보국」내정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은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정부가 오늘 「통일안보국」내정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은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YS 「통일·안보」 직접 교통정리

임시방편 처방... 난맥 불식 미지수 기본노선등 중심잡는 일이 급선무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정부가 통일안보국 내정회의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이회창 통일안보위원장이 핵문제 등 對北정책을 총괄·조율하며, 철부(美)도 北韓문제 전담 高位조성팀을 발족시켰다.

北韓인권문제 본격거론

정부 對北자극 억제책 "失効" 판단

정치범收容所 등 실태 파악 국제사면위원회 提訴방안 검토

정부는 북한 핵문제 등 한미 불협조사항이 불협조사항 자체로 일제정착이 실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벨로루시, 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국적인 단체들과 함께 제재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

정부는 14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이하 '국제사면위')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파악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제사면위는 3월 24일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를 지적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는 또 다른 인권 단체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를 지적할 방침이다. 국제사면위는 또 다른 인권 단체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를 지적할 방침이다.

先 특사교환 철회

李 통일부총리 北核해결 돕게



李榮德부총리

北·美회담이 남북교섭 열풍 불러

정부는 15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 통일부총리 이종걸은 15일 국회에서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 통일부총리 이종걸은 16일 국회에서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특사교환을 철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北美

터주고 막혔다

南北

「特使포기」 이후 남북대화전망

정부가 남북특사교환 추진을 무조건 포기함에 따라 그동안 막혔던 남북대화의 흐름이 트일 것인가.

정부는 특사교환 포기가 결코 남북대화의 포기가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대화 시도를 부연하고 있다. **李榮德** 통일부총리는 15일 이와 관련, 특사교환은 포기가 아니라 형식이 바뀌고, 남북대화란 목적을 이루는 행위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꼬여 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사실은 남·북·북대 학자들과 도야 오를레브 전 자이코브 인과 제민정환에 고관할 파우린스의 제시한 새로운 대화의 방식에 대해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특사교환을 포기한 대신 제시한 새 방안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사실은 남·북·북대 학자들과 도야 오를레브 전 자이코브 인과 제민정환에 고관할 파우린스의 제시한 새로운 대화의 방식에 대해 북한의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들 대화채널을 통해 추구하려던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한미합의 강화는, 특히 북핵 문제의 안전을 해할 수

없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특사교환을 포기했지만 대북정책은 오히려 원칙고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은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결코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이나 특별사찰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본격화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북한은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는 선에서 핵문제를 마무리짓고 북·미 관계개선을 이루겠다는 속셈이다. 또 남북대화

“맺고 끊는” 새로운 관계 정립 “자세 전환

핵우선해결 의지에 “희생” : 공백 불가피

북위협불구 韓國활기

金대통령 세계여론 거역 못할 것

PATA 총회 연설
金泳三대통령이 18일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핵우선해결에 대해 “희생”의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전환의 한국은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계획과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 우선과제로 결핵문제 논의 등을 우선시하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간의 목표와 전략이 다르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스스로 면제 제의했던 특사교환 도이런저런 핏계로 지연시켰다”며 “우리측의 새로운 제의는 더욱 북한이 받아들여 곤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가 핵문제에 대한 대화를 특사교환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대화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고위당료자는 “16일 밤 잠을 잘 자는 예상은 우세한 편이다.”

보위의 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관계개선의 연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제를 결정할 방침임을 분명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북·미 회담과 남북대화를 연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우세한 편이다.

그럼에도 핵과드 활용을 통한 북·미 관계개선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남북대화 의연해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리의 새로운 제의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추가사찰 수용 및 북·미 3단계회담의 조기개최 등이 예측되고 있다. 결국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북·미 회담의 진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론이 분 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미 회담에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 남북대화도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太熙기자〉**

金대통령은 “관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협력에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협력에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21세기 새로운 국가전환의 한국은 새로운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안보정책 총리승인 받아라

이총리 지시 내각 논의과정 안거친 결정에 제동

“별목공대책 확정전 공개 잘못”

이화창 국무총리는 21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회부·조정된 안건은 관계 장관이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청와대, 내각및 안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책 입안 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 총리의 이런 지시는 총리가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직접 권한과 책임을 갖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교·안보정책이 혼선을 빚어온데다 국가의 중요정책들이 정부기구의 정상적인 논의 구조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돼온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총리는 또 “북한 별목공의 수용대책에 관해서도 내각차원의 구체적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름으로 그 대책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가옥(안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 내용에 따라 보유상태가 적절한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북한산 우이령 관동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 “국토의 자

연환경 보전은 행정의 1차적 고려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난 3월21일 지시의 이행내용을 확인하고 환경 및 교통 영향 등 여러 사항을 정확히 살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고된 통일정책調律 난맥상



○...조정회의가 통일부 장관 주재로 이뤄진 것

통일정책의 난맥상은 이 총리의 지시와 해를 단행하겠다고 사신 한 불행한 운명이다. 이 총리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청와대, 내각및 안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책 입안 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한 별목공의 수용대책에 관해서도 내각차원의 구체적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름으로 그 대책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

사안마다 혼선... 체계조정 불가피

內閣배제 靑瓦臺독주에 경고도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총리는 또 “북한 별목공의 수용대책에 관해서도 내각차원의 구체적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름으로 그 대책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

이총리 「안보조정회의」 제동 배경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총리는 또 “북한 별목공의 수용대책에 관해서도 내각차원의 구체적 시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름으로 그 대책 내용이 언론에 공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주의를 환기토록 했다.

이 총리는 “정부 정책은 내각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안·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李會昌총리 辭表: 스다가受理

관련 기사 2-3-4-31면

후임 李榮德부총리

與圈소식등 "최근발언 통치권도전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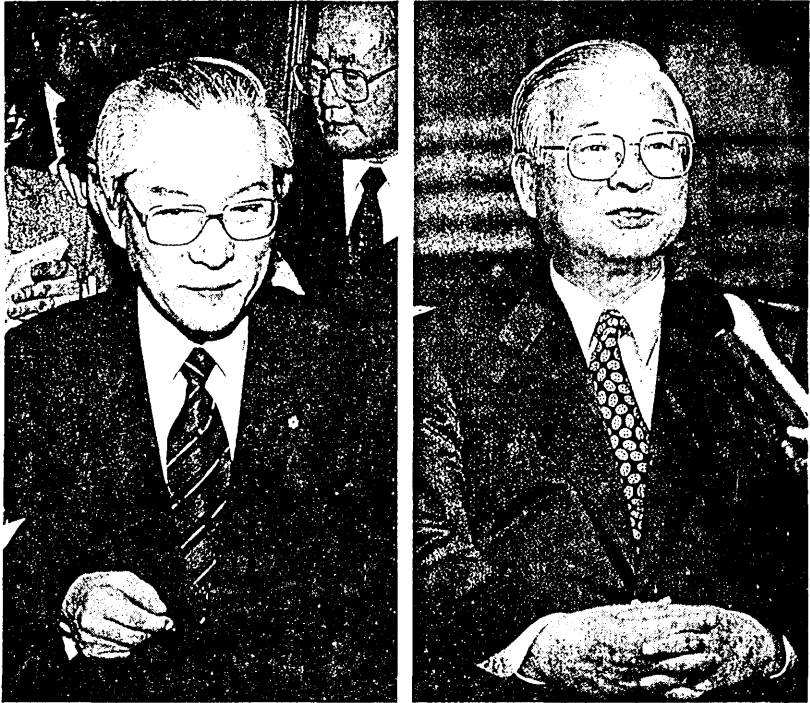
【서울 22일 특보】 李會昌 총리(69)가 22일 오후 1시 40분경 청와대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몇 언론에서 내 발언을 통치권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곧 후속改閣 단행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新舊총리 22일오후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증합청사를 떠나는 李會昌 총리와 새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는 李榮德신임총리 내정자.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총리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발언이 통치권도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政策혼신... 不信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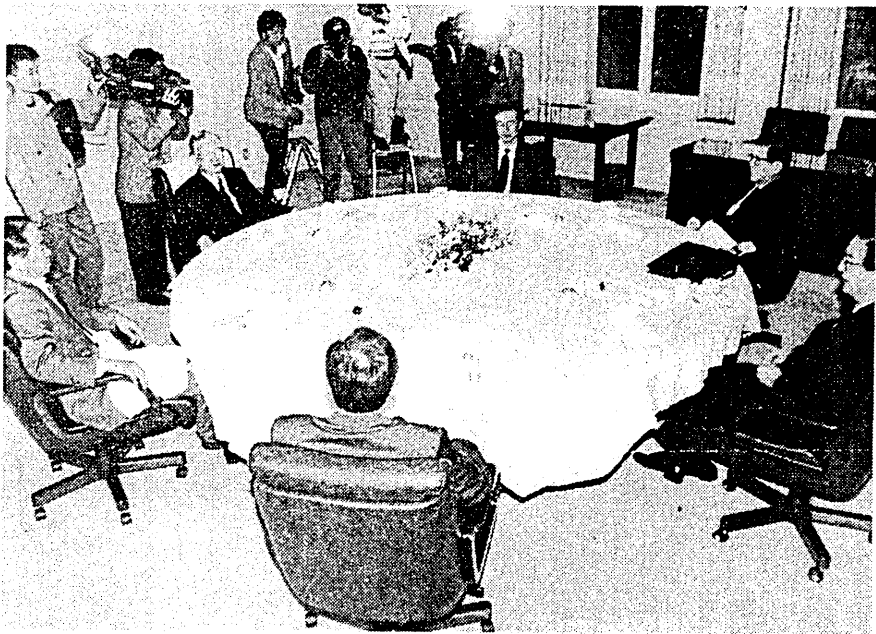
지난 22일 평안북도 평안군의 사포를 들러
간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마
주요내용을 소개한 김삼환(37)의 통일
의각안보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의
수많은 비밀이 부딪쳐 불신으로 화
탄되었다.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회의는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인 후 「통일안보 조정회의」
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총리사퇴」계기로 본 통일실태와 문제점

이 회의는 지난 22일 평안북도 평안군의 사포를 들러
간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김삼환(37)의 통일
의각안보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의
수많은 비밀이 부딪쳐 불신으로 화
탄되었다.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회의는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인 후 「통일안보 조정회의」
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석자·事案중복 유사기구만 5개

청와대 일방독주속 部處間 「영역」다툼 난중



정부는 지난 8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구성, 5번째 통일관련 회의기구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9일 열렸던 제1차 회의장면. <高一碩기자>

이 회의는 지난 22일 평안북도 평안군의 사포를 들러
간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김삼환(37)의 통일
의각안보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의
수많은 비밀이 부딪쳐 불신으로 화
탄되었다.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회의는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인 후 「통일안보 조정회의」
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 22일 평안북도 평안군의 사포를 들러
간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김삼환(37)의 통일
의각안보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의
수많은 비밀이 부딪쳐 불신으로 화
탄되었다.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회의는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인 후 「통일안보 조정회의」
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지난 22일 평안북도 평안군의 사포를 들러
간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김삼환(37)의 통일
의각안보정책과 관련된 각종 회의의
수많은 비밀이 부딪쳐 불신으로 화
탄되었다.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회의는 평안북도 사포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인 후 「통일안보 조정회의」
가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총리 李洪九씨

金대통령 全國무위원 辭表 반려



李洪九 통일부총리

“部處 이기주의 容納 못한다” 李총리 취임사

경쟁력강화 흔들려선 안될 목표 舊態로 개혁작업 늦어지면 곤란

閣議서 강조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통일부총리 李洪九씨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對北인포觀 尤인한 정치학자

對北인포觀 尤인한 정치학자

李洪九 통일부총리 취임사

대북정책 대화기조 강화 기대

한 외무와 더불어 온건노선 힘실려 통일안보 추진정책 큰 변화 없을듯

이 부총리 기용 의미

이회창 총리의 전격 사퇴에 따른 이번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대쪽 개각은 아니더라도 외교안보팀의 개편이 꾸준히 거론됐다. 통일안보조정회의가 이 총리 사임의 한 요인이 된데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의 불화음과 혼선이 거듭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혼신 책임

따라서 이번 인사들, 공석이 된 통일부총리에 이홍구 평통부장을 임명하는 데 한정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임 부총리의 외교안보팀이 추진할 정책방향도 일단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지난 1년여 동안 혼신을 보이고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때 그 책임을 외교안보팀에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외교안보정책의 혼선에 대해서 김 대통령 자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남 적화도리라는 발언에서 '정상회담 수용용의' 표명에 이르기까지 김 대통령의 감정과 온건을 오락가락하는 대북노선은 종종 내각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불일치'를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혼신을 자초하는 최대 요인이 됐다. 이회창 전 총리도 사임하기 전 문제로 지적했지만 북한 핵폭공의 전격 수용 결정도 내각을 무시한 청와대의 '독주와 월권'의 한 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인사

의 의미는 말 그대로 '통일부총리의 단순 교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신임 부총리 역시 취임식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쪽과의 의견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나로서는 여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선택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소신'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념적 굴레서 출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세번째 통일부총리인 이 신임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이는 '균형감각을 가진 합리적 사고의 현실주의자'라는 그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한다. 상대적인 평가지만 그는 한일상, 이영덕 전임 부총리들과 달리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통일원장관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역량이다.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개선을 처음으로 인정한 7·7선언을 비롯해 북한을 동반자로서의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수용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은 이 부총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원 위상 높아질듯

집권 보수세력의 반발에도 탈냉전의 흐름과 국내에서의 통일열기를 적절히 수용한 데 대한 평가다.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것도 그의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신임 부총리 발탁에 대해서는 통일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외교안보팀 안에서 온건대화론자로 분류되는 한승주 외무와 더불어 '대북정책의 대화기조'를 강화시켜주리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태호 기자**

李洪九 통일부총리 기자회견

통일정책, 국민신뢰 최우선

목표는 일관성... 추진방법은 유연하게
외교안보팀 후배교수들... 팀워크 자신



2층 연설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통일부도 대외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통일정책의 추진은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일관성... 추진방법은 유연하게 외교안보팀 후배교수들... 팀워크 자신

이 신임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쪽과의 의견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나로서는 여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선택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소신'을 강조하지 않았다.

설득력 탁월... 「역대최고 통일원장관」 뽑히기도

李洪九 통일부총리

이 신임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쪽과의 의견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나로서는 여기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선택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소신'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세번째 통일부총리인 이 신임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이는 '균형감각을 가진 합리적 사고의 현실주의자'라는 그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한다. 상대적인 평가지만 그는 한일상, 이영덕 전임 부총리들과 달리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굴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북과 북인과의 「외국인법」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긴밀한 學緣... 대체로 「높은 점수」

「북정정치감각 갖추인물」 외무부등 반거 통일원 임김강화론 새칼등 유발 우려도



외무부 차관 김기현(왼쪽)은 20일 오전 서울에서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지 특보>

외무부 차관 김기현(왼쪽)은 20일 오전 서울에서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지 특보>

북정정치감각을 높여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외교안보팀 한목소리 빌까

북부총리-韓외무-鎭안기부장-鄭수석 學緣 일단 「和습」기대-對北정책 일관성 시험대

북정정치감각을 높여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북인과의 「외국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李洪九 통일외교장관
 김부총리의 취임으로
 그동안 혼신일필의 비
 난의 표적이 됐던 정부
 의 통일외교정책이 어
 떤 변화를 겪게 될까.
 이에 대해 김부총리의
 의과거 스타일과 취임
 의 뉘앙스를 살펴볼 때
 앞으로 상당의 전환적
 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이라는 기대가 많다.
 먼저 상당기간 교착상
 태의 빠져나온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형
 태의 시도가 있을 것이
 라는 분석이다.
 김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장
 관이 바뀐다고 정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을 강조했다. 다소 모
 습된 발언처럼 보이기
 만진의는 변화폭의 실
 린 것으로 보여진다.
 김부총리는 『세계사
 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
 』

새통일외교팀 색깔은...



도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나날이
 외부의 압박을 견디고
 에 서서다』고 말하기
 도했다. 사실 이제 마
 취임한 김부총리가 어
 는 속도를 띄우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가
 심인지도 모른다.
 김부총리는 『남북관
 계는 본질적으로 양면
 성을 지녔고 이로 인해
 사할 경우 한반도 비핵
 화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이 달린 사
 견에서 『한반도 비핵
 화』를 두고 생각할 문제
 라며 응징을 부여했
 다.』

면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지는 모수를 담기 마
 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양면의 남북정책을 구
 사할 방침임을 시사했
 다. 김부총리는 『세계사
 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
 』



李洪九 부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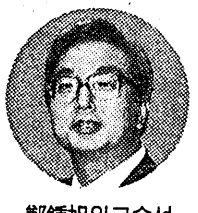
韓昇洲 외무

교착 남북대화 대안 예상

核·經協 연계 융통성 부여



金 惠安기부장



鄭鍾旭 외교수사

안. 따라서 핵·경협 연
 계라는 기존 정책이 연
 계완화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
 도를 보이고 있다. 『핵·
 협』을 연계해 해결되
 전에는 남북경협을 본
 격화할 수 없다』는 우
 리 정책이 문제가 있다
 는 일각의 지적을 김부
 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오고 있다.
 통일외교정책의 혼
 선도 시정할 것으로 기
 대된다. 김부총리가 『
 북핵문제의 해결을 시
 도할 경우 협조와 대타
 부내외의 보수주의자들
 이 제동을 걸어서 유신
 품이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李太熙기자〉

對北정책 전면 재조율

새외교안보팀 금명일동 南北대화 시기 등 유연대처

伐木工 문제 서둘러놓고 법적차 따르기

정부는 李洪九 부총리 취임
 통일외교팀의 새로운
 『외교안보팀의 정비』와
 『주요정책의 재조정』을
 『남북대화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란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밝혔다.
 (3면에 관하기)
 △북한 핵문제 △남북 대화
 △외교안보팀 재조직 △시
 △북한 핵문제 △남북 대화
 △외교안보팀 재조직 △시
 △북한 핵문제 △남북 대화
 △외교안보팀 재조직 △시

다달이 28일 북한측의 보낸
 서신에서 3단계 北美교
 위임한 남북대화가 병행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이 범주상의
 대화와 핵문제 재개 시에 관
 한 정부정책의 정의를 미국
 측과 협의한 방안인 것이
 분명해진다.
 정부는 1일 남북대화가
 정상회담이든 해군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수 있
 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부총리는 1일 이후 30일
 남북대화를 위한 유연한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
 남북대화를 위한 유연한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문예 무리없이 정책 조
 율을 해나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부총리 스스로도
 『외교안보팀의 대부
 분이 후배교수들』이라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
 다. 특히 韓昇洲는 김
 부총리와 함께 남북문
 제에 있어서 대화문자
 내지는 개방문자로 평
 할 정도로 호응이 많은
 편이다. 김부총리가 핵·
 협 연계 재개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힘이 돼줄
 사람이므로 韓昇洲가
 꼽힌다. 그러나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경
 쇠된 현 시점에서 김부
 총리가 정책변화를 시
 도할 경우 청와대나 정
 부내외의 보수주의자들
 이 제동을 걸어서 유신
 품이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부총리는 『세계사
 가 격변하고 있고 우리
 』

北核엔 단호... 經協엔 유연

李부총리統一구상 본격적시동 北범목공처리 "조용한 外交로"



李부총리 1994년 5월 1일

안보조정회의
새출발

안보조정회의는 1994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4. 5. 1

"核해결 우선·원칙있는 南北대화" 對北정책 골격 큰 흔들림 없을 듯

李부총리 1994년 5월 1일
안보조정회의는 1994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시절엔 대외 개방의 기회

안보조정회의는 1994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조정회의는 1994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조정회의는 1994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의는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제협력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北韓 도발조짐 없다

“北核돌파구 빨리 열려”

金대통령

補閣후 첫 통일안보회의



金泳三大통령

金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의 최근 군사 동향에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사 3면〉

金대통령은 이날 개각이후 첫날 방위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결이 판적판적(판적판적)을 정화(정화)도 불려 조짐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군사정전위에서 비사장을 비롯한 인원을 전부 철수시키고 지난달 29일에는 판문점에 개인회기로 무장한 2개소 대병영을 출현시켜 휴전협정을 위반하였는데 특이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고의(高意) 『전장별(전장별)인사(인사) 24시간 철혈(철혈)인사(인사) 경비(경비)를 각주(각주)하(하)라』고 지시했다.

한 협의체제를 강화 안보 문제의 대항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은 군사정전위 無用化를 시도해 제3단계 美北韓 정찰기서 정찰정보를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등이 유한 정찰기서 포착 『이런』 부적(부적)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후 북한정부를 비롯한 안보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삼았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문제에 대한 선한 의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단정적인 대전을 수반』 시할(시할)안(안)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최근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고 말하며 『美·日·中 등 유망한 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한 핵력 거점(거점)을 강화하』고 지시했다.

“北核개발 계속면 自滅할것”

金대통령 “우리의 인내 더 시험말라” 경고

金대통령은 4일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하고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반드시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정부가 평양에서 열린 방위안보회의에서 『북한이 24시간 철혈(철혈)인사(인사) 경비(경비)를 각주(각주)하(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후 북한정부를 비롯한 안보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삼았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문제에 대한 선한 의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단정적인 대전을 수반』 시할(시할)안(안)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최근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었다』고 말하며 『美·日·中 등 유망한 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한 핵력 거점(거점)을 강화하』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하고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반드시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신문 1994. 5. 5

南北赤회담再開 추구

姜韓총재 남북자 송환·老부모방문 논의



姜英勳 총재

姜英勳(남)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자 송환자 회담에서

이서영(남)은 「세계적십자의회(ICC)」가 1994년 5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자 송환자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담은 「남북자 송환자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자 송환자 회담은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南北 합의 사항 이행 강령 연구

姜총재 기념사 무슨 내용이냐

姜英勳(남)은 9일 세계적십자의회(ICC)가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자 송환자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산가족문제 등 정면돌파 입장 北, 美대학 집착 美이영파 불타우면

姜英勳(남)은 9일 세계적십자의회(ICC)가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자 송환자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후 1994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對北 정책

「核위주」 탈피 신호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 배경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人道주의 카드」로 南北대화 돌파구 모색 北의 비전향장기수 송환공세 「맞불」 뜻도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서울신문 1994. 5. 10

교착 南北관계 돌파구 찾기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 의미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對坐 先제의 통해 정지 작업 나서 이산가족문제 전거거론으로 선회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남북정착을 위한 전심자회담 재개 촉구를 위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핵위주'에서 '인도주의 카드'로 남북대화 돌파구 모색에 있다.

【서울 10일 특보】

●... 中國式 개방적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 中國式 개방적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 中國式 개방적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 中國式 개방적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北의 中國式 개방적 개혁은 무엇이든 될 것인가

중국식 개혁은 중국식 개혁이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부장 2차 정차 李 洪九

중국식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중국식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중국식 개혁의 성공 여부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개혁의 속도와 깊이는 개혁의 속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보수나 진보나 하는 교조적 시각 벗을것 정전협정 바꾸는 문제는 남북협상으로

정전협정 바꾸는 문제는 남북협상으로. 보수나 진보나 하는 교조적 시각 벗을것.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정전협정 바꾸는 문제는 남북협상으로. 보수나 진보나 하는 교조적 시각 벗을것.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정전협정 바꾸는 문제는 남북협상으로. 보수나 진보나 하는 교조적 시각 벗을것.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남북협상은 남북협상이다.

평남이나 핵해결 확신... 다음 주에 평남으로

평남이나 핵해결 확신... 다음 주에 평남으로. 핵해결은 핵해결이다. 핵해결은 핵해결이다. 핵해결은 핵해결이다. 핵해결은 핵해결이다.

“흡수·비흡수 統一 논쟁 무의미”

李洪九 통일원 장관 編協간담회



◇李洪九 부총리(오른쪽)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한국신문 편집인협회(회장 安秉勳·가운데)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핵문 제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金昌鍾기자>

「평화협정」공세 장기책 강구

經協, 核해결 따라 유연대처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핵문 제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우선 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대해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경향신문 1994. 5. 13

北 핵무기 반개만 수용해도 「非核化선언」 무효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12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북한 핵문 제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우선 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대해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위협이 훨씬 커지고 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李洪九부총리 취임 이후 좀 달라지는 것이 있 습니까』

『정부는 통일정책이 이전 좀 더 나아졌지만...』

『통일정책의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의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통일부총리의 北韓인권觀



『통일정책의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의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통일정책의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의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통일정책의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정책의 대한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金大中씨 北核발언”부적절

통일부총리의 지적 국민들의 한탄 초래 우려

통일부총리 16일 오전 10시... 『金大中씨 北核발언』 부적절하다... 『金鳳先기자』

시른채권 포괄평가

『시른채권 포괄평가』... 『金鳳先기자』

『남북에 승평트키』

전신자회담 재촉구 배경

『전신자회담 재촉구 배경』... 『金鳳先기자』

「人道的문제」北核과 분리 「합의서」실천등 우회 접근

“北 평화선전 공세차단 先手” 시각도

『「人道的문제」北核과 분리 「합의서」실천등 우회 접근』... 『金鳳先기자』

李洪九 통일부총리 「新東亞대담」

“南北합의서 「7·4성명」과 다르다”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新東亞대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이 주요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北韓최고회의 비준절차 거친 문서
南北문제 「합의서」 바탕 해결이 중요

北韓의 군사정권하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면서 정권교체의 失效를 주장하자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합의서」가 채택된 후, 북한 최고회의가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합의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의서」의 채택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4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북한 최고회의가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합의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의서」의 채택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非核化 선언 再考 검토

“北서방사 실험실 유지 댄 불가피”

李秉일 원

李秉일 원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북핵 실험실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실험실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실험실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北서방사 실험실의 유지가 불가피하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 북핵 실험실의 유지는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핵심이다.

통일원 「內憂外患」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통일원은 3대 과제를 시달린다. 통일원은 3대 과제를 시달린다.

이규양 의정원은 23일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이규양 의정원은 23일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인사갈등 「南北회담사무국 內局化」 黨政 이견 野黨공세 “李부총리 「金大中비난」은 외압굴복”

이규양 의정원은 23일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이규양 의정원은 23일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통일원의 3대 과제를 시달린다.

「北-美-日」 겨냥 다목적 "核경고"

후부총리

非核化 서결로 발언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3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核전략 변화 예고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逆說的 실천이지... 무효화 확대 경계

「北-美-日」 겨냥 다목적 「핵경고」 앞두고 일부 타협론 제기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3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핵재처리시설을 유치할 경우 우리측은 비핵화 선언의 촉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무게」 실린 언급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간담」 함겨짐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입장 불변

이홍구 부총리 해명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4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의 전달 발언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자신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북한의 방사화 학실험실은 재처리시설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李 부총리는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 공약의 실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具本永 기자〉

"연방제統一안된다"

金대통령 우리가 지킬수 있는 통일해야

北은 지금 상상못할 극한상황 이성일은 도발대비 경계만전

3軍순시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27일 『북한의 지금 우리가 보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와 패부의 언제 어떤 사태를 유발시킬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지적, 철북정권의 대북경제타격을 당 부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전투비행기의 비행기 훈련단대가

상방의 잦아졌으며 휴전선 근처까지 연속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도 나란히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정부가 대북경제타격에 단전을 기하도 못 할지』를 걱정했다.

金대통령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안

안에 대해 『연방제 통일안은 원하긴 하지만 잘못되고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정부는 이 황폐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북한발 북방군정변과 관련해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4. 5. 26

"환상적統一論안된다"

金대통령 경제력강해야統一 뒷받침

경제부처 국장급과 대화서 강조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25일 『우리가 모두가 통일할 원 하지만 환상적 통일안 안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력 이 강해야 북방군정변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고 지적하고 『남한정부는 경제력강해야 통일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변과 관련해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 청와대 정전제○합대사령부를 차례로 순시, 3군의 대북경제타격을 절감하고, 『남한정부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러 오늘 頂上 회담

北核등 한반도 주변정세 중점논의

金대통령, 러-우즈베크訪問 출국

金대통령은 24일 오전 6시 15분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의 金淸三대통령 러시아 및 우즈베크스탄 방문 국공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국한다.

金대통령은 20여만명의 한민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키르기스스탄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29일 3월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은 24일 오전 6시 15분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의 金淸三대통령 러시아 및 우즈베크스탄 방문 국공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국한다.

金대통령은 20여만명의 한민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키르기스스탄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29일 3월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 訪러 日程 확정

6월 1~7일 벨린과 정상회담

정유관장은 24일 오전 6시 15분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의 金淸三대통령 러시아 및 우즈베크스탄 방문 국공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국한다.

金대통령은 20여만명의 한민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키르기스스탄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29일 3월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



벨린대통령

〈관련기사 4면〉

金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벨린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29일 3월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金대통령은 29일 3월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지난 3월 11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정유관장은 24일 오전 6시 15분부터 7일까지 6박 7일간의 金淸三대통령 러시아 및 우즈베크스탄 방문 국공친선사업의 일환으로 출국한다.

“北核「대화」실패면 제재”

金·엘친 1차정상회담 러시아 동참 합의



의장대 사열 金泳三대통령이 1일 오후 모스크바 웨레메체보 공항에 도착, 환영행사에서 쇼스코비치 러시아부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모스크바=禹鍾元특파원특보】

오늘 2차회담공도문선언

4개월정 서명시점서 6·25문서 전달받아

【모스크바=金學淳특파원】 金泳三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첫날인 1일 저녁(한국 시간 1일 밤 11시 30분부터 2일 새벽 2시까지) 모스크바시 교외의 쿠르델장(다

양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김대통령을 수화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우선 특별한 설득에 러시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

“4角外交 완결”

金대통령 出國인사

金泳三대통령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공식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1일 오전 출국인사를 통해 『러시아 방문이로써 취임 이래 추구해온 韓半島の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四角外交를 완결하고자 한다』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변

전시대가 확실히 종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엘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東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 경제협력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핵무기의 해결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金學淳기자>

김대통령 訪러 첫날

【서울 2일 특보】 김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30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1박 2일 동안의 공식 방문을 마치고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반가운 再會... 和氣속 만찬회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1일 오후 모스크바 세레메체보 공항에 도착한 김대통령. 푸틴 총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다. 【모스크바 2일 특보】

양국頂上 "개혁성공" 서로 격려

野圈인사 공항출영의 "큰정치 하려는 것"

【서울 2일 특보】 김대통령은 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韓·러시아 '협업' 부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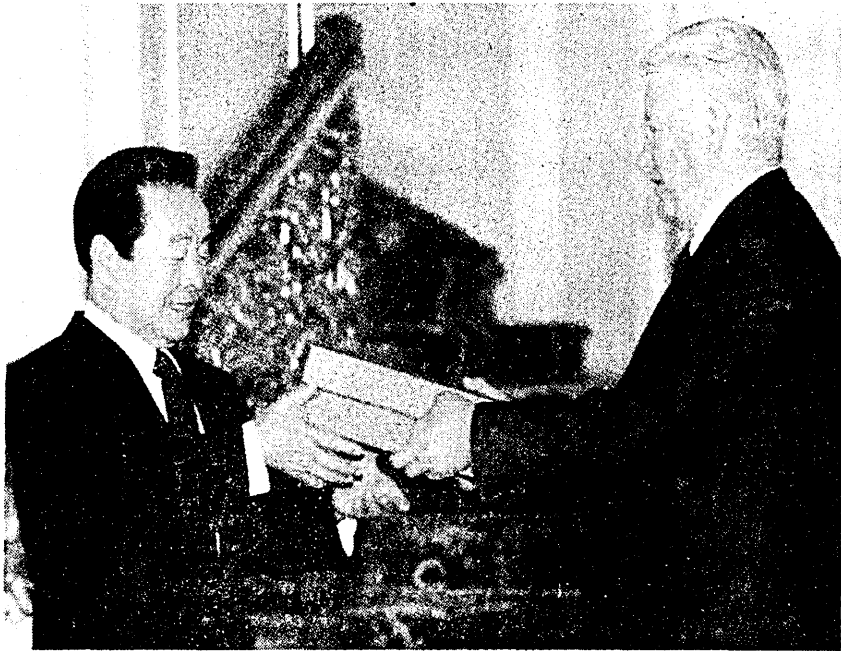
【서울 2일 특보】 김대통령은 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北核·차관 상환·별목공 주요議題

【서울 2일 특보】 김대통령은 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푸틴 총리는 김 대통령을 모스크바 공항에서 영접할 예정이다.

러, 對北 무기部품 공급 중단

金대통령-엘친 합의 同伴者관계 구축 선언



한국戰 관련文書 전달 金泳三대통령이 2일 크렘린궁에서 엘친 러시아대통령으로부터 1950년에 서 53년까지의 한국전 관련문서시본을 전달받고 있다.

〈모스크바=朴柄祐특파원〉

靑瓦臺-크렘린 핫라인 설치

엘친 "러-北 우호조약 2년후 자동폐기"

13개항공통선언 채택

【모스크바=尹雅重특파원】金泳三대통령과 엘친 러시아대통령은 2일 오후 크렘린궁에서 단독 확대정상회담결과를 결산하는 방 동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회담과 2차 단독 확대회

담에서 양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부속품공급 및 판매를 완전중断了고 선언하고 기밀감조했다. 또 엘친대통령은 우리측의 중단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분명히 약속했

다고 말했다. 엘친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北韓核문제와 관련하여 對北제재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계속고 집합 경우 북한은 러시아와 국교를 함께 한 가운데 위치의 있어 위협이 되기 때문의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對北제재를 취할 경우 단계적으로 우선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泳三대통령은 이 에안 서 크렘린궁에서 엘친대통령과 2차 단독 확대정상회담결과를 갖고 양국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로 전이될 것"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소명인 13개항의 공동선언을 통해 이같이 천명하고 새국제질서하에서의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강화와 인권문제의 협력추진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北韓核문제와 관련하여 北韓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되어야 하고 북한이 사회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엘친대통령은 특히 韓半島非核化실현을 위한 국제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러시아의 동참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2.3.5면〉 양대통령은 또 東北亞 지역 영내 국가들의 다자간 안보대화 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양국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간의 직통 전화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다. 엘친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北韓核문제와 관련하여 對北제재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계속고 집합 경우 북한은 러시아와 국교를 함께 한 가운데 위치의 있어 위협이 되기 때문의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對北제재를 취할 경우 단계적으로 우선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사회가 제재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泳三대통령은 이 에안 서 크렘린궁에서 엘친대통령과 2차 단독 확대정상회담결과를 갖고 양국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로 전이될 것"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소명인 13개항의 공동선언을 통해 이같이 천명하고 새국제질서하에서의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강화와 인권문제의 협력추진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北韓核문제와 관련하여 北韓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되어야 하고 북한이 사회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엘친대통령은 특히 韓半島非核化실현을 위한 국제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러시아의 동참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2.3.5면〉 양대통령은 또 東北亞 지역 영내 국가들의 다자간 안보대화 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양국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유지를 위해 청와대와 크렘린간의 직통 전화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정치·경제 상호보완 관계 추구

‘북한제재 동참·전쟁개입 포기’ 수확...러, 남-북 등거리외교 전략 구사

김대통령-엘친 연쇄 정상회담 의미

모스크바/장정수 기자

김영삼 대통령과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세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포함한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나라 정상은 이밖에도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제협력관계의 심화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함으로써 근간에 들어 주춤했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각각 서명해 발표한 한-러 공동선언은 두나라 관계가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들어섰음을 밝히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 대한 러시아가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선언은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가 관련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제재 동참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엘친 대통령과의 1일 1차 단독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북한 제재 참여를 설득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 안에서 여전히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엘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사실은 두사람의 이날 회담에서 깊숙한 대화가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 표명은 유엔의 북한 제재 동참을 망설이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의 강경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실호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단호한 태도천명을 이끌어내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엘친 대통령에게서 러시아가 북한과 맺고 있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협정의 한반도전쟁 자동개입조항(1조)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내고 6·25전쟁의 진상을 밝히는 비밀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미 93년 1월 당시 쿠나제 의무차관(현재 주한대사)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쪽에 조-러 상호원조협정의 전쟁 자동개입조항 폐지방향을 사실상 '홍보'한 바 있지만, 1일과 2일 정상회담에서 엘친 대통령이 김 대통령에게 이 조항의 사문화를 재확인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했음을 분명히한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해 엘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대체로 받아들인 대신, 김 대통령은 러시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협력차관의 원리금 상환 유예와 한국기업의 러시아 투자확대 등에 대해 실무진에게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성의'를 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91년 수교 이후 한국이 제공한 14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경제협력차관(총 30억달러의 1차 집행분)

의 원리금 상환(93년말 기준)을 서방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최근 결정처럼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는 한편, 미집행분 차관의 조기제공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또 청와대와 크렘린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정상간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도출해내는 부수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북한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노선을 추구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엘친 대통령이 김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는 대북한 유엔제재 동참과 조-러 상호원조협정의 전쟁 자동개입조항 사문화를 약속했으면서도 공동선언에는 이를 명기하지 말자고 한 것도 이런 러시아의 남북한 등거리외교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오랜 관계를 지속해온 국가들과의 외교를 북한핵문제라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해 수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은 음미해볼 만하다 하겠다.



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있는 환영식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명순씨와 라이나가 포옹하고 있다. 모스크바/진천규 기자 전송

□ 김대통령·엘친 공동기자회견 내용

엘친 한국방문 기꺼이 수락해 김대통령 차관상환 연기에 이해감 보여 엘친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성과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의한 다자간회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엘친 대통령 = 그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해결이 지체되고 긍정적 결과도 없기 때문에 국제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국제원자력기구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 대통령도 우리의 입장을 잘 받아들였고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자동개입토록 돼 있는 조-러 협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엘친 = 북한핵 문제에 대한 국제회

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경우 우리와 국경이 너무 가깝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북한에 대해 경고하고 이후 제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러 조약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석을 새롭게 했고 그점에 있었던 견고한 조항을 완화시켰다.

-차관 상환문제에 대한 논의는.

엘친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야쿠트 가스전과 나훗가 항구개발, 모스크바무역센터 건설 등 큰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감을 가지고 받아들여려고 상환을 연기하는 데 대해 김 대통령이 이해할 것으로 느꼈다.

김 대통령 = 상당히 중요하고 양국간 우호에도 관계가 있는 문제인 만큼 관련부처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가스전 개발은 러시아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일 뿐 아

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러시아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김 대통령 = 우선 러시아가 엘친 대통령의 주도 아래 변화와 개혁이 일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에 깊은 우애가 생겼다. 두나라가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엘친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요청했고 엘친 대통령도 기꺼이 승낙했다.

엘친 = 이번 회담은 아주 우호적이고 서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돈독히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한항공기 피격사건과 관련한 보상문제는.

엘친 = 이 사건은 냉전시대의 비극적 사건으로 많은 사정이 합쳐져 일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 모든 면을 심의한 국제조사위의 결론에 따르면 승무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행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 핵공공문제에 대해서는.

엘친 = 한국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우리 영토에 있는 외국인들이 자의대로 출국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통령 = 이 문제는 내가 제의했으며 엘친 대통령도 이들이 비록 러시아에 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군수분야의 정보전달이나 무기 구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김 대통령 =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양국군의 실무자끼리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에 대해

무기부품을 계속 지원 판매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어젯밤부터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에 대해 엘친 대통령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를 지켜주겠다"고 했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침> 지난달 30일자 3면 '국민기만한 개혁정부 수질 행정' 기사 중 "박윤환 환경처장관이 1월12일 첫 보고를 받았다고 국회에서까지 밝힌 보고는 거짓"이라는 내용은 박 장관이 보사위 의원의 질의에 대해 10일 보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北도발은破滅” 경고

“核彈반개라도 핵용못해”

金대통령 기자간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金대통령 오늘 귀국

【남서울=유현|특파원】 조선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전 세계의 핵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건배” 金泳三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마지막날인 6일 국민우호전담에서 협정서명식이 끝난뒤 카리모프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타슈켄트=禹鍾元특파원】

金대통령 訪러 결산

【서울=유현|특파원】 김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10일 막을 내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안정 北方軸환급

【서울=유현|특파원】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北核제재 共助확인

정치·경제등 「실질협력」시대로

【서울=유현|특파원】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안정 4개원서 서명

【서울=유현|특파원】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韓·우즈베키브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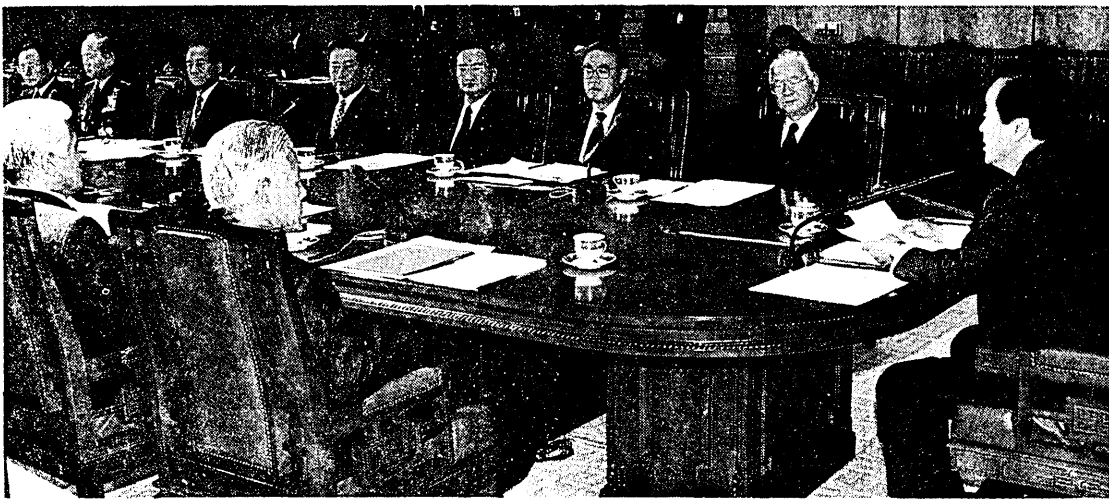
【서울=유현|특파원】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담한 뒤, 11일 상하이로 향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北 제재에 국제적 공감대

韓-美 연합방위력 증강 서둘러

"北 핵개발 용납못해"

金대통령 文民정부 첫 國家안보회의



金대통령이 8일 취
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
회의를 소집, 유엔 안보
리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무용담을
비판하며 우방들의 대응태세

를 강화했다.
〈관계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부·안기부·비상기획위의
부한 군사정책을 검토하며
美·韓 연합방위태세를 강화
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 핵개발의 수면
행했다. 김대통령은
에 앞서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 우방국가를
대응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한 우방국가를
대응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
나라 과거의 핵 실험도
저의 구명되어 한다』며
『北 핵개발 추진에 있어
그들의 핵개발을 억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노태우·안기
부총리 등 제재와 북한의
군사정책을 논의하며
『북한 핵개발이 무용담
발을 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비해 北 전정안시체를
강화하고 韓美연합방위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광부와 비상기

획은 이의와 함께 예비군의
동원태세도 양념을 기하
고 있다. 北 局地戰의 가능성
에 대비, 北 軍의 태세를 이
미화시켰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우방의 대응
과 판문 『이 회의가 북한
에 대해 결정적인 계기
를 만들었다』고 회의를 패
아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수의 국가들이 북한의
노골적 노선행동에 분노하
고 있으며 북한의 대핵전
제정양은 다른 발발의
정대수, 문광부가
『정대수』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행한 정부의 對北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신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金대통령은 『러시아·우
크라이나 방위안보장관회의
의를 수장할 정도로 우방
안전보장회의를 수장할 것
에 대해 문제점과 미비
점을 점검, 철저하고 완벽
하게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록
적에 국제사회의 對北제재
부여되는데 근거의 군사적

대응체제 수립, 점진적
을 거듭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은
개가 아니라 바게의 핵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수장
수 있는 것』이라고 북한
핵에 대한 의용이 해소될
때까지 단호한 조치가 취
해질 것을 분명히 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안
보회의 제재의 구체화를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들 바 있다』며 전제
를 향해 한반도 긴장을 증
폭시키고 있으며, 이에
라 말한 것』이라고 전하며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
회의 새로운 조류를 의
하고 국제사회의 양심에
도전하고 있어 분명히
제가 옳은 것』이라고 단
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인 총리, 경제·통일
부총리, 외무(차관)·내
무·재무·국방·정무1장
관, 안기부장, 비상기획위
원장, 李養鎔합참의장, 朴
寬用비서실장을 비롯한
와 대 판계수들이 배석했
다. 〈金玄鎔기자〉

北核정책 전환 신호탄인가

李洪九부총리 발언 파장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 「한 단계 동결」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한과 미국,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파장을 미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고위급에 싸여 있다.

20일 북핵의 투명성의 공개 전체회의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李洪九부총리 점토형의장관이 한 발언은 이런 정부의 고신원단을 전그리하게 보장하고

전문 해도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 단계 동결」을 결론 짓기 어렵다. 북한핵의 동결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문제를 놓고는 이미 대립을 넘어 한 단계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 협상중 국교수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핵투명성 소포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핵과거를 불문에 부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한미국의 3 단계 회담을 진행하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 「한 단계 동결」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한과 미국,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파장을 미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고위급에 싸여 있다.

20일 북핵의 투명성의 공개 전체회의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李洪九부총리 점토형의장관이 한 발언은 이런 정부의 고신원단을 전그리하게 보장하고

전문 해도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 단계 동결」을 결론 짓기 어렵다. 북한핵의 동결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문제를 놓고는 이미 대립을 넘어 한 단계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 협상중 국교수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핵투명성 소포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핵과거를 불문에 부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한미국의 3 단계 회담을 진행하

과거 「구명」 불문 「사이서 속암이 對話재개 감안」 정치적 결단 주목

李洪九부총리 북핵회의에서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북한핵 과거 투명성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론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李洪九부총리 「과거 남북 대화시 이젠 문제로 무산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하고 「북핵정착의 담을 추진하면서 의제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투명성 보장을 남북 대화와 經協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는 심지어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었지만 과거 수중에 어떤 발언이든 관철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해도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 단계 동결」을 결론 짓기 어렵다. 북한핵의 동결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문제를 놓고는 이미 대립을 넘어 한 단계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 협상중 국교수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핵투명성 소포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핵과거를 불문에 부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한미국의 3 단계 회담을 진행하



李洪九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업무회의에서 전제회의에서 「북핵정착의 전제조건」을 밝힌 뒤 발언하고 있다. <申東燕기자>

「과거北核」 투명성 보장 정치결단 통해 해결

李洪九부총리



李洪九부총리

李洪九부총리 「북핵회의에서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북한핵 과거 투명성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론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李洪九부총리 「과거 남북 대화시 이젠 문제로 무산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하고 「북핵정착의 담을 추진하면서 의제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투명성 보장을 남북 대화와 經協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는 심지어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었지만 과거 수중에 어떤 발언이든 관철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 해도 상상하기도 어렵다. 「한 단계 동결」을 결론 짓기 어렵다. 북한핵의 동결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며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 문제를 놓고는 이미 대립을 넘어 한 단계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北美 협상중 국교수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핵투명성 소포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핵과거를 불문에 부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한미국의 3 단계 회담을 진행하

2천년대 「산업동맥」 확장 청사진

SOC 증장기 투자계획

부	사업내용	완료시점	투자효과
간선도로망	남북7개축은 총연장 3천2백91km(현재 6백94km), 동서9개축은 2천8백69km(현재 9백8km)로 확장	2020년	국도를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格子型으로 구축
국도 확충	현재 총연장 1만2천1백81km를 1만8천km로 확대	2020년	고속도로및 일반도로와의 연계 제고
다목적댐	남강·부안·화진·밀양·보령·영월·적성·평안·개지지역에 건설	2001년, 2001년, 98년	수확량 확보, 물 수확 해소
광역상수도	21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현재 68개 시·군·구로 확대	2001년	맑은 수돗물 공급
광업	산·대봉·아산·북산 등 9개 광단 주변에 건설	2001년	광업용수 공급
신산해안단지	아산·문산·장항·목포·대동·평안·영월지역에 건설	2000년대 초반	21세기 황해경제권 시대 대비
경고속도로	서울~부산간 4백30.7km 연결	서울~대전 99년, 대전~부산 2001년	전국의 반일생권 실현
호남고속도로	연세 단장상 조사	미정	"
전라고속도로	서울~속초~강릉 2백40km 연결	미정	"
전라고속도로	이리~여수간 1백99km 건설	신라간 64.3km, 남해간 134.7km, 남해간 100.0km	광양항 배후수요 증대
호남고속도로	송정리~목포간 70.6km 복선화	2000년	남서해안 수송능력 제고
영동고속도로	영주~철암간 87km대 건설	96년	영동·대백지역 수요충족
영남고속도로	수원~천안간 55.6km	단계적 추진	아로구간 선로용량 확장
수도권전철	현재 2백91km를 8백25km로 확장	2000년대 초	대도시 교통난 해소
부산권전철	현재 26.1km를 1백56.5km로 연장	"	"
대구권전철	72.7km 신설	"	"
인천권전철	49km 확장	"	"
광주권전철	33.9km 신설	"	"
대전권전철	49.2km 신설	"	"
광양항 확충	1단계로 5만t 급 4척, 2단계로 2만t 급 5척, 3단계로 1만t 급 6척 시설 추가	97년, 2001년, 2001년	부산항과 더불어 2대 컨테이너항구로 확충
부산항 확충	5만t 급 4개 시설 추가	97년	화물 적체 현상 해소
동해항 확충	연간하역능력 1천4백만t에서 2천만t으로 증대	2005년	서해안 교역증대
연안항 확충	유류전용시설 6곳, 시멘트 전용시설 10곳, 활재전용시설 5곳	97년	국내외 화물수송 원활화
영남고속도로	1단계로 3백32만평 부지에 활주로 및 연계고속도로 건설	99년	21세기 요대비 항공수요 대비
김해공항 확충	대형항공기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신설	97년	"
기동성 강화	청주·광주·대구·울산·수원·대전·화진·보령·적성·평안·영월·밀양·남강·부안·화진·개지지역에 건설	95~96년	확장
대륙간 연결	수도권은 의왕, 부산권은 양산의 건설	의왕은 96년, 양산은 97년	수송인원 증가, 컨테이너화물수송
이동성 강화	전국의 읍·면지역까지 서비스 확대	읍·면은 97년, 2000년 초반	이동성 증가, 수요
초고속통신망	주요 도시부터 시·군·구 단위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망 연결	2015년	21세기 정보화 시대 대비

(자료: 경제기획원)

정부가 2일 2000년과를 겨냥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전략」을 내놓았다. 「SOC」란 도로·철도·항만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SOC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최선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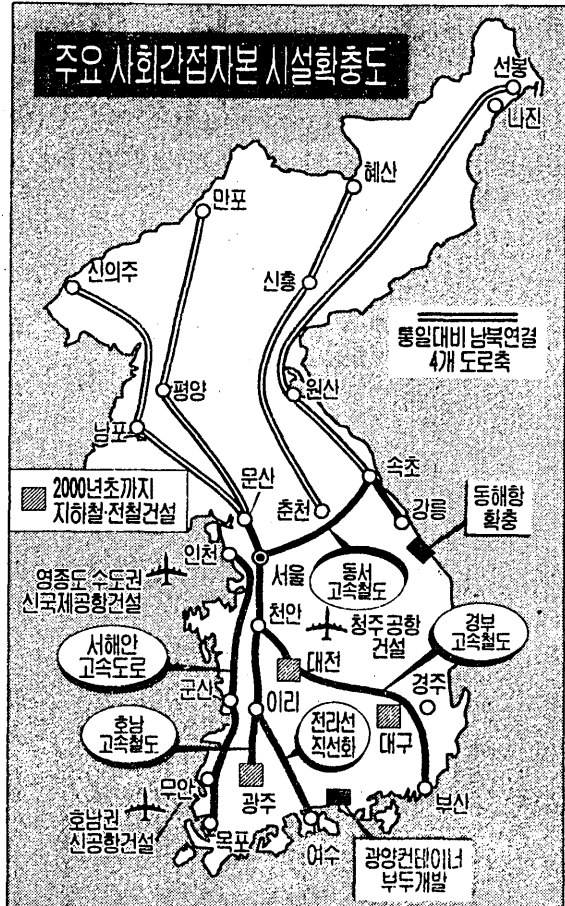
이 전략이 잘 실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SOC 투자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SOC 투자계획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선도로망 현재의 4배로 光州·大田에도 지하철 건설

호남고속전철 조기 착수 서해안 신산업지대 조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

2000년대 이후까지를 내다 본 국토계획 청사진



주요고속도로 건설계획

구	분	연장(km)	시행기간	총사업비(억원)
계(16개노선)				
▲신설(10개)				
1.	서해안(인천~목포)	353.090	2004	44,775
2.	중앙(대구~춘천)	280.089	2004	33,192
3.	서울외곽순환	92.090	2003	35,176
4.	제2경인(서울~인천)	15.590	95	2,700
5.	시흥~안산	12.531	95	2,392
6.	신공항고속도로	40.989	97	8,840
7.	대전~진주	161.092	2003	14,029
8.	대전남부순환	20.894	97	2,496
9.	부산~대구	100.490	2003	18,891
10.	하동~광양	7.690	94	497
▲확장(6개)				
11.	경인(서인천~인천)	10.594	98	955
12.	경부(반포~양재)	5.291	94	625
	(수원~청원)	100.191	93	5,794
	(청원~회덕)	14.493	96	928
13.	영동(신갈~원주)	77.090	94	4,464
14.	호남(고서~강릉)	125.893	2001	19,837
15.	호남(순천~광양)	71.492	97	4,310
16.	구마(목포~내서)	8.191	93	381
		64.391	95	3,240
		22.291	95	1,812

(자료: 경제기획원)

정부의 「SOC 확충 전략」을 보면

11차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금대통령이 임기를 앞둔 상황에서 주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이 두번째로, SOC 확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우선 차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또 다른 공공사업의 연쇄인수를 부추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조달 문제는 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北韓動向 및 停戰委 관련

북국방예산 4% 증액

최근인민회의 폐막 경제특구 外資유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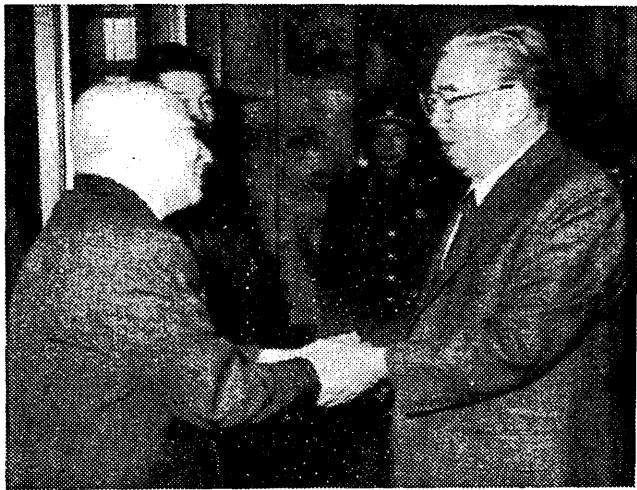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일 7차 인민회의를 열어 국가 예산을 8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4% 증액했다. 인민회의는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평壤에서 열렸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이 9일 평壤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앙통신】**

한반도 非核化 실현

金日成 주장

【평양=통신】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9일 평壤에서 열린 인민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남조선이 핵을 포기하면 북조선도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北, 동남아 무역 강화

고립탈피... 경제소생 결의

북조선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일성 부총리 겸 내각총리대리는 9일 평壤에서 열린 인민회의에서 "북조선은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대리는 "북조선은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조선은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北 韓 권력 시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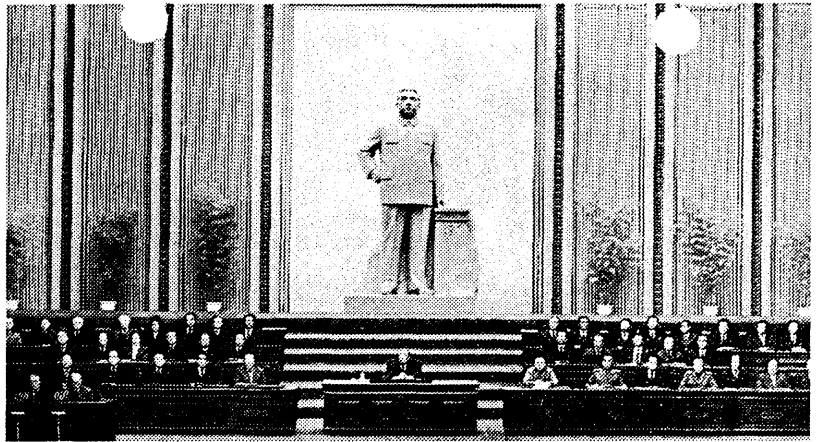
아부 귀화 정무

북조선의 권력 시련이 깊어지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9일 평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조선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되었다.

북조선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일성 부총리 겸 내각총리대리는 9일 평壤에서 열린 인민회의에서 "북조선은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북조선은 93년 국가 예산을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93년 예산은 11.6% 증액했다.



지난해 12월 평壤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9기 6차회의.

北韓 최고인민회의 월 노의했다

北韓은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9기 7차회의에서 외부관측과 달리 최대 핵안보의 핵문제에 대해 '고정핵안'과 '다루지 않'고 2~3년간의 '완성기'를 제법침의 세부시절들을 다

2~3년간 改革·개방 기반 마련 주력

北朝鮮은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9기 7차회의에서 외부관측과 달리 최대 핵안보의 핵문제에 대해 '고정핵안'과 '다루지 않'고 2~3년간의 '완성기'를 제법침의 세부시절들을 다

「原電전실」 천명해 核개발관련 주목

北朝鮮은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9기 7차회의에서 외부관측과 달리 최대 핵안보의 핵문제에 대해 '고정핵안'과 '다루지 않'고 2~3년간의 '완성기'를 제법침의 세부시절들을 다

94년도 예산편성 내용

구분	금액(달러)	구성비(%)	전년비(%)
수입	188억7,509만	100	102.4
지출	188억7,509만	100	103.2
지출내역			
인사	128억180만	(67.8)	103.2
민회	37억3,557만	(19.8)	102.8
경제비	21억8,951만	11.6	(104.1)
문화사	194,821만	(0.8)	98.8

이들 재원의 94%가 수입에서 하인민회의 예산안이다. 6기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오늘 **금일** **성일**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예년보다 熱氣 식었다

"최대 명절" 행사 준비 안락

나 영미에서 예년과 비교해 최대 명절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중 2년째 사절 안 보내

「예술축전」 참가국·단체 절반 줄어

9개 참가국을 제외하고,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美인사들 왜 불렀나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北 테일러—언론인 초청 배경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미국인들을 초청한 배경에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對美대화 사전포석說

CNN 행사 생중계... NHK도 訪北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北 테일러—언론인 초청 배경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미국인들을 초청한 배경에 있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4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날은 평양에서 대규모의 축하행사가 열렸다. 김정은 총리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金日成 訪韓 희망했다”

“언제 어디서도 金대통령 만날 용의”

核태도 변화... 곧 査察반대일러스

北고위층 “전쟁하면 우리가 진다” 인정

訪北 美 국제 테일러 부소장 단독 회견



테일러 부소장

【北京=文日鉉과파원】北 韓은 核무제로 인한 난국 타개를 위해 조만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일 용의 태도를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고 전했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테일러 부소장은 核문제 서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 해결을 위한 북한측 입장 변화와 관련, 『북한은 IAEA의 추가 사찰 수용을 AEA 추가 사찰은 받아들일 용의 태도를 변화가 곧이 이 되 韓遊지역 미신고 시설 2곳은 IAEA 사찰과 부당시켜 미북과의 협상에

北京재 美 고위 당국자와의 전화 접촉에서 대화 재개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북한도 4월 이내에 대화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과의 접촉 재개가 이뤄지기 전 북한측이 IAEA 추가 사찰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화 재개와 추가 사찰 허용 手順에 있어 북한측이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美서 원자로 제공하면 放射화학 실험실 폐기

金日成 美紙 회견

【워싱턴=陳昌福과파원】金日成 北韓주석은 美國으로부터 원자로를 제공받을 경우 국제사회의

실험 타인스紙와 가진 서

다.

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은 의식하고 있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주석은 82회 생일 축하 평壤을 방문한 美원자 화학 실험실을 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주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일자에 개재했다.』

시스템은 초기 정보 위성의 로부터 신호를 받아 미사일 발사 장수, 전투·포병 등을 분석해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하는 부가체제로 설계되어 새로운 개발모형이 獨逸의 배정된 것이 이렇다. 李容燾의 19일자에 韓은 안을 의했다. 새로운 무기 기 No. 1000이 3월 15일 따라 3월 15일 19일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峻範·權赫柱기자>

【北京=文日鉉과파원】北 韓은 核무제로 인한 난국 타개를 위해 조만간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사찰을 받아들일 용의 태도를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고 전했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다. 그는 또 金대통령을 비롯 해 金容淳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부소장의 19일 말했

金日成 놀랄만큼 건강... 밥먹을때 침흘리지 않아

답했는가. 그의 건강상태는.

『1시간의 식사에 이어 1시간45분동안 면담했다. 金日成의 건강의 발달만큼 좋았다. 우리 인행을 절전 하느라 불안이 걱정들을 거 털기도 했고, 부부노약의 까지는 명석하게 회담하고 있었다.』

이북쪽 매담의 황인 2 면정에 비해 두배만 컸지만 안수를 하면서 절전의 인물을 끌어안고있는데 틀림 한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식사 노후 술을 권했더니 『그마 노후 마실수 없다』면서 일례 대의 시흥이었다. 金日成이 왜 후져서 수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살면서 물었다. 후의 건강에 대해 지장이 없으며 89세의 고령에 갑안할 때 수를 자체가 신경을 건드릴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金日成의 건강에 정이이를 과 시기를 보인다고 했다. 이근 선전과관을 노린 것이긴 하지만 그를과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것을 노후 노후였을 것이다. 한편의 북조선자가 金日成이 을신에 면담한 것을 황인도 그의 노후를 했으며 이전 면담한 바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

—이민 訪北시 발 들린 美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했다. 노노가 있었으며 사색이다.』

『정었다. 들린 면담을 들 만년 전 노 정인 대통령 이 나를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金日成이 들린 모든 金泳三대통령에게 전할해 달라고 한 친서나 메시지를 정었다. 『그 제민인 면담에 영정다.』

—이민에 돌아본 지역

『북한의 전염을 볼 기회가 있었다. 황후와 국경지역의 물품 구입과 開城 그리고 비무장지대내 마을인 함남전노 들린 땅의 사 들라 만었다.』

북남다 발상의 문제가 된 이후 平壤의 전염새로 등 평화를 느낄수 있었으며 이전처럼 생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두 왕자이북 정과 노후부인들의 『같이 정정』에 북남했다.』

—北韓 核문제 해결을 위한 평양과 서울의 전담

『북한지도자들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행사 이용해 한다. 남의 미강도가 열화. 한류의 비관적 선택의 북이 된다. 한편 북남의 핵 카드를 사용해 가던 회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있다. 북남이 원하고 있는 경제원조뿐 아니라 체제 안정·관계개선을 韓美·미중이 먼저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서둘러야만 한다.』

【北韓=文日 韓(北)면】

北, 캄보디아에 무기제공

폴포트계 거점 활약 외교고립 탈피 목적인듯

【東京=聯合】캄보디아 정부군이 북한으로부터 대량으로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은 캄보디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캄보디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캄보디아에 대량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전하면 북한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국제적인 고립을 피해 동남아 국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북한으로부터 북한이 송차 6대와 야전포, 박격포, 소총 등 무기 수십천 개를 캄보디아로 공수했으며 4월에도 탄약을 추가로 공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국왕 시아누크와 金日成 주석은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아누크는 매년 평壤을 방문해 훈화 및 친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핵보다 權力투쟁에 촉각

러시아신문 "金平 一 돌연 귀국은 내부암투 관련"

【모스크바=연합】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보다 권력 투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韓德銖의 장외 부한 귀국했다

在日本조선연립연합회(朝總聯)의 韓德銖의 장외 부한이 귀국했다. 장외 부한은 26일 북한에 귀국했다. 장외 부한은 26일 북한에 귀국했다.

장외 부한은 26일 북한에 귀국했다. 장외 부한은 26일 북한에 귀국했다. 장외 부한은 26일 북한에 귀국했다.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核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인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신생당 대표가 장외 부한을 추수하기 위해 그의 政敵인 다케우라 관방장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그는 북한노동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당이 연립을 이룰 것이라고 다케우라 관방장관의 신망사가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北, 朝總聯조직 정비 세대 교체. 핵관련 경제제재 대비 본격 집안단속도 후임물망 許宗萬, 조직 완전히 장악한듯.

金日成 중국갈까



◇金日成북한주석【유나이티드미디아=한국일보특약】

8월 鄧小平생일때 실현說 "유력"

【서울=연합】北韓核문제해결을 위한 美國과 北韓의 실무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北韓 金日成주석이 5월중 中國의 鄧小平의 8월 생일을 맞아 中國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鄧小平은 中國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로, 北韓은 鄧小平의 생일을 맞아 鄧小平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核포기 설득·경제지원 논의 예상

【서울=연합】北韓核문제해결을 위한 美國과 北韓의 실무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北韓 金日成주석이 5월중 中國의 鄧小平의 8월 생일을 맞아 中國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鄧小平은 中國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로, 北韓은 鄧小平의 생일을 맞아 鄧小平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對韓·日 정상答訪위해 "남어야 할산"

北도 후계·경제협력등서 필요성 절실

【서울=연합】北韓核문제해결을 위한 美國과 北韓의 실무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北韓 金日成주석이 5월중 中國의 鄧小平의 8월 생일을 맞아 中國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鄧小平은 中國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로, 北韓은 鄧小平의 생일을 맞아 鄧小平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北韓核문제해결을 위한 美國과 北韓의 실무접촉이 재개된 가운데 北韓 金日成주석이 5월중 中國의 鄧小平의 8월 생일을 맞아 中國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鄧小平은 中國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로, 北韓은 鄧小平의 생일을 맞아 鄧小平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기에 訪中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고 이

북한의 아시아인계임몰참

日조직委 발표 "단체종목 참가 않겠다" 통보

【東京=AP聯合】북한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히로시마 아시아인계임의 단체종목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히로시마 아시아인계임 【東京=AP聯合】북한은 조직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조직위는 이날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차명위원장을 패시밀을 통해 「북한은 단체종목 선수명단을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5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단체종목에 불참함을 의미한다」고 단종의 경우 명단마감시한이 7월4일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개인종목마

저 불참자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예비조사에서 올림픽을 비롯, 최근 1년간 주요 국제경기에

金日成, 印에 식량 긴급요청

【홍콩=金成浩기자】북한의 金日成 주석은 인도네시아의 오리 바수 행정 장관에게 식량과 의료품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홍콩의 파이스턴 이코노미 리뷰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19일부 최신호에서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 金日成이 지난 5월초 북한을 방문한 바 수 행정장관에게 북한의 심각한 식량 사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金日成은 이 자리에서 인도의 마지막 공산주의자인 쿠마에 식량을 긴급 지원했던 사실을 바수 장관에게 상기시키고, 북한에 대해 서도 당시와 같은 식량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한 끝

경에 빠지게 됐으며, 訪美 중인 마오쩌둥과 클린턴 美대통령간의 19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美대통령은 19일 정중히 말했다. 「북한은 인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잡지는 그러나 인도 정부가 바수 장관의 이번

불참했다.

신라단식각... 金日成 직접 나서

【해설】 金日成의 북한 주석 부인 영숙은 4년째 마오쩌둥을 기린 북한 정부의 신라단식각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주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외환부족으로 인해 접나서 신라단식각에 나선 것이다. 영숙은 9% 추경한 자포도 북한과 물산장려금 전년도보다 9% 줄어든 3백88만달러로, 연간 수입액 6백만달러에 달하는 부채한양이다. 이연파라 하루 두 끼씩

기가 생활화되고 있으며, 변방지방에서는 이보다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게 최단 韓 濟子 經濟 院 北 韓 情 報 部 長 官 安 熙 昌 氏 的 見 解 矣. <安熙昌기자>

北 식량難 「정권안보」문제로

印度쌀 도입요청說로본 실태

북한의 식량난은 식량인구의 1/3에 달하는 1억 2천만 명이 생필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작년 冷害로 百22만톤 부족 대금 잦아들면 체등 輸入 애로

유엔 경제재 대비한 "비축용" 시각도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가라사대

심민섭

플루트춤대신
살을



핵사찰 순조로운 이유가

심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3년 10월 15일 인도에 대해 10만 톤의 쌀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일성 주석 '핵개발' 거듭 부인

문명자씨와 회견, 남북 상호군축 실현 강조

【도쿄=연합】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최근 핵개발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우리(북한)는 휴전 이후 미국쪽에 의해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왔다"며 "지금까지 이상의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라고 밝혀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아시아 뉴스> 주필인 문명자씨와 평양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주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찰과정에서 자꾸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핵사찰에서) 군사기지의 사찰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사찰은 핵시설 사찰과

별개라고 말했다.

김 주석은 회견에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에 따라 상호군축을 실현하면 서로 군사기지마저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미군도 단계적인 무력축소 뒤 자주적으로 한반도를 방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철수하라는 것이지만 당장 나가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김일성주석(왼쪽)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金日成 주석 在美 언론인과 회견

核 있다면 왜 美와 대화하겠는가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점심반주로 과실주 등 50잔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이런 도장을 다 마셨다며 밝힌 김 주석은 회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것을 마셨다. 차를 마시며 김 주석은 회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이것을 마셨다. 차를 마시며 김 주석은 회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김 주석은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도쿄=연합】 김일성 주석은 19일 평양에서 문명자씨(오른쪽)와 회견을 갖고 있다. 김 주석은 핵개발을 거듭 부인하고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 주석은 최근 미국의 <유에스

나진-선봉特區 개방 앞당겨

北, 韓國 진출 특별요청

中國 훈춘市와 합작의정서 교환

“한국인·화물 자유통행”

北, 黨性강한 평양시민 6백가구 特區이주



【北京=金忠根】北韓은 당초核軍제타결이후로 계획했던 개방정책을 앞당겨 나진선봉특구개방에 이미 착수, 中國, 日本, 英國, 日本, 濠洲, 臺灣, 싱가포르, 홍콩 등 서방 6개국 기업을 과할지투자계약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북한의 특이 특구개발을 위한 관공관구에 한 국인과 한국화물의 자유통행은 평양도 평화화하고 이달 말 訪北한 중국경제대표단

50명의 중국진출 자본아별 한국업체대표 10명등을 포함 시켜줄 것을 중국측에 특별히 요청하는 한국자본 및 기술투자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의 따라 駐中한국대사관은 20일 중국진출 사업체에 중국과의 합작관계를 확충, 對北진출에 적극대 비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개방정책추진 책임자인 김일성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일성(중 국을 방문 중인 정부에 나 진선봉개발에 관한 마스 터를 얻을 전담하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6일 나진선봉특구대표들이 중 국 吉林省 琿春市측과 특 구개방에 따른 상대방의 구체적 합작의정서를 교환 했다.

東亞日報가 인수한 이 의정서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나진선봉특 구와 이웃한 중국의 琿春 圈河시구를 무사승무원세 국제자유무역지대로 동시 개발하고 △필요한 한 단 구를 방문 기추선미를 합작하 도 스키에 투입되는 중국

자본의 특구유연수입과 수 산물이므로 후북기보 하 는 5개항이므로 돼 는다. 특히 이 의정서에 나진 선봉특구의 한국인·화물 통행과 관稅, 南朝鮮을 포함한다. 北, 南 2국에 있다. 북경의 한 북한 소 식통에 따르면 의정서교환 후 북한측이 石河對外國 발충양장을 중추의 보내 『韓中합작기업의 한국출인 사기 특구를 왕래할 경우 방문 15일전 인적사항을 통 보해주면 무사승이므로 오갈 수 있는 중추장을 발충양 특화했다. 北, 南 2국에 전 달했다. 北, 南 2국에 전 달했다. 北, 南 2국에 전 달했다.

7개국의 현지연립사무소 개설을 허가, 부부타미별 가건물의 양분으로 1996년 6월부터 양국인과의 화물의 나진선봉특구통행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중국측이 전 달했다.

▽세계일보 1994. 5. 24

“한반도 전쟁엔 직접영향권”

金日成, 日에 경고발언

쿠바통신사와 인터뷰
【민=오가와 사토시통신】북한의 김일성주석은 23일 『세계일보』 기자를 사견이므로 북한의 불리한

정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지 적하고 “한반도 전쟁은 양 화되면 일본에도 그 영향 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 다. 김주석은 이날 쿠바 국

의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영향권내에 포함될 것임을 강조하며 지 사 『세계일보』 기자에게

“한반도 전쟁엔 직접영향권” 이라고 말했다. 김주석은 한반도 전쟁 발 발 때 일본의 직접적인 영 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 발언을 하다가 이번의 처

음이다. 김주석은 또 핵무력의 관련, 북한의 핵무기를 제 조할 의사가 또 없다고 있 다. 그는 1993년 11월 2개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아 또 다

도 수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표 명했다.

北, 羅津-清津 전면개방

경제활동-觀光 국적관계없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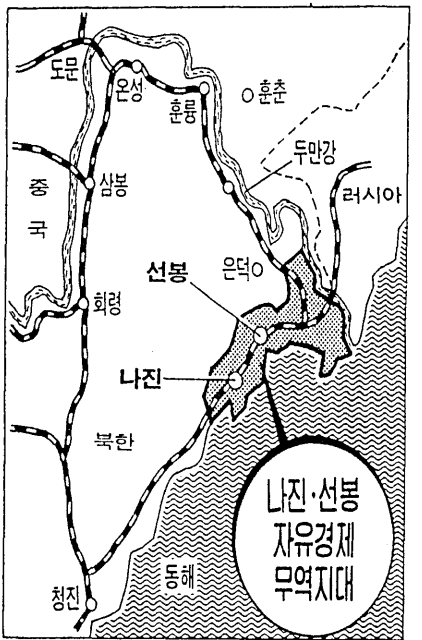
「자유무역항」규정 발표 여권-비자-초청장 있으면 "누구나"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다.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北韓, 羅津·先鋒지구 韓國업체 참여 왜 요청했나



한국의 북한 (4월)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韓國內 「연계고리」 해제논의 활발한 時點서 나와 주목

한국의 북한 (4월)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남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북한이 「羅津-先鋒」 자유무역항을 남한 기업인과의 경제활동에 나 관여를 막지 않기로 했으며, 남한 기업이 남한에서 생산한 자재와 부품 등을 남한에서 조달하는 데 제한이 없다.

北, 생필품 100여가지 긴급주문

홍콩기업에 조속계약 촉구

협상단 3명 中경제특구 파견 통보

【홍콩=연합】북한이 우연의 지배권을 이 기업을 위한 북한 對北 경제제재를 완화한 미 무역을 위해 특별의 경제 협상단 3명 중 경제특구 파견 통보 하였다. 북한은 7월 1일 미 무역수지 보안을 위해 珠 海의 호텔인 안산 珠海의 5개 북한기업들의 진출한 5개 북한기업들의 기속사로 정해졌으며 홍콩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 기업들은 홍콩에 까지 모두

북한기업들은 북한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기업들은 북한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94. 5. 31

北, 러 비몽명국가입방대

오늘의무회담때 추진... 별무공처리등 불만

【서울=연합】31일 개막 된 제 11차 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비동맹외무장관을 초청한데 대해 「北-美회담 추진의 열쇠」로 환영하며 북-미회담을 위한 「北-美회담 추진위원회」(IAEA 및 국제원자력기구)를 구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김수환 외무부장을 대표로 내세워 16명의 대표단장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추방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추방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추방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체하면 대신「北美회담과 IAEA 안전협정 이행」등의 사제를 요청하고 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 실험

東海서 실크웬 발사... 7일엔 '노동1호' 시험

【평양 1일路透電】북한이 지난 31일 오전(월) 지시간 동해상에서 '실크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미사일발사실험관리를 이 일 밝힌다.

의료원은 북한이 한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항해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1일路透電】북한이 지난 31일 오전(월) 지시간 동해상에서 '실크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미사일발사실험관리를 이 일 밝힌다.

의료원은 북한이 한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항해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형 '실크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核무력 보유 문제와 관련해 북의 입장을 밝힌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는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 31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對南선전 공세 강화 北韓 저의는 무인가

지난달만 73차례... 평상때 두배

입력연산 산재보상 해고 자복직을 폭발력의 강한 노조의 요구에 '노란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월 20일의 출범한 韓總聯의 반정부부정 을 부추기려는 화성 농민 투쟁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선전선전에 힘써 왔다.

매체 총동원 "제재하면 바로 전쟁" 공포 南韓 고관 노려 화폐개혁한다" 떠들어

【평양 1일路透電】북한이 지난 31일 오전(월) 지시간 동해상에서 '실크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고 미사일발사실험관리를 이 일 밝힌다.

의료원은 북한이 한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항해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金永南 외교부장

"北 미사일실험 계속"

【평양 10일路透電】북한 외교부장인 김永南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永南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10일路透電】북한 외교부장인 김永南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永南은 10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핵무력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北에 "협상 재개" 직접 설득

崔光 北총참모장 訪中 초청 비상한 관심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중인 崔光 북한 인민군총참모장(왼쪽)이 7일 北京에서 趙道田 중국 무위외교 부장(가운데)과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북제재자력기구(AITC)의 전면 조사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北總참모장 崔光은 趙道田 중국 무위외교 부장을 7일 北京에서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崔光은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崔光은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崔光은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北京 입장 바뀔 수도 "암시" 강경 자제 촉구

北京의 서방소식들은 崔光을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北京의 서방소식들은 崔光을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北京의 서방소식들은 崔光을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北京의 서방소식들은 崔光을 趙道田 부장을 만나 의수하고 있다. <北京=新華社電>

北 장교 10여명 공개火刑

平壤서 金日成부자 타도모의 발각돼

【北京=聯合】북한은 지난 2월 하산 평양시 순안구 역 신성중의 金正日 친위대 장교 10여명을 합동관학교 우동영양에서 공개 처형한 것으로 7일 알 려졌다. <北京=新華社電>

부터 이처럼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화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강제로 동원된 平壤부자 1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형의 연병장에서 火刑의 처해짐을 인민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란히 세운 채 하나의 가담했던 장교들을 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처

北 올 아시안게임 전면不參

단체이여 개인경기도 선수단과견않기로

【北京=聯合】북한은 금년 아시안게임 히로시마(廣島)를 개최하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京=聯合電>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 북한의 참가를 설득할 수 없게 판단해 해부제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京=聯合電>

북한, 停戰委 일방철회수

유엔軍사령부 밝혀 中立國감독위 폴란드도

北美평화협정 추진전략 추정 관문점 軍事지통어전화는유지

북한이 지난달 28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철회수 하겠다고 전할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이 2일 밝혔다. (3면에 란기사)

이와 함께 북측이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도 밝혔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초 중립국 감독위와 북측 감시라인 철회를 철수시킨 바 있다.

이 폴란드마저 철회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측은 군사정전협정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북측이 협정안을 후진시킬 경우, 대북협정 체결 때까지 유엔군사령부측은 하지 않겠다고 현재 유엔군사령부측은 계속 유지 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이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9월 6일 한

북한정권이 군사정전위수 하만 관계된다.

이같은 북측의 군사정전 위 철회는 지난달 28일 미국에 군사정전협정을 평화수용의 판판 『이』에 관한 군사정전협정안이

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 대표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사정전협정 유지에 관련된 연합국 및 군사정전위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 5. 3

北 "군사정전위원회 철회수" 선언

유엔軍사령부 확인 波중립국감독위 철회수도

강행맨 韓半島 휴전체제에 重大변화 불가피

북한이 지난달 28일 미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이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이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도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측은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이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이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도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측은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이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이 중립국 감독위와 유엔군사령부측 간에 합의된 북측 감시라인을 철회시키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유엔군사령부측도 밝혔다.

核돌파-韓美이간 「2重카드」



91년 2월 회의 북한은 지난91년9월 黃源卓소장이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정전위본회의의 참석을 거부, 지금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91년 2월에 열린 군사정전위 본회의에서 양측대표들이 악수하고있는 모습.

北韓 停戰委 철수 의미와 배경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황원탁을 선출함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구의 사실상 정지되었다. 북쪽의 이같은 태도는 정전협정의 명기된 군사정전위의 기구를 대신할 다 른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유감없이 기구로 만들어 사실상 소멸시켜 구상된 기구다. 군사정전

停戰委 기능 정지 추한美軍 철수 겨냥 최근軍事동향 「평화협정」 노린 시위용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황원탁을 선출함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구의 사실상 정지되었다. 북쪽의 이같은 태도는 정전협정의 명기된 군사정전위의 기구를 대신할 다 른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유감없이 기구로 만들어 사실상 소멸시켜 구상된 기구다. 군사정전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황원탁을 선출함에 따라 군사정전위 기구의 사실상 정지되었다. 북쪽의 이같은 태도는 정전협정의 명기된 군사정전위의 기구를 대신할 다 른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유감없이 기구로 만들어 사실상 소멸시켜 구상된 기구다. 군사정전

다. 지난달인 4월 30일 오후 북쪽의 폭격기 1 L 28 이 군사부계선 분반 28 km 진격준비추진 부근까지 남하하고 하루전인 29일에 서 정전협정유언이였다. 구역에 배치했다. 인원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전차원으로도 분파하고 있다. (河俊宇)

초침이러 핵압력 덜기

北韓 「停戰委 침수」 선언 수습

북한이 지난달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平和협정내세워南배제

北·美회담과 연계 「實利쟁기기」 겨냥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의 항해 관공관 수시통행할 항로를 유한하고 개성항까지 지참시키겠다. 북한은 북양령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8일 동안 양국간 항해 관공관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8일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침수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5월 1일 「침수」 선언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核문제 희석...美 직접상대 전략

美, 北 잇단 돌출행동 어떻게 보나

미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위한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3단계 회담서 현안 일괄타결 속셈

평화공세 이면 정치적인 도경계

가선의 이해와 동맹관계를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이란 매개적 대화상대 대신 미국과의 직접 대화만 인정하겠다는 뜻의 간접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停戰委서 철수

평화협정제의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진의를 재고 있다. 사진은 군사정전위 모습.



◇美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제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진의를 재고 있다. 사진은 군사정전위 모습.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진의를 재고 있다. 사진은 군사정전위 모습.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진의를 재고 있다. 사진은 군사정전위 모습.

북한 停戰委 일방철수 남북 기본합의서 위배

특이한 보도

고 통보한 것은 현재의 휴전협정을 무효화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말했다.

북부총리의 이날 KBS MBC SBS 등 국내 TV 방송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제5조와 부속 합의서 제5장의 정전협정은 남북간 합의하에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남북간 대화란이 무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右)은 3일 '北韓이 군사 정전의원칙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趙敏浩기자>

아울러 통일원 金炯基 대변인은 '北韓은 정전의 기이 무력 화행의 단상 합의에 따라 서만 정전협정을 수정 증 보토록 되어 있는 정전협 정 제5조의 명백한 위반 일 뿐 아니라 南北 기본합 의서의 위배된 것'이라 며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협정 따 지 이를 상설해 유지해 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무 용화한다면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박혔 다.

"停戰협정 여전히 유효"

美 국무부 평 한반도문제 南北 대화로 해결해야

【워싱턴=申相仁특파원】
 美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1053년의 체결된 정전협정의 타협점인 북한측의 대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측의 입장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북한측 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과 북한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측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반박했다.

이 발언은 유엔과 미국이 본질적으로 서로를 추진시켜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측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반박했다. 이 발언은 유엔과 미국이 본질적으로 서로를 추진시켜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측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반박했다.

새로운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북한측 제안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선순위로 대화를 통해 우선순위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주목한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기자 5면>
 한양대학교의 윤리위원회가 '1993년 11월 13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러, 北 停戰협정위반 우려

兩國외무차관회담서 공식전달

【서울=한】 러시아외무차관 최기택은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외무차관회담에서 북측이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택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측은 휴전협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은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은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軍事정적위대체 「관문점대표부」개설

【서울=한】 최근 軍事停戰委員會(MAC)에서 일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관문점대표부는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관문점대표부는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서 평화협상제의 불응하면 北 停戰협정 이행안해

【서울=한】 북한이 23일 미국이 평화협상제의 후 사형제도를 계속 추구할 경우 정전협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정전협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이 대표위원이 이와 관련 도에 관한 한 군사행위가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관문점대표부를 개설하고 24일 이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관문점대표부는 휴전협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대표부제의 속셈

北, 핵카드 악용... 계산된 "공세"

北韓군이 지난 4월말 판문점대표부제를 폐지한 후

합정(韓) 평화협정(平壤)이론 대 체할 것(對)으로 구(舊)한(韓) 대(對) 판문(邊) 군사(軍)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대체(代)하자(者)고(고) 의(意)한(한) 것(것)은(은) 주(主)한(韓)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가(가) '민(民)주(主)화(化)방(防)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의(의)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美, 3단계회담거부입장... 「평화협정」체결 先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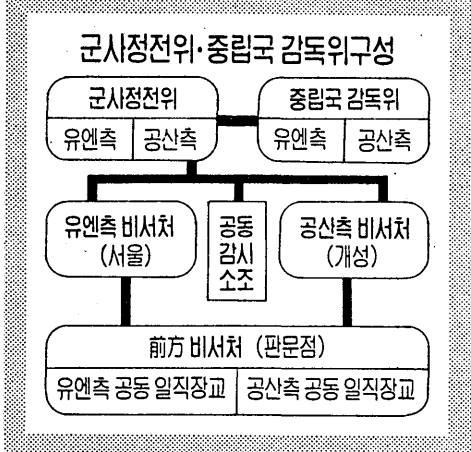
美, 일단 거부입장... 「부분」수용 가능성도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북한은 지난 91년3월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된 이후 일체 정전위 본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北韓(北)은(은) 3월(月)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폐(廢)지(止)한(한) 후(後) 27일(日) 판(判)문(邊)정(政)전(前)위(委)원(員)회(會)를(를) '조선(朝)인(民)군(軍)인(員)대(代)표(表)부(部)'로(로) 개(改)칭(稱)한(한) 것(것)에(에) 의(의)한(한) 것(것)이다(다).

〈李在承기자〉

○ 北韓 伐木工 등 其他

탈출 北범목공 150명 데려온다

정부 러·中과 협상... 6월안 歸順 조치

▽조선일보 1994. 4. 2

유엔통해 「難民지위」인정 추진

정부는 시베리아의 탈출장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베리아의 탈출장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베리아의 탈출장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을 송환키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범목공 귀순 허용 원칙 확인

정부 대외회의의 국제법·외교 대응·예산 점검

정부는 1일 오후 5시 국무회의를 열어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협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협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일 오후 5시 국무회의를 열어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협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탈출한 북한노동자 송환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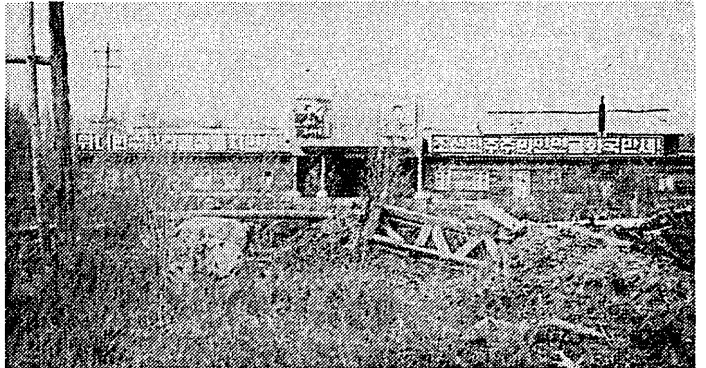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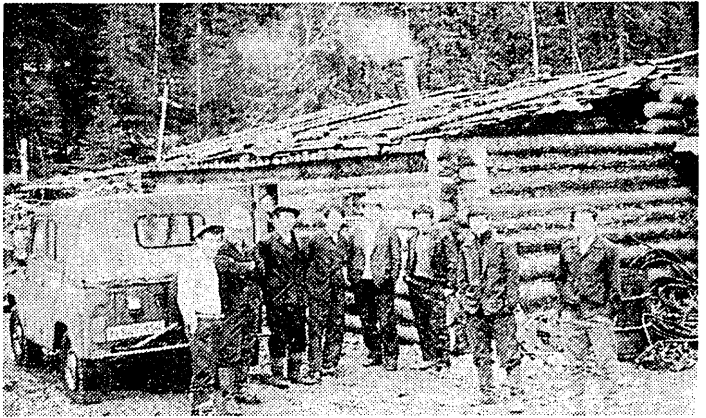
러시아내 北韓 벌목장

◇시베리아 벌목장의 原木막사 앞에서 작업중이던 북한노동자들이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내 북한벌목장은 어떻게 개설됐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문제극우 영인가.

북한의 시베리아 벌목장이 처음 개설된 것은 68년. 舊蘇北韓간 벌목협정이 체결된 것이 출발이었다. 당시엔 「수령영향정보와 조전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 러시아영토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증합가공협정」이다. 91년 소련이 무너진 후에는 러시아가 승계, 27년째 북한노동자들이 시베리아에서 대규모벌목을 대행하는 母法이 되고 있다. 협정은 21북한의 대한 벌목권부여를 비롯, 벌채지역, 벌채량, 벌채에 대한 보상, 양목기술



◇하바로프스크 트인다지역의 한 북한벌목장. 러시아내 또 하나의 「북한凍土地대」임을 입증하듯, 막사에 '金日成주석 및 金正日의 사진과 선전구호가 붙어있다.



◇러시아 벌목장막사에서 북한노동자들이 현지 파견된 보위부요원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고있다.

68년 舊蘇와 협정체결 생산량65% 러에 배분

3월의도 30~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악조건속에서 북한노동자들이 벌채, 생산한 임가공

인원소 산림지대의 8개 벌목장을 제정하고 있다. 두 지역에서 연간 3백만㎥의 原木과 나무자까기를 원료로 연간 35만㎥의 목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原木수입량 7백64만㎥수입액 11억8천만달러(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입을 시베리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北, 年 1억불이득... 2만명 파견 러 「외국인지위법」 적용 규정 무시

원업소 근로자가족 등을 포함한 벌목장을 포함한다. 통상배분비율은 러시아 65대 북한 35정도. 이를 통한 북한의 연간 경제적 이득은 1억달러 정도 추산되고 있다. 러시아 벌목장의 파견된 북한인원은 약 1만8천~2만명. 협정영향과

제하기 위해 북한사회안전부요원을 현지파견, 사설감속소까지 운영하고, 명명 불명 노동자를 현지 사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難民 1백70명 추산
북한노동자를 위한 협정의 의 해 「러시아의사의 의무지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준수를 받도록 돼 있다(15조). 「그런데 이들 구

다. 사회안전부원들이 현지 파견, 도망자를 색출하고 인민재판을 통해 수십 개의 사형선도의 수감하고 구형의 처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탈북자가 속출하고, 러시아내 시베리아 북한벌목공難民이 1백70명의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93년말로 시한이 만료된 협정은 재계약이 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6개월간 잠정연장된 상태이다. <金民培기자>

北별무공인도방안 구체논의

韓·러 인민군회담 百70명중 90여명이 그 생명희망

“人道的 차원서 前向的 추진” 金대통령

【서울 14일 특파원 특보】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人道的 차원서 前向的 추진”을 강조하며,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일보 1994. 4. 14

金대통령 北별무공인도방안 대채결론 지시 배경

【서울 14일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더이상 北은치 안보겠다.” 意志표명

北, 우리정부 일관된 善意 不受容 “北에 끌려만 다닌다.” 여론도 의식

【서울 14일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 14일 특보】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北을 도와 인민군을 해방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鄭柄鏡기자】

人道主義 선회 脫北者 통일정책 상층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의 문제점

「인내」가 단행되자 또 14일 韓·러 외무장관 양인기, 북한에 탈북한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인기, 북한에 탈북한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인기, 북한에 탈북한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협력」→「연합」→「통일」 전략 어긋나

東北亞질서영향 「脱出러시」 대책 시급

북장에 탈북한 북한노동자 합동조사 수에 대한 양인기, 양인기, 북한에 탈북한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인기, 북한에 탈북한 시베리아伐木工 수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북북공통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책은 우리 헌법상 내국인으로서 주권은 2천만 국민이 가진 인민 전체의 복리복합한 체제 구축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 있는 점토까지 마친 뒤의 나쁜 결말이라면 양면의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양면의 통일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양면의 통일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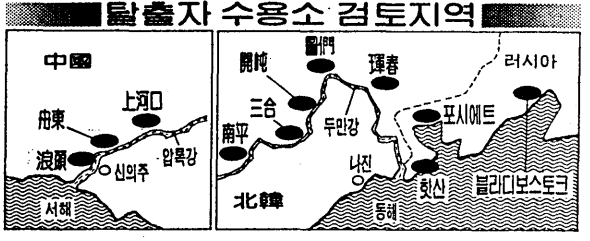
〈金在權기자〉

中·러에 북한민수용소 설치

北 전격통과 대비 압록·두만강 주변에 지역선정

【北京=文日종합파워】정부는 21일 9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여에 걸쳐 북·한 국경지역에 대량 탈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뒤,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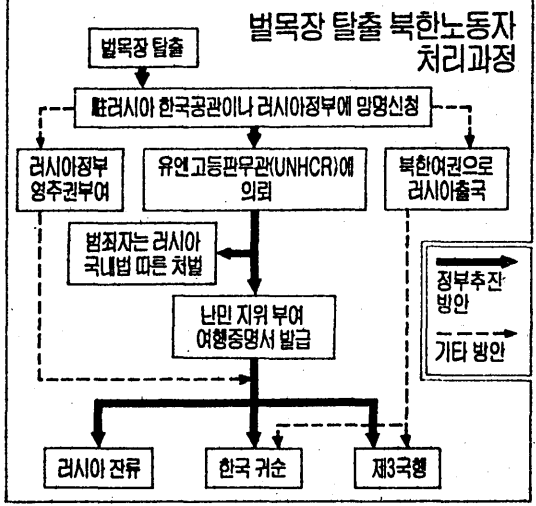
이 계획은 특히 대량 탈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뒤,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뒤,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대량 수용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엔 「難民지위」 확보 國內이주

정부 「脫北者」 대책 내용



정부는 14일 시베리아의 탈출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이주에 대해서는 「難民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3국 원할 때 現地기업 통해 조치

정부는 제3국 원할 때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출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이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관공서를 매개로 한 난민 지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이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難民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이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梁承賢기자)

北, 「범목공 서울行」 방해공작

러 外國人등록처에 기관원 배치... 접근 막아

등록 못하게 수명이 매일 감시

귀순희망자가 公館에 알려와... 대책시급

귀순자 개별보상 아닌 취업교육 추진 절부

【모스크바 20일 연합뉴스 보도】 북한이 귀순자를 개별보상하는 대신 취업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은 귀순자를 개별보상하는 대신 취업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은 귀순자를 개별보상하는 대신 취업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을 저지당하되 주러한국대 사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면 사정했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탈출 북한 범목공들의 우편 등을 통해 거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 범목공들이 거주허가를 근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한편 주러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19일 "북한 당국의 방해가 계속될 경우 탈출 범목공들이 거주허가를 신청하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우편을 통해 지양된 비상방안의 시급한 장구적 여야 한데 밝혔다.

「脫北者수용 3단계로」

심리안정→직업훈련→사회정착

러시아범목공 탈출부 한 보신강령을 통해 적성 한 노동자들을 국내에 데 려오기 위해서 「북한단 민 사회정착지원법」(가칭) 제정할 방침이다. 3단계의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대

김교수(사회사업학)가 26일 진술했다. 김교수는 이날 하오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민 주평(統)사무총장 柳瓊(賢)주최로 열린 「북한탈출범목공 지원 대책」 세미나에서 "과도

연세대 崔平古교수(행정학)는 「탈북난민들의 국내수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에 북한인민들을 취업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대 白中鉉교수(국제법)는 「북한탈출범목공의 처인권 정착이러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정착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을 대의적 명분을 위해 가능한 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주平(統) 토론회 金尙均교수건의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최청남씨 등 북한 벌목공 5명이 18일 오후 제3국을 거쳐 대한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입국해 보도진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단

□ 북한벌목공 국내수용 배경·의미

박종문 기자

정부가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내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로 5명이 18일 오후 입국했다.

이들의 입국이 있기까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동쪽에 대한 배려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입국한 최청남씨 등 5명의 귀순에 관한 일체의 사실이 보안에 부처지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우리 정보기관의 지나친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을 귀순

국-러시아의 일대일 협상방식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대북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벌목공을 귀순시키기로 했다는 남쪽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벌목공들을 남쪽으로 데리 가면 남쪽으로 간주하겠다"며 여러차례 반발을 보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법공조조약을 근거로 40명의 탈출 벌목공들을 검거해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5명의 벌목공들을 정부 방침 결정 뒤 순식간에 데려온 것은 우리 정부의 치적을 위해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시간을 두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했을 경우라면 치

경로보안 기관개입설

한-러 일대일 협상 대북관계 부담 안아

시켰다면 관련국들의 요청만으로 모든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게 온당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벌목공들을 국내로 데려온 경로가 하나의 모범적인 전례로 굳어질 때까지 가능한 한 보안을 유지한 뒤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날 입국한 5명은 러시아가 벌목장 탈출자들에게 발급해주는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거주국으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귀순방식은 우리 정부가 애초 러시아에 제의했던 유엔 고등판무관을 통한 난민보호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통한 독자적 방식으로 하자는 뜻을 관철했기 때문이다. 한

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금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문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 북한 벌목공들을 국내로 데려와 어떤 절차를 거쳐 무리없이 정착시킬 것인지 변변한 수용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귀순북한 동포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1인당 4천만~5천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인지, 직업훈련을 어떻게 시킨다는 것인지 등 많은 사안들이 논의만 됐지 결정된 게 없다. 지금까지 북한을 떠나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6백여명이나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부족으로 정착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이방인'이 돼버린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벌목공을 무턱대고 데려오기보다는 이들을 새로운 자유 세계에 적응시키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고 밝혔다. <관련해설 3면> 현재 북한으로의 귀순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내 한국공관이나 러시아정 부들과 접촉하고 있는 시베리아 벌목공은 모두 93명정도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의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따라 양이로 시베리아 벌목공 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

탈출 93명 러시아공관과 접촉중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 5명이 18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 이들은 5명은 △崔청남 △金동원 △金승철 △白호철 △元유진씨 등이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이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귀순하게 된 첫째 이스라고 밝혔다.

이들은 벌목장을 탈출한 뒤 러시아 등 舊 소련 지역인 독립국가연합(CIS)에 머무르면서 한 IS)의 귀순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해 귀국토록 했다. 이들은 벌목장을 탈출한 뒤 러시아 등 舊 소련 지역인 독립국가연합(CIS)에 머무르면서 한 IS)의 귀순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해 귀국토록 했다. 이들은 벌목장을 탈출한 뒤 러시아 등 舊 소련 지역인 독립국가연합(CIS)에 머무르면서 한 IS)의 귀순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제3국을 경유해 귀국토록 했다.

3國경유 入國 인도주의의 合法절차 거친 첫 歸順

北韓벌목공 5명 서울에

유와 인권중시의 신뢰를 실천해 나간다는 문민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목공귀순 "조용한 外交" 첫발

정부 2개월만의 성과... 향후 대책

시베리아 별목공귀순을 발
 창한 별목공귀순자 5
 명이 18일 인민민주주의
 란을 별목공귀순자 귀순
 희망자 정현을 포함하여 수
 가 마련된 듯했다. 우선
 이면의 5명의 귀순이 실
 현된 것이 4월 14일 韓·러
 의 비공식회담 이후 별목공
 귀순이 시작된 러시아의 파
 의 의공포심이 2개월여
 만의 첫 성과를 올렸음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전방정신과 인내의 끈이
 견지에서 전방수용환영이
 로 선회한 정부의 의지가
 비극적 초기에 비해 훨씬
 문적 향후 계속된 별목공
 귀순의 귀순수용과정에
 있었으면 정부가 조용한
 선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 2개월간의 외교적
 의 대항 '외교부 현지직접
 안기부 등 관료부처의 협
 조체제가 완벽히 가동됐
 다'면서 '러시아측 노담
 주 한의면 인내적의적 차
 원의 협조정착을 지켜주
 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따라서 이번 별목공귀순자
 의 귀순이 그간의 관료적

북한자극 회피 「3國통일」이명

러인상 고려 탈출경위 非公開

이런 별목공귀순자의 한 부
 행이 실현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이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했
 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
 부 2개월간의 외교적 해
 별목공귀순자 귀순이
 정부 2개월간의 외교적 해
 별목공귀순자 귀순이
 정부 2개월간의 외교적 해
 별목공귀순자 귀순이

국내에 수용안되며 있어
 이면의 5명 귀순은 러시아가
 아드카자하나 우즈베키를
 제 3국을 경유하는 것이
 의 목적 미달을 초월한 것
 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유관료로 보고되고 있다.
 중립적인 자세로 귀순자

ISIS계인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부 2개월간의 외교적 해
 별목공귀순자 귀순이
 정부 2개월간의 외교적 해
 별목공귀순자 귀순이

에 저촉되는 방법인 것
 에도 또 왕의 비도 사
 지 않았다는 설이다. 그
 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히 공개할 수 있을 것
 「국제적 공판대」를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 노력이 필요할 것
 보인다. 정부의 한 담당
 가 「이민」이 수출을
 아가며 왔지만 헛수가
 들을수록 점차 기정사실
 화

【高森成기자】

▽중앙일보 1994. 5. 18

별목공관련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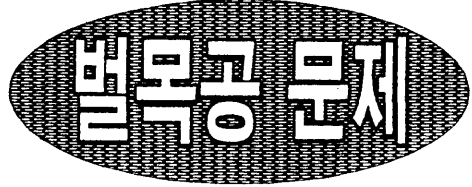
- ▲91. 5 蘇聯, 北韓에 시베리아 별목장 설치 근거인 朝蘇 입업협정 (67년체결)경신거부 시사
- ▲91. 10 최초의 脫北 별목공 이정의씨(48) 귀순
- ▲91. 11 별목공 장기홍씨(29) 귀순
- ▲92. 12 별목공 강봉화씨(33) 귀순
- ▲94. 2 별목공 박창환씨(38) 러시아 선박 탈항, 부산항으로 귀순
- ▲94. 2 별목공 최명화(35)·김태범(32)씨 위조 여권을 갖고 러시아 항공편으로 귀순
- ▲94. 2. 28 정부 제 1차 별목공 대책회의
- ▲94. 4. 6 金泳三대통령 『北韓 자극 우려, 별목공 문제 검토안해』발언
- ▲94. 4. 13 金대통령 『脫北 별목공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 결정』발표
- ▲94. 4. 14 韓昇洲외무장관, 러시아 정부에 별목공 관련 협조 요청
- ▲94. 4. 21 崔東鎭 제 1외무차관보, 모스크바 방문 러시아 정부와 별목공 처리절차 협의
- ▲94. 5. 18 별목공 최정남등 5명 서울 도착

北 정면대응...南北 새긴장

祖平統명의 對南전통명언과

북한이 21일 조부 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부 명의의 對南전통명언을 보내 탈북민들의 귀순을 촉구하고 대안정면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에 앞서 탈북자 문제의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발언을 보였으나 모두 실무부처인 영양부 명의의 대화 및 정면대응이 아니라 대안과 북정면대응이 아닌 간접대응의 자세를 보였다. 이번 전통명언은 대안사업 총괄기구인 조평통의 이름으로 나왔다. 점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측을 직접 지목, 위협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과 자제를 보였으나 우리측이 즉각 이에 대해 단박에 대응



귀순자 늘자 守勢입장서 선회 人權비화우려 「확대」는 피할수

북한은 21일 조부 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부 명의의 對南전통명언을 보내 탈북민들의 귀순을 촉구하고 대안정면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에 앞서 탈북자 문제의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발언을 보였으나 모두 실무부처인 영양부 명의의 대화 및 정면대응이 아니라 대안과 북정면대응이 아닌 간접대응의 자세를 보였다. 이번 전통명언은 대안사업 총괄기구인 조평통의 이름으로 나왔다. 점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우리측을 직접 지목, 위협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과 자제를 보였으나 우리측이 즉각 이에 대해 단박에 대응

탈북민들의 귀순을 「남치행 위법규정」이사가 중을 시키고 「법정행위」라고 수위높게 비난하고 상응한 조치로 「엄중한 후과」를 내릴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측이로서는 북한이 양위법정행위의 명파를 확대하고 「법정행위」를 정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이므로 이를 정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전통명언의 우회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북이 친애하면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으나 해외 언론자들은 우리측 인사를 보복단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이 같은 적극적인 보복행위를 치가 어느 수준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으나 해외 언론자들은 우리측 인사를 보복단처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측이 이 같은 적극적인 보복행위를

北 귀순별목공남치 주장 수환안하면 비싼대가 치를것. 위험

북한이 21일 우리측의 전화를 지시하며 보내 온 귀순자의 귀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 말을 「법정행위」라고 수위높게 비난하고 상응한 조치로 「엄중한 후과」를 내릴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측이로서는 북한이 양위법정행위의 명파를 확대하고 「법정행위」를 정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이므로 이를 정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전통명언의 우회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북이 친애하면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귀순을 「남치행 위법규정」이사가 중을 시키고 「법정행위」라고 수위높게 비난하고 상응한 조치로 「엄중한 후과」를 내릴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측이로서는 북한이 양위법정행위의 명파를 확대하고 「법정행위」를 정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이므로 이를 정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전통명언의 우회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북이 친애하면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21일 우리측의 전화를 지시하며 보내 온 귀순자의 귀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 말을 「법정행위」라고 수위높게 비난하고 상응한 조치로 「엄중한 후과」를 내릴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측이로서는 북한이 양위법정행위의 명파를 확대하고 「법정행위」를 정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이므로 이를 정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전통명언의 우회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북이 친애하면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귀순을 「남치행 위법규정」이사가 중을 시키고 「법정행위」라고 수위높게 비난하고 상응한 조치로 「엄중한 후과」를 내릴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측이로서는 북한이 양위법정행위의 명파를 확대하고 「법정행위」를 정인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현상유지책이므로 이를 정인지에 대응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이번 전통명언의 우회적인 대응을 하면 북한이 북이 친애하면 「정면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中, 北韓겨냥 미사일배치

寧邊-휴전선 基地 목표

核무기개발 본격화 판단... 공격권에 포함

核탄두 탑재가능 DF-15 10基

【北京=李在禧특파원】중국(북한)이 지난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자위차원에 서 북한의 寧邊(평안남도) 핵관련 시설이 집중돼있는 지역, 中북한 국경과 휴전선 부근의 미사일발사기지를 겨냥한 단거리 地對地 미사일을 東北지방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北京의 서방군 사소신들(9일)이 9일 밝혔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와 주요도시와 군사시설, 한국과 일본의 주요도시와 군사시설, 미군 기지를 주로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왔는데 지난해 봄 북한이 국 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하며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한

이들은 또 그동안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3백~7백km 중

의 사정 8백km의 단거리 미사일인 DF(東風)15로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10기정도 배치 미사일수는 10기정도라고 이들 군사소신들은 말했다.

단거리 미사일개발에 기술이전과 공중유도탄 등 지원은 해군 중공의 90년대들어 北京과 上海 등 주요도시의 도달할 수 있는 사정 1천~2천km의 「노동시리즈」 미사일개발의 추진을 기울이는 북한의 정찰의 적장은 불안감을 느껴 對北 미사일관련 현안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1994. 4. 12

北 미군관첩첩 제의

【서울=연합】13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北 미군관첩첩 제의를 갖고 11일 제의했다. 北 미군관첩첩사부소 북측 대표인 김성환은 남측 李俊求 수장앞으로 보낸 전화를 지문에서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韓美군사합의위원회 회의실의 2명의 韓軍관첩첩 제의를 「金鳳先기자」가 보도했다. <金鳳先기자>

▽경향신문 1994. 4. 13

「민족대회」접촉 거부 정부 어제 對北 전례

【서울=연합】12일 북한이 오는 8.15를 맞아 민족대회를 개최하자고 내용의 편지를 남측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13일 판문점에 서 北 북연락관 접촉을 갖자는 북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金鳳先기자>

▽경향신문 1994. 4. 12

北, 민족대회 소집제의

【서울=연합】북한이 11일 오후 8월 15일경 계기도 평양이나 서울에서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北측은 모택당기 위한 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정 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지난 해 金日成이 제시한 「전민족대회」 10대강령「관철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협의하는 가운데 楊亨燾의 「보고」를 통해 北 국정부와 각 정당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이같이 제의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1994. 4. 27

미정찰장기수 2명

北, 공화군구 전봉단

북한의 추성호 전심자회 중앙위원장은 26일 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앞으로 對南전봉단을 보내 金인서·咸世환씨 등 미정찰장기수 2명의 복송을 다시 촉구했다.

▽한겨레신문 1994. 4. 21

북핵 어떤제재도 반대

이대표 미 언론클럽 연설 일괄타결방식 해결 촉구

【워싱턴=김성호 기자】미국을 방문중인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20일 워싱턴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북한이 처한 상황과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북핵에 대한 제재조치는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대화

와 설득을 통한 개방만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조속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사찰을 수용하고 북-미간의 3단계회담에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일괄타결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미간의 통상

문제의 관련해 “한국으로서는 개방화시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과의 시장개방과 통상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마찰은 한국민들, 특히 전쟁을 겪지않은 청년세대들에게 미국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주고 있으며 한-미간의 전통적인 유대를 손상시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탈출, 귀순한 김만철씨(㉠) 일가족 5명이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로부터 장남 금룡군, 장녀 금주양, 몐씨, 몐씨부인 후옥금씨, 차남 은룡군. <金世九기자>

北韓 일가족 5명 귀순

어제 金浦공항에 입국 강전녀 탈출 홍콩 거쳐

사회안전부 대위 출신 김만철씨

지난 3월 중순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48) 일가족 5명이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 가족은 김만철(48), 장녀 금주양(18), 차남 은룡군(16), 몐씨(45), 몐씨부인 후옥금씨(45)로 구성된다. 김만철은 사회안전부 대위 출신으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만철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가족과 함께 올랐던 김만철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씨는 합동 도시정원사업소 유지원장을 지냈으며, 평壤시에서 근무했다. 김만철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3명 귀순

원자력공업부 작업반장 채탄공 형제

북한 원자력공업부 작업반장 채탄공 형제 3명이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채탄공(45), 그의 아내 김씨(45), 그리고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채탄공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원자력공업부 작업반장 채탄공 형제 3명이 30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채탄공(45), 그의 아내 김씨(45), 그리고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채탄공은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을 보며 탈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美에 對北특사파견 제안

金大中씨 워싱턴서 연설 金日成 訪美초청도

北核일괄타결방식 강조

【워싱턴=金英鎭특파원】과 미국의 원로정치인인 金大中(亞·태평화재단)이 특사로 내세워 북한과 중 日成을 미국에 초청할 것 行정부에 제안했다.

金이사장은 이날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의 초청한 오찬 모임에 연사로 나와 연설 하는 가운데 북한행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방

식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아시아권내 체면 을 중시하는 문화권인을 前제,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로서 를 평양에 보내는 너그러 운 제스처를 취했을 때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상당 히 수용했던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카터 前대통령 과 같은 원로정치인들 특 사로 보낼 것을 제안했 다.

金이사장은 이어 金日成이 지난날 미국 언론과 의 회견에서 미국을 방문 하고 싶다는사를 표시 한 만큼 미政府在 기회 를 놓치지 말고 金주석의 유엔총회참석이나 NPC 초청형태로 이를 실현 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金日成의 訪美는 한반도에서의 50년 전쟁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大中이사장은 이어 韓·美양국은 지금과 같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당장 北·美고위급회담을 열게 해 북한의 핵투명성 과 對韓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北·美가 수교하는 일괄타결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이사장 일문일답 요지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의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의 질의·응답 요지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미국 방문의사는 김 주석이 먼저 제기한 것이다. 그가 미국에 가까이 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 진심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연설에서 북한과 중국에 미국의 원로 정치인을 보낼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가장 적당한 원로 정치인으로 카터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북한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문을 원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보낸다면, 김일성 주석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대미 양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당신이 오늘 제안한 원로 정치인의 특사파견을 알고 있는가.
=미국 원로 정치인의 특사 파견은 미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김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김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기를 촉구해왔다. 나는 오래전에 북한의 방북 초청을 받았지만 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
-연설에서 전쟁 위기감을 높이는 일부 미국인들의 태도를 한

국민들이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해야 하는가.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조건이다. 핵투명성 보장과 이에 상응하는 국교 정상화 등의 일괄타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북한과 핵협상을 오래하면 할수록 미국과 한국은 그만큼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교차승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교차승인은 한국 쪽에서만

이뤄졌을 뿐 북한 쪽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승인은 결코 북한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북한에 많은 대사관 건물이 들어서고 수백명의 외교관과 많은 기업인·관광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 바로 그런 분위기가 북한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개방을 추구하는 제2의 중국으로 만들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게 되고 배가 부르면 웃게 된다. 바로 그

것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방안이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말했다. 미국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때로 너무 오만하게 행동했다고 믿는가.
=불행하게도 많은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때때로 지나치게 강압적이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친구들을 잃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핵협상 끝면 한·미 손해 배부르면 웃게돼...평화해결 지름길

北核 일괄타결 바람직

▽동아일보 1994. 5. 17

北, 휴전선선兵力 후방철수

美선 對北수교, '팀'훈련중지 제안

訪美 金大中씨 W.T紙 회견

【워싱턴 15일 워싱턴타임스】 미 국무장관인 김대중씨의 회견에서 미군은 북아시아 태평양연방재단이 한 핵무기개발 중단과

北美의 고관제 수를 맞바꾸는 일괄타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대중씨는 이날 워싱턴

타입스의 朱東文사장, 조세 트사이너 편집국장, 웨슬리 프루먼 주필과의 오찬을 겸한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괄타결방안의 실패할 경우 '우리의 이익을 위한' 제재에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확대에 동의하고 휴전선내에 배치된 공적용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며 이와 동시에 미국은 티스피리트 훈련을

그는 또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의 핵전력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며, 선제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大中씨 北核관련 발언

與國 對北정책 一線 守護 爲 要

美紙 회견 과정

金大中 아시아 태평양 연방 재단이 14일 미국 워싱턴타임스 신보와 가진 회견이 政界에 또다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북핵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해 "우리는 북핵을 한국 국사상으로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對北정책은 우선 북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씨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북핵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하며 "우리의 對北정책은 우선 북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씨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북핵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키로 내부방침을 결정, 통일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통일원의 김炯基 공동대표는 "금대중씨의 발언은 북한의 개인적인 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을 무의한 결과와 이사의 발언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金大中씨 회견요지

『北韓의 첫번째 목표는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美國과 외교관계를 갖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관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핵카드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金日成은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보다는 미국과의 대화에 더 열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클린턴행정부가 평양측의 핵무기소유를 맹세코 불허하겠다고 하고 있는 북한이 설사 두세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도 미국이 2만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 (워싱턴=南贊淳)

北核 2, 3개 가정해도 美 2만개 비해 의미없다

北側 北전선원 5월 16일 기미

亞大재단측 해명

한편 亞大재단은 16일 해명자료를 발표, 『북한이 2, 3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 보유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 보유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核저지 노력에 찬물 "비난"

金대중씨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은 북핵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핵을 한국 국사상으로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우리의 對北정책은 우선 북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키로 내부방침을 결정, 통일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했다.

과정을 무의한 결과와 이사의 발언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과정을 무의한 결과와 이사의 발언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亞大재단은 16일 해명자료를 발표, 『북한이 2, 3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 보유가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李載昊 朴濟均)

北核발언 왜곡 유감

DJ기자간담 일문일답

金大中 아태재단 이사장의 「정계복귀설」과 북핵은 26일 아침 동교동자 관련 발언 등에 대해 해택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명했다. 金 이사장은 이날 對與에서 약 30분간에 걸 金 이사장은 이날 對與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신 공세와 관련 「모종의 선



◇金大中 아태재단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을 빚은 북한 핵무기 실험의 발언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鄭漢植기자>

언을 할지 모를 다는 관 그의 대한 관심이 반영됐 속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동교동회의의 일부에 게, 차분한 어조로 자신 도 불구 橫順勉勵의 의원에 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을 비롯 10여명의 민주당 주안점을 두었다. 더 이상 의원이 이를 아첨부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원 찾아왔다. 金 이사장은 아침 8시

自評했다. 다들 기자들과의 일 무인답다. 『정부는 여당이 부패관련 발언을 왜곡했다고 했는데 그 말도 왜 그랬다고 보는가.』 『그것은 그분들에게 물어 어보라.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문체원) 위장

아직 金대통령만발의사 없어...정계복귀안해 黨인안떠나...영수회동인 자주 할수록 좋으리

그는 그러나 金 이사장 30분쯤 기자들의 질문을 에 대해 新새잡들이 제기 받게 앞서, 자신은 미 되고 있었다는 질문에 대 국에서 ▲북한의 핵보유 해서는 『답을 매도하는 는 절대 안된다』 ▲북핵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제 해결은 인발타결 방법 지를 알아야 한다고 다 밖이었다. ▲북핵이 6개 소출분하면서 과거 자신 국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 이 뛰어난 사적 고 단 축이라는 한류정부 정책 과정을 길게 회상하기도 을 지지해 달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訪美활동의 여 가 바뀌어도 정치참여를 안한다는 것인가.』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與野영수회담과 민주당 총무경선에 대한 입장』 『(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 을 만나는 것은 자주 할 수록 좋은 것이다. 당부 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무경선부 제에 관해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 적 도 없다.』 <許容範기자>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정치를 안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 개 협동제가 왜 거론되는지 또 그게 왜 나하고 결부 되는지를 모르겠다.』 『민중당 당원자격을 버 리고 떠날 의사는 없다.』 『내가 앞서 할 문제 다. 나는 민주당, 아당의 수십만동원 신세를 진 사 람이다. 민주당이 집권하 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 나 민주당이 내가 민주당 정할 문제다.』 그러나 중 요한 문제 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 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 상적으로 답을 모함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민주당부 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 이다.』

미국 언론클럽 김일성주석 초청

초청장 작성중...곧 북한에 전달

【워싱턴=정연주 특파원】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청장을 마련중에 있으며 며칠 안으로 이를 북한 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내셔널프레스클럽은 세계지도자들과 주요 관심인물들을 초청하는 클럽의 관례에 따라 김일성 주석도 초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 주석이 연설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가 방문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 북한-미국 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가 과연 사증을 발급해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이사장은 지난 12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미국 방문의사를 밝힌 김일성 주석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그의 워싱턴 방문은 한반도에 50년 동안 지속되어온 준전시상태를 종식시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이사장 발인 통일원 "유감"논평

이흥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미국에서 한 북한 핵문제 관련발언에 대해 17일 공식 논평을 내고 "정계원로인 김 이사장이 해외에서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6일까지만 해도 아태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개인발언이므로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통일원이 이날 이례적으로 정문의 논평을 내고 강도 높게 김 이사장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민자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 진의가 언론을 통해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는데도 정부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전제로 이를 전체 맥락과 분리해 강도 높게 비난함에 따라 새로운 파문이 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의 이날 논평은 김 이사장이 김 주석의 방미 초청과 카터 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 제의를 "북한에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구실을 주거나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을 오히려 방해하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김 이사장이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도 별문제가 안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이사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측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그다지 쓸모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민의 노력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강태호 기자

16일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 초청에 의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미 워싱턴에 방문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金日成訪美」 실현될까

수교관철위해 「결단」가능성도 美정부 비자발급 여부도 주목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C 초청 계기 관심 집중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NPC 초청을 계기로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NPC가 주최하는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金日成 초청, 비자발급과 별개」

「NPC 제의」美정부 시각

【워싱턴 17일路透기자】金日成을 초청하겠다는 내 중 亞大평화재단 이사장 金日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PC 초청과는 별개 가 워싱턴 정가에서 자진 아들의 이를 구체화한 것 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美 정부는 NPC 제의 첫 문장 金日成의 「제」에 있다. 한 마디로 넉넉스라 美를 심사시키는 방법으로 (suggestion)에 따라 金는 반응이다.

향한다고 말했다. NPC 측은 그전에 쿠바의 카스트로와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의 장에게도 여러 차례 초청장을 보냈으나 비자를 얻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고 설명했다.

美 정부는 민간단체인 NPC가 金日成을 초청하자 로 초빙하는 일에 이따라 저러라 관여할 수는 없다

있다. 金日成이 NPC 초 청장을 갖고 비자를 신청 한다고 해서 미국이 받아 줄 리는 많지 않다는 것이 다.

또 金日成이 유엔 회원 국 지도자 자격으로 비자 신청을 해도 미국은 현재 로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유엔 회원국 국가원 수가 총회 연설을 하러 오 겠다면 미국은 일단 비자

일단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 낸 국제 저명 인사였다. 미 국은 그러나 유엔 총회 연 설차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그의 일류비자 신청을 거 부했다. 미국은 나치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발트하 임 개인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金日成의 경우는 비자 발급이 차치하고 그가 유 엔 총회에 참석할 자격 조 차 미국이 부여할 수 있다 는 제한 의 고소신들의 분 석이다. 미국이 한 마디로 金日成의 訪美는 현재로서 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하 나. 아이다이 차원에 불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金日成의 訪 美 초청 얘기가 나왔고 NPC가 초청장을 보내겠다 고 발표한 것이 북한 핵문 제가 아주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시기에 나와 공연 히 金日成의 「聲價」를 높 여줘 「유판」을 채택하자 나 양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카스트로등 거부 전례... 실험성 희박 北核 중대국면에 「誤判 초래」 우려도

美정부의 초청, 유엔 총회 日成을 위한 연설에 초대 참석, NPC 초청 등 세 가지 제시했다. 金日成은 NPC 초청을 받아 17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NPC 측은 18일 새벽(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조성의 한 방 법으로 내 놓은 다수결 안 이다. 유엔 총회에서는 16 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의 제, 金日成의 비자 신청

美 정부도 金日成에게 초 청장을 보낸다고 해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 는 것 같다. NPC 성명서 는 「美정부는 대 해 金日成에게 비자를 내 주 도록 영장을 미치라는 것 은 아니며 영사의 유일할 다. 게다가 핵개발 의혹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어 미 국이 북한 핵 해결을 대의 前오스트리아 대표들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발트하

美 정부도 金日成에게 초 청장을 보낸다고 해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 는 것 같다. NPC 성명서 는 「美정부는 대 해 金日成에게 비자를 내 주 도록 영장을 미치라는 것 은 아니며 영사의 유일할 다. 게다가 핵개발 의혹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어 미 국이 북한 핵 해결을 대의 前오스트리아 대표들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발트하

美 정부도 金日成에게 초 청장을 보낸다고 해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 는 것 같다. NPC 성명서 는 「美정부는 대 해 金日成에게 비자를 내 주 도록 영장을 미치라는 것 은 아니며 영사의 유일할 다. 게다가 핵개발 의혹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어 미 국이 북한 핵 해결을 대의 前오스트리아 대표들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발트하

中國, 정전위대표 철수 거부

北韓 요청에 "협정 아직 폐지 안됐다"

【北京=특파원】북한이 최근 군사정전위원회에 이의 반대하는 중국측과 협정 체결을 요청하면서, 북정부는 "협정 체결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북정부는 또 "북한은 협정 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북한은 협정 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정부는 또 "북한은 협정 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일성 訪美 관련 이뤄질까

NPC 초청제가 가능성 주목

과연 金日成의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까. 워싱턴에 있는 한 소식통은 "대중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재단 이사장이자 NPC의 부위원장인 송일성의 미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일성은 NPC의 부위원장으로, 미국의 초청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일성은 NPC의 부위원장으로, 미국의 초청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現상황선 美비자발급 기대어려워

成事 관계없이 상징적 의미 강해 관심 끌여

말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워싱턴을 방문한 NPC의 길바닥에 있는 전 세계인들은 송일성의 미국 방문을 기대고 있다. 송일성의 미국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일성의 미국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정부는 송일성의 미국 방문을 기대고 있다. 송일성의 미국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일성의 미국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北군사개입」條項 폐기될듯

金대통령訪러 때 러시아北에 개정草案 제시

【모스크바 23일路透】대통령 김대중은 2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정통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한 뒤 푸틴에게 개정된 「러북군사개입」 조항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푸틴에게 개정된 「러북군사개입」 조항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푸틴에게 개정된 「러북군사개입」 조항을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3일 모스크바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 "6.25는南侵" TV방영

韓國戰내막 첫 보도 金日成·스탈린·毛澤東 공모

엘친, 金대통령 러시아 방문 때 자료 전달 예정

【모스크바 23일路透】러시아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방영된 내용은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3일 모스크바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950년8월5일 金日成 스탈린 6.25南侵 첫 협의

극비 자료·필름 러서 TV방영

【모스크바 23일路透】러시아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방영된 내용은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쟁하루前 평화로운 서울모습도 공개, 北侵허구성 지적

【모스크바 23일路透】러시아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방영된 내용은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방영된 내용은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러시아 최대 국영 TV 오스탐키노는 21일 한국전쟁 발발 및 중공군 참전내막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 필름을 처음으로 방영했다. <中央日報 19일 4면 참조> 이날 오후 30분간 진행된 방송에서 한국전쟁 연구 권위자인 드미트리 볼로고노프 대장(러시아하원의원 겸 국가문서관리위원장)이 진행자로 출연해 스탈린 개인문서고등에 보관된 극비 전쟁자료를 직접 공개해가면서 북한의 남침 사실을 설명했다.

이날 방영된 내용은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스탈린노는 21일 한국전쟁에 관한 쿠비자료와 기록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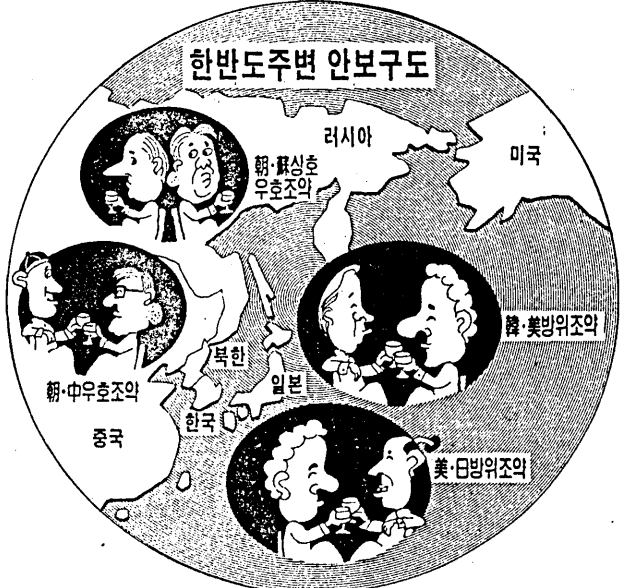


그림 : 張甲鎭기자

러, 한국 안보리 진출 지지

엘친, 金대통령과 회담때 공식선명

러시아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조급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조급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조급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친은 "한국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外交 "南北 등거리"

朝·蘇방위조약 폐기 방침이 뜻하는 것

러시아가 金대통령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반도 주변 안보구도 시각변동 예상 韓國선 바라되 北韓 고립 가속화 전망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蘇聯을 탈출한 蘇聯을 방문한 서기장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사과의 제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6월 초로 예정된 6월 6일 蘇聯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민족 대화합 선언일

2차 서울 정상회담 꼭 열려야



◇李善재 대표

李善재 대표가 1일 남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종임시대의 무를 여는 해줄기를 양 정상에 촉구한다"며 제2차 정상회담

은 반드시 열려야 하며 장 소급 상 황후의 의 일각해 서울의 평화와 단결을 지향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종임시대의 무를 여는 해줄기를 양 정상에 촉구한다"며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종임시대의 무를 여는 해줄기를 양 정상에 촉구한다"며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와 양 당사이에 분담해야 한다"며 "조철한 시기에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쁘다"고 자신의 訪北의 사를 거듭 밝혔다.

〈李在昌기자〉

李善재 民主代表 記者 會 演 說 要 旨

李善재 대표가 1일 남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종임시대의 무를 여는 해줄기를 양 정상에 촉구한다"며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종임시대의 무를 여는 해줄기를 양 정상에 촉구한다"며 제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정없는 WTO국회비준 반대 統一 위해 諸民主세력 결집 시급

정무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尙武黨과 정조사의 파행과 정당의 노저히 부파할

수정없는 WTO국회비준 반대... 統一 위해 諸民主세력 결집 시급... 정무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尙武黨과 정조사의 파행과 정당의 노저히 부파할



◇나폴리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클린턴 美대통령이 9일 경제회담을 마친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나폴리=AP종합>

美도 北도 단절 원치않는다

클린턴회견 일문일답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9일 나폴리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北核협상 추진의사 밝힌전 고무적인일 초청장 보내면 조문사절단 파견하겠다

△나폴리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친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와 관련해 몇가지 확실한 내용을 밝힌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한 새로운 개방의 순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후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지금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그리고 김대중이 사담 후세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단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附 錄

남북관계 주요일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94. 4. 1-7.11)

1994. 4. 1 외무부 대변인, 'UN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관련 성명
-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해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즉각 호응해 올 것을 촉구
4. 4 북한 외교부 대변인, 'UN안보리 의장성명' 관련 성명
4. 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4. 6~8) 개최
4. 7 김영삼 대통령,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 지시
- 북핵문제 대책 및 안보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총리' 중심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구성
4. 7 미 클린턴 대통령, 북핵문제 관련 '고위정책조정팀' 구성 지시
- '의장' 겸 '북한 핵문제 전담대사' 갈루치 차관보 임명
- 4.11 북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개최 및 '8.15 민족대회' 개최 제의 대남 편지
- 4.12 통일원 대변인, '8.15 민족대회' 관련 성명
- '범민족대회'의 재판인 또다른 형태의 통일전선전술 기도에 대해 유감 표명
- 4.15 정부, 「4.15 조치」 발표
- 특사교환 불추진 및 북한 벌목공 망명 허용 결정
- 4.19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대리 대남전통문
-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요구
- 4.20 북한 「범민련」 북측본부 백인준 의장 대남전통문
- 문익환 목사 백일추모제에 북측 대표단 파견
- 4.22 강영훈 한적총재, 비전향 출소자 송환 요구 관련 대북전통문
- 4.22 IAEA,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 입회 요청 수락
- 4.26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대리 대남전통문
- 비전향 출소자 김인서·함세환 송환 재촉구
- 4.27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대리 대남전통문
- 빨치산 출신 출소자 김병주의 딸 김지현 북송 요구
- 4.28 미·북한 실무접촉(뉴욕)
- 4.28 북한, 군정위(MAC) 일방 철수 통보
- 4.30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취임 기자회견
- 국민 신뢰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 추진 방침

- 5. 3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성명
 -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
- 5. 7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북한이 IAEA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동참
- 5. 9 강영훈 한적총재,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사
 - 노부모방문단 조기실현 및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5. 9 미·북한 실무접촉(뉴욕)
- 5.12 미·북한 실무접촉(뉴욕)
- 5.1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북핵문제와 벌목공 수용 대책 논의
- 5.14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연료봉 교체시작 관련 기자회견
- 5.14 외무부 대변인, 북한 핵연료봉 교체 시작 관련 논평
- 5.17 IAEA 사찰단, 평양도착
- 5.18 북한 벌목공 5명 서울 도착
- 5.18 북한 박명철 올림픽위원장,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불참 표명
- 5.18 IAEA 사찰단, 사찰활동 개시(5.18~25)
- 5.19 북한 적십자회 이성호 위원장대리 대남전통문
 - 김인서·함세환 및 김지현 송환 재촉구
- 5.21 북한 「조평통」 서기국, 귀순 북한 벌목공 송환 요구 대남전통문
- 5.21 통일원 대변인, 북한 벌목공 송환 요구 관련 논평
 - 벌목공들이 자유와 복지를 찾아 스스로 귀순해온 만큼 남치 운운하며 시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5.23 미·북한 비공식 실무접촉(뉴욕)
- 5.24 IAEA 협상대표단, 핵연료봉 교체 입회 협상차 평양 도착
 - 북한·IAEA, 핵연료봉 교체문제 관련 실무협상(5.25~27) 개최
- 5.24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통보
- 5.25 북한 「조평통」 백남준 서기국장 대남전통문
 - 민족대회 소집제의 호응 촉구
- 5.26 미·북한 실무접촉(뉴욕)
- 5.26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 준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

- 5.27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민족대회 소집촉구 대남전통문 관련 논평
- 5.28 IAEA, 북한과의 핵연료봉 교체문제 협상결렬 발표
- 5.30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 5.30 UN안보리,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의장성명」 채택
- 6. 1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6. 1~2) 개최
- 6. 2 한·러 정상 「공동선언」 채택
 -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선언
- 6. 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IAEA의 핵연료봉 추후 계측 불가능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 논의
- 6. 3 미·북 회담 강석주 북측 대표, 미국의 대북제재 추진관련 담화
- 6. 4 이승곤 남북핵통제공동위 위원장, 강석주 담화 관련 대북성명
 - 북한의 일방적인 연료봉 교체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근본적인 파괴 행위
- 6. 6 IAEA 정기이사회 개막(빈)
- 6. 8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대비태세 점검
- 6.10 IAEA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찬성 28, 반대 1, 기권 4)
- 6.11 외무부 대변인, IAEA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
- 6.13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 탈퇴 성명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IAEA 탈퇴 결정을 미국에 공식 통보
- 6.13 카터, 북한방문 위해 서울도착
- 6.14 IAEA, 북한의 IAEA 탈퇴 선언 관련 성명
- 6.14 외무부 대변인, 북한 IAEA 탈퇴 관련 성명
 -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사찰수락을 강력히 촉구
- 6.14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 6.15 카터, 판문점 통해 방북(6.15~18)
- 6.16 김일성·카터 회담(주석궁)
 - 북한 김일성, 핵개발 동결 용의 표명
- 6.17 김일성·카터 2차회담(김일성 전용 요트)
- 6.18 김영삼 대통령, 카터 면담시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수락 표명

- 6.20 이영덕 국무총리 대북전통문,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제의
- 6.22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대남전통문,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동의
- 6.22 미 클린턴 대통령, 미·북한 3단계회담 재개 발표
- 6.23 이영덕 국무총리 대북전통문, 예비접촉 남측대표 명단 통보
 - 수석대표 : 이흥구, 대표 : 정종욱·윤여준
- 6.2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 정상회담 예비접촉 대책방향 협의 및 대표단 구성문제 논의
- 6.24 미·북한 실무접촉(뉴욕)
- 6.25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대남전통문, 예비접촉 북측대표 명단 통보
 - 단장 : 김용순, 대표 : 안병수·백남준
- 6.28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개최 : 판문점 「평화의 집」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채택('94. 7.25~27 평양 개최)
- 7. 1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판문점 『통일각』
 - 남측대표 : 윤여준, 구본태, 엄익준
 - 북측대표 : 백남준, 최승철, 최성익
- 7. 2 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 판문점 『평화의 집』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채택
- 7. 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 판문점 『평화의 집』
- 7. 8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 : 판문점 『통일각』
- 7. 8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 참석
- 7. 9 북한, 김일성 사망 발표('94. 7. 8, 02 : 00 사망)
- 7. 9 김영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김일성 사망에 따른 대책논의
- 7. 9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 7.10 서방선진 7개국(G7), 북핵 투명성 보장촉구 성명
- 7.11 북한,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